정답과 해설

채움

현대산문

Ⅰ. 소설_내면, 인생 4

Ⅱ. 소설_농촌, 도시 42

Ⅲ. 소설_사회, 세태 80

Ⅳ. 소설_전쟁, 역사 117

Ⅴ. 소설_예술, 전통 145

Ⅵ. 극·복합 166

빠른 정답 찾기

Ⅰ 소설_내면, 인생

본문 16~55쪽

01	001 ② 002 (1) ○ (2) × (3) × 003 ④ 004 ② 005 ③ 006 ③ 007 ② 008 ㄱ, ㄷ 009 ① 010 ② 011 (1) 어른들 (2) 아이들 012 ⑤
02	013 ② 014 ① 015 ③ 016 ⑤ 017 (1) 핏빛 (2) 노을빛 (3) 무지갯빛 018 ② 019 ① 020 (1) ○ (2) × (3) ○ 021 ③
03	022 ② 023 ① 024 ⑤ 025 ④ 026 (1) ○ (2) × (3) ○ 027 ⑤ 028 ④ 029 ㄴ, ㄷ 030 ⑤
04	031 ② 032 (1) × (2) × (3) ○ 033 ① 034 ② 035 ㄱ, ㄴ 036 ① 037 ② 038 (1) 억울함 (2) 절름발이 (3) 날개 039 ④
05	040 ⑤ 041 ㄴ, ㄷ 042 ② 043 ② 044 (1) ○ (2) ○ (3) × 045 ⑤ 046 ④ 047 ③ 048 ③
06	049 ② 050 안, 기범, 1인칭 관찰자 051 ② 052 ④ 053 (1) 미심쩍게 (2) 선한 054 ⑤ 055 ⑤ 056 (1) ○ (2) × (3) × 057 ⑤
07	058 ④ 059 ③ 060 ⑤ 061 ③ 062 (1) ○ (2) × (3) × 063 ④ 064 ⑤ 065 (1) 우산 (2)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 (3) 김달채 066 ③
08	067 ① 068 ㄱ, ㄴ 069 ③ 070 ③ 071 (1) ○ (2) × (3) × 072 ② 073 ③ 074 (1) 수용하여 (2) 소극적 075 ④
09	076 ⑤ 077 (1) × (2) × (3) × 078 ① 079 ② 080 ① 081 ③ 082 ③ 083 ① 084 ②
10	085 ⑤ 086 ㄱ, ㄴ 087 ⑤ 088 ⑤ 089 ③ 090 ③ 091 ③ 092 (1) × (2) × (3) ○ 093 ④

Ⅱ 소설_농촌, 도시

본문 58~101쪽

11	094 ② 095 ㄱ, ㄴ, ㄷ 096 ⑤ 097 ① 098 ① 099 ② 100 ⑤ 101 ③ 102 ④ 103 ④ 104 (1) × (2) ○ (3) ×
12	105 ⑤ 106 ② 107 ② 108 ② 109 (1) ○ (2) ○ (3) × 110 ④ 111 ⑤ 112 ② 113 ③
13	114 ① 115 ㄱ, ㄴ 116 ④ 117 ② 118 (1) ○ (2) ○ (3) × 119 ② 120 ② 121 (1) × (2) × (3) ○ 122 ③
14	123 ① 124 ㄱ, ㄷ 125 ① 126 ③ 127 ① 128 ⑤ 129 ③ 130 (1) ○ (2) × (3) ○ 131 ③
15	132 ③ 133 ① 134 ② 135 ① 136 (1) 부채 (2) 경운기 (3) 이장 137 ① 138 ① 139 (1) × (2) ○ (3) × 140 ③ 141 ③ 142 ④
16	143 ⑤ 144 (1) × (2) ○ (3) × 145 ⑤ 146 ③ 147 ㄱ, ㄹ 148 ② 149 ② 150 ③ 151 ①
17	152 ⑤ 153 (1) ○ (2) × (3) × 154 ③ 155 ② 156 ③ 157 ② 158 ⑤ 159 ㄱ, ㄴ 160 ③
18	161 ② 162 ② 163 ④ 164 ② 165 (1) × (2) × (3) ○ 166 ② 167 ④ 168 ② 169 ④ 170 ③ 171 ㄴ
19	172 ⑤ 173 밖, 송 노인 174 ② 175 ④ 176 ③ 177 ④ 178 ③ 179 (1) ○ (2) × (3) ○ 180 ⑤
20	181 ① 182 (1) 외부 (2) 암울한 (3) 막막한 183 ④ 184 ⑤ 185 ① 186 ② 187 ⑤ 188 (1) ○ (2) × (3) ○ 189 ④
21	190 ② 191 (1) × (2) ○ (3) ○ 192 ④ 193 ② 194 ① 195 ③ 196 ② 197 ③

Ⅲ 소설_사회, 세태

본문 104~147쪽

22	198 ② 199 (1) ○ (2) × (3) × 200 ③ 201 ⑤ 202 ② 203 ⑤ 204 ③ 205 ㄱ, ㄷ 206 ⑤
23	207 ① 208 ② 209 ⑤ 210 ③ 211 (1) ○ (2) × (3) × 212 ③ 213 ⑤ 214 (1) 상훈 (2) 덕기 (3) 창훈 215 ⑤ 216 ③ 217 ②
24	218 ⑤ 219 (1) × (2) ○ (3) × 220 ③ 221 ④ 222 (1) 화전 (2) 범죄 (3) 함정 223 ④ 224 ① 225 ② 226 ④
25	227 ③ 228 ② 229 ⑤ 230 ③ 231 (1) ○ (2) ○ (3) × 232 ③ 233 ② 234 (1) 이익 (2) 불쾌함 (3) 방삼복 235 ②
26	236 ⑤ 237 ③ 238 ⑤ 239 ⑤ 240 (1) × (2) ○ (3) ○ 241 ③ 242 ⑤ 243 (1) 부사장과 사모님 (2) 가진 자 (3) 생존 244 ③
27	245 ③ 246 (1) 서 참위 (2) 안 초시 (3) 박희완 영감 247 ① 248 ④ 249 (1) ○ (2) × (3) × 250 ④ 251 ⑤ 252 ① 253 ①
28	254 ② 255 ① 256 ① 257 ⑤ 258 ㄱ, ㄴ 259 ② 260 ④ 261 (1) 작은 권력 (2) 도취 (3) 횡포 262 ④
29	263 ⑤ 264 ② 265 ③ 266 ⑤ 267 (1) ○ (2) × (3) ○ 268 ① 269 ③ 270 ㄱ, ㄷ 271 ③
30	272 ⑤ 273 ㄱ, ㄷ 274 ③ 275 ④ 276 (1) ○ (2) ○ (3) × 277 ③ 278 ③ 279 ② 280 ② 281 ③ 282 ②
31	283 ③ 284 ① 285 ⑤ 286 ③ 287 ㄱ, ㄷ 288 ② 289 ④ 290 (1) × (2) × (3) ○ 291 ④
32	292 ③ 293 ㄱ, ㄴ 294 ③ 295 ⑤ 296 (1) ○ (2) × (3) × 297 ③ 298 (1) 법 (2) 내적 갈등 (3) 물질 만능주의 299 ④

Ⅳ 소설_전쟁, 역사

본문 150~177쪽

33	**300** ⑤ **301** ㄴ, ㄷ **302** ① **303** ② **304** (1) 담증, 형의 걸음걸이 (2) 눈물 **305** ③ **306** ⑤ **307** (1) × (2) × (3) ○ **308** ④ **309** ④ **310** (1) 형 (2) 경비병
34	**311** ③ **312** ㄱ, ㄷ **313** ② **314** ④ **315** (1) 돌아보게 (2) 이입 **316** ⑤ **317** ⑤ **318** (1) ○ (2) × **319** ③ **320** (1) 삶의 광장 (2) 푸른 광장 **321** ①
35	**322** ③ **323** ㄱ, ㄴ **324** ③ **325** ② **326** (1) ○ (2) × **327** ④ **328** (1) × (2) × (3) ○ **329** ⑤ **330** ③ **331** (1) 뒤죽박죽 (2) 시적시적 **332** ③
36	**333** ② **334** (1) × (2) ○ (3) × **335** ② **336** ② **337** ㄴ **338** ⑤ **339** ⑤ **340** (1) 생명 (2) 억압 **341** ⑤
37	**342** ① **343** (1) × (2) ○ (3) × **344** ① **345** ③ **346** ③ **347** ① **348** ② **349** (1) 아버지, 어머니 (2) 철사 줄 (3) 전쟁 **350** ④
38	**351** ① **352** (1) ○ (2) × **353** ① **354** ① **355** ㄱ, ㄷ **356** ③ **357** ⑤ **358** (1) ⓐ (2) ⓒ **359** ① **360** ③ **361** (1) 분단 (2) 가부장
39	**362** ③ **363** (1) ○ (2) ○ (3) × **364** ⑤ **365** ② **366** ㄴ **367** ⑤ **368** ③ **369** ㄷ, ㅁ, ㅂ **370** ①

Ⅴ 소설_예술, 전통

본문 180~199쪽

40	**371** ① **372** (1) ○ (2) × (3) × **373** ⑤ **374** ⑤ **375** ㄷ, ㄹ **376** ④ **377** ⑤ **378** (1) 아사달, 주만 (2) [자료 2] (3) 아사달 **379** ⑤
41	**380** ③ **381**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382** ④ **383** ③ **384** (1) × (2) ○ (3) × **385** ② **386** ① **387** (1) 시냇물 (2) 거문고, 노래 **388** ④ **389** ④ **390** ㄴ, ㄹ
42	**391** ② **392** (1) 민 노인 (2) 송 여사, 성규 **393** ③ **394** ⑤ **395** (1) 집 (2) 춤 (3) 춤 (4) 집 **396** ④ **397** ⑤ **398** (1) ○ (2) ○ (3) × (4) × (5) ○ (6) ○ (7) × (8) × **399** ② **400** ③
43	**401** ③ **402** (1) ○ (2) × (3) × **403** ① **404** ① **405** ㄱ, ㄴ **406** ③ **407** ④ **408** (1) 운명적 (2) 추구 (3) 예술가 **409** ①
44	**410** ⑤ **411** (1) × (2) × (3) ○ **412** ⑤ **413** ④ **414** ㄴ **415** ⑤ **416** ⑤ **417** (1) 방 한 칸 (2) 치열성 **418** ③

Ⅵ 극·복합

본문 202~237쪽

45	**419** ③ **420** (1) 남매 (2) 분 어미 (3) 침착 **421** ① **422** ② **423** (1) ○ (2) × **424** ① **425** ④ **426** ㄴ, ㄹ **427** ⑤ **428** ②
46	**429** ③ **430** (1) × (2) × (3) ○ **431** ⑤ **432** ② **433** ① **434** ④ **435** ④ **436** (1) 동학 농민 운동 (2) 동일성 (3) 외할아버지 **437** ④
47	**438** ③ **439** (1) ○ (2) × (3) ○ **440** ④ **441** ⑤ **442** ⑤ **443** ⑤ **444** ③ **445** (1) × (2) ○ (3) ○ **446** ⑤ **447** ⑤
48	**448** ② **449** (1) × (2) × (3) ○ (4) ○ **450** ⑤ **451** ④ **452** ㄴ, ㄹ **453** ③ **454** (1) 재산 (2) 도전 (3) 세대교체 **455** ②
49	**456** ③ **457** (1) ○ (2) × (3) × **458** ④ **459** ⑤ **460** ㄱ, ㄴ **461** ② **462** ⑤ **463** (1) ○ (2) ○ (3) × **464** ④
50	**465** ① **466** ㄱ, ㄴ **467** ⑤ **468** ⑤ **469** (1) ○ (2) × (3) ○ **470** ⑤ **471** ④ **472** (1) × (2) × **473** ③
51	**474** ② **475** (1) ○ (2) × (3) ○ **476** ② **477** ② **478** (1) × (2) ○ **479** ⑤ **480** ④ **481** ③ **482** ⑤ **483** ① **484** ④
52	**485** ② **486** (1) ○ (2) × (3) × **487** ④ **488** ② **489** ㄱ, ㄷ **490** ④ **491** ④ **492** (1) ○ (2) ○ (3) × **493** ⑤
53	**494** ⑤ **495** ㄱ, ㄴ **496** ① **497** ① **498** (1) × (2) × (3) × **499** ④ **500** ② **501** (1) 취직 (2) 골목 (3) 시시한 동네 **502** ⑤ **503** (1) × (2) ○ (3) ○ **504** ③

I 소설_내면, 인생

01 옛 우물

작품 분석 본문 16~19쪽

작가 오정희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삶(생명)과 죽음, 인간의 정체성 등에 대한 성찰
특징 ①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체를 사용함.
②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성을 전달함.
단숨에 읽기 은행원인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나'는 생일날 아침,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을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찻집에 들러 그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에 관해 떠올리다가 앓는 사람과 마주친다. 남편에게서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자는 말을 들은 '나'는 그 집 골목에 있던 연당집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하게 된 '나'는 어린 시절 목격했던 탄생과 죽음의 공간인 '옛 우물'을 떠올린다. '옛 우물'은 출생한 아이를 씻기기 위한 물을 제공하며, 상상 속 금빛 잉어가 사는 신성한 생명의 공간인 동시에, 동네 염쟁이의 딸 정옥이가 빠져 죽은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우물을 통해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것임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 낸다.

한 줄 요약
❶ 어린 시절 '나'는 증조할머니로부터 (**옛 우물**)과 그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음.
❷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옥이**)는 금빛 잉어 이야기를 믿어 줌.
❸ 장마 이후 우물을 치던 날 '나'와 정옥이는 우물 속에서 (**금빛 잉어**)를 보지 못했지만, 물이 고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

00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주체**: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 **조성**: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듦.
- **자의식**: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하여 깨닫는 일.

정·정·이

② 과거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던 오래된 옛 우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금빛 잉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증조할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우물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금빛 잉어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했던 아이들의 반응과 정옥이가 '나'에게 보여 주었던 믿음, 장마가 지난 후 마을의 어른들이 우물을 쳤던 일 등)을 회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이 글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옛 우물에는 ~ 하늘에 올라가지.'와 같이 인물의 말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서술의 주체를 교체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글에서 서술의 주체는 일관되게 '나'로 나타나며,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정옥이, 증조할머니, 어머니, 순옥이 삼촌 등 인물의 성격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헛짚기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자의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고 있으나, 자의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오 지름길
③ 서술의 주체를 교체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건을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고 내내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니, 서술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0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서술자는 어린 시절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 ×)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있던 오래된 우물을 떠올리며 그 우물에 관련된 인물과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다.

(2) 부재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 ×)
001번-③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해한다.

(3) 부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이 글은 주로 '나'의 서술로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0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회**: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속속들이**: 깊은 속까지 샅샅이.

정·정·이

④ 서술자가 전해 들은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A]에서 서술자인 '나'는 증조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옛 우물과 금빛 잉어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 '옛 우물'이라는 이름의 뜻,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는 어머니의 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유년기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증조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유년기를 감회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속속들이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 이야기 속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속속들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상반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객관적인~~ 주관적인 시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부재 ~~다양한 인물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00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나'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고 여겼으며, 노망든 노인이 오래 산다는 속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는 노망든 다른 노인들과 증조할머니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며, 증조할머니가 말해 준 금빛 잉어 이야기를 믿었다. 이로 보아 '나'는 증조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고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그해 여름 장마' 때문에 수재민이 학교에 머물렀다.

그해의 대단했던 장마로 인해 학교는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어 휴교를 하게 되었다.

③ '어른들'은 장마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길까 걱정했다.

어른들은 장마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릴까 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둑이 무너지면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④ '순옥이 삼촌'은 우물을 나온 후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우물을 치러 우물 속으로 들어갔던 순옥이 삼촌은 일을 끝낸 후 우물에서 나와서 영문 모를 웃음을 터뜨렸다.

⑤ '옛 우물'이라는 이름은 우물이 지닌 특성보다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붙여졌다.

우물은 물맛이 달아 단샘, 커다랗다고 해서 한우물이라고도 했지만, 사람들은 예부터의 습관에 따라 '옛 우물'이라고 불렀다. 물맛이 달거나 커다랗다는 우물의 특성보다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옛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0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그해 여름 장마'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고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다.

'그해 여름 장마'는 대단해서 학교는 수재민들의 숙소가 되어 휴교 상태였고, 누런 물이 범람하는 강은 벌판 같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나'는 '증조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증조할머니에게 검은 머리털과 이가 나는 것을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가 광자네 할머니나 오돌이네 할아버지처럼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망이 들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② 사건 왜곡 '어른들'은 장마가 ~~오기 전에 변고를 막기 위해~~ 우물을 쳤다.

'그해 여름 장마'가 지나고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에 우물을 쳤다고 하였다.

0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검은 머리털이 돋아나고

아흔 살이 넘은 할머니에게서 검은 머리털이 돋아나자 어머니는 이를 불길한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

㉱ 장맛이 변한다

어른들은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믿었다.

오·오·이

㉯ 헛짚기 ~~고양이 혼이 씌어~~

광자네 할머니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쥐를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고양이 혼이 씌었다고 본 것일 뿐이다. 이를 불길한 일의 징조라고 볼 근거는 없다.

㉰ 헛짚기 ~~두레박을 빠뜨리면~~

아이들이 우물에 두레박을 빠뜨리면 야단을 맞은 것은 두레박을 빠뜨린 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두레박을 빠뜨린 것을 불길한 일의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

0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롯되었다**: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비합리적**: 정당한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상반 '증조할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태도는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어머니는 증조할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나'는 '옛 우물'에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는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믿고 있다.

오·오·이

① '나'에게 '옛 우물'은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믿음은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증조할머니는 '나'에게 '옛 우물'에는 금빛 잉어가 살고 있으며 긴 시간이 지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옛 우물'에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③ '아이들'에게 '옛 우물'은 고달픔을 주는 공간으로, 이는 물을 길어야 했던 의무에서 비롯한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놓아야 했는데, 물을 긷다가 우물에 두레박을 빠뜨리면 혼이 났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옛 우물'은 고달픔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어른들'이 '옛 우물'을 '큰일', '변고'와 관련지어 바라본다는 점에서, '옛 우물'은 비합리적 믿음의 대상이다.

어른들은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나고 뒤집힌 물맛을 바로잡기 위해 날을 잡아 고사를 지낸 다음 우물을 쳤다. 이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정옥'은 '나'를 비난하는 아이들과 달리 '나'의 편을 들며, '옛 우물'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지해 주었다.

아이들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나'를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했지만 정옥이만은 그 말을 믿어 주었다. 그리고 물이 빠진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도 맑은 물이 고이면 금빛 잉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나'의 믿음을 지지해 주었다.

008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마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옛 우물'은 '나'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옛날부터 있어 온 우물로, 마을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우물에서 얻었으며 장마로 물맛이 변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쳤다. 이를 통해 '옛 우물'이 마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ㄷ. 어른들은 큰일이 있을 때 물맛이 변한다고 믿었다.

어른들은 가뭄이나 큰 홍수 따위 큰일이나 나라의 변고가 있을라치면 우물이 뒤집히고 장맛이 변한다고 믿었다.

오·오·이

ㄴ. 사건 왜곡 소원을 들어주는 금빛 잉어가 ~~줄곧 살고 있다.~~

'나'는 증조할머니로부터 우물 속에 사는 금빛 잉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실제로 살고 있으리라 믿었고, '나'의 말을 들은 정옥이도 그 잉어가 '소원을 들어주는 잉어'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우물을 친 날 우물 속에 금빛 잉어는 없었으므로 우물에 금빛 잉어가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00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동**: 약간 움직임.

정·정·이

① 우물 속을 비운 후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순옥이 삼촌이 우물에 내려가 청소를 한 후, '나'와 정옥이는 텅 빈 우물을 들여다보았지만 끝내 금빛 잉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오·이

② 교체 용으로 변하여 ~~우물을 치킨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전설이 있었다.

증조할머니는 우물의 금빛 잉어가 이무기를 거쳐 용이 되면 하늘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③ 사건 왜곡 달빛이 우물을 비출 때 ~~외예는 미동하지~~ 않았다.

금빛 잉어가 있다고 믿는 '나'가 달빛 가득한 우물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금빛 잉어가 그때 움직였다는 것은 아니다.

④ 사건 왜곡 ~~우물물의 맛을 변하게 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우물의 물맛이 뒤집힌다는 내용은 있지만, 우물의 물맛은 금빛 잉어와는 관련이 없다.

⑤ 사건 왜곡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린 아이들은 그 존재를 ~~믿었다~~.

정옥이를 제외한 아이들은 우물 속에 금빛 잉어가 산다는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01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장마로 인한 사람들의 비일상적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그해 여름 장마'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자 아이들은 강가에서 악을 쓰며 노래를 했고, 어른들은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건지기 위해 긴 장대와 망태를 들고 강으로 나갔다. 즉 ㉡은 장마로 인해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우물에 대한 ~~친구들과의 추억~~에서 비롯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의 느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는 것은 우물 속에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나 두려움 때문이지, 친구들과의 추억과는 관련이 없다.

③ 사건 왜곡 ㉢: 큰물이 다 ~~빠져나간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은 장마로 인해 강물이 불어 강 건너편 섬이 나무 위쪽 일부만 보일 정도로 물에 잠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④ 교체 ㉣: 우물 속을 ~~내려가는~~ 보는 아이들 사람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옥이 삼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와 아이들의 불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⑤ 헛짚기 ㉤: 우물 속 존재에 대한 아이들의 ~~들뜬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물 속에 무엇인가 굉장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에서 우물 속이 텅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은 우물 속의 존재를 보지 못한 아이들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11 답 (1) 어른들 (2) 아이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어른들)은/는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건지기 위해 강으로 나갔다.

장마로 강물이 범람하자, 어른들은 장대와 망태를 들고 강으로 나가서 물살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건지려 했다.

(2) 교체 (아이들)은/는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순옥이 삼촌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순옥이 삼촌은 우물을 치기 위해 우물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이들은 그가 까무룩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01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장마 이후 우물을 치는 과정에서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부각되고 있군.

장마가 지나고 우물을 친 것은 우물의 물맛이 뒤집혔기 때문으로, 비과학적이기는 하나 사건 전개에는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마 이후 우물을 치는 과정에서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금빛 잉어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군.

'나'와 정옥이는 우물 속에 산다는 금빛 잉어의 존재를 믿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② 우물이 있는 한 마을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타나 있군.

이 글은 '나'가 어릴 때 살던 큰 우물이 있는 동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그 우물에 관련된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장마와 관련하여 아이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제시되어 있군.

'장마통에 똥 덩어리가 제 이름 부르며 흘러가더라. 동동동동 똥똥똥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우물을 치는 일에 앞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풍습이 드러나 있군.

우물을 치기에 앞서 동네 어른들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풍습인 고사를 지냈다.

02 노을

작품 분석 본문 20~23쪽

작가 김원일
갈래 장편 소설
주제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과거와의 화해
특징 ①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함.
②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며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③ 어린 소년인 '나'의 시점과 어른인 '나'의 시점으로 번갈아 가며 서술됨.

단숨에 읽기 40대인 '나(갑수)'는 숙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29년 만에 아들 현구와 함께 고향을 방문하여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나'와 동생 갑득이는 백정인 아버지의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 자란다. 해방과 정부 수립 후 좌익 폭동이 일어나는데, 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아버지는 폭동이 진압되자 빨치산과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가 숨을 거둔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행적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한다. 숙부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일과 고향 사람들의 근황을 이야기하자, '나'는 잊고자 했던 고향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장례식 후 서울로 돌아가게 된 '나'는 고향 산천과 노을을 보면서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원망만 해 오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과거 – '나'와 아우는 (**아버지**)가 좌익 폭동에 참여한 흔적을 발견함.
❷ 과거 – '나'는 아버지가 사라질까 봐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다가 애써 기운을 냄.
❸ 현재 – '나'는 고향의 (**노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버지**)를 용서함.

0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나'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 삼돌이 삼촌과 배도수 씨는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된다.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 알게 된 '나'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글에 '나'가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삼돌이 삼촌과 배도수 씨가 사라진 것이 '나'의 행위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나'는 미송이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일을 회상하며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다.
'나'는 예전에 아버지와 헤어져 봉화산에서 내려온 저녁에 장터 마당에서 미송이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일을 회상한다. 희망을 품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미송이의 말을 떠올리던 '나'는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이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일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③ '나'는 주봉에 묻은 가루와 콩뜰이가 이야기한 글씨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주봉(바지)에 횟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본 '나'는 글씨가 삐뚤삐뚤했다는 콩뜰이의 말을 떠올리고 그게 아버지 글씨인가 생각한다. 아버지는 글자를 쓸 줄 모르지만 백묵으로 글자를 써 놓으면 베껴 쓸 수는 있을 것이기에, 바지에 백묵 흔적(횟가루)이 남았다고 추측한 것이다.
④ '나'는 치모의 말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치모의 말처럼 고향을 잊으려 노력해 온 만큼 고향은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⑤ '나'는 선달바우산에서의 일을 통해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된다.
'나'는 선달바우산의 개울에서 양철통에 든 아버지의 바지를 발견하고는 아버지의 행적에 따른 실제 증거물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바지에 묻은 횟가루를 통해 아버지가 미창에 가서 글씨를 남겼음을 짐작한 것이다.

01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정·정·이
① 상반 '나'는 고향을 떠나 스물아홉 해 동안 객지를 떠돌면서 고향을 ~~잊고~~ 살아왔다.
'나'는 고향을 떠나 스물아홉 해를 살면서 고향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하루도 고향을 잊어 본 적 없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행적을 드러내는 바지를 선달바우산 개울에서 찾았다.
'나'는 선달바우산의 개울에서 양철통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횟가루 묻은 아버지의 바지가 들어 있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간밤에 어젯밤 미창에 가서 글씨를 썼음을 짐작하게 되었다.
③ '나'는 어린 시절 의지할 사람 없이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바지를 발견한 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형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는지'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0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언**: 말을 전함. 또는 그 말.
- **반감**: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감정.

정·정·이

③ 동생 갑득이에 비해 의젓하고 듬직한 면모를 보이는군.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된 '나'는 그 일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자신과 동생이 의지할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울먹이며 애원하는 동생 갑득이에게 애써 웃음을 보이며 힘을 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동생 갑득이에 비해 의젓하고 듬직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아버지에 관한 콩뜰이의 전언을 신뢰하지 ~~않고~~ 있군.

콩뜰이가 내 글씨보다 삐뚤삐뚤하더라고 말했고, '나'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가 글씨를 썼음을 추측하였다.

② 헛짚기 또출이 할머니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

아버지가 사라질 경우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출이 할머니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지만, 또출이 할머니에 대한 반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사건 왜곡 미송이의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미송이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가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배 주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나'는 두렵고 슬픈 마음을 다잡고 동생에게 배 주사 집에 가서 우선 먹고 보자고 하였으므로, 배 주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1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투영**: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 **반목**: 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정·정·이

⑤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자각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나'는 고향의 노을을 보며 '노을빛'에 여러 색이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송이의 눈에 비친 하늘은 어둠을 맞는 핏빛 노을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일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이는 그동안 고향을 외면했던 '나'가 고향이 자신의 모태이며, 상처 깊은 고향이 희망과 회복의 고향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러한 인식을 '노을빛'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반목하던 인물들이 ~~화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는 과거의 일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한다. '노을빛'은 이러한 '나'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지, '나'와 아버지가 반목하다가 화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헛짚기 인물들을 둘러싼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노을빛'은 '나'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는 소재이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③ 헛짚기 인물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는 '노을빛'과 관련하여 미송이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자신의 변화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노을빛'이 '나'가 미송이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사건 왜곡 현실의 모순에 ~~맞서 인물이 지향했던 삶~~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과 좌익 폭동에 가담한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나'가 현실의 모순에 맞서 지향했던 삶의 모습은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017 답 (1) 핏빛 (2) 노을빛 (3) 무지갯빛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고향을 찾기 전, '나'는 노을을 보고 (핏빛)을 떠올렸다.

숙부가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은 저녁에 '나'는 노을을 보고 핏빛을 연상하였다.

(2) 교체 고향에 돌아온 '나'는 (노을빛) 속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음을 깨닫는다.

고향에 돌아온 '나'는 노을빛에 물들어 가는 구름을 보며, 노을에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음을 깨달았다.

(3) 교체 '나'는 봉화산에서 내려온 저녁을 떠올리며 미송이의 눈에 비친 하늘은 (무지갯빛)일 것이라 짐작한다.

과거 아버지와 헤어져 봉화산에서 내려온 저녁에 장터 마당에서 만난 미송이는 노을빛 고운 하늘로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미송이가 희망을 키우는

만큼, 그의 눈에 비친 하늘은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01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정·정·이

② 헛짚기 '나'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증거물(㉠)은 아버지의 행적을 보여 주는 소재일 뿐, '나'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나'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대상이다.

양철통에 쑤셔 박힌 아버지의 바지를 발견한 '나'는 아버지의 행적을 짐작하고는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다.

③ '나'와 동생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물이 발견된 후, '나'는 아버지의 부재와 앞으로 형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를 통해 증거물(㉠)이 '나'와 동생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④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행적을 짐작하게 한다.

바지에 묻은 횟가루를 보고 '나'는 아버지가 미창에 갔었다고 짐작한다.

⑤ '나'가 애타게 찾던 것으로 개울에서 발견된다.

'나'는 증거물을 찾아내려고, 대숲과 개울 등을 샅샅이 훑었고, 결국 개울가에서 양철통과 그 안에 든 바지를 발견한다.

01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정·정·이

① 헛짚기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다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년의 '나'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이군.

유년의 '나'가 아버지가 좌익 폭동에 가담한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아버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즉, 아직 어린 형제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아버지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배가 고픈 따위의 서러움조차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유년의 '나'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겪은 주변 인물들의 고통을 드러낸 것이군.

유년의 '나'가 느낀 슬픔은 좌익 폭동에 가담한 아버지가 사라진다면 '나'와 갑득이는 의지할 사람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의 행위가, 주변 인물들에게 가져다준 고통이 드러나고 있다.

③ '고향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태'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현재의 '나'가 유년의 상처를 마주했음을 알 수 있군.

④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재의 '나'의 의식을 나타낸 것이군.

유년의 상처 때문에 '나'는 오랜 시간 고향을 외면했지만, 29년 만에 찾은 고향에서 자신의 모태가 고향이며, 뿌리만은 언제나 고향에 내리고 살아왔음을 인정한다. 이는 현재의 '나'가 고향을 다시 인식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③, ④).

⑤ '현구 눈에 비친 아버지 고향'을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고향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현재의 '나'를 확인할 수 있군.

그동안 '나'에게 고향은 어둠을 기다리는 상처 깊은 고향이었으나, 현구에게는 내일 아침을 예비하는 다시 오고 싶은 아버지의 고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고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상처를 치유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2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유년의 '나'는 아버지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 (○, ×)

유년의 '나'는 아버지의 행적을 알고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슬퍼하였다. 즉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이다.

(2) 헛짚기 유년의 '나'는 아버지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다. (○, ×)

유년의 '나'는 아버지의 행적을 드러내는 증거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3) 현재의 '나'는 아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련한 유년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 ×)

'나'는 숙부의 장례를 치르러 아들 '현구'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헤맸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0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외**: ①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②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일.
- **참상**: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

정·정·이

③ 노을에 힘차게 종이비행기를 띄워 보내는 미송이의 모습에서 힘겨운 상황의 극복을 향한 희망의 이미지가 엿보이는군.

'나'는 노을에 힘차게 종이비행기를 띄워 보내는 미송이가 희망을 키운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서 힘겨운 상황의 극복을 향한 희망의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나'에게 편지 쪽지를 보내 주었던 장 선생님은 ~~소외된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겠군.

이 글에서는 장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 쪽지를 주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가 소외된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헛짚기 콩뜰이가 글씨가 삐뚤삐뚤하더라고 '나'에게 말한 것은 ~~민족 구성원 간의 반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겠군.

콩뜰이가 글씨가 삐뚤삐뚤하더라고 말한 것은 그가 실제로 본 것을 말한 것일 뿐, 민족 구성원 간의 반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반 폭동의 잔재가 소멸된 후 텅 빈 장터 마당은 한국 전쟁이 가져온 참상과 분단의 비극이 모두 ~~해소~~된 상태를 상징하는 공간이군.

아무도 없이 텅 빈 장터 마당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사건 왜곡 '나'의 눈에 비친 노을빛이 벌겋게 타오르는 ~~주황색~~이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암울한 현실 상황~~을 떠올릴 수 있군.

'나'는 산 위에 걸린 쌘구름이 노을빛에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며 노을빛이 금빛, 벌겋게 타오르는 주황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는 노을을 보며 '핏빛'만을 떠올렸던 과거의 '나'의 모습과 대비되어 '나'의 지난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가 노을빛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암울한 상황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모순

작품 분석 본문 24~27쪽

작가 양귀자
갈래 장편 소설, 성장 소설
주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성찰
특징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나'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냄.
②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고사를 인용함.
단숨에 읽기 '나(안진진)'의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는 시장에서 가게를 꾸리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고지식한 이모부와 결혼한 이모는 부유하지만 외롭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 진모가 사고를 치고, 가출했던 남편이 병을 얻어 돌아오는 등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모는 그런 어머니가 진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와 이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삶의 모순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편안하고 정이 있으나 가난한 김장우와,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철저하고 계획적인 나영규라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는 감성적이며 자유로운 성격의 김장우를 선택하기로 하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한 이모의 죽음에 마음이 흔들린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이 모두 필수적임을 깨달은 '나'는 어떤 종류의 행복과 불행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없던 것을 구할 수 있는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한 줄 요약

❶ '나'의 (**어머니**)는 아들인 진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❷ 아버지는 (**중풍과 치매**)에 걸려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그를 돌봄.
❸ '나'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삶의 (**모순**)에 대해 깨닫고,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함.

0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의식의 흐름**: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의식의 연속성을 강조한 말. 심리학 용어이나, 소설에서 내면 묘사를 위한 실험적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정·정·이

② 독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는 '나'의 생각, 행복과 불행이라는 삶의 모순에 대한 '나'의 의식 등을 독백적 진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계절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변화된 심리를 드러낸다.

'4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물 내면의 생각, 기억, 느낌 등을 흘러가는 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무의식적 욕망이

논리적 인과 없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찾아볼 수 없다.

④ 헛짚기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형은 이렇게 말하며 동생의 등을 툭 쳤다던가…….',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독서는 아닐 것이었다.', '아마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등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을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물 간 갈등 양상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02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나'는 자신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③ 부재 현재→과거→현재의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2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함축적**: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또는 그런 것.
- **복선**: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정·정·이

⑤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며 결혼에 관한 '나'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A]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모순'의 어원에 관한 고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이모의 삶을 보면서도 끝내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나'의 모순적인 선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시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나'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서술하고 있지만, [A]를 통해 이에 대한 안타까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짚기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 기존에 가졌던 삶의 태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주변 인물들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A]가 '나'로 하여금 기존에 가졌던 삶의 태도를 정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재 아버지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A]는 '아버지의 삶이 지닌 모순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으나, [A]를 통해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요약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이모의 삶이 겉보기와 달리 불행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복선으로 작용한다.
이모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스스로에게는 불행이었다고 하였지만, [A]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0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피**: ①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함. ②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호전**: ①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뀜. ② 병의 증세가 나아짐.

정·정·이

④ 헛짚기 ㉣: 심리적 갈등을 회피하는 '나'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다.
삶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고민하던 '나'는 결국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김장우와 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나'는 그 상황을 잘 견디며, 김장우에 대해서는 ㉣과 같이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성숙함, 선택의 결과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는 단호함으로 볼 수 있으며, 심리적 갈등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김장우처럼 '나'도 유사한 고통이 있음을 보여 준다.
형의 파산을 지켜보며 김장우가 고통을 겪은 것처럼, '나'도 재판을 기다리는 동생 진모 때문에 고통을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 과거의 순간들을 함께했던 아버지에 대해 '나'가 애틋함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거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슬픈 일몰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을 나누어 주었지만 현재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치매에 걸린 채 먹는 것에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나'는 과거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애틋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아버지는 지금 중풍과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 영영 알아보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추측에는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나'의 깨달음을 보여 준다.
일 년쯤 전에 '나'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 년 후인 현재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는 '나'가 일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인생이란 아무리 탐구해도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음을 보여 준다.

02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병에 걸린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 ×)
가출했다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 그 자체'로,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사건 왜곡 '나'는 김장우와 헤어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 ×)
'나'는 헤어진 다음 날들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이모와 달리 김장우와 헤어지고도 잘 견디었다고 하였으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나'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 ×)
'나'는 일 년쯤 전에 한 말을 수정한다고 하면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고 실수는 되풀이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1년여의 시간 동안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정한**: 얄미울 정도로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정·정·이

⑤ 헛짚기 '나'는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매정한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병에 걸린 채 집에 돌아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매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담담한 태도로 서술하고 있을 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는 어머니나 이모의 삶을 보며,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고 실수는 되풀이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② 김장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형을 도우려고 하였다.
형이 경영하던 여행사가 파산되는 위기에 처하자 김장우는 잔액이 몇 십만 원인 통장까지 모조리 형에게 주며 형을 도우려고 하였다.

③ 어머니는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택하였다.
어머니는 진모의 일로 브로커에게 돈을 뜯긴 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형법에 관한 책을 읽었다. 또한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④ 이모는 자신의 삶과 '나'의 어머니의 삶을 외부인의 시각과는 반대로 평가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게는 불행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고 하였다.

02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려는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통해 '나'는 완전하게 행복한 삶이나 불행한 삶은 없으며,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고, '나'는 '나'에게 없었던 것을 나영규에게서 구하기 위해 그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이는 '나'가 불행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영규와 결혼함으로써 얻게 될 행복과 불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는 삶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병든 아버지를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는 겉으로는 매우 바쁘고 불행해 보이지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욕과 보람을 드러냄으로써 행복해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는 삶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하고 떠돌아야 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보여 준 이와 같은 삶의 모순이 바로 '중요한 인생의 비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③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은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였겠군.

일 년 동안 '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의 의미를 탐구하여 삶이 모순적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을 한다. 일 년 전의 다짐대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다 살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가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 함께 탐구하여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무덤 속 같은 평온'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에 시달렸던 이모의 모순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가난한 어머니와 반대로 이모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게는 불행이었고, 불행하게 보였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모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했음을 알 수 있다. '무덤 속 같은 평온'은 그러한 이모의 모순된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029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떠도는 모순된 삶을 살아왔다.

아버지는 가출했다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 가족에게 돌아왔는데, '나'는 그가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야만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하고 떠돌았던 삶의 모순이 바로 인생의 비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ㄷ. 이모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으나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겼다.

가난하고 고된 어머니의 삶과 비교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는 불행이었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상반 어머니의 삶의 뒷면을 들추면 더 큰 불행이 숨어 있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생계를 꾸렸던 어머니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불행하였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나날이 생기를 더해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삶의 뒷면에는 불행이 아닌 행복이 숨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3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물질 만능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
- **기반한**: 바탕이나 토대를 둔.
- **안락**: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
- **만연한**: 물의 줄기가 널리 뻗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진.

정·정·이

⑤ 헛짚기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물질 만능주의에 기반한 육체의 안락함보다 정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군.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떠돌아야 했던 아버지의 모순된 삶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인생의 비밀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순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한 뒤 결혼 상대를 정하면서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다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이모의 죽음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이모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으나, 스스로에겐 불행이었다. 이모가 결국에는 죽음을 택한 것을 통해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 등의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가 김장우와 나영규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엿볼 수 있군.

'나'는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비교한 후, 김장우와 나영규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행복과 불행을 택할 것인지 고민한다. 이는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양면적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나'가 이모의 죽음을 보고도 나영규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에 만연한 모순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군.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을 겪었던 이모가 죽었으므로, 그 가르침대로라면 '나'는 정신적 풍요를 줄 수 있는 상대인 김장우를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없었고 김장우를 선택한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것을 구하기 위해 나영규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모순적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④ 어머니가 진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침마다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녔던 것은 정신의 풍요로움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군.

어머니는 아들 진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에 관한 책을 사서 직접 공부하는 등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아침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운 기계 인간처럼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니다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신의 풍요로움을 통해 행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04 날개

작품 분석 본문 28~31쪽

작가 이상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특징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함.
②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술자(주인공)의 의도가 드러남.
③ 대조되는 공간을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삶의 모습을 대비함.

단숨에 읽기 '나'는 아내의 곁방에서 삶에 대한 의욕 없이 지낸다. 아내의 방은 볕이 잘 들고 화려한 반면 '나'의 방은 볕이 들지 않고 빈대가 들끓었다. 아내가 외출하면 '나'는 아내의 방에서 놀곤 한다. 아내를 찾아온 손님이 많은 날이면 '나'는 온종일 '나'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아내의 통제 속에서 생활한다. 어느 날 '나'가 감기에 걸리자 아내는 하얀 약을 준다. 아스피린(해열제)이라고 짐작되는 그 약을 먹으며 '나'는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며 지낸다. 한 달 뒤 '나'는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아달린(수면제) 약갑을 발견하고, 그동안 먹어 온 약이 해열제가 아닌 수면제임을 알게 된다. 충격을 받은 '나'는 집을 나와 '나'에게 수면제를 먹인 아내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다가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나'는 아내와 숙명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며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정오 사이렌 소리를 들은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고 느끼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희망과 야심을 떠올린다. '나'는 다시 날개가 돋아 날아오르기를 소망한다.

한 줄 요약

❶ '나'는 화를 내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 나옴.
❷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관찰하고 도시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김.
❸ '나'는 (**숙명적**)으로 맞지 않는 (**아내**)와의 관계에 체념적 태도를 보임.
❹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 '나'는 (**날개**)가 다시 돋기를 간절하게 바람.

03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절**: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
- **부여**: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

정·정·이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독백적 어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분열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등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이 주로 나타나 있으므로,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부재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미쓰꼬시 옥상에서 '나'가 자신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였다고 하였을 뿐, 회상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상의 기법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현재와 과거의 화해에 관한 내용도 드러나 있지 않다.

03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어 제시되고 있다. (○, ⊗)

이 글에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나'가 집을 나와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서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현재의 사건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2) 부재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 ⊗)

이 글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피곤한 생활을 금붕어 지느러미의 움직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피곤한 생활을 금붕어 지느러미의 움직임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3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물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느낌 등을 그대로 서술하여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보여 주며 당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독백적 어조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나'의 독백적 어조로 서술되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나'와 아내의 갈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갈등과 해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대화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며 서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서술자인 '나'의 서술을 통해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⑤ 헛짚기 명령문과 청유문을 활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끝부분에서 명령문과 청유문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감**: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함.
- **괴리감**: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져 있는 느낌.

정·정·이

② 상반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거기서의 피곤한 생활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오·이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나'는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③ '회탁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미쓰꼬시 백화점은 매우 높은 건물이므로 '나'가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

④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미쓰꼬시 백화점은 매우 높은 건물로, 옥상과 그 아래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인물로, '미쓰꼬시 옥상'에 '나'가 서 있는 것은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에 괴리감을 보여 준다.

⑤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회탁의 거리'에서의 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점,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통해 '나'가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거기서의 피곤한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ㄴ. '나'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공간이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였다.

오·오·이

ㄷ. 사건 왜곡 거리를 떠돌던 '나'가 ~~금붕어를 보러 위해~~ 찾아간 곳이다.

집을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거리를 쏘다니던 '나'는 몇 시간 후 자신이 '미쓰꼬시 옥상'에 있음을 깨닫는다. 즉 '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간 것은 아니다.

03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은 '나'가 자신을 성찰한 결과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상징한다.

미쓰꼬시 옥상에서 보게 된 '금붕어(㉠)'는 '나'가 자신을 성찰한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성찰의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오·오·이

② ㉡은 '나'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으로, '나'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나타낸다.

'회탁의 거리(㉡)'는 혼탁한 도시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나'의 내면이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은 그동안 아내의 행적을 의심하는 '나'의 인식을 드러낸다.

'아달린(㉢)'은 '나'가 그동안 '아스피린'으로 알고 먹어 왔던 약으로, 아내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④ ㉣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나'의 인식으로, '나'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이지만,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 두 사람의 어긋난 관계가 발전이나 회복이 어렵다고 여기는 '나'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은 강렬하게 들려오는 소리로, '나'의 의식을 깨우는 매개체가 된다.

무기력하던 '나'는 '정오 사이렌(㉤)'을 들으며,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워지며 자유와 이상을 상징하는 날개가 돋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은 '나'의 의식을 깨우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3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속**: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정·정·이

② 상반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나'는 아내가 화를 내자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다가, 몰래 도망치듯 집을 나온다. 〈보기〉에 따라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고 보면, 이는 지식인이 현대 문명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도적질하거나 바람을 피운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아내는 '나'에게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바람피우러 다니느냐'며 화를 내는데, '나'는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아내의 행동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아내를 피해 집을 나온 '나'는 아내와 자신이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그저 끝없이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나'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어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나'는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라며 의구심을 갖는다. 이는 현대 문명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어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정오 사이렌 소리를 들은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고 느끼며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라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면세계, 즉 사라졌던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남을 표현한 것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8 답 (1) 억울함 (2) 절름발이 (3) 날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는 아내의 의심에 (억울함,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에 맞서 따지지 못한다.

'나'는 도적질을 하는지, 바람을 피우는지 의심하는 아내에게 섣불리 대들었다가 무슨 화를 볼지 몰라서,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다가 몰래 집을 나온다.

(2) 교체 아내와 '나'의 관계가 (절름발이, 회탁의 거리)라는 것은 현대 문명과 지식인의 내면이 불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대 문명과 지식인의 내면세계의 불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나'가 바라는 (금붕어, 날개)는 현대 문명의 억압 속에서 이상과 자유를 되찾고 싶은 지식인의 의지를 상징한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나'는 의식을 각성하고 사라졌던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날개가 다시 돋아나서 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는 현대 문명의 억압 속에서 이상과 자유를 회복하여 의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지식인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다.

03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정성**: 바람직하지 아니한 특성이나 성질.
- **열망**: 열렬하게 바람.
- **역설**: 일반적으로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정·이

④ '나'가 정오 사이렌을 들으며 '날개'를 떠올린 것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 부정성을 제거하려는 열망을 나타낸다.

'나'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의식의 혼란을 겪고 있던 중에 정오 사이렌을 듣고 불현듯 겨드랑이가 날개가 돋는 것처럼 가렵다고 느낀다. 이렇게 '나'가 날개가 돋기를 바라는 것은 부정성을 제거하고 절망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아내가 '나'의 밤의 행적에 대해 따지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두운 시간에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바람피우러 다니느냐'고 발악하며 '나'의 밤의 행적에 대해 따지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해한다. 따라서 '나'는 어두운 시간에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헛짚기 '나'가 대낮에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은 '나'의 어두운 내면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나'는 대낮에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서 혼란을 겪던 중에 정오 사이렌을 듣고 의식을 각성하게 된다. 따라서 미쓰꼬시 옥상은 '나'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헛짚기 '나'가 아내의 말에 억울함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온 것은 ~~시간 축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나'가 아내의 말에 억울함을 느끼며 밖으로 나온 것은 시간 축의 역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시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면의 흐름대로 행동한 것이다.

⑤ 헛짚기 '나'가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는 것은 ~~지간의 역설로 인한 절망적 현실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음~~을 깨닫는 계기이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서 자신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지만, 몽롱한 기억 속에서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05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 분석 본문 32~35쪽

작가 박태원
갈래 중편 소설, 세태 소설, 모더니즘 소설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세태와 그의 내면 의식
특징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냄.
② 인물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조를 취함.
③ 1930년대 서울의 풍경, 세태, 풍속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
④ 몽타주 기법, 콜라주 기법, 쉼표의 빈번한 사용 등의 실험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함.

단숨에 읽기 26세의 청년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하고 돌아와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 길을 걸으며 두통을 느끼고 왼쪽 귀의 기능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종로 거리를 걸으며 시력 이상을 느끼고 안과에 갔던 일을 떠올린다. 구보는 화신 상회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전차를 탄 구보는 전에 선본 여인을 보지만 아는 체하지 못하고, 학창 시절 벗의 누이를 짝사랑했던 추억을 떠올린다. 구보는 조선 은행 앞에서 전차를 내려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며 욕망과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구보는 고독을 피해 경성역에 가지만 인정이 메마른 사람들만 관찰하게 되면서, 황금과 물질에 대해 생각하며 더욱 큰 고독을 느낀다. 또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번지르르한 차림새에 애인까지 동반한 것을 확인하고 불쾌감을 느낀다. 구보는 다방에서 시인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사회부 기자가 된 친구를 만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다가 권태로움을 느낀다. 종로 네거리의 다료에 들러 친구를 기다리던 구보는 유학 시절에 만났던 여자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한다. 다방에서 중학 선배인 생명 보험의 외교원과 최 군을 우연히 만난 후, 구보는 친구와 함께 다방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애인, 아내, 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구보는 광화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에게 수박을 사 준다. 친구와 낙원정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로 관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구보는 새벽 두 시 비 오는 종로 네거리에서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며 창작도 하고 생활도 갖겠다고 다짐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한다.

한 줄 요약

❶ (**어머니**)는 구보를 사랑하지만 유학을 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함.
❷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구보는 (**창작**)을 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함.
❸ (**쇠약**)한 몸과 신경을 생각하던 구보는 문학에 열중하게 된 (**소년**) 시절을 떠올림.

04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B]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A]는 아들(구보)의 표정이나 행동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어머니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B]는 집을 나와 길을 걷는 구보의 행위와, 어머니와의 일을 회상하는 구보의 심리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B]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A]는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A]에 어머니의 행동과 심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서술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외부의 서술자이다.

② 부재 [B]는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B]에는 구보의 행동과 심리 등이 서술되어 있으나, 구보가 관찰자로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③ 범위 오류 [A]와 ~~달리~~ [B]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A]와 [B]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B]와 ~~달리~~ [A]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A]와 [B] 모두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① [A]는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작품 일부분의 서술 시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작품 전체의 서술 시점을 먼저 파악한 후, 해당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①에서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라는 진술, ②에서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이라는 진술이 틀린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혹 서술자가 중간에 바뀌는 소설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시험에서 그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041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신기하게 기뻐하였다.', '뉘우쳐 본다.'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ㄷ.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입장에 초점

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ㄱ. 상반 서술자의 위치에 변화가 나타나 있다.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자는 이야기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위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4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의도적**: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또는 그런 것.
- **폐쇄적**: 외부와 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의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머니에게 ~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생각한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가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내면 의식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로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가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③ 헛짚기 의도적인 쉼표 사용으로 리듬감을 부여하여 운문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의도적으로 쉼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읽기 속도가 조절되고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리듬감을 부여하여 운문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작품 속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다른 인물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구보가 아닌 다른 인물의 속마음도 들여다보며 서술하고 있다.

⑤ 부재 공간적 배경을 한정된 공간으로 설정하여 폐쇄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의 공간적 배경은 집이었으나, 뒷부분에서는 집을 나선 구보가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폐쇄적이고 암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노릇**: 맡은 바 구실.
- **납득**: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정·정·이

② 헛짚기 ㉡에는 앞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구보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구보가 글을 팔아 번 몇 푼의 돈으로 어머니에게 치마를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수 몫의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는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번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가장 노릇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에게 이를 내색하지 않으려는 구보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에는 자신을 위하는 구보의 마음 씀씀이에 뿌듯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구보는 글을 써서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해 주기 위해 고집을 부린다. 구보가 고집을 세우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에는 구보의 마음 씀씀이에 뿌듯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③ ㉢에는 구보가 힘들게 벌어 온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나타나 있다.

어머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구보가 글을 써서 힘들게 돈을 번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가 무언가를 해 주려는 것을 대견해하면서도 안타까워한다. 따라서 미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구보의 돈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데, ㉢에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에는 구보가 처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나 관청 등에서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우수한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에는 이러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⑤ ㉤에는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는 구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구보는 정해진 목적지나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걸음을 걷다가, 다리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갈까 생각한다. 즉 ㉤에는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구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04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구보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다. (○, ×)

'동경엘 건너가 공불 하고 온 내 아들'을 통해 구보가 과거에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2) 구보는 현재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 ×)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통해 구보가 현재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3) 헛짚기 어머니는 일자리가 없다는 구보의 말을 ~~거짓으로 여긴다.~~ (○, ×)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유학까지 다녀온 구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 어머니가 구보의 말을 거짓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04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구보의 형수는 구보가 번 돈으로 치마를 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하~~ 거절하였다.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 준 거죠. 제 아주멈 해하구. 이거 하구……."라는 어머니의 말로 볼 때, 구보의 형수는 치마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구보는 어머니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구보는 집을 나와 걸으며, 집에서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친다고 하였다.

② 구보는 글을 써서 번 돈을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구보는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고 어머니의 치마를 해 주는 등 번 돈을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다.

③ 어머니는 일갓집 주인 아낙네에게 아들이 해 준 선물을 자랑하였다.

어머니는 구보가 준 돈으로 치마를 해 입고 일갓집에 가서 주인 아낙네에게 구보가 해 준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④ 구보의 어린 시절 안잠자기는 구보에게 이야기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아홉 살 때 이야기책이 보고 싶었던 구보는 안잠자기에게 문의했는데, 그는 세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으며 얼마의 돈을 내고 책을 빌릴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0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도**: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함.

정·정·이

④ 헛짚기 '격렬한 두통'과 전신의 '피로'를 느끼며 '얼마 동안을 망연히' 서 있는 것에서, 창작을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 대한 구보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구보는 소설가로서 창작을 위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하여 세태를 관찰해 볼까 하지만, 두통과 피로를 느끼며 망연히 서 있게 된다. 이는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지, 이것이 창작을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밤을 새우'면서 글을 써서 번 돈이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소설가로서의 구보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겠군.

구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때로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한다고 하였다. 밤을 새우기까지 하며 글을 써서 번 돈이 대단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설가 구보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② '창작을 위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를 해 볼까 생각하며 '모데로노로지오'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것에서,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겠군.

바쁘게 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던 구보는 창작을 위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를 해 볼까 생각하며 모데로노로지오(고현학)를 게을리해 온 것을 성찰한다. 고현학은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유행의 변천을 조직적,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학문으로, 구보는 소설 창작을 위해 세태를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머리'와 '이 몸'으로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라고 하는 것에서,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구보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구보는 소설을 창작하기 위해 답사를 하려고 하지만 격렬한 두통과 전신의 피로 때문에 걸음을 멈추게 되고, 다시 걸으려다가도 현기증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는 쇠약한 머리와 몸으로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로 인해 건강이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한 것에서, 구보가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경도되어 살아왔음을 알 수 있겠군.

구보는 소년 시절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이 이후의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은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구보가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경도되어 살아왔음을 보여 준다.

04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지식인으로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

이 작품의 작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설가로서의 정체성과,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 등 자신의 모습을 구보에게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는 이 글의 구보에게서 찾아볼 수 없으며, 〈보기〉에서도 이러한 인물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

구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글을 써서 간신히 돈을 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작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을 잃은 처지

구보는 어릴 때부터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로 인해 건강이 손상되었다고 여긴다. 이는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을 잃은 상황에 처한 작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대문 앞을 웃으며 지나가는 세 명의 여학생은 ~~근대화되지 못한 공간과 경성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어.

구보는 집을 나와 길을 걷다가 집에서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린다. 구보가 어머니에게 대답하려던 때에 세 명의 여학생이 대문 앞을 웃으며 지나갔기 때문인데, 이때 세 명의 여학생은 우연히 지나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세 명의 여학생이 근대화되지 못한 공간과 경성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구보가 집을 나와 걸어가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1930년대 경성의 이미지화가 시작되는구나.

구보가 집을 나와서 천변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경성의 이미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연재 당시 독자들은 광교, 서소문정 등 실제 경성의 지명들과 경로를 비교하면서 읽었겠구나.

이 글에는 구보의 산책 및 사색의 경로에 따라 경성의 지명들이 드러나 있으므로, 당시 독자들이 실제 경성의 공간과 경로를 비교하며 감상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④ 연재 당시 삽화에는 근대 도시인 경성의 풍경, 혼자 사색하는 구보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었을 것 같아.

이 글에서 구보는 혼자 경성의 거리를 사색하며 걷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구보의 산책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모습이 연재 당시 삽화로 실렸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의 다른 부분을 보면 구보의 산책 과정에서 근대 도시 공간으로서 경성을 보여 주는 상품이나 소재들이 등장할 것 같군.

〈보기〉에서 구보의 산책은 근대 도시 공간의 이미지화를 나타내며, 구보는 산책을 하며 이미지들, 상품들의 세계적 순환과 연결된 도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근대 도시인 경성을 나타내는 상품이나 소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6 무사와 악사

작품 분석 본문 36~39쪽

작가 홍성원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특징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사가 전개됨.
②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함.
③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며 밝히는 추리 소설적 기법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함.

단숨에 읽기 '나'는 노년의 화가로,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김기범이 자취를 감춘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김기범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으로, 머리가 좋고 현실에 대한 판단과 대처가 빨라 혼란한 상황을 교묘히 피해 갔다. 또 다른 친구인 오일규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춘 인물로, 기범은 일규가 민의원에 출마할 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상대 후보에게 매수되어 친구인 일규를 배신하기도 한다. 이후 일규가 죽자 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기범은 무사가 없는 세상에 악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넋두리를 하고는 사라진다. 산골에 은거하며 도인으로 살던 기범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나'는 기범이 살던 구천동을 찾아가 그의 곁에서 지내던 임 씨를 통해 기범의 사연을 전해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일규의 (**장례식**) 후 기범은 죽은 (**일규**)에 관하여 넋두리함.
❷ (**기범**)이 죽은 후 '나'는 산골에 은둔해 살던 기범의 사연을 듣고 그를 이해하게 됨.

0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념적**: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또는 그런 것.
- **지연**: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정·정·이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는 '나'가 임 씨로부터 듣게 된 기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작품 속 인물인 '나'가 다른 인물의 삶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는 기범의 삶을 평가하며 역순과 역행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솔직하게 살다 갔다거나,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라고 하는 등 추상적인 말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이므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기범의 삶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재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 나게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아니며, 사건의 배경을 실감 나게 서술하고 있지도 않다.
④ 상반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로, 이야기 내부에 존재한다.
⑤ 부재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50 답 안, 기범, 1인칭 관찰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교체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 밖)에 존재하며, 작품 속 인물인 ('나', 기범)의 삶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서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기범이 죽기 전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인 '나'가 또 다른 등장인물인 기범의 삶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할 수 있다.

0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빈번한**: 일어나는 횟수가 매우 잦은.
- **전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 **고조**: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 또는 그런 상태.
- **병렬**: 나란히 늘어섬. 또는 나란히 늘어놓음.

정·정·이
②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나'와 임 씨의 대화를 통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

로 들어가게 된 과거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규의 장례식 후 '나'와 기범이 대화하는 장면과 '나'가 임 씨에게 기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장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재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나'와 기범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나'와 임 씨의 대화 장면에서는 갈등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와 기범의 대화 장면은 '나'가 임 씨를 만나 기범에 관한 사연을 듣기 전에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장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⑤ 상반 관찰을 바탕으로 과거 사건과 인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가 '나'의 입장에서 기범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온갖 기행과 궤변들', '과거의 요설들'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기범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05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신원**: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 곧 신분이나 평소 행실, 주소, 직업 따위를 이른다.
- **미심쩍다**: 분명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 **가중**: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 **수긍**: 옳다고 인정함.
- **우호적**: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④ 사건 왜곡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기범에 대한 임 씨의 말을 들은 '나'는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 후에 지껄이던 요설들을 떠올리며, 기범이 그때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실제로 기범이 그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은 '나'의 추측이 기범의 실제 행위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범이 세상을 등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을 약속을 행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나'는 기범이 미친 듯이 웃다가 눈물을 보이자 긴장하고 있다. 즉 ㉠은 웃다가 우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기범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은 기범에 대한 임 씨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이다. 임 씨는 처음에 기범을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며 미심쩍게 생각했는데, 기범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기르자 그 생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임 씨는 세상을 보는 기범의 관점이 궤변 같지만 남하고 다른 '묘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에서 '이상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임 씨는 세상에 대한 기범의 관점을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임 씨는 미련하게 살겠다고 한 기범이 구천동에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에서 임 씨가 '미련하다'를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미련하다'를 사전적 의미와 달리 우호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53 답 (1) 미심쩍게 (2) 선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 기범이 왜 산골에 들어와 사는지 (미심쩍게,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임 씨는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와 같이 산골에 들어와 사는 기범을 미심쩍게 생각했었는데, 기범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기르자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로 볼 때, ㉡에서 처음에 기범을 미심쩍게 생각한 임 씨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2) 교체 ㉤: 기범이 남을 위해 사는 (미련한, 선한) 인물이라고 여긴다.

052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임 씨는 기범을 선한 인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05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저(임 씨)'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는 '나'가 혼자 한 생각으로, '저(임 씨)'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저(임 씨)'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요설들(ⓑ)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한 임 씨의 설명을 듣고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범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그제야 어떤 질서 위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② ⓐ에 대한 '나'의 질문에 '저(임 씨)'는 기범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는다.

기범이 묘한 철학(ⓐ)을 지녔다는 '저(임 씨)'의 말에 '나'는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임 씨)'는 ⓐ와 관련한 기범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③ ⓐ는 '저(임 씨)'가 기범의 사상에 대해 내린 판단으로, 기범에 대한 그의 인식이 드러난다.

'저(임 씨)'는 기범의 사상을 묘한 철학(ⓐ)이라고 이르는데, 이를 통해 임 씨가 기범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나'가 기범에게 직접 들은 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드러난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요설들(ⓑ)은 '나'가 기범에게 직접 들은 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범의 말을 '요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기범을 이상하게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05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일시**: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봄.
- **정착**: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

정·정·이

⑤ 헛짚기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기범의 말은, 동일시하려는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쓴다는 것으로, 이는 세상에 대한 기범의 독특한 관점과 관련된 믿음이다.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오·오·이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일규의 죽음은 기범이 동일시하려는 상대의 부재이다. 이로 인해 기범은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범은 동일시 대상인 일규의 부재로 인해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을 정도로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기범은 일규가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규로부터 기범이 외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기범은 자신과 일규가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범이 동일시하려는 상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기범은 '나'에게 '울적할 때마다' 일규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은 심리적 위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범이 일규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임 씨는 기범이 아끼던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산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즉 기범은 '깊은 산골'과 같은 낯선 곳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일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기범은 일규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느꼈을 것이다. (○, ×)

〈보기〉에서 기범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했다고 하였고, 이 글에서 기범은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고 일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범은 일규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헛짚기 기범은 일규의 죽음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일규의 죽음을 부정했을 것이다. (○, ×)

〈보기〉에서 동일시 상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으므로, 기범은 일규의 죽음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기범은 도시를 버리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 사는 등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뿐, 일규의 죽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3) 헛짚기 일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기범은 동일시 상대를 변경하여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했을 것이다. (○, ×)

〈보기〉에서 동일시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동일시 상대가 부재할 경우 그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시 상대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글에서도 기범이 동일시하는 상대를 변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05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요동**: 흔들리어 움직임. 또는 흔들어 움직임.
- **항거**: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함.
- **격동**: 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임.

정·정·이

⑤ 헛짚기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은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뇌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 후에 격렬하게 한 말들은 죽은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그리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기범은 부패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비판과 항거는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그가 요설을 지껄이는 것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뇌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요동치던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홍성원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요동치던 1970~80년대에 소설을 다수 발표하였다고 했는데, 이 글에서 기범이 언급한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에서 부패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비판과 항거는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임 씨가 들려준 기범의 '묘한 철학'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을 썩지 않게 고치려고 했다가 괜히 사람만 다치고, 세상은 고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기〉에서 말하는 부패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비판과 항거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③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은 지식인 역시 고군분투하며 격동의 시대를 버텨 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기〉에 따르면 홍성원의 작품은 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시대를 버텨 내야 했던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의 기범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쓴다고 말한 부분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기범이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살았던 것은 현실 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기〉에 따르면 홍성원의 작품은 현실 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지식인인 기범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박혀 살았던 것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작품 분석 본문 40~43쪽

작가 윤흥길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주제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과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비판
특징 ① 우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병렬적으로 나열함.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당대 권력의 횡포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단숨에 읽기 구청 호적계장인 김달채는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친구 조 박사로부터 독일제 우산을 선물 받는다. 우산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 담겨 있는데,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은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느 날 김달채가 허름한 차림으로 다방에 가는데, 처음에는 그를 불친절하게 대하던 종업원이 그의 우산을 무전기로 오해하고 그를 권력 기관의 요원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우산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김달채는 우산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길거리를 배회한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산 케이스를 보이면서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우산에 속아 무전기를 가진 자신에게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던 중 김달채는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사복 경찰에게 우산을 보이며 권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사복 경찰들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자 비굴하게 물러선다. 그러다가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김달채의 우산을 보고 사복 경찰로 오인하여 김달채에게 돌멩이를 던진다. 이 과정에서 김달채가 아끼던 우산은 길바닥에 떨어져 젊은이들의 구둣발에 무수히 짓밟히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김달채가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우산 케이스)**)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반응을 떠보는 데 빠져 듦.
❷ 김달채는 (**시위 현장**)에서 우산으로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경찰 때문에 실패함.

05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렴**: 의견이나 사상 따위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함.
- **병치**: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
- **점진적**: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A]에서는 김달채가 무전기 모양의 우산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 백화점, 정류장, 길거리, 파출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우산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김달채의 의도적인 행위들이 [A]의 주요 사건인데, 이는 김달채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라 김달채가 일부러 행한 사건이다.
② 부재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지하철, 버스, 공중변소, 포장마차 등 다양한 장소가 등장하지만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달채가 우산의 존재를 보여 주고,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헛짚기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김달채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우산을 노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떠보는 행동들이 서술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김달채의 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05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사람들에게 우산을 보여 주고 반응을 살피기 위해
[A]에서 김달채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무전기처럼 보이는 자신의 우산을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는 상대방의 눈에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헛짚기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김달채는 밤늦도록 길거리를 배회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는 우산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헛짚기 구청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
구청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는 김달채는 무전기 모양의 우산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일을 반복하면서 구청에서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몰랐던 권력을 체험하며 그 과정에서 긴장과 전율을 느끼고 있다. 보람 있는 일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06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념**: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정·정·이

⑤ 부재 짧은 문장을 반복하여 급박한 상황과 그에 저항하는 인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시위 현장의 급박한 상황은 나타나지만, 짧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달채는 우산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 했을 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김달채는 자신의 우산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복 경찰 앞에서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자 결국 맥없이 돌아선다.

오·오·이

①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드러내고 있다.

'김달채 씨는 그렇잖아도 짧은 머리를 ~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에서 김달채의 짧은 머리,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중심인물이 가지게 된 관념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김달채는 사람들이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들을 근거로 하여, 우산을 통해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③ 인물의 처지와 태도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사복 경찰 앞에서 우산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실패한 김달채가 비굴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르춤한 꼬락서니가 되'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④ 특정 소재와 관련한 인물의 인식을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김달채가 길거리를 다니며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행동,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연행하는 사복 경찰들에게 우산을 슬쩍 내보이며 큰소리치는 모습 등을 통해 우산과 권력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0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활기**: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
- **위세**: ①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 ② 위엄이 있거나 맹렬한 기세.

정·정·이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김달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에 흥분과 기대감을 느끼고,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사건을 만날 듯한 예감에 행인들이 달아나는 방향과 정반대 편인 시위 현장을 향해 달려간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김달채는 우산을 무전기로 오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습관을 붙였다. 그는 우산이 필요하지 않은 청명한 가을날에도 우산을 지니고 다니고 있으므로,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교체 꾀죄죄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김달채가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은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 모양의 우산(케이스)이다.

④ 사건 왜곡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김달채는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차단된 시위 현장에서 구경꾼들 뒷전에 있다가 앞사람들 틈을 비집고 전면으로 나선다. 그 뒤 김달채는 사복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맥없이 돌아서긴 하지만,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다.

⑤ 사건 왜곡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김달채는 닭장차에 타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에나 들어가라는 사복 경찰의 협박에 굴복하여 돌아선다. 따라서 김달채가 닭장차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시위대의 함성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다.

06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김달채가 지닌 우산은 무전기와 유사하게 생겼다. (○, ×)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가, 김달채를 무전기를 지닌 사람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김달채가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하게 생겼음을 알 수 있다.

(2) 사건 왜곡 김달채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닭장차에 끌려가게 되었다. (○, ⊗)

김달채는 우산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해 보려고 시위 현장에 가서 사복 경찰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일 뿐,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복 경찰이 김달채를 위협할 생각으로 닭장차에 타고 싶냐고 한 것이지, 김달채가 실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아니다.

(3) 사건 왜곡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은 김달채의 우산을 보고 그가 권력가라고 착각하였다. (○, ⊗)

김달채가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에게 우산을 내보이며 권력가 행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년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김달채를 윽박지른다. 따라서 청년이 김달채를 권력가라고 착각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 **행사**: 부려서 씀.
- **전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비굴한**: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쉬운.

정·정·이

④ 헛짚기 김달채는 권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달채는 사람들이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는 순간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자, 이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고자 하였을 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오·이

① 김달채는 자신의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고 있다.

김달채가 길거리를 다니며 우산을 이용해 사람들을 떠보는 취미에 깊숙이 빠진 것은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② 김달채는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김달채는 우산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해 보려는 의도로 학생들을 연행하는 사복 경찰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사복 경찰이 자신의 권력을 인정해 주지 않자 맥없이 돌아선다. 이로 보아 그가 학생들을 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김달채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달채가 목청을 높여 사복 경찰들에게 소리를 친 것은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을 통해 실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⑤ 김달채는 권력을 행사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포기하는 비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달채는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을 가진 자신감으로 실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사복 경찰에게 크게 소리쳤지만, 자신이 내보이는 우산을 무시한 채 오히려 위협하는 사복 경찰에게 위축되어 맥없이 돌아서고 있다.

06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대 관계**: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는 관계.
- **기득권**: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타산적**: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헤아리는. 또는 그런 것.
- **승인**: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 **용이하게**: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게.

정·정·이

⑤ 헛짚기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허구적 권력 표지인 우산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달채는 우산의 존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라는 사복 경찰의 위협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돌아서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김달채는 학생들과 유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므로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김달채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상대로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에 대한 반응을 떠보고 다닌다. 이는 무전기로 상징되는 권력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살핌으로써 권력이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김달채는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찻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포장마찻집 주인이 김달채에게 저자세를 취하며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한 것은, 김달채가 가진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고 그를 권력을 지닌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준다.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무전기처럼 보이는 우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한 김달채는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으며 스포티한 잠바를 입고,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는 등 외양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무전기를 들고 다닐 만한 인물과 비슷하게 보이려는 의도이므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해 타인의 승인을 쉽게 얻으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김달채는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학생들을 살살 다루라며 목청을 높여 항의한다. 이는 그동안 우산을 이용해 자신을 권력을 지닌 인물로 오인하게 만들었던 경험들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65 답 (1) 우산 (2)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 (3) 김달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허구적 권력 표지: (우산)

사람들이 김달채의 우산을 무전기로 생각하여 행동함으로써, 김달채는 타인의 승인을 얻어 권력을 가진 듯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따라서 허구적 권력 표지는 '우산'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

김달채는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에게 우산을 내보이며 권력가 행세를 하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교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 (김달채)

김달채는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에게 권력가 행세를 하려 하지만 통하지 않자 맥없이 돌아서며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낸다.

06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지: 느끼어 앎.

정·정·이

③ 헛짚기 사복 차림의 청년과 달리 어린 학생들은 우산으로 형성된 권력에 의한 ~~폭력의 대상~~이 되었군.

김달채는 우산을 통해 형성된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다. 19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은 폭력적인 사회의 권력에 저항하다가 사복 경찰들에게 탄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학생들은 우산을 김달채의 의도와 다르게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학생들에게는 우산을 통해 권력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우산으로 형성된 권력에 의해 학생들이 폭력의 대상이 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김달채는 길거리에서 우산을 통해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군.

김달채는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우산을 내보이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② 김달채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우산의 존재를 알리고 권력을 형성하였군.

김달채는 지하철, 길거리, 백화점 등의 장소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거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산의 존재를 알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권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

④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은 김달채의 의도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산을 보았기 때문에 권력이 형성되지 않았군.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은 김달채의 의도와 달리 우산을 무전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⑤ 형태의 유사성 때문에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한 사람들은 우산을 통해 권력을 감지하고 김달채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였군.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이기에 사람들은 우산을 가진 김달채를 무전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았고, 그를 권력자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 것이다.

08 역마

작품 분석 본문 44~47쪽

작가 김동리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주제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특징 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② 갈림길이 있는 장터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생'과 '길'의 유사성을 보여 줌.

단숨에 읽기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하며 사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성기를 절에 보내 살게 하고 장날에만 집에 오게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찾아와 딸 계연을 옥화에게 맡기고 장사를 떠난다. 옥화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기가 역마살을 누르고 정착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기와 계연을 이어 주고자 하고, 둘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옥화는 우연히 계연의 귓바퀴 위에 자신과 똑같은 사마귀가 있는 것을 보고, 계연이 자신의 동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성기와 계연이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던 중 체 장수 영감이 돌아오고 체 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확신한다. 계연과 혼인하여 정착하고자 했던 성기는 계연이 체 장수 영감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계연을 떠나보내고, 성기는 이별의 슬픔에 몸져눕는다. 옥화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과 계연이 체 장수 영감을 아버지로 둔 자매라는 사실을 성기에게 밝힌다. 시간이 흐른 뒤, 기운을 차린 성기는 옥화에게 엿판을 맞추어 달라고 하여 엿판을 메고 하동 쪽을 향해 길을 떠난다.

한 줄 요약
❶ (**계연**)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 떠나면서, 계연과 성기가 이별함.
❷ (**이별**)의 아픔에 몸져누운 (**성기**)에게 옥화는 계연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야기를 들은 성기는 몸을 회복함.
❸ 떠돌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성기는 (**엿판**)을 메고 길을 떠나며 (**마음**)이 가벼워짐.

06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구성**: 사실에서 벗어나 만들어진 모양이나 요소를 가지는 성질.

정·정·이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성기가 몸져누워 있던 과거의 장면이 삽입되어 옥화가 계연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드러나 있다. 이 장면에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과 옥화의 말을 통해 체 장수 영감과 옥화, 계연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옥화와 성기의 집과 화개 장터 삼거리 길을 배경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루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옥화가 성기에게 계연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장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옥화와 성기의 집, 화개 장터 삼거리 길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 뿐, 이 글에 상상적 공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부재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의 대화가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되거나 큰따옴표 없이 인용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68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화개 장터, 하동, 구례 등은 현실적 공간이다.
화개 장터는 성기, 옥화, 계연을 둘러싼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며, 하동, 구례는, 성기가 집을 떠나며 어느 곳으로 향할지 고민하는 세 갈래 길이 각각 향해 있는 방향이다. 이때 언급된 곳들은 모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ㄴ.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옥화의 어머니를 만났다.
옥화는 성기에게 체 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 화개 장터에 와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옥화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오·이

ㄷ. 사건 왜곡 계연과 성기는 체 장수 영감을 ~~아버지로 둔 남매~~ 사이이다.
체 장수 영감을 아버지로 둔 것은 옥화와 계연으로, 이 둘은 자매 사이이다. 그리고 성기는 옥화의 아들이므로, 계연과 성기는 이모와 조카 사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사건 왜곡 계연과 체 장수 영감이 떠나는 사건과 성기가 엿판을 메고 떠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성기는 계연과 체 장수 영감이 떠난 뒤, 한참 앓아누워 있다가 회복하고 나서 엿판을 메고 길을 떠난다.

0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상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 **고백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거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옥화가 성기에게 '그 체 장수 영감은, ~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요약적 제시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옥화, 체 장수 영감, 계연과의 관계에 얽힌 사건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에서 엿판을 메고 길을 떠나는 성기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일관된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이상향을 설정하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계연이 떠나는 장면, 성기가 떠나는 장면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을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내면세계를 서술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0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재현**: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

정·정·이

③ [B]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B]는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 성기가 떠돌이 삶을 살기로 하고 집을 떠나는 장면이다. [B]의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우는 뻐꾸기, 버들가지에 흐르는 '햇빛', '유달리 맑게 갠' 날 등은 희망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처럼 계절적 변화와 함께 장면의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성기의 절망적인 심리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A]의 '항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A]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은 계연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고운 햇빛'은 떠나는 계연을 잡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성기의 상황과 대비되어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항라 적삼'과 '고운 햇빛'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② 상반 [A]의 '목소리'는 '뻐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A]의 거의 울음이 다 된 계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과 어우러져 이별하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헛짚기 [B]의 '뻐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B]의 '뻐꾸기'와 '화개 장터'는 시대적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B]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B]의 '또다시' 뻐꾸기가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에 햇빛이 젖어 흐르는 장면은 [A]의 풍경과 유사하지만, [A]와 달리 성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07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성기는 떠나는 계연을 붙잡지 못하고 뒤에서 지켜만 보았다. (○, ×)

계연과 성기 모두 이별에 미련을 보이고 있지만, 계연은 결국 울음과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 떠난다. 그리고 성기는 계연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있었다.

(2) 상반 성기는 계연과 이별한 뒤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여 집을 떠난다. (○, ×)

계연이 떠난 후 앓아누웠던 성기는 옥화로부터 체 장수 영감, 계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기운을 차리고 엿판을 메고 길을 떠난다. 여기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성기의 모습이 드러난다.

(3) 범위 오류 성기와 계연의 이별, 성기와 옥화의 이별은 모두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 ×)

성기와 계연의 이별은 비극성을 지니고 있으나, 성기와 옥화의 이별은 비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0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성기와 이별하는 ~~계연의 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은 성기와 계연이 이별한 이듬해에 내린 청명 무렵의 '비'로, 다시 봄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기는 이별의 아픔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비'가 성기와 이별하는 계연의 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이별의 상황에서 계연과 성기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성기는 떠나는 계연을 붙잡지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다. 이때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은 두 사람의 이별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③ ㉢: 계연과 성기의 이별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별의 아픔에 몸져누웠던 성기는 이듬해 청명 무렵에 몸을 회복하였는데, 이때 '살구, 복숭아, 진달래'가 골목, 산기슭에서 피고 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성기와 계연이 이별한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 성기와 계연이 혈연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옥화는 자신과 계연 모두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계연과 자신이 자매임을 확신하고 있다.

⑤ ㉤: 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성기가 '엿판'을 요구하는 것은 계연과 혼인할 수 없고 결국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순응하여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0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ㄱ은 이 작품의 인물들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는 내용이고, ㄴ은 이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내용이다. 계연은 운명에 순응하여 성기와 이별하게 되므로, ㄴ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즉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오·이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ㄱ에서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이 운명을 수용하고 이별하는 장면은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② ㄱ에 따르면, 엿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ㄱ에서는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떠돌이 운명을 수용하고 엿장수가 된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ㄴ에서는 이 작품 속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이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미신을 믿는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ㄴ에서는 이 작품 속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떠돌이 삶을 살게 될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074 답 (1) 수용하여 (2) 소극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성기는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여, 극복하여) 떠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는 계연과 인연을 맺고 정착해 사는 삶을 꿈꾸다가 결국 계연과 이별한 후 엿판을 메고 집을 떠난다. 이를 통해 떠돌이 삶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교체 성기를 떠나는 계연의 모습에서 (소극적,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계연은 성기를 사랑하지만 옥화와 체 장수 영감의 뜻대로 성기의 곁을 떠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

정·오 지름길

(1) 성기는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여, 극복하여) 떠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운명을 '수용'하는 것과 운명을 '극복'하는 것의 차이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성기의 운명은 역마살, 즉 떠돌이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기가 집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결정이에요. 만약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떠돌이의 삶이 아닌 정착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0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는 성기가 주어진 운명을 ~~극복~~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한 삶의 공간이다.

〈보기〉의 그림은 집을 떠나는 성기가 서 있는 화개 장터 삼거리이다. ⓐ는 성기가 살던 화갯골, ⓑ는 성기를 떠난 계연이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구례, ⓒ는 하동으로 향하는 길인데, 성기는 화갯골과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는 떠돌이 삶이라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 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는 성기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주체적으로 결정한 삶의 공간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는 성기와 계연에게 사랑의 공간인 동시에 이별의 공간이다.

화갯골(ⓐ)에 살던 성기는 그곳에서 계연을 만나 사랑을 하지만, 결국 계연이 떠나면서 이별하게 된다. 따라서 ⓐ는 사랑의 공간이자 이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는 성기의 외할머니와 계연의 아버지가 인연을 맺었던 공간이다.

옥화는 체 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에 화갯골(ⓐ), 즉 화개 장터에 와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③ ⓑ는 계연이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계연은 성기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구례(ⓑ)로 떠난다. 이는 성기와의 결합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성기가 계연과의 인연에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공간이다.

성기는 갈림길에서 계연이 간 구례 쪽을 한참 보다가 발길을 돌려 하동(ⓒ)으로 향한다. 이는 성기가 계연과의 인연에 미련을 버리고 떠돌이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음을 보여 준다.

09 장난감 도시

작품 분석 본문 48~51쪽

작가 이동하

갈래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주제 도시 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한 가족들의 어려운 삶과 소년의 성장

특징 ①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유년기의 체험을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함.
② '나'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이 여러 개의 짧은 삽화로 나열됨.
③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한 후 겪은 어려움을 생생하게 표현함.

단숨에 읽기 전쟁이 멈추고 한두 해가 지난, '나'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삼촌의 사상 문제로 순경과 난폭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집을 뒤집고 간 뒤, '나'의 가족은 삶의 터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우리 가족은 도시의 판자촌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도시의 냉엄한 질서를 깨닫는다. 평생 농사만 지어 왔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풀빵과 냉차를 파는 장사를 시작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고 우리 가족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한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아버지의 장사는 망하게 되고 우리 가족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나'는 학교에서 악다귀 같은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잡화상의 점원으로 갔다가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장물을 운반하다 경찰에 붙잡혀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어머니는 병고에 시달린다.

한 줄 요약

❶ '나'의 가족들은 도시에 (**이사**) 온 후 (**풀빵**) 장사를 시작함.

❷ 풀빵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고단한 미래를 예상함.

0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의 가족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풀빵 장사를 시작했던 경험과 그와 관련한 '나'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중심 사건을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의 가족이 도시에 이사를 온 후 풀빵 장사를 시작한 사건이 '나'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 다른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서술자는 '나'의 심리만 알 뿐 다른 인물의 심리는 알지 못한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다.

③ 부재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은 '나'의 가족이 겪은 사건에 대해 서술자인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의 서술이다.

④ 상반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로,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07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전**: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

정·정·이

(1) 부재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어 서술되고 있다. (○, (×))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며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거나 과거-현재-과거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시간 흐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부재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 (×))

아버지가 풀빵 도구를 마련해 오는 장면, 가족들이 풀빵을 처음 만들고 시식하는 장면, 풀빵 장사를 끝내고 돌아온 아버지와 가족들이 저녁으로 풀빵을 먹고 잠드는 장면 등 장면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는 않다.

(3) 부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이 글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2)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서술자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나오면 지문에서 서술자 '나'가 다른 인물로 바뀌거나, 서술자 '나'가 3인칭으로, 혹은 3인칭이 '나'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런데 이 글은 '나'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서술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07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반전**: 일의 형세가 뒤바뀜.

정·정·이

① 현재 상황을 과거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도시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입에 풀칠을 하는 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처지는 비록 몇 마지기의 땅뙈기지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 왔던 이전(과거)의 상황과 대비가 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서술하여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아버지가 몇 가지 도구들을 떠메고 들어오는 행동이 나타나지만, 이를 과장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지도 않다.

③ 헛짚기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 와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풀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아버지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인물의 외적 갈등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부재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직한 만큼 아버지는 무능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풀빵을 구워 내는 빵틀이나 냉차 항아리 등의 소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7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착잡**: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함.
- **내재**: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또한 그런 존재.
- **암담한**: ① 어두컴컴하고 쓸쓸한. ②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 **각박한**: 인정이 없고 삭막한.

정·정·이

② [B]에서 아버지의 대사에는 거북한 분위기를 풀어 주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 안에는 착잡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B]는 풀빵 장사 후 남은 풀빵으로 저녁밥을 대신하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팔지 못해 남은 풀빵을 가득 들고 돌아온 뒤, 야릇하고 거북스러운 식사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재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말을 한다. 이 말은 가족들의 가라앉은 기분을 풀어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 착잡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A]에서 풀빵 맛을 본 후 눈치를 살피는 가족의 모습에는 ~~앞날을 예감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A]에서는 풀빵을 시식한 후 가족 모두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선뜻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들 풀빵과 같은 음식을 난생처음 먹었기 때문에 맛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③ 헛짚기 [A]와 [B]에는 가족들이 각박한 현실과 가난한 삶을 ~~가족애로 이겨 내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에는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풀빵 장사를 시작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즉 가족들이 처한 각박한 현실과 가난한 삶은 나타나지만, 이를 가족애로 이겨 내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헛짚기 [A]와 [B]에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무능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A]에서는 풀빵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는 아버지의 의지를, [B]에서는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아버지의 걱정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배려심 등을 엿볼 수 있다.

⑤ 헛짚기 [A]와 [B]에서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A]에서는 풀빵의 맛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B]에서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정·오 지름길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개 이상을 함께 묻는 문제의 경우 [A], [B]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풀려고 하면 확인해야 할 점이 많다 보니 선지를 따져 보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A]를 읽고 선지 중에서 [A]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1차로 선지를 걸러 내고, 남은 선지 중에서 [B]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1차에서 걸러 내고 남은 선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08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A] 난감함, [B] 착잡함

[A]에서 아버지는 풀빵을 시식해 본 가족들의 좋지 않은 반응에 직접 맛을 보고 나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B]에는 팔리지 않은 풀빵을 저녁으로 먹으며 무거운 분위기를 깨 보려는 아버지의 착잡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A] 실망스러움, [B] ~~안도감~~

[A]에서 풀빵의 맛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 실망스러움을 느꼈을 수 있으나, [B]는 풀빵 장사가 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A] ~~후회스러움~~, [B] ~~부끄러움~~

[A]에서는 풀빵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는 아버지의 의지가 드러날 뿐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B]에서 아버지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부끄러움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08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처음 느껴 본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다.

풀빵을 먹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난생처음으로 먹어 본 풀빵의 맛에 대해 어떻게 평해야 좋을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들은 처음 느껴 본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을 숨기고 있다.

ⓐ의 뒷부분에서 아버지의 낙관론 못지않게 우리의 기대도 컸다고 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무능함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 아버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가부장적인~~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의 가족은 낯선 음식인 풀빵을 선뜻 먹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권유에 빵을 먹기 시작했다. 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기보다, 장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족의 풀빵 시식과 맛 평가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사건 왜곡 ⓓ: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뒷맛이 좀 쓴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조심스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 '나'의 가족은 서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남은 풀빵으로 저녁을 먹는 상황을 야릇하고 허전하며 거북스러운 분위기라고 하였다. 이때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서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8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요행**: 뜻밖에 얻는 행운.
- **이주**: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정·정·이

③ 헛짚기 ㉢: 요행을 바라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시도임을 말해 준다.

㉢의 '투자'는 빵틀과 냉차 항아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풀빵 장사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생계를 위해 아버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는 흙에 대한 생각의 표현이다.

㉠은 흙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흙이 정직한 상대라는 것은 흙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② ㉡: 이주한 후에 깨닫게 된 도시의 속성을 말해 준다.

㉡은 '냉수 한 사발도 공짜가 없는', '잠시 돌아누워도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도시에 대한 표현이다. 이는 도시로 이주하여 한 달 동안 '나'의 가족이 터득한 도시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④ ㉣: 경제적 여유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은 빵틀에 난 스물네 개의 구멍에서 구운 풀빵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몸을 붙여 잠을 자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은 비좁은 방 안에 나란히 몸을 붙이고 누워 잠을 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08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나'의 가족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와 판자촌에 살고 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우리 가족이 터득한 지식이란 도시 생활의 그 냉엄한 질서였다.', "시골 구석에 백혀 있어 봐." 등을 통해 '나'의 가족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웃들의 숨소리가 판자벽을 낭자하게 넘어왔다.'를 통해 판자촌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사건 왜곡 아버지는 과거에 장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

반평생을 넘어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의지해 온 것이 몇 마지기의 땅뿐이라는 점을 통해,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살아왔을 뿐 장사를 한 경험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사건 왜곡 '나'는 아버지가 빵틀로 돈을 마구 찍어 내는 것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처음에는 빵틀이 지폐를 찍어 내는 기계가 되어 가족이 성공할 것을 소망했으나, 아버지의 첫 장사 이후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지폐를 찍어 내는 일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08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처음 풀빵을 먹은 뒤 '난생처음으로 그런 유의 음식을 시식하는 처지'였다며 어떻게 맛을 평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데서 도시의 냉엄한 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처음 만든 풀빵의 맛을 물어보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종류의 음식을 난생처음 시식했고 맛도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평가하는 데 주저한다. 그러나 이를 도시의 냉엄한 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이놈의 빵틀로 마구 돈을 찍어 내'자는 아버지의 말에 '우리의 기대 또한 컸다'는 데서 '나'의 가족이 도시 생활에 기대와 환상을 가졌음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빵틀로 돈을 마구 벌 수 있다는 낙관론을 드러내자,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게 기대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

해 '나'의 가족이 도시 생활에 기대와 환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식어서 차고 딱딱'한 풀빵으로 저녁밥을 때우는 모습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족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팔리지 않은 풀빵을 가득 들고 돌아오자, 가족들은 남은 풀빵을 저녁 대신 먹는다. 여기에서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 가족들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상황 등 도시로 이주한 가족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다.

④ '누나와 내가 해종일 찍어 낸 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던 지폐가 아니라 역시 풀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 도시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년의 내면이 드러난다.

처음에 '나'는 풀빵 장사가 잘되어서 빵틀이 지폐를 찍어 내는 기계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아버지가 남은 풀빵을 가득 들고 돌아온 후 그런 기대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도시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년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⑤ '가족이 성냥개비들처럼 나란히 드러누웠을 때' '고단한 이웃들의 숨소리가 판자벽을 낭자하게 넘어왔다'는 데서 전후의 궁핍한 사회상이 드러난다.

남은 풀빵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몸을 붙여 나란히 누웠다는 것과, 판자벽을 두고 고단하게 자는 이웃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는 데서 전쟁 후의 가난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10 사평역

작품 분석 본문 52~55쪽

작가 임철우

갈래 단편 소설

주제 기차역 대합실에서 본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교감

특징 ①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프로, 서사적 상상력을 더하여 창작됨.

② 특별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과 내면을 그려 냄.

③ 중심인물 없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회상과 성찰을 통해 액자식으로 제시함.

단숨에 읽기 시골 간이역의 역장은 좀처럼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눈 내리는 겨울밤, 대합실에서는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난로에 몸을 녹이고 있다. 미뤄 왔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노인과 농부인 그의 아들,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의 부탁으로 그의 노모를 찾아왔던 중년 사내, 가난한 가족의 희망이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한 대학생, 자신의 식당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사평댁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녀를 돕고 돌아가는 서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춘심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행상 아낙네들 등 여러 인물들의 사연이 제시된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완행열차는 오지 않는데 특급 열차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대합실에 놓인 난로의 불빛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본다. 대학생은 유치장을 체험한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에 잠기고, 행상 아낙네들은 떠나온 집에 대해 생각한다. 대학생과 중년 사내는 난로에 톱밥을 넣으면서 그리운 대상을 떠올린다. 두 시간이나 연착한 완행열차를 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한다. 미친 여자만 열차를 타지 않고 홀로 대합실에 남아 난로를 독차지하고 있다. 난로를 끄고 대합실을 정리해야 하는 역장은 난처해하다가 난로를 더 켜 두기로 한다.

한 줄 요약

❶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안의 사람들이 난로에 몸을 녹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음.

❷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며 (**대학생(청년)**)과 중년 사내가 난로에 (**톱밥**)을 넣음.

❸ 연착한 야간 (**완행열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감.

❹ (**역장**)은 사람들이 떠난 대합실에 홀로 남은 여자를 걱정하며 (**난로**)를 켜 둠.

08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염원**: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또는 그런 것.
- **고달픈**: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한.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정·정·이

⑤ 헛짚기 인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열차는 그들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합실 안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야간 완행열차'는 그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 주는 것이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야간 완행열차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지에 어울리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늦은 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모습은 인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열차가 두 시간 연착하게 설정함으로써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차가 정해진 시간보다 두 시간 늦게 도착함에 따라 인물들은 대합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된다. 이로 인해 인물들이 대합실의 난로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는 시간이 확보되고,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인물들이 완행열차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인생의 여정을 이어 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열차에 오른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므로, '야간 완행열차'는 인물들의 삶의 여정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열차의 출발은 서술의 초점이 역에 남아 있는 인물들에게 옮겨 가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열차가 출발하자 열차에 올라탄 인물들에 대한 서술은 종결된다. 그리고 역장과 대합실에 홀로 남은 미친 여자에게로 서술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086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대합실의 승객들이 기다리던 대상이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예정 시각보다 두 시간 늦게 역에 도착했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사건 왜곡 늦은 밤에 눈 때문에 사평역에서 오래 머물렀다.

두 시간을 연착해 도착한 열차는 사평역에서 승객을 태운 후 역장의 출발 신호에 곧 출발했다. 열차가 사평역에 늦게 도착한 것이지, 사평역에서 오래 머무른 것은 아니다.

ㄹ. 헛짚기 고달프지만 희망이 있는 서민들의 삶을 상징한다.

사람들이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타고, 이내 그 열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으로 볼 때, 열차는 고단하게 이어지는 서민들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희망이 있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8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직**: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

정·정·이

⑤ 헛짚기 대합실 내의 사람들의 관계를 경직시켜 그들을 침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과 '중년 사내'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난로에 톱밥을 넣고, 대합실 내의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교감하고 있다. 따라서 난로가 사람들의 관계를 경직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겨울밤의 대합실에 온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밖은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고, 대합실에는 난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난로는 온기를 제공하여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청년'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청년'은 난로에 톱밥을 넣으면서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가족들, 친구들과 노교수, 학교 등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다.

③ '중년 사내'로 하여금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청년'을 따라 난로에 톱밥을 뿌리던 '중년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④ 소외된 인물인 '미친 여자'에 대한 역장의 인간애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대합실에 홀로 남은 '미친 여자'를 발견하고 혹독한 추위에 갈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하며 여자를 위해 난로에 톱밥을 더 부어 주려는 역장의 모습에서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08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그가 취하는 행동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에는 열차 난간 손잡이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이 위태로움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청년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합실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윙윙대는 바람 소리,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합실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 머릿속 생각을 인물에게 직접 듣는 것처럼 느끼도록 서술하고 있다.

㉡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청년이 떠올린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어 그에게서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불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에서는 중년 사내가 뿌린 톱밥이 난롯불에 닿아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호르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④ ㉣: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서는 사내의 눈동자가 그리움으로 반짝 빛난다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내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다.

㉠은 바람 소리,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 난로에서 튀어 오르는 톱밥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며, ㉢은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와 모습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 혹은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 ㉢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다.

㉠에서는 '싸륵싸륵', '톡톡', ㉢에서는 '호르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에서는 '전신주 끝을 물고 윙윙대는 바람 소리'에서 활유법을, ㉢에서는 '삐비꽃 같은 불꽃'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09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B]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B]에서는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와 같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함으로써 소외된 여자의 고단한 처지와 역장의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교감'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A]는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A]는 중년 사내의 표정과 대학생의 얼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② 부재 [A]는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A]는 난로에 톱밥을 뿌리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나, 과장된 표현은 아니며 대상의 부정적 면모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B]는 ~~과거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인물이 하는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B]에서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부재 [B]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B]의 공간적 배경은 대합실이지만, 대합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9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와 ⓑ가 난로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다면 ⓒ는 소통의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군.

사내(ⓑ)는 대학생(ⓐ)이 난로에 톱밥을 뿌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난로에 톱밥을 넣는다. 사내가 대학생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역장(ⓒ)이 소통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오·이

① 추운 겨울날의 난로는 연관성 없는 인물인 ⓐ와 ⓑ가 한자리에 있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군.

대학생(ⓐ)과 사내(ⓑ)는 추위를 피해 난로 곁에 있는 것이므로, 난로는 연관성이 없는 두 인물이 한자리에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② ⓐ가 난로에 톱밥을 넣으며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는 행동은 그 대상이 바뀌어 ⓑ에게서 반복되고 있군.

대학생(ⓐ)은 난로에 톱밥을 넣으며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친구들, 노교수, 강의실, 교정의 풍경 등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대학생의 행동을 지켜보던 사내(ⓑ) 역시 난로에 톱밥을 넣으며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함을 느낀다. 이때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그리움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의 행동이 사내의 행동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난로 곁에 다가오는 데서 ⓓ의 처지를 짐작해 볼 수 있군.

대합실에 혼자 남아 있는 미친 여자(ⓓ)는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떠난 뒤에야 난로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미친 여자가 대합실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소외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가 난로에 톱밥을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군.

역장(ⓒ)은 혹독한 추위에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미친 여자(ⓓ)를 걱정하고 있다. 난로를 끄고 대합실을 정리해야 하는 역장이 난처해하면서도 난로에 톱밥을 더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은 미친 여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09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는 ⓑ를 보고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 (×))

사내(ⓑ)는 대학생(ⓐ)이 난로에 톱밥을 뿌려 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가 하듯이 난로에 톱밥을 뿌렸다고 하였다. 즉 ⓐ의 모습을 보고 ⓑ가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다.

(2) 사건 왜곡 기차가 떠난 뒤 사평역 대합실에는 ⓒ만 남았다. (○, (×))

열차가 떠난 뒤 역장(ⓒ)은 대합실에 들어가서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던 미친 여자(ⓓ)를 발견한다. 따라서 기차가 떠난 뒤 남아 있는 사람은 ⓒ와 ⓓ임을 알 수 있다.

(3) ⓓ는 ⓐ와 ⓑ가 있을 때에는 난로 곁에 가지 않았다. ((○), ×)

미친 여자(ⓓ)는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떠난 후에야 난로를 독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는 ⓐ와 ⓑ가 있을 때는 난로 곁에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9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애환**: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순탄하지**: 삶 따위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지.

정·정·이

④ 헛짚기 대합실에 홀로 남은 여자가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앉아 있는 장면에서 산업화 시대의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회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사람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 떠난 뒤에 갈 곳 없이 홀로 남은 여자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서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난로를 차지하고 앉은 모습을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여자가 난로 곁에 앉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다른 이들보다 더욱 뒤처지고 고단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야간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에서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통해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겠군.

대합실에는 대학생, 중년 사내, 농부, 아낙네들, 서울 여자와 춘심이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각자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대 민중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②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채 야간 완행열차에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산업화 시대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서민들의 고단한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사람들은 기다리던 열차가 왔음에도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탄다. 이를 통해 그들의 힘겨운 삶과 고단한 처지를 알 수 있다.

③ 사람들을 태운 완행열차가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가는 모습은 앞으로 이어질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겠군.

기차를 타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지만, 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는 것은 그들의 고단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정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⑤ '혹독한 추위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위해 역장이 난로에 톱밥을 더 넣어 주려는 모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군.

역장은 갈 곳 없이 대합실에 홀로 남은 여자가 걱정스러워서 난로에 톱밥을 더 넣어 불을 계속 지피려 하고 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난로의 불기를 주려는 행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II

소설_농촌, 도시

11 봄·봄

작품 분석 본문 58~61쪽

작가 김유정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주제 혼인을 둘러싼 데릴사위와 장인의 갈등
특징 ① 점순이와 '나'의 성례에 대한 '나'와 장인의 입장이 대립됨.
② 사건의 시간과 서술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③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이 해학적으로 그려짐.

단숨에 읽기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기 위해 데릴사위로 와서 3년 7개월 동안 돈도 받지 않고 머슴처럼 일을 하지만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는 이유로 성례를 계속 미룬다. '나'는 배가 아프다는 꾀병도 부려 보고, 점순이의 충동질을 받고 결판을 내기 위해 구장님을 찾아가 하소연도 해 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모습에 망연자실한다. 올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나'는 다시 장인과 화해하고 일을 하러 나간다.

한 줄 요약

1. 못된 성품의 (**장인**)은 (**마름**)으로서 소작농에게 횡포를 부려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음.
2. (**'나'**)는 작년에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함.
3. 점순이의 작은 (**키**)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어 '나'가 짜증이 남.
4. '나'는 평범한 외양의 (**점순이**)에게 애정을 지니고 있음.
5.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충동질함.

0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상황은 이 글의 현재에 해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거 '작년 이맘때' 장인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건을 떠올린다. 그때 장인은 '나'에게 가을에 혼인을 시켜 준다고 회유하며 '나'가 다시 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나'가 데릴사위로 점순이네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고 있으며 혼인을 두고 장인과 갈등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을 뿐,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로,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⑤ 부재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 액자식 구성은 드러나지 않으며,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095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와 같이 현재의 이야기 중에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ㄴ. 속어와 투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자식아', '이 망할 자식의 소' 등과 같이 속어의 사용이 나타나고, '대리를 꺾어 줄라.'와 같은 투박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ㄷ.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ㄹ. 부재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는 찾아볼 수 없다.

09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이야기 속 인물인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에 직접 경험한 각각의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인 '나'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 '나'가 장인에게 뺨을 맞은 사건은 점순이와 혼인을 시켜 주지 않는 장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서로 대비되는 사건이 아니다.

③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특정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부재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설명하며 각 인물들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로, '나'의 내면만 서술하고 있다.

0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라는 점순이의 말을 통해 점순이가 성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사건 왜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나'는 '점순이'가 아니라 '장인'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장인'이 '점순이'와 '나'의 혼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④ 헛짚기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서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이유는 마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렸기 때문이다.

⑤ 상반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정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나'가 '장인'에 대해 '마름이란 욕 잘하고 ~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09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점순이의 키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는 이유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의 답답한 심정이 유발되고, '나'와 장인이 갈등하고 있다.

오·오·이

② 교체 장인의 소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로 볼 때 장인의 소는 '나'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일 뿐, 장인이 성례를 미루는 핑곗거리이거나 '나'의 답답한 심정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③ 교체 계절의 변화

이 작품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나'와 점순이로 하여금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일 뿐, 장인이 성례를 미루는 핑곗거리이거나 '나'와 장인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09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점순이는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는 '나'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점순이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나'에게 말한 것은 바쁘게 일하는 '나'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례를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오·오·이

① 장인은 이전에 '나'에게 한 혼인 약속을 번복한 적이 있다.

장인은 작년에 벼가 잘되면 장가를 들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③ '나'는 점순이의 실수도 포용할 만큼 점순이에게 애정을 지니고 있다.

'나'는 점순이가 밥을 나르다가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밥을 주어도 점순이가 무안해할까 봐 참고 먹는 등 점순이의 실수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나'가 점순이에게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장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마름으로서 보여 준 모습 때문이다.

장인은 배 참봉 댁 마름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작인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동네 사람들의 인심을 잃었다고 하였다.

⑤ 장인은 점순이가 키가 미처 덜 컸다는 이유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다.

장인은 "미처 커야지."라며 작은 키를 이유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루고 있다.

10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는 점순이가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뜻이므로, 점순이가 혼례를 치러도 될 만큼 자란 것 같아서 반가워하는 '나'의 심정이 담겨 있다.

오·오·이

① ㉠: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은 '욕필'이라는 별명이 본명인 '봉필'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② ㉡: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은 서술자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③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서술자인 '나'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의 소에게 대신 표출하고 있다.

④ ㉣: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해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은 점순이의 행동 특성에 대해 장인이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평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1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 앞에서 장인의 소를 '망할 자식의 소'라고 한 것을 통해 '나'가 장인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마을 사람들이 장인을 '욕필'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한 '나'의 추가적 설명일 뿐, 장인에 대한 '나'의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

'몸살'과 관련한 '나'의 추가적 설명일 뿐, 장인에 대한 '나'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10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의 처지와 대조~~되어 점순이와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군.

'봄'은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는 계절로, '나'는 봄이 되어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점순이는 며칠 내 갑자기 성숙해진 듯 '나'에게 성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봄'은 '나'와 점순이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적 배경일 뿐, '나'의 처지와 대조되어 점순이와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겠군.

이 작품은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가 서술자로서 점순이와의 혼례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토속적 방언과 비속어 등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학적으로 그려지는군.

이 작품은 생생하고 감각적인 방언, 비속어 등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토속적이고 해학적으로 '나'와 장인의 갈등을 그려 내고 있다.

③ 서술자가 점순이의 외양을 주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드러내는군.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 혹혹이 먹음직하니 좋다.'는 서술자인 '나'가 점순이의 외양을 주관적으로 묘사한 부분으로, '나'가 점순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⑤ 점순이와의 혼인을 원하는 '나'의 욕망과 교묘하게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장인의 욕망이 충돌하며 일어나는 갈등이 흥미롭군.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준다는 말만 믿고 데릴사위로 일하고 있는 '나'와 혼인을 핑계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인 사이의 외적 갈등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1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사건 왜곡 ⓓ: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나'는 '밭'에서 소에게 공연히 화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점순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장인은 마름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 대부분의 마름들이 이러하였다면 소작인들이 안정적으로 소작하기 어려워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남이 이틀 할 일을 혼자서 하루에 다 하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등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이날' 점순이는 장인에게 적극적으로 혼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에 대해 '나'를 타박한다. '나'는 이를 통해 점순이 또한 혼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0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점순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 심화~~된다. (○, (×))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조를 것을 채근하고 있으나, '나'는 이러한 점순이의 반응을 반기고 있으므로 '나'와 점순이의 외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후 장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

'이날' 점순이는 '나'에게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충동질하였고 '나'는 이를 반겼다. 따라서 '이날' 이후 장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헛짚기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며 사건의 반전이 예고된다. (○, (×))

'이날'은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는 '봄'으로, 이러한 계절적 배경이 인물의 심경에 변화를 주어 사건이 전환될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12 돌다리

작품 분석 본문 62~65쪽

작가 이태준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땅에 대한 애착과 물질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②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진행됨.
단숨에 읽기 창섭은 누이동생이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아버지가 원하는 농업 학교가 아니라 의전으로 진학해 의사가 된다. 창섭은 자신의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으로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친다. 창섭은 부모님께,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을 서울 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땅을 팔 것을 설득한다.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며 땅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한다.

한 줄 요약
❶ 창섭은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땅을 팔기를 원함.
❷ 창섭은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아버지**)에게 땅을 팔 것을 제안함.
❸ 아버지는 땅을 함부로 여기는 세태를 비판하며 (**천지만물**)의 근거인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함.

10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사건의 발생 순서는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② 사건 왜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③ 사건 왜곡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④ 사건 왜곡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사건 발생 순서는 ④ → ① → ② → ③ → ⑤이다.

1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ㄴ-ㄹ-ㄱ-ㄷ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돌다리를 건넌 사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던 과거의 사건이다(ㄴ). 이 글에 제시된 현재는 '창섭'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ㄹ) 아버지를 설득하는 상황(ㄱ)으로,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 놓고 돌아온 '아버지'(ㄷ)는 '창섭'의 계획에 반대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ㄱ-ㄴ-ㄷ-ㄹ
③ 사건 왜곡 ㄷ-ㄱ-ㄴ-ㄹ

106번-②의 해설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 수 있다.

1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정·정·이

② '창섭'은 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땅을 팔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에서 보면, 창섭은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면 땅에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실용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땅을 팔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아버지'는 자농이 타작에 비해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 아버지가 자농을 하는 이유는 이익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애정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헛짚기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시골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가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어머니가 시골에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헛짚기 '창섭'은 수익 측면에서 볼 때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에게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쿠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창섭이 땅을 팔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헛짚기 '아버지'는 요즘 사람들이 점차 나약해져 가는 것이 ~~'돌다리'~~와 같이 편안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들기는 힘들지만 튼튼하고 안정적인 '돌다리'는 역사와 추억이 담긴 전통적인 문화를 상징한다. 따라서 '돌다리'가 편안한 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1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A]에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은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는 창섭의 계획은 창섭이 이해를 따지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③ 헛짚기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든 것일 뿐, 이를 그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직원 합숙실에 관한 내용은 창섭이 사고자 하는 건물이 입원실을 꾸미기에 적합하다는 근거로 든 것일 뿐, 이것이 창섭이 배려심 많은 성격이라는 것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부재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A]는 창섭이 한 말을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으므로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창섭'은 부모님을 서울에서 모시고자 한다. (○, ×)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라는 창섭의 말과,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이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2) '창섭'은 나무다리가 돌다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돌다리를 고치고 온 아버지에게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라고 말하는 창섭의 반응으로 볼 때 적절한 설명이다.

(3) 사건 왜곡 '창섭'은 지금 ~~병원이 잘 운영되지 않아~~ 교통이 좋은 새 건물로 이사하고자 한다. (○, ×)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이라는 서술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1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의 필요성~~이라는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아버지와 창섭은 각자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대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세대 간의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줄 뿐, 세대 간 화합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는 '물질 중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다.

오·오·이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신구 세대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글은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돌다리'와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나무다리'를 통해 신구 세대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땅'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 드러나는 주된 갈등은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창섭과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의 외적 갈등이다.

③ '돌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전통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상징한다.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⑤ 전통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물의 입을 빌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땅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지닌 아버지의 말을 통해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11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어머니는 땅이나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따라서 당시를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창섭은 땅이나 집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 그 다리루 가 말 타구 내 집에 왔어."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심은 마당의 은행나무 밑에 설 때마다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본다고 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이며,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이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장소애를 더 중시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은 자연물에 인정을 두지 않는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비판하는 것일 뿐,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장소애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 땅을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여기는 창섭의 생각이 드러난다.

㉠에서 창섭은 땅을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땅을 도구적·교환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 땅이 장소애의 대상에서 도구적 대상으로 변질되어 가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에서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여 매매와 투기를 일삼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의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땅이 장소애의 대상에서 도구적 대상으로 변질되어 가던 과도기적 시대 배경을 엿볼 수 있다.

11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어머니'는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을 모두 존중하는 인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군.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아들(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창섭'과 '아버지'의 갈등은 신구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군.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창섭은 땅의 처분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② '창섭'과 '아버지'의 땅에 대한 인식은 서로의 가치관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이군.

아버지는 눈앞의 이익보다 전통과 명분 등을 중시하는 인물이고, 창섭은 경제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실리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의 가치관은 '땅'을 바라보는 각자의 인식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④ 시간이 지나 '창섭'과 같은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회가 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겠군.

〈보기〉를 참고할 때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이 주류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창섭'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어 가던 과도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과 창섭의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한 채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3 만무방

작품 분석 본문 66~69쪽

작가 김유정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주제 식민지 농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
특징 ① 반어적 상황을 활용해 당대 농민들이 겪는 삶의 고난을 제시함.
② 토속적인 어휘를 구사하여 농촌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함.
③ 식민지 농촌의 사회상과 구조적 모순을 제시하는 현실 고발적 성격을 지님.
단숨에 읽기 전과자인 응칠은 송이를 캐고 남의 닭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간다. 응칠은 동생인 응오가 그리운 마음에 응오를 찾아오는데 성실한 농군인 응오는 추수할 시기가 지나도 벼를 털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벼를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응칠은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둑을 잡은 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응오의 논에서 잠복을 하던 응칠은 도둑을 몽둥이로 내려쳐 잡고 보니 그 도둑이 응오였음을 알게 된다. 응칠은 응오에게 황소를 훔칠 것을 제안했지만 응오는 이를 거절한다. 응칠은 달아나는 동생을 몽둥이질하여 쓰러뜨린 후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
한 줄 요약
❶ 전과 사범인 (**응칠**)이 동생 응오를 보러 왔을 때 큰일이 생김.
❷ 진실한 농군인 응오는 힘들게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시기가 지나도록 (**추수**)를 하지 않음.
❸ 응칠은 (**지주**)에게 항의하다 지주의 뺨을 때리고, 응오의 논에서는 벼가 없어짐.
❹ 벼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하던 응칠은 그 도둑이 (**응오**)였음을 알고 놀람.

11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응칠과 응오 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글은 응칠과 응오의 경험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야기가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 글은 반어적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장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헛짚기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 일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수확을 해도 얻을 것이 없는 농촌의 비참한 현실과 관련된 것이므로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1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농촌이다.
ㄴ.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3인칭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배경을 묘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ㄹ. 부재 상반된 두 인물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응칠은 전과 사범으로 떠돌이 삶을 살고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인물형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두 인물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주된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11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응오는 핑계를 대며 상대의 요구에 대한 거절을 표현하고 있다.
응오가 벼를 베지 않고 있는 이유는 수확을 해 봐야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응오는 아내 핑계를 대면서 김 참판의 수확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김 참판은 응오에게 보답을 암시하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 참판은 응오에게 벼를 벨 것을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답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사건 왜곡 응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굳은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응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굳은 각오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③ 사건 왜곡 응오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응오가 김 참판에게 해야 할 일을 제시하거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사건 왜곡 김 참판은 응오가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응오가 김 참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1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A]에는 흉작으로 벼를 추수해 봐야 남는 것이 없는 응오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B]에는 자신의 논의 벼를 훔치던 응오가 응칠에게 이를 들킨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A]는 [B]의 상황적 배경이 되며(ㄱ), 이를 통해 당시 농민들의 궁핍한 현실이 강조된다(ㄷ).

오·오·이

ㄴ. 사건 왜곡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A]에 드러난 갈등은 지주와 응오의 갈등, 응오의 내적 갈등이다. 이런 갈등 상황은 [B]에서도 해소되지 않는다.

ㄹ. 헛짚기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A]와 [B] 모두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개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이다.

11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A]를 통해 응오가 수확을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
[A]를 통해 힘들게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응오가 수확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2) [A]에는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당시 농민들의 절망적 현실이 드러난다. (○, ×)
[A]의 '이놈을 가을하다간 ~ 빚도 다 못 가릴 모양.'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농민들의 궁핍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드러난다.

(3) 교체 [B]에는 다른 사람(자신)의 것을 훔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 ×)
[B]에서 응오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벼를 훔치고 있다.

1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면모**: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
- **몽환적**: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

정·정·이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에서는 열심히 타작을 하고 남는 것이 빈 지게와 땀방울밖에 없는 것에 대한 허탈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인물의 게으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라고 하였으므로 남들이 추수를 모두 마친 시기까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응오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뿐, 이것이 그의 게으른 면모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희극적 상황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한다.
응칠이 지주와 담판을 지으며 지주를 때린 상황에서 응오 논에 도둑이 드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할 뿐, 이를 통해 희극적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④ 헛짚기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의 침묵은 동생 논의 벼를 훔친 도둑이 동생 자신이라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마주한 응칠이 그 충격과 혼란으로 할 말을 잃고 굳어 버린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응오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헛짚기 ㉤: 현실감 없는 설정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은 응오 논의 벼를 훔친 도둑이 응오 자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응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몽환적인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12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응칠이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 것(ㄱ)은 혈족이라곤 하나의 동생이고,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 도적과는 관계가 없다.

오·오·이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응칠이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 것(ㄱ)은 하나뿐인 동생 응오를 오래 못 본지라 그리웠기 때문이고, 응칠이 담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 것(ㄴ)은 응오의 도지를 감해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동생 응오를 생각하는 응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응오의 도지를 감해 주기 위해 지주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하고(ㄴ), 지주의 태도에 분노해 그의 뺨을 때리고(ㄷ), 도적을 잡기 위해 논에 잠복해 있다가 도적에게 달려드는(ㅁ) 모습에서 괄괄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의 성격이 드러난다.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응칠이 지주를 만난 것(ㄴ)은 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도적을 기다리는 것(ㄹ)은 자신이 쓰게 될지도 모를 도적 누명을 벗기 위한 행동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응칠의 의지가 드러난다.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응칠이 도적을 기다리다(ㄹ) 도적에게 달려드는 것(ㅁ)은 자신이 도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적을 잡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응칠이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2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ㄷ은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 ⊗)

지주의 태도에 분노해 응칠이 그의 뺨을 때린 것은 괄괄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의 성격을 보여 준다.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내는 인물은 응칠이 아니라 응오이다.

(2) 헛짚기 ㄹ은 응칠이 ~~지주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기 위해 한 행위이다. (○, ⊗)

응칠이 적극적으로 도적을 잡으려고 한 이유는 자신이 벼를 훔친 도둑으로 의심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3) ㅁ 이후 찾아온 침묵은 뜻밖의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에서 나온 것이다. (⊙, ×)

응칠은 응오의 벼를 훔친 도적이 응오 자신인 것을 알고 당혹스러움에 잠시 침묵하고 있다.

12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나쁜 일만 생기면 의심을 받고 주재소에 붙들려 가는 응칠의 처지에서 ~~궁핍한 농민의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응칠이 나쁜 일만 생기면 주재소에 붙들려 가는 것은 응칠이 행실이 좋지 않은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궁핍한 농민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응칠이 지주의 뺨을 때리는 부분에서 '만무방'이라는 제목이 가리키는 사람이 응칠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화를 참지 못하고 지주의 뺨을 때리는 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문제를 키우게 되는 응칠의 행동에서, 염치없이 막되어 먹은 사람이 응칠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응오가 응칠에게 잡히자 울면서 말을 내뱉고, 응칠이 당황하는 부분에서 상황적 아이러니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

벼 도둑이 응오임을 알고 당황한 응칠과, 자신을 잡은 응칠에게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라고 내뱉는 응오의 모습은 자신이 농사지은 벼를 훔쳐야 자기 것이 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극대화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아내가 병에 걸렸지만 약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응오의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이 엿보여.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아내가 병에 걸려도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응오의 모습을 통해 극심한 가난을 겪는 농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⑤ 성실한 농부인 응오가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은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농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어.

성실한 농부로 인정받는 응오조차 농사를 지을수록 궁핍해져 결국 자신의 벼를 도둑질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은 누구나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보여 준다.

14 눈이 오면

작품 분석 본문 70~73쪽

작가 임철우
갈래 단편 소설, 여로형 소설
주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특징 ①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여로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②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함.
단숨에 읽기 '그(찬우)'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가난했던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린다. 귀향을 결정한 것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어머니가 '그'에게 계속 죽은 아버지와 형을 찾아 고향인 꼬두메로 돌아가자고 졸랐기 때문이다. 기차 안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머니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에 대해 너무도 무심했음을 깨닫게 된다. 꼬두메에 도착했으나 마을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던 공동묘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잠시 다방에서 기다리게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의 묘에 대해 알아보지만 소득이 없이 다방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머니가 과거의 꼬두메를 찾아 길을 나섰다고 생각하면서 함박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한 줄 요약
❶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함.
❷ 두 달 전쯤 '그'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됨.

12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것과, 두 달 전쯤 나타난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회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 겨울이 일찍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밖은 유난히 썰렁'했다는 언급이 있으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공간적 배경에 대한 ~~장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구호소 식당 안, '그'의 집 등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서술하고 있다.

⑤ 부재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3인칭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 다른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의 초점이 '그'에게서 다른 인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으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도 않다.

124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래도'를 통해 '그'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ㄷ. '그'는 두 달 전쯤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 달 전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오·이

ㄴ. 사건 왜곡 '그'가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는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 ~~일했다~~.
'그'와 어머니가 빈민 구호소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머니가 과거 빈민 구호소 식당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헛짚기 '꼬두메'는 어머니가 평소에 가고 싶다고 ~~줄곧 소원했던~~ 곳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찬세가 기다린다며 '꼬두메'로 돌아가자고 한다. 이를 통해 '꼬두메'는 '그'와 어머니가 과거에 살았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평소 그곳에 줄곧 가고 싶어 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 중 '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대화보다는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

④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헛짚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구호소 식당으로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개물: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물건.

정·정·이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 잘못을 저지른 '그'를 야단치면서도 국수를 먹는 '그'를 보며 자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한 그릇의 국수(ⓐ)'는 '그'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이 글에서 '그'는 '한 그릇의 국수(ⓐ)'를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어머니와 '그'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헛짚기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그'에게 '한 그릇의 국수(ⓐ)'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일 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과는 관련이 없다.

④ 교체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한 그릇의 국수(ⓐ)'는 어머니가 배고파하는 아들('그')에게 먹인 것이므로,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가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⑤ 헛짚기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어머니는 배고파하던 아들이 빈민 구호소의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가난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한 그릇의 국수(ⓐ)'가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로 보기는 어렵다.

12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안타까움
어머니는 배가 고파 잘못을 저지른 '그'를 야단친 후 '한 그릇의 국수(ⓐ)'를 주고, 이를 먹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자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후회스러움

③ 헛짚기 원망스러움
'한 그릇의 국수'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에서, 어머니가 후회스러움(②)이나 원망스러움(③)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그'가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한 장소이다.
어머니는 단호하고 냉랭한 음성으로 '그'를 훈육했으나, '구호소 식당(㉮)'에서 '그'가 국수를 먹고 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괴어오른다. 또한 '그'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보며 목구멍이 뻐근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는 '그'가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반항심이 심화된 장소이다.
어머니는 '그'를 훈육한 후 '구호소 식당'에서 국수를 먹인다. 따라서 이곳은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된 공간이지 '그'의 반항심이 심화된 장소는 아니다.

② 헛짚기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양육한 장소이다.
'낡은 먹고무신'을 통해 어머니가 희생적으로 '그'를 키웠음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구호소 식당'이 어머니가 희생을 통해 '그'를 양육한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일한 장소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호소 식당'에서 일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④ 헛짚기 '그'에게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장소이다.

'구호소 식당'과 관련한 일로 '그'가 두 번 다시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를 '그'에게 있어 희망의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1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라고 말하며 국수를 권하자 '그'가 젓가락을 뽑아 들고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어머니의 음성은 그에게 불길함이 아닌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린 것은 어머니의 음성 때문에 불길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주 앉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에서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라고 어머니가 넋두리같이 내뱉은 말은 배고픔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그'에게 죄책감을 유발했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어머니가 화가 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뭣이라고 그러시끄나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볼 때, 어머니의 냉랭한 음성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찟함을 느끼게 하는군.

결혼한 후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른 일이 없었던 어머니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한 음성으로 "찬우야이!"라고 부르자 그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고 섬찟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고향인 '꼬두메'에서 죽은 남편과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 가자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며,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들은 '그'는 당황하여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3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에는 '그'의 행동을 질책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도가 담겨 있다. (○, ×)

㉡은 배고픔에 잘못을 저지른 '그'를 질책하기 위한 어머니의 말이다.

(2) 교체 ㉢에서는 '어머니'를 위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 (○, ×)

㉢은 '그'에게 국수를 권하는 어머니의 말로, '그'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3) ㉣과 ㉤을 통해 '그'는 '어머니'가 평소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 ×)

㉣은 어머니가 '그'를 평소와 다르게 부른 것이고, ㉤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나'는 ㉣, ㉤과 같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 어머니의 이상 증세를 알게 되고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13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라고 한 이유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그'가 가난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겠군.

'그'가 어머니의 음성에서 놀랐던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 어머니의 음성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 뭣이라고 그러시끄나이.'에서 남편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아들을 바르게 키우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잘못을 저지른 '나'를 단호하게 훈육하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가난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도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에서 현재에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군.

현재 '그'는 회사에서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내로부터 궁색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부지랑 찬세가 얼매나 기다리겄냐아.'에서 잊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군.

어머니는 아버지와 찬세가 기다리는 꼬두메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과거 꼬두메에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꼬두메로 가자고 말한 것에서 꼬두메는 어머니가 꼭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임이 드러나는군.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고향인 꼬두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꼬두메가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소중한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5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품 분석 본문 74~77쪽

작가 성석제
갈래 단편 소설
주제 황만근의 생애와 그 업적
특징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함.
② '전(傳)'의 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함.
③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함.

단숨에 읽기 농민 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섰던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자 민 씨의 요청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아 하고 민 씨는 이장과 대립한다. 황만근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의 소원은 어머니가 오래 사는 것과, 아내와 아들을 얻는 것이었다. 황만근은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하고 아들을 얻지만 아내는 곧 그를 떠난다. 어느 날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농민 궐기 대회 참가에 대해 의논하며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타고 참가하도록 당부한다. 대회 참가 전날 황만근은 민 씨에게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황만근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유해로 돌아온다. 민 씨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비명을 쓰고 그를 기린다.

한 줄 요약

❶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임.
❷ 민 씨는 황만근을 농민 궐기 대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장**)에게 따져 물으며 언쟁을 벌임.
❸ 황만근은 민 씨에게 (**농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소신을 이야기함.
❹ 일주일 뒤 (**황만근**)이 유해로 돌아옴.

1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반박

황동수는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캤을 때 ~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라고 말하며 황만근이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오·오·이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모인 마을 사람들 중 궐기 대회를 하는 동안 황만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의 실종 이유를 추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바보 자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라는 이장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이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그의 평소 행적을 들어, 그가 없어진 데는 필시 연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3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황만근이 사라졌기 때문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라는 서술을 통해 민 씨는 황만근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을 회관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사건 왜곡 ~~용왕제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 황재석이 용왕제에서 축을 초하는 역할을, 황동수가 집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용왕제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다.

③ 사건 왜곡 황만근의 아들이 ~~사람들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황만근의 아들은 민 씨에게 황만근의 실종을 알렸을 뿐, 사람들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1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황만근은 지금껏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군.

"가가 군대 간다 캤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심다."라는 황동수의 말을 통해 황만근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이장과 황재석은 평소에 황만근을 무시하고 있었군.

이장이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따문에"라고 말한 부분과 황재석이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농민 총궐기 대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군.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라는 민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장은 자신이 황만근에게 궐기 대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한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군.

이장이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을 회관 앞의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알게 된 민 씨의 주도하에 모인 것이군.

민 씨는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들은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모여 있다.

13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계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정·정·이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황만근은 이장의 당부에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이를 통해 황만근의 우직한 성품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사건 왜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이장의 행동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궐기 대회'가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민 씨는 '궐기 대회' 전날 황만근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으나, 이 일이 '궐기 대회'와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헛짚기 대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궐기 대회'는 황만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유발할 뿐, 민 씨와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지는 않는다.

⑤ 헛짚기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민 씨는 '궐기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궐기 대회'가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136 답 (1) 부채 (2) 경운기 (3) 이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궐기 대회는 농가 (부채, 면세유) 탕감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라는 이장의 말을 통해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황만근은 궐기 대회에 고장난 (경운기, 자전거)를 몰고 갔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 교체 궐기 대회와 관련한 모임이 끝난 후, (민 씨, 이장)은/는 황만근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다.

"그제 밤에 ~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라는 민 씨의 말을 통해 이장이 궐기 대회 전날 모임이 끝난 후 황만근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13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황만근이 사고로 죽을 것을 암시한다.

황만근은 궐기 대회에 '고장난 경운기(ⓐ)'를 몰고 갔다가 실종된 후 경운기의 머리 부분과 함께 한 항아리의 뼈로 돌아온다. 이를 통해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몰고 간 것은 그가 경운기 사고로 죽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마을 사람들이 처한 궁핍한 현실을 상징한다.

고장난 경운기는 황만근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처지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에 민 씨와 이장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고장난 경운기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황만근이 궐기 대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알게 해 준다.

황만근은 이장의 권유로 궐기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고장난 경운기는 참석 동기와는 관계없다.

⑤ 사건 왜곡 늘어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만근의 처지를 보여 준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내가 왜 빚을 안 졌니야고."를 보면 황만근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신념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오 지름길

⑤ 늘어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만근의 처지를 보여 준다.

황만근이 고장난 경운기를 고치지 않고 타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 그가 넉넉하지 않은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⑤를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황만근과 민 씨의 대화를 보면, 황만근은 농사꾼이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지닌 우직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왜 빚을 안 졌니야고. ~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라는 황만근의 말에서 황만근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13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A]의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는 농사에 대한 황만근의 말이고, 이어지는 괄호 속의 말은 이에 대한 민 씨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A]는 황만근의 말로 시작되며, 이어지는 괄호 속에 황만근의 말에 대한 민 씨의 해석이 덧붙어 있다. 따라서 황만근의 말을 이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재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A]에서는 농사꾼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한 황만근의 부정적 시각이 드러날 뿐, 황만근의 삶을 그려 내고 있지 않으며 민 씨의 반성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재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A]에서는 농촌의 전반적인 현실이 드러날 뿐, 황만근의 처지가 강조되고 있지 않으며 과거와의 대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헛짚기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풀어서 제시한 것이지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13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시대적: 예전 시대에만 특징적으로 있거나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을 만큼 고루하고 낡은.

정·정·이

(1) 헛짚기 황만근의 말을 들은 민 씨는 이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
민 씨는 황만근의 말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민 씨가 황만근의 말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2) 황만근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는 황만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 헛짚기 민 씨는 농민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정책 자금, 선심 자금, ~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를 볼 때, 민 씨는 농민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에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1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어체: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 구사: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씀.

정·정·이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은 황만근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말을 구어체 사투리로 표현함으로써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표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두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황만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두 사건이 나란히 서술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인물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으나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부재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서술 시점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4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은 겉보기에만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몸에 해로운 농약과 나쁜 비료를 사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빚을 갚으려는 농민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은 농민들이 빚에 몰린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

오·오·이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은 농사를 편하게 짓고 이윤을 남긴다며 농기계를 구입하게 한 것이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② ㉡: 서로 도와 가며 농사짓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라는 말을 참고할 때, ㉡은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해진 현실을 보여 준다.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은 농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빚만 쌓이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에는 빚을 져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황만근의 우직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1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사건 왜곡 황만근의 희생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려는 농민들의 모습과 "그런 기 다 쌀값에 ~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라는 황만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농민들이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른다는 내용과 "깅운기, 트랙터, 콤바인, ~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라는 황만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는 황만근의 말을 통해 농민으로서 황만근이 가진 확고한 신념을 엿볼 수 있다.

⑤ 원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은 황만근의 모습은 우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황만근이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농민 궐기 대회에 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결말에는 우직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16 월행

작품 분석 본문 78~81쪽

작가 송기원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가족 사이의 원한과 화해
특징 ① '달밤'이라는 배경과 인물의 여정을 조응시켜 서사를 이끌어 감.
②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내세워 성숙한 입장을 취함.

단숨에 읽기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아이를 업고 한실 마을에 들어선다. 한실 마을은 이십여 년 전 도망친 사내의 고향이다. 사내는 아버지 '이용규' 씨를 찾아 문안을 올리지만 노인은 자신의 아들은 동란 때 죽었다며 그를 외면한다. 노인은 사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가친척의 봉분에 사내를 데려가 사죄하도록 한다. 봉분에 일일이 절을 올리던 사내가 아내의 봉분에 다다르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노인은 사내를 마지막 봉분으로 안내하였는데 이는 사내의 것이었다. 사건이 있은 후 죽은 원혼을 달래며 사내의 무덤도 함께 만든 것이다. 사내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자 노인은 두루마기를 찢어 내밀며 아이를 맡아 줄 테니 죽더라도 고향을 떠나 죽으라고 말한다. 사내가 마을을 떠나자 노인은 나무토막처럼 푹 쓰러진다.

한 줄 요약

❶ 노인은 (**사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가친척들의 (**봉분**)에 사내를 데려가 사죄하게 함.

❷ 노인은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길 원하는 사내를 받아 주지 않고 다시 떠나보냄.

14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에서 사내는 자신의 귀향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인에게 반박하지 않고 그 결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

민둥산의 포탄 자국을 본 사내는 '그것들을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노인에게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사내는 마지막 봉분이 살아 있는 자신의 봉분이라는 노인의 말에 놀라고 있으므로, ㉡에는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말에 의아해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 인물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이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에서는 '쿨룩, 쿨룩, 쿠루욱……'과 같은 청각과 '한 움큼의 피를 토해 냈다.'와 같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사내의 병이 위중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인물의 단호한 태도가 표정과 행위 속에 드러나 있다.

노인은 고향에 남고 싶다고 말하는 사내를 백랍 같은 표정으로 떼치고 일어나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14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사내'는 '~~노인~~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고향에 돌아왔다. (○, ⊗)

〈앞부분 줄거리〉에서 사내가 폐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노인이 아니라 사내임을 알 수 있다.

(2) '사내'는 전쟁의 기억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 (⊙, ×)

'새삼스럽게 사내의 귀에는 쾅쾅 터져 나던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헛짚기 '사내'는 자신의 묘를 만든 '노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 ⊗)

사내는 노인이 자신의 묘를 소개하자 '일순 애매한 표정'을 지었을 뿐, 노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4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노인'은 '사내'가 병을 얻은 것을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있다.

노인은 끝내 사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를 토하는 사내에게 두루마기를 찢어 건내며 닦으라고 한다. 이로 볼 때 노인은 사내가 병을 얻은 것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내에 대해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사내'는 과거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사내의 귀에 포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는 내용과 사내가 이를 털어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사내'는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내가 고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선 자리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노인'은 '사내'의 과거 행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이 훼손된 산을 보며 "다아 니놈들 때문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사내의 과거 행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노인'은 '사내'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할 기회를 주고 있다.

노인은 사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가친척들의 봉분으로 사내를 데려가 잘못을 빌도록 하고 있다.

1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응**: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정·정·이

③ [C]에서는 '달'의 변화된 상황이 '사내'의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C]에서 '달이 졌다.'라는 변화된 상황은 노인의 말에 따라 사내가 멀리 떠나며 보이지 않게 된 상황과 조응하여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A]에서는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을 통해 ~~인물이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이 제시되고 있다.

[A]에는 현재 사내의 시선에 포착된 '달빛'이 내려앉은 골짜기와 벌판의 풍경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내가 고향을 떠나 지냈던 시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짚기 [B]에서는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B]에서는 재배를 올린 봉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게 된 을득의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내의 '형언키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의 달빛'과 조응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내가 '달빛'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이 지닌 소망~~이 '달빛'의 속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B]에서 '달빛'은 속죄 의식을 치르는 사내의 복잡한 심경과 조응되고 있을 뿐, 사내가 지닌 소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C]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C]에서는 '달이 졌다.'고 하여 '달빛'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의 '봉분을 옮겨 가며'에 드러난 공간의 이동이 '달빛'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

고 있지는 않다.

147 답 ㄱ,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ㄹ. '사내'의 여정과 조응하여 서사의 흐름을 보여 준다.

'달'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밤)을 드러내며(ㄱ), 고향을 방문하여 떠날 때까지의 사내의 여정과 조응하여 서사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ㄹ).

오·오·이

ㄴ. 헛짚기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달'을 매개로 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ㄷ. 헛짚기 작품에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글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전쟁의 한과 상처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비극적이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4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응**: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정·정·이

② ⓑ: 산바람과 상응하여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벌거벗은 민둥산(ⓑ)'과 갑자기 불어닥친 산바람이 어울려 보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고향을 찾은 사내의 마음이 ~~들떠 있음~~을 보여 준다.

'꽹과리 소리(ⓐ)'는 사내의 어린 시절 고향의 흔적을 보여 주는 소재로, 고향에 대한 사내의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내의 과거 행적, 사내가 고향을 찾은 이유 등을 볼 때, 사내의 마음이 들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은~~ 마을의 상황을 드러낸다.

'포탄 소리(ⓒ)'는 실제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환청으로, 사내가 여전히 전쟁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교체 ⓓ: ~~자내의 아내가 묻혀 있는~~ 사내의 무덤이다.

다른 봉분들과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봉분(ⓓ)'은 죽은 사람으로 치부된 사내의 무덤이다.

⑤ 헛짚기 ⓔ: 사내와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노인의 ~~단호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두루마기 자락(ⓔ)'은 노인이 아버지로서 아들인 사내의 병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1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노인이 사내의 귀향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사내의 자식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의 가능성을 다음 세대에서 열어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민둥산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들은 전쟁 때 생긴 것으로 고향에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사내'가 고향에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사내'에게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사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한 것은 비극적 사건을 초래하여 고향을 떠났던 사내가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노인'이 '사내'에게 '죽게 되믄 연락'하라고 한 것은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사내는 귀향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으나, 노인은 "죽드라두 타처에 가서 죽어라."라며 거절하고 '죽게 되믄 연락'하라고 말한다. 이는 사내가 죽기 전에는 그의 귀향이 쉽게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사내'가 봉분들 앞에서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 때문에 희생된 원혼들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사내는 노인의 말에 따라 봉분들 앞에 재배를 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게 된 일

가친척들의 원혼을 달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노인'이 '사내'의 '자식 놈'을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노인이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내를 받아주지 않고 자식은 맡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용서와 화해의 과제가 당대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②를 적절한 선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인이 사내의 아들인 손자를 맡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세대 간의 갈등 심화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15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사건 왜곡 '노인'은 '사내'가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을 외면하고 있군.
노인은 사내를 데리고 일가친척들의 봉분에 재배를 시키며 사죄하게 하고 있으므로, 노인이 사내가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사내'는 과거 고향과의 불화로 고향을 떠난 것이군.
사내는 한국 전쟁 중에 아내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벌이다 그 대가로 일가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고향을 떠났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내'는 고향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며 귀향하였군.
사내는 어린 아들을 고향에 맡기고 죽음을 앞둔 자신도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노인이 '사내'의 가짜 묘를 만들고 사망 신고를 한 것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군.
"설사 니놈이 살아 있는 걸 ~ 어떻게 니놈두 없이 다른 원혼들을 묻는단 말이여?"로 볼 때, 노인이 사내의 봉분을 만들고 죽은 사람으로 치부한 것은 사내 때문에 죽은 원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노인'이 '사내'를 봉분에 데려가 재배를 시키는 것은 '사내'가 사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군.
노인은 고향에 돌아온 사내를 그로 인해 죽은 일가친척들의 봉분에 데리고 가 재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죄의 책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③ '민둥산의 곳곳에 움푹움푹 패어 있는 포탄 자국'은 한국 전쟁이 평화로운 마을에 남긴 한과 상처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민둥산에 포탄 자국이 남아 있는 모습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滿空)의 달빛'은 일가친척의 봉분 앞에서 속죄 의식을 치르는 사내의 복잡한 심정과 조응하고 있군.
'저 골짜기 아래 가득한 만공의 달빛'은 재배를 올린 봉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게 된 을득의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내의 '형언키 어려운' 복잡한 심정과 조응한다.

⑤ '노인'이 '사내'에게 "죽드라두 타처에 가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와 한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노인은 사내가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내의 귀향을 거부하고 "타처에 가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한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큰 산

작품 분석 본문 82~85쪽

작가 이호철
갈래 현대 소설
주제 현대 사회의 이기심과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여 현재의 사건과 교차 서술함.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단숨에 읽기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와 아내는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벽돌담 위에 놓여 있는 하얀 고무신을 액운의 상징으로 보고 두려워한다. '나'는 이 고무신을 보고 어린 시절 한 짝의 지까다비(일본 버선 모양의 노동자용 작업화)와 관련된 기억을 회상하며 마식령이라는 고향의 큰 산줄기를 떠올린다. 아내는 이 불길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고무신짝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지고 온 뒤 액땜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돌아다니던 고무신짝이 며칠 뒤 '나'의 집 담장 아래서 다시 발견된다. '나'는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며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렇다'고 혼잣말을 하고,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다시 먼 곳으로 가져다 버린 후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한 줄 요약
❶ 아내가 고무신짝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액땜**)을 했다고 여김.
❷ '나'와 아내는 (**눈**)이 내린 겨울 아침을 즐겁게 맞이함.
❸ '나'와 아내는 다시 돌아온 (**고무신짝**)을 발견하고 공포감을 느낌.

15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과**: 일이 되어 가는 과정.
- **국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정·정·이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던 모양이었다', '~을 것이다'와 같이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을 통해 아내가 고무신짝을 남의 집에 버린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집으로 다시 돌아온 고무신짝을 발견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거나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중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인물 간의 갈등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헛짚기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고는 있으나, 이를 새로운 공간의 제시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과도 관련이 없다.
④ 부재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건이 '나'의 주관적 관점에서 서술된다. 또한 고무신과 관련한 사건이 드러날 뿐,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다.

15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아내의 행위에 대한 '나'의 추측이 담겨 있다. (○, ×)
[A]에는 그날 밤 고무신짝과 관련한 아내의 행동에 대한 '나'의 추측이 제시되어 있다.
(2) 헛짚기 '나'는 아내의 행동에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다. (○, ×)
'나'는 아내의 행동과 심리를 추측하고 있을 뿐, 아내의 행동에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3) 사건 왜곡 아내는 '나'에게 고무신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의했다. (○, ×)
'물론 아내는 ~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15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B]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나'와 아내의 대화를 사용하여 고무신짝이 다시 돌아온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A]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A]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뿐만 아니라 직접 관찰하지 않고 추측한 아내의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② 부재 [A]에서는 저로 다른 서술자에 의해 동일한 사건을 각각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A]에서는 동일한 서술자인 '나'에 의해 사건이 서술된다.

④ 교체 [B]에서는 인물이 보인 행동의 이유를 서술자가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
[A]

'나'가 아내의 행동의 이유를 분석하여 서술하는 것은 [A]에 드러난 서술 방식이다. [B]에서는 '나'와 아내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상반 [B]에서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배제한 채 사건의 진행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나는 마치 머릿속의 ~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와 같이 인물의 심리 묘사가 드러난다.

1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눈 내린 겨울 아침, '나'와 아내는 고무신짝에 대한 걱정을 잊고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고무신짝을 발견하자, '나'와 아내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아내의 웃음을 보며 즐거워하고는 있으나,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사건 왜곡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열흘쯤 전의' 고무신짝에 관한 일을 잊고 즐거워하던 '나'와 아내는 다시 돌아와 담장 밑에 놓여 있는 고무신짝을 발견한 뒤 불길함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나'와 아내가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교체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고무신짝

'아내'가 '미심한 느낌'을 가졌던 대상은 '나'가 아니라 '고무신짝'이다.

⑤ 상반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흔들어 지워 버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고무신짝

㉠의 뒤에 이어지는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이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은 고무신짝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큰 산

'큰 산'은 '나'가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문득 떠올리려고 하는 대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교체 눈

'눈'은 '나'와 아내가 고무신짝에 대한 걱정을 잊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15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나'는 '아내'가 남의 집에 '고무신짝'을 던지려는 행위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만류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아내가 남의 집에 '고무신짝'을 던진 것을 추측하고 이에 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오·이

① '아내'는 '나'보다 '고무신짝'과 관련하여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

'나'는 밖에 나와 있던 '나'에 비해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던 아내의 미심한 느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③ '아내'가 남의 집에 '고무신짝'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든 액운을 떨치기 위한 것이다.

아내는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휭 던져 버림으로써 '액땜'을 했다고 생각한다.

④ '나'는 겉으로 평화롭게 보이는 동네에 살면서도 고향의 추억과 비교하여 결핍된 요소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나'는 평화로운 겨울 아침에도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고 느끼며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고 있다.

⑤ '나'와 '아내'는 눈 내린 겨울 아침 풍경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되돌아온 '고무신짝'을 발견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나'와 아내는 눈 내린 겨울 아침 풍경에 감탄하며 즐거워하다가 되돌아온 '고무신짝'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

15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아내가 '나'에게 "흥, 이치 좋아하시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한 것은 눈이 내려서 즐거운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나'의 아내가 고무신짝을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그렇게 그쯤으로 액땜을 했다고 자처'했다는 것에서 주술적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액운이 깃들었다고 생각되는 '고무신짝'을 던져 버리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다른 집에 던져 버렸던 고무신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본 아내의 목소리가 '완연히 떨고 있'는 것을 통해 아내가 아직 주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방식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나'는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내와 마찬가지로, 되돌아온 '남자 고무신짝'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또한 주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므로, 가치관이 혼재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159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도시화 이후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를 통해 도시화 이후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ㄴ.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 보장에 관심이 커져 ~~미신을 더욱 믿게 되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 보장에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미신을 더욱 믿게 되었는지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16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나'는 만약 오늘날에도 '큰 산'이 존재한다면 '고무신짝'이 갖는 불길한 의미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고무신짝'이 갖는 불길한 의미는 '큰 산'의 존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큰 산'의 존재가 '고무신짝'의 불길한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큰 산'이 있다면 공동체적 질서 속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고무신짝'을 남의 집에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오·오·이

① '나'는 '큰 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보기 2〉에 따르면, '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모습이 모두 '큰 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큰 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 1〉에서 다른 집에 '고무신짝'을 다시 넘기고 온 아내에게 '아무 소리도 안 물었'다는 것을 볼 때, '나' 또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고무신짝'은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군.

'고무신짝'은 서로에게 액운을 떠넘기는 것을 보여 주는 소재이므로,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큰 산'이 존재했던 유년 시절에는 '고무신짝'이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보기 2〉에서 '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모습이 '큰 산'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큰 산'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나'는 만약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큰 산'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고무신짝'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⑤ '아내'가 다른 집에 '고무신짝'을 던져 액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큰 산'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기적 행위라고 볼 수 있군.

남의 집에 '고무신짝'을 던지는 아내의 행동은 다른 집에 액운을 넘기려는 것이므로 공동체적 질서와 균형이 부재한 행위, 즉 '큰 산'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기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8 장석조네 사람들

작품 분석

본문 86~89쪽

작가 김소진

갈래 연작 소설, 세태 소설

주제 서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

특징 ① 1970년대 산동네 빈민들의 삶을 다룬 연작 소설 『장석조네 사람들』 중 『폐병쟁이 진 씨』에 해당함.
②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소외된 소시민들의 삶을 형상화함.
③ 가난하지만 따뜻한 인정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이 드러남.

단숨에 읽기 오 영감이 키우던 오리 깐둥이는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 폐병을 앓던 진 씨에게 팔린다. 다음 날 장석조네 집 위쪽의 청기와집 사람들이 수챗구멍에 빠뜨린 금반지를 깐둥이가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장석조네 사람들은 각자 깐둥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청기와집의 신고로 진 씨는 금반지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 잡혀가고, 청기와집 장롱에서 금반지가 발견되자 경위서만 쓰고 풀려난다. 한편 그사이 깐둥이는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치게 되고, 진 씨는 깐둥이에게 연민을 느껴 깐둥이를 한강에 데려가 놓아준 뒤 해방감을 느낀다.

한 줄 요약

❶ 장석조네 사람들은 (**깐둥이**)를 둘러싸고 서로 몫이 있다고 주장함.
❷ 윗집의 신고로 (**진 씨**)가 장물아비로 몰려 파출소로 끌려감.
❸ 파출소에서 돌아온 진 씨가 개에게 물려 다친 (**깐둥이**)를 한강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고 돌아옴.

16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진 씨와 윗집 사람들이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반지의 발견으로 갈등이 끝났을 뿐,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특정 소재를 둘러싼 문제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석조네 사람들이 깐둥이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던 상황은 제복 입은 사람들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된다.

③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깐둥이가 금반지를 삼켰다는 소문을 들은 장석조네 사람들은 깐둥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깐둥이와 관련한 소문에 대한 인물들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는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깐둥이가 금반지를 삼켰다고 소문이 나자, 장석조네 사람들이 깐둥이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위풍당당한 거위, 그것도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쯤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라고 하며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⑤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는 우떻고?", "그게 뭐꼬?"와 같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다.

16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② ㄴ-ㄹ-ㄱ-ㄷ

이 글의 사건은 진 씨가 오 영감에게서 오리 '깐둥이'를 사면서부터 시작된다(ㄴ). 깐둥이가 윗집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자 장석조네 사람들은 각자 깐둥이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고(ㄹ), 이 소문 때문에 윗집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진 씨는 파출소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다(ㄱ). 파출소에 갔다가 돌아온 진 씨는 깐둥이가 이웃집 개에 물려 다쳤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깐둥이를 한강에 데려가 풀어 주고 홀로 돌아온다(ㄷ).

오·오·이

① 교체 ㄱ-ㄴ-ㄷ-ㄹ

③ 교체 ㄹ-ㄴ-ㄱ-ㄷ

162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사건이 발생한 순서는 'ㄴ-ㄹ-ㄱ-ㄷ'이다.

1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모**: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 **부각**: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정·정·이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함으로써 깐둥이가 금반지를 먹었다는 소문과 관련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헛짚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및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고 있지는 않다.

1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깐둥이 배 속에 금반지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진 씨가 곤경에 빠진다.

깐둥이가 금반지를 삼켰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돈 것 때문에 윗집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한 진 씨가 파출소에 끌려가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진 씨는 깐둥이가 ~~특별한 오리라는 것을 알고~~ 돈을 주고 사들였다.

깐둥이는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오리라고 하였으므로, 진 씨가 깐둥이를 특별한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들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사건 왜곡 진 씨가 파출소에 간 사이에 사람들은 ~~깐둥이를 잡아~~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

"자네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진둥한둥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한눈을 판 사이에 깐둥이가 갑자기 달겨든 개한테 물려서"라는 말로 볼 때, 사람들이 깐둥이를 잡아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사건 왜곡 진 씨는 깐둥이가 다친 것에 화를 내며 ~~깐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진 씨는 깐둥이가 다친 것을 슬퍼하며 깐둥이를 강에 데려가 놓아주고 온다. 깐둥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사람들은 진 씨로부터 깐둥이를 ~~빼앗기 위해~~ 깐둥이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장석조네 사람들이 깐둥이에 대한 각자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깐둥이가 삼켰다고 의심받는 금반지에 대한 지분을 얻기 위해서일 뿐, 진 씨로부터 깐둥이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다.

16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윗집 금반지를 ~~주챗구멍에서 주워 삼켰다.~~ (○, ⊗)

'저 집구성들에서 지들 장롱에 고이 처박아 두고서두 수챗구멍이니 어쩌니 허면서 간릉을 떨'었다는 말을 통해 깐둥이가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임을 알 수 있다.

(2) 사건 왜곡 ~~한강에서 노닐다~~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쳤다. (○, ⊗)

노란 대문 집 개에게 깐둥이가 물린 것은 진 씨가 깐둥이를 한강에 데려다주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3) 진 씨에게 오기 전 장석조네 사람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 ×)

〈앞부분 줄거리〉의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6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는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최 씨(ⓑ)는 깐둥이에 대해 자기 몫을 주장하는 광수 애비(ⓐ)의 말을 듣고 "벼룩이 간을 내먹겠다고 혀는 편들이 나을 성싶네"라며 깐둥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는 ⓑ, ⓓ와 달리 ⓒ를 ~~의심~~하고 있다.

광수 애비(ⓐ)는 진 씨(ⓒ)를 의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사건 왜곡 ⓒ는 ⓑ와 ⓔ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진 씨(ⓒ)가 최 씨(ⓑ)나 쌍용 아범(ⓔ)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사건 왜곡 ⓓ는 ⓐ와 ⓑ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사람들은 갑석 아버지(ⓓ)를 파출소로 보내 진 씨(ⓒ)와 관련한 동태를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이에 갑석 아버지는 파출소에 다녀온 결과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사건 왜곡 ⓔ는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쌍용 아범(ⓔ)은 사라진 진 씨(ⓒ)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어디를 다녀왔는지, 왜 그랬는지 등 질문을 하고 있을 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는 않다.

16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깐둥이의 이용 가치를 잘 모르는 ~~진 씨를 조롱~~하고 있는 쌍용 아범의 태도를 보여 준다.

ⓔ에서 쌍용 아범은 진 씨가 깐둥이를 놓아준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 뿐, 진 씨를 조롱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 깐둥이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광수 애비의 속내가 드러난다.

광수 애비는 "오리 통이 바로 내 방 앞에 놓여 있어 가지구 우리가 얼매나 고생을 했다구요?"라며 자신이 깐둥이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② ㉡: 깐둥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치다고 보는 최 씨의 생각이 드러난다.

최 씨는 "벼룩이 간을 내먹겠다고 혀는 편들이 나을 성 싶네"라며 깐둥이에 대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윗집 사람들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진 씨의 말을 통해 윗집 사람들이 금반지를 장롱 안에 넣어 두고는 깐둥이가 주워 먹었다고 능청을 떤 것이라는 정보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깐둥이가 금반지를 삼켰다는 오해로 진 씨가 파출소에 끌려간 사건이 윗집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 사람들의 말 속에서 몇 번이나 죽임을 당했던 깐둥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진 씨의 말을 통해 금반지의 이익을 얻으려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깐둥이에 대한 진 씨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난다.

16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깐둥이가 한강에서 자유롭게 노닐며 살게 해 주기 위해

진 씨가 깐둥이를 한강에 풀어 주고 와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는 쌍용 아범에게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한강에서 맘대로 노닐며 살다 죽으라고요."라고 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금반지로 인한 오해를 ~~풀기 위해~~

진 씨가 깐둥이를 한강에 데려간 것은 금반지로 인한 오해가 풀려 파출소에서 경위서를 쓰고 나온 이후이다.

③ 헛짚기 장석조네 사람들이 깐둥이를 ~~해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이지만 벌써 몇 벌 죽임을 시키는 게요."라는 말을 통해 진 씨가 깐둥이에 대한 장석조네 사람들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들이 깐둥이를 해칠까 봐 염려되어 깐둥이를 한강에 데리고 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경찰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본 데에서 ~~공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드러난다.

'대뜸 거친 반말을 해 대는 제복한테 압도당한 사람들은 이제 막 깨어난 사람들처럼 굼뜨게 움직였다. 그러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에서 사람들은 경찰이 찾아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장롱에서 발견된 금반지는 사건을 종결하는 계기가 된다.

깐둥이가 윗집의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으로 인해 진 씨는 장물아비로 의심을 받아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저 집구석들에서 지들 장롱에 고이 처박아 두고서 두 수챗구멍이니 어쩌니 허면서 간릉을 떨어 싼 거지."라는 말을 통해 장롱에서 금반지가 발견되면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진 씨가 경찰에서 풀려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롱에서 발견된 반지는 사건을 종결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진 씨는 윗집 사람들의 반지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의심받아 파출소로 끌려간다.

"듣자 하니 저 윗집에서 찌른 모양이야. ~ 그게 자기 집에서 나온 건데 진 씨가 돌려줄 생각은 않고 버틴다꼬 했던 모양이던데"라는 갑석 아버지의 말을 통해 진 씨가 윗집 사람들에게 오리가 삼킨 반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아 파출소로 끌려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깐둥이가 윗집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자 깐둥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

깐둥이는 장석조네 집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가 진 씨에게 팔렸는데, 깐둥이가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깐둥이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미운 오리 새끼에서 위풍당당한 거위, 그것도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쯤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다친 깐둥이를 안고 울다 한강에 풀어 주고 온 진 씨의 행동에서 깐둥이에 대한 진 씨의 연민이 드러난다.

진 씨는 깐둥이가 개에게 물려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린 후 깐둥이를 한강에 데려가 풀어 주고 온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벌써 몇 벌 죽임을 시키는 게요."라는 진 씨의 말을 통해 이러한 진 씨의 행동은 깐둥이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초연할**: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할.

정·정·이

③ 헛짚기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경찰을 통해 ~~개인 간의 일상적 시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어.

진 씨에게 거칠게 말하는 경찰의 태도는 공권력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줄 뿐, 일상적 시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한강에 깐둥이를 놓아준 진 씨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어.

진 씨는 한강에 깐둥이를 놓아주고 와서 "아무리 짐승이지만 벌써 몇 벌 죽임을 시키는 게요."라고 하며 깐둥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진 씨의 인간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② 진 씨를 장물아비로 신고한 윗집 사람들을 통해 각박해진 세태를 짐작할 수 있었어.

자신들이 잃어버린 금반지 때문에 이웃인 진 씨를 장물아비로 의심하여 신고한 윗집 사람들의 모습은 각박해진 세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장석조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가난한 주변인들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

깐둥이가 금반지를 주워 먹었다는 소문에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장석조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난으로 인해 사소한 이득에 초연할 수 없는 주변인들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⑤ 진 씨의 안위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주는 정을 느낄 수 있었어.

진 씨가 파출소에 잡혀가자 진 씨의 안위를 걱정하며 파출소로 찾아가 동태를 살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선한 심성과 정을 느낄 수 있다.

171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장석조네 사람들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에 해당한다.

장석조네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중심부에서 밀려난 주변인들에 해당하며, 가난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오·오·이

ㄱ. 교체 진 씨는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 씨가 아니라 장석조네 사람들이다.

ㄷ. 사건 왜곡 깐둥이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야기한다.

깐둥이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고, 진 씨가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해소된다.

ㄹ. 헛짚기 깐둥이를 둘러싼 장석조네 사람들의 모습은 도시화로 연관성마저 상실한 세태를 보여 준다.

장석조네 사람들이 깐둥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득에도 초연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파출소에 끌려간 진 씨를 걱정하는 등 근본적으로는 선한 심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19 어떤 유서

작품 분석 본문 90~93쪽

작가 김정한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주제 부당한 토지 침탈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삶

특징 ① 1970년대 농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함.
②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함.

단숨에 읽기 송 노인은 농민 봉기에 가담했던 인물로, 이로 인해 아내는 지주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다 죽고 아들은 군대에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송 노인은 골프장 건설로 농토가 수용되자 보상받은 돈으로 고속 도로가 생기는 길가의 집과 농토를 산다. 국가 사업 때문에 송 노인의 농토가 다시 수용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송 노인의 마을과 농토는 골프장과 공장 부지로 개발되며 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 송 노인은 토지 환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젊은이들과 언쟁이 붙고, 일손이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송 노인의 논은 보리 증산 정책에 따라 대리 경작이 예고된다. 자신의 논을 마을 청년들이 대리 경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송 노인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농업 진흥 공사를 찾아갔다가 파출소에 연행되고 파출소에서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숨을 거두고 만다. 송 노인이 죽기 전 환지의 문제를 적은 호소문을 ×× 군수와 ×× 경찰서장에게 보냈다는 것이 알려진다.

한 줄 요약

❶ 정부의 정책으로 부당한 (**환지**)를 받은 송 노인은 (**고속 도로**) 개발마저 기대와 다르자 실망하고 분노함.

❷ 송 노인은 (**환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짐.

1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 참을 수가 없었다.', '송 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 판국이라고 송 노인은 생각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이야기 밖의 3인칭 서술자가 환지와 관련된 사건을 송 노인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외부의 이야기에 내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이 글은 부당한 환지와 관련한 송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인물들의 경험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여 교차하고 있다.

이 글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고 있다.

④ 부재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173 답 밖, 송 노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교체 이 작품은 작품 (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송 노인, 상출)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며, 작품 속 인물 중 송 노인에게 초점을 두고 그의 행동과 심리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17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송 노인과 상출의 대화를 통해 과거에 송 노인이 농민 조합에 들어가서 경찰서를 때려 부수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 공간의 이동은 확인할 수 없으며, 서술자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동일하다.

③ 부재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는 환지 문제를 둘러싸고 송 노인이 젊은이들과 외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부재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은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주변의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⑤ 부재 주인공이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과 그에 대한 감정을 회고하여 서술하고 있다.

환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인공인 송 노인이 겪어 온 일들이 주로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에 의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므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회고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사건 왜곡 ㉣: 송 노인은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에서 송 노인은 과거 자신이 농민 조합에 가담했던 일을 빨갱이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낼 뿐, 그 일이 실수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 송 노인은 자신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송 노인은 자신의 좋은 땅을 뺏기고 나쁜 땅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죽일 놈들!"이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다.

② ㉡: 송 노인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송 노인은 고속 도로가 생기면 집에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가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송 노인은 과거에 그가 한 일을 왜곡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노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이들은 송 노인이 과거에 농민 조합에 가담했던 것을 빨갱이 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송 노인은 이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

⑤ ㉤: 송 노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송 노인은 부당한 환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딱서니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17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길이 통하기 전 고속 도로가 놓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

송 노인은 고속 도로가 나기 전 고속 도로가 통하면 사람 왕래도 많아져서 집에서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메기입 이성복의 말을 듣고 은근히 희망을 걸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정부의 환지 정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인 것에 반해, 송 노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어서 두 달을 계속 관계 요로에 '부당 환지의 시정'을 호소하고 다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 노인이 환지 정책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사건 왜곡 젊었을 때 농민 조합에 가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농민 조합에 들어가서 경찰서 때리 부수는 일에 가담했다는 거밖에 더 있소?"라는 청년의 말을 통해 송 노인이 젊었을 때 농민 조합에 들어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래 농민 조합에 가담한 기 그렇게 나뿐 일인가?"라는 송 노인의 말을 볼 때, 송 노인이 과거 농민 조합에 들어갔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 송 노인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다른 이의 부정적 인식에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는 상출이 과거 농민 조합에 가담한 송 노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송 노인이 이에 반발하며 한 말이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 송 노인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마을 환지 위원이나 환지 위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덕을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마을 사람 전체가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② 사건 왜곡 ⓑ: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가게의 거리가 먼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는 고속 도로로 인해 바로 길 건너편 논에 갈 때도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③ 사건 왜곡 ⓒ: 상출은 과거와 달라진 송 노인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상출은 송 노인의 달라진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서는 송 노인의 태도를 힐난하고 있다.

⑤ 사건 왜곡 ⓔ: 이성복은 송 노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송 노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메기입 이성복은 상출에게 화를 내는 송 노인을 진정시켜 싸움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송 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정·오 지름길

① ⓐ: 송 노인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② ⓑ: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가게의 거리가 먼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중에는 일부 내용은 적절한 경우가 있어 헷갈릴 수 있어요. ①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고, ②의 경우 사람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그 이유를 왜곡하고 있죠. 따라서 선지를 읽을 때는 문장의 앞뒤 내용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17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농민들이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하는 모습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는 농민들의 상황을 드러낸 것일 뿐, 세대 간의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정부에서 한 일'로 인해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권력자들에 의해 토지를 침탈당한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환지를 받고 항의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토지를 침탈당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② 송 노인에게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점에서 이성복 동장은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중간자라고 할 수 있겠군.

고속 도로가 통하면 송 노인의 집에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성복 동장은 마을의 환지 위원장이다. 그는 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중간자이므로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세상이 그런 걸 머!'라고 체념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부당한 환지 문제에 대해 '세상이 그런 걸 머!'라고 체념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방관하는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 파편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어른들은 뒤로 물러앉고 젊은이들이 마을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며 파편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17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송 노인은 권력자들에 의해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에 해당한다. (○, ×)

송 노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만을 원지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박토를 환지로서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이성복 동장은 국가 발전을 명목으로 ~~토지를 침탈하는 가해자~~ 중간자에 해당한다. (○, ×)

마을 환지 위원장인 이성복 동장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중간자로, 권력을 이용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세력에 해당한다.

(3) 마을 환지 위원과 송 노인의 갈등은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에 해당한다. (○, ×)

송 노인은 마을 환지 위원인 청년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환지를 제공하는 권력 앞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8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산업화**: 산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⑤ 사건 왜곡 상출이 자신의 ~~터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송 노인에게 드러내는 모습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의 세태를 보여 주는군.

상출과 송 노인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출은 마을 환지 위원으로 억울한 변을 당하지 않았으며, 권력자에 의해 마을의 농토를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오·이

① 송 노인은 권력자에 의해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고 말도 안 되는 환지를 받았군.

송 노인은 '원지본위'란 환지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 대신 말도 안 되는 박토를 환지로서 받았다고 하였다.

② 지나가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 밀어닥치는 먼지는 산업화 시기의 개발과 관련이 있겠군.

〈보기〉에서 이 글이 산업화 시기의 개발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인물인 송 노인은 매연, 소음, 먼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송 노인은 옳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송 노인은 마을의 농토가 자본가들에게 넘어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젊은이들과 갈등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젊은 세대를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④ 작가는 논에 두엄을 내는 사람들이 고속 도로 때문에 먼 굴다리 쪽으로 일부러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군.

작가는 권력자에 의해 농민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난 당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며 비판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 농민들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동맥

작품 분석 본문 94~97쪽

작가 조정래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및 사회 제도와 기득권의 모순
특징 ① 여러 인물들의 사연이 각각 제시됨.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내면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도시로 올라와 광명 직물 염색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길순, 봉자, 분옥은 정부의 사채 동결 정책으로 인해 회사에 맡겨 둔 돈의 원금을 몇 년간 못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다. 길순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회사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땅벌 강씨 아줌마를 통해 매춘을 하여 돈을 마련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길순은 임신 공포에 시달리다가 수술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다시 매춘을 하고, 수술 후 피를 흘리는 길순을 발견한 봉자와 분옥은 길순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함께 땅벌 강씨 아줌마를 찾아간다.
한 줄 요약
❶ (**분옥이**)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 삼 년간 모아 왔던 돈을 떼어먹힐 처지에 놓임.
❷ (**봉자**)는 고향에 돌아갈 때 가져가려고 모았던 돈에 문제가 생김.
❸ (**길순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송금해야 할 돈에 문제가 생겨 절망함.
❹ 정부의 사채 (**동결**) 정책으로 회사에 맡긴 돈의 원금을 당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여공들이 절망함.

18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과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은 '먹구름'과 '비'를 통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인물들의 절망적 심리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은 회사에 맡긴 돈을 당장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공들의 암울한 분위기를 '먹구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과 ㉡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과 ㉡에는 반어적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교체 ㉠과 ㉡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과거형
㉠과 ㉡에서는 과거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④ 부재 ㉠과 ㉡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과 ㉡에는 감각적 묘사가 드러나지 않으며 ㉡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⑤ 부재 ㉠과 ㉡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과 ㉡에는 과장된 서술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 ㉡ 모두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내적 갈등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182 답 (1) 외부 (2) 암울한 (3) 막막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작품 (내부,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 교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요한, 암울한)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암울한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

(3) 교체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통해 인물들의 (막막한, 자조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등에서와 같이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통해 인물들의 막막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18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각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8월 초순, 여름'이라는 계절이 언급되어 있지만, 계절의 변화와 이를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재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각 인물의 내면까지 모두 꿰뚫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순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18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 경리 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여공들은 경리 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 동요가 없다가 작업 총반장 허 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에야 절망감과 허무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오·이

① ⓐ: 모은 돈을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분옥은 미용사가 되기 위해 삼 년간 모은 오만 오천 원의 돈을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가슴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에서는 분옥이 돈을 모아 미장원 마담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느끼는 기대와 설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 회사에 넣어 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마음이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이라는 것은 일을 하며 모은 삼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허무함과 절망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길순이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8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경리 과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리 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아무 동요가 없던 여공들이 허 씨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때, ⓔ는 여공들이 경리 과장의 연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경리 과장의 연설로 알게 된 상황이 ~~여어없었기~~ 때문에
여공들은 경리 과장의 연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경리 과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공들이 경리 과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18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를 통해 여공들이 사채 법정 이자를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있다.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금액의 총합은 팔백오십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는 총무 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 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사채 동결 이전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에게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다.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8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길순이는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버는 지옥탕 일을 하길 원했지만, 내년부터 부서를 옮기게 되었다. 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회사의 결정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분옥이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돈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고 미용사가 되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인 분옥이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봉자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꼈고,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③ 사장이 총무 부장과 경리 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사장은 총무 부장과 경리 과장이 직원들의 이자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노동자들에게 돈을 당장 돌려주지 않고 이익을 얻게 되자 이들을 용서하였다.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은 총무 부장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돈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친 것이다.

18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분옥이는 미용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칠만 원을 모으려 했다. (○, ×)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 사건 왜곡 봉자는 이 년 전 가족들에게 서울에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 (○, ×)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을 통해 봉자가 이 년 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도망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온 이후 봉자는 오만 원을 모아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

(3) 길순이는 봉자나 분옥이보다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오래되었다. (○, ×)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를 통해 길순이가 봉자나 분옥이보다 회사에서 오래 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8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경리 과장이 여공들 앞에서 연설을 한 이유는 본인이 ~~㉯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겠군.

경리 과장이 여공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은 여공들에게 사채 동결 정책으로 인해 원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본인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오·이

① 분옥이가 미용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은 ㉮와 관련이 있겠군.

분옥이가 미용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은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산업화의 긍정적 측면, 즉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길순이가 당장 다음 달부터 가족의 생활을 걱정한 것은 ㉯와 관련이 있겠군.

길순이가 다음 달부터 가족의 생활을 걱정한 것은 가난한 노동자의 삶이 더 궁핍해졌음을 말한다. 즉 정부의 사채 동결 정책으로 인해 돈이 묶이면서 가난한 노동자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장은 여공들이 ㉯의 상황에 직면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군.

여공들은 회사에 맡긴 돈이 묶이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사장은 여공들의 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 오히려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⑤ ㉮를 꿈꾸던 여공들이 ㉯의 상황에 직면하는 모습은 산업화의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군.

분옥, 봉자, 길순을 비롯한 여공들은 산업화 시기에 공장에서 일을 하며 부를 축적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꾼다. 그러나 사채 동결 정책으로 인해 회사에 맡긴 돈을 당장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산업화의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작품 분석 본문 98~101쪽

작가 박완서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부조리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
특징 ①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②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③ 부조리한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인물의 자각 과정과 성장을 그려 냄.
단숨에 읽기 '나'는 부친으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지만 사업에 의욕이 없고 사업을 하면서 겪는 부조리함에 멀미를 느낀다. 결국 '나'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다 영세한 가내 공업자가 되어 무허가 판잣집으로 형성된 산동네로 이사하게 된다. '나'의 집이 있는 벼랑 바로 밑에는 '나'의 집보다 더 높이 솟아 있는 김복록의 삼층집이 있는데 김복록은 '나'의 집이 자신의 땅 10평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며 땅값 100만 원을 요구한다. '나'는 김복록의 요구가 부당함을 따지며 그의 얼굴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 왔던 멀미의 실체를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비겁하게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장난감 만들기에 열중한다.

한 줄 요약
❶ 아버지의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은 '나'는 사업을 하며 겪는 부조리한 일들에 (**멀미**)를 느끼고 사업이 실패하자 오히려 (**해방감**)을 느낌.
❷ '나'는 (**김복록**)이 요구하는 자릿세의 부당함을 말하고, 그의 얼굴에서 이제껏 느껴 오던 (**멀미**)의 실체를 발견함.
❸ '나'는 멀미의 실체에 맞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장난감**) 만들기에 집중함.

19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나'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멀미를 느끼는 부분과 그 멀미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과정을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김복록이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행동을 과장하고는 있으나 비극적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으며 반전을 꾀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담담한 태도로 서술하여 사건에 대해 중립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복록을 보고 '바로 그다! ~ 나는 진저리를 쳤다.'라고 서술하는 부분에서 '나'가 김복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담담한 태도로 보기도 어렵다.
④ 부재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⑤ 부재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 않다.

19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공간적 배경을 장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
'나'와 김복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공간적 배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동네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찾을 수 없다.
(2)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
'나'와 김복록의 대화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김복록과 이를 거부하는 '나'의 갈등이 드러난다.
(3)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이 글에는 '나'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면직물 공장을 정리하고 전축 조립 공장, 석유난로 공장, 노트 공장, 단추 공장, 형광등 기구 공장 등을 운영했던 과거의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과거에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A]에서는 '나'가 아버지로부터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장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며 손해만 보고 물러난 일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나'가 느낀 거부감과, 공장을 정리했을 때 느낀 해방감도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인물의 과거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A]에서는 인물이 과거에 겪은 여러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행시킨다.

② 부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A]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A]에 제시된 사건은 모두 '나'가 직접 겪은 일으므로 사건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여러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통해 행동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A]에서는 '나'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여러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부재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점진적인 갈등의 심화를 묘사하고 있다.

[A]에는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도 않다.

19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에서 '나'는 다른 사업보다 부친이 일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부친으로부터 꽤 기틀이 잡힌 ~ 의욕도 야망도 없었다.'로 볼 때, '나'는 부친이 일군 사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에서 '나'는 면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었다.

'부친으로부터 꽤 기틀이 잡힌 ~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로 볼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③ ⓑ에서 '나'는 사업 과정에서 겪는 부조리한 일에 멀미를 느꼈다.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에게 작용했다.'로 볼 때, '나'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일들에 멀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나'는 '김복록'에게서 그동안 느낀 멀미의 실체를 보았다.

'나'는 김복록을 통해 그동안 느낀 멀미의 실체가 '탐욕', '비열', '파렴치' 등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에서 '나'는 예전에 골몰했던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멀미를 일으켰던 것의 정체를 알게 된 날 이후로 다시 장난감 만들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19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사건 왜곡 ㉠은 '나'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서도록 만들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면직물계가 사양의 길을 걸음에 따라 '나'의 사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으나, '나'는 이러한 '쇠망의 흐름'에 저항은커녕 얼씨구 하며 탔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은 '나'가 의욕도 야망도 품지 않은 채 시작한 일이다.

'나'는 의욕도 야망도 지니지 않은 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마지못해 사업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③ ㉡은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다.

④ ㉡은 '나'에게 치유되기 힘든 멀미의 요인을 제공했다.

'나'는 ㉡의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것 외에도 세리와의 간교한 '쇼부', 관료에의 아첨,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송사리의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파렴치한 촉수, 동업자 간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경쟁 등의 일들을 경험했다. 이 일들은 '나'가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사업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하였다(③). 그 때문에 '나'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느글느글한 멀미를 느꼈다고 하였다(④).

⑤ ㉢은 '나'가 기쁨을 느끼면서 몰입한 일이다.

'나'는 김복록을 통해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고 '장난감 만들기'에 골몰한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9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속물적 세태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은 주인공인 '나'가 속물적 인간인 김복록의 부당한 자릿세 요구에 논리적으로 따져 말하는 부분이므로, '나'가 속물적 세태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는 것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군.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어 '대기업화'되고 화학 섬유를 대량 생산했다는 것에서 이 작품이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다.

②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에서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를 느낄 수 있군.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 풍조를 느낄 수 있다.

④ '나'가 '김복록'을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등으로 파악한 데에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군.

'나'는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속물적 인간인 김복록에 대해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등의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물적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에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은 자신이 겪어 온 고통의 실체를 깨달은 후 고통과 맞서려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나'는 컴프레서의 소음에 항의하는 김복록을 보며 ~~속물적 세태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김복록은 낡은 가내 공업용 컴프레서의 소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다.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선 대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김복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예절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오·이

① '나'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장난감 만들기에 골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김복록과의 갈등을 통해 멀미로서 '나'를 속박하던 '괴물의 본질'을 알아낸 후 멀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방법에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자각한다. 이는 '나'가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를 통해 다시 장난감 만들기에 골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③ 김복록이 '나'에게 터무니없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라고 볼 수 있다.

김복록은 산동네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수년간 부당한 자릿세를 받아 챙긴 속물적 인물로, 그가 보여 주는 행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세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나'가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위와 고독 속'에 빠진 것은 자신과 성격이 대비되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나'는 '하던 일에 멀미를 내고 무작정 무위와 고독 속'으로 뛰어내렸다. 이는 자신에게 멀미를 일으켰던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사업을 할 때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을 써야 한다는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을 직접 행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은 속물적 근성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나'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돈은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기술'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이다. '나'는 이러한 속물적 근성에 거부감을 느껴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나'가 '김복록'과의 갈등을 통해 '괴물의 본질'을 알아냄으로써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접근하는 것은 갈등이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김복록과의 갈등을 계기로 '괴물의 본질'을 알아내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접근한다. 이는 '나'가 그 갈등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나'가 '김복록'의 모습에서 '탐욕', '비열', '파렴치'의 속성을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속물적 근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김복록과 갈등하며, 그의 모습에서 '탐욕', '비열', '파렴치'의 속성을 떠올린다. 이는 자신에게 멀미를 일으켰던 '괴물'의 이면에 있는 속성들로, '나'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다.

⑤ '나'가 '이웃에 대한 예절'을 중시하며 '지독한 소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인간적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지독한 소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이웃에 대한 예절'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인간적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III 소설_사회, 세태

22 화랑의 후예

작품 분석 본문 104~107쪽

작가 김동리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주제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몰락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연민
특징 ① 대상이 지닌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
② 일제 강점기의 몰락한 양반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단면을 표현함.
③ 희극적인 소재와 행동으로 인물을 희화화함.
단숨에 읽기 '나'는 관상소에서 숙부로부터 '조선의 심벌'이라는 황 진사를 소개받는다. 황 진사는 '쇠똥 위에 개똥 눈 흙가루'를 숙부에게 가지고 와 약이라고 우기며 밥을 얻어먹거나 친구의 책상을 팔아 밥값을 해결하면서도 진사 행세를 하고, 낡은 주역책을 넣고 다니며 지략과 조화를 부리고 싶어 하는 등 허세를 부린다. 숙부와 숙모는 황 진사가 안쓰러워 중매를 서려 하지만 황 진사는 상대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낸다. 이후 우연히 만난 황 진사는 '나'에게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두 달 후 '나'와 숙모는 약장수와 함께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며 속여 팔다가 순사에게 잡혀가는 황 진사를 보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황 진사는 (**과부**)와의 혼인을 중매하는 숙부와 숙모에게 불쾌감을 드러냄.
❷ (**황 진사**)는 '나'에게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함.
❸ '나'는 약장수와 함께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다 순사에게 잡혀가는 황 진사를 보게 됨.

1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는 숙부, 숙모, 황 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매의 대상이 과부임을 알고 난 후의 황 진사의 반응, 즉 입에 경련이 나고 손을 벌벌 떠는 등의 행동 묘사나 "흥, 과,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을……." 등의 말을 통해 그가 양반의 권위를 내세우는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사건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황 진사의 중매와 관련된 대화 장면이 나올 뿐, 회상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나'의 시점으로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을 뿐, 다양한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교체 ~~현재형~~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물어보았다', '넘쳤다', '판이었다' 등의 과거형 시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⑤ 부재 실제 공간의 ~~질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19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숙부와 숙모는 황 진사에게 중매를 주선하고자 하였다. (○, ×)
숙부와 숙모는 황 진사에게 "일재,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 하고 물어보며 중매를 주선하고 있다.

(2) 헛짚기 숙부와 숙모는 황 진사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
숙부와 숙모는 중매를 주선하는 등 황 진사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그의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3) 사건 왜곡 황 진사는 ~~궁핍한 경제 사정~~을 이유로 중매를 거절하였다. (○, ×)
황 진사는 본인이 '황후암 육대 직손', 즉 양반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과부에게 장가를 들 수 없다며 중매를 거절하고 있다.

2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의 몰락한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황 진사는 살아갈 방도는 마련하지 않고 가문 의식, 조상의 명예 등을 들먹이며 자존심만 내세우는 몰락한 양반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사투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황 진사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부재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그려 내고 있습니다.

'나'는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황 진사를 어이없고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그와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황 진사의 삶을 이타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④ 헛짚기 인물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이지만 일제 식민 통치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인 '나'는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며 이 작품에서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20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솔하게 거짓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 약장수가 사람들에게 약을 팔기 위해 허위 정보를 말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은 맞지만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 황 진사는 숙모가 말한 규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황 진사는 "그럼야 여북 좋갔수."라고 말하며, ㉠과 같은 행동을 통해 중매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황 진사는 자신의 중매 상대가 과부라는 것을 알고 분노를 드러낸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는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여 방 안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 숙부가 권해 준 규수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황 진사가 '황후암 육대 직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에게 장가들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④ ㉣: 기대와 다른 황 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황 진사가 수감된 숙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황 진사는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다고 자랑한다. 이에 ㉣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나'는 우연히 만난 황 진사로부터 숙부님과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듣는다.

'나'는 수감된 숙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황 진사로부터 자신의 조상 중 신라의 화랑이 있었다는 '지극히 중대한 사실'을 듣는다. 이는 숙부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다.

오·오·이

① 황 진사는 중매의 상대가 과부라는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한다.

황 진사는 숙부와 숙모가 중매해 주겠다는 상대가 과부라는 것을 듣고 노기 띤 눈을 부라리며 "황후암 육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라고 하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황 진사는 약장수가 사람들을 속여 가짜 약을 파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황 진사는 약장수가 두꺼비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서 파는 일에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다.

20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자신에 대한 숙부의 배타적 태도로 인해 황 진사는 혼인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뒤집고 있군.

황 진사는 처음 장가를 권유받고 '희색이 넘'치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혼인 상대가 과부라는 숙모의 언급으로 인해 '황 진사는 갑자기 낯빛이 홱 변해지며' 혼인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뒤집고 있다.

오·오·이

① 황 진사는 장가들 상대의 집안을 중시하고 있군.

"집안도 이름 있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숙모는 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하며 황 진사를 설득하고 있군.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 주신즉'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황 진사는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아, 들면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숙부는 상대의 나이와 경제적 측면을 근거로 황 진사에게 장가갈 것을 권하고 있군.
"일재,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조적**: 행동력이 없이 무관심하게 보거나 수수방관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헛짚기 황 진사가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황 진사가 약장수의 소개에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약장수와 함께 가짜 약을 팔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양반이라는 허위적인 생각에 체면을 차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수의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황 진사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여 과부와의 중매도 거절하지만, 약장수와 함께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팔고 있다. 이는 황 진사가 거짓되고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황 진사가 과부 중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군.
황 진사는 자신이 '황후암 육대 직손'이라고 하며 다른 가문에 출가했던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이는 자신이 가문에 맞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감개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황 진사는 우연히 만난 '나'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다고 자랑한다. 이는 황 진사가 가문 의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황 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겠군.
황 진사가 가짜 약을 팔다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것은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양반의 체통을 지키려는 허위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0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염치**: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정·정·이

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숙부가 황 진사에게 중매를 제안했을 때, 황 진사가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라고 대답하는 부분에서 황 진사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ㄷ.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황 진사는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다는 사실에 감개하며 '나'에게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를 통해 황 진사가 자신의 가문을 중시하며, 가문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짚기 시대의 흐름을 ~~명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황 진사는 가문 의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ㄹ. 헛짚기 '진사'라는 호칭에 어울리도록 ~~염치와 예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황 진사는 '진사'라는 호칭에 맞지 않게 약장수를 도와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약을 팔고 있으므로, 염치와 예의를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20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와의 일화는 황 진사의 현실적 처지를 보여 주고, ㉯와의 일화는 황 진사의 허위 의식을 부각한다.
황 진사가 궐자(㉮)를 도와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속여 파

는 일화는 황 진사가 현실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장난꾼(㉯)은 농담 삼아 황 진사에게 급제를 주고 그가 '진사' 행세를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일화는 시대착오적 삶을 살고 있는 황 진사의 허위 의식을 부각한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는 황 진사의 허물을 강조하고, ㉯는 황 진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궐자(㉮)는 황 진사와 가짜 약을 속여 팔아 황 진사가 순사에게 잡혀가도록 함으로써 그의 허물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장난꾼(㉯)는 농담 삼아 황 진사에게 급제를 주고 진사 행동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황 진사의 권위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헛짚기 ㉮는 황 진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고, ㉯는 황 진사의 지식적 소양을 높여 준다.

궐자(㉮)는 황 진사가 가짜 약을 팔다가 순사에게 잡혀가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위를 높여 준다고 볼 수 없다. 어느 장난꾼(㉯) 또한 황 진사의 허위 의식을 희화화하고 있을 뿐, 지식적 소양을 높여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범위 오류 ㉮와의 일화는 황 진사의 처지를 희화화하고, ㉯와의 일화는 황 진사의 인품을 강조한다.

궐자(㉮)는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황 진사가 가짜 약을 팔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순사에 잡혀가게 하므로, 그와의 일화는 황 진사의 처지를 희화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장난꾼(㉯)이 농담 삼아 황 진사에게 진사 호칭을 붙여 준 일화는 황 진사의 인품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와의 일화는 황 진사에 대한 풍자를 강화하고, ㉯와의 일화는 황 진사에 대한 연민을 강화한다.

궐자(㉮)와의 일화는 몰락한 양반인 황 진사의 처지를 부각하여 풍자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장난꾼(㉯)과의 일화는 황 진사의 허위 의식을 희화화할 뿐, 황 진사에 대한 연민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3 삼대

작품 분석 본문 108~111쪽

작가 염상섭

갈래 장편 소설, 가족사 소설

주제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갈등을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

특징 ① 당시의 풍속과 세대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함.
② 사건의 전개보다 인물들 간의 관계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춤.

단숨에 읽기 조 의관은 을사조약을 전후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의관 벼슬을 돈으로 사 양반이 된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아들 상훈은 부친의 족보 사업과 치산 추진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하지만, 집안의 돈만을 갖다 쓰며 안일하게 살아간다. 손자 덕기는 일본에 유학하며 조부와 부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그의 친구 병화는 일본 유학 중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귀국한다. 조 의관은 재산을 노린 최 참봉과 수원집에 의해 살해당한다. 조 의관의 사망 후 재산 상속자가 된 덕기는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막막해하고, 조상훈은 방탕하게 생활하다 노름과 사치로 가산을 탕진한다.

한 줄 요약

❶ 족보를 산 조 의관은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기로 하고, 상훈은 이에 불만을 갖고 (창훈)과 갈등함.

❷ (치산)을 반대하는 상훈은 조 의관과 갈등하고, 조 의관은 상훈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함.

20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문중으로부터 치산 요구를 받은 조 의관의 복잡한 심리, 상훈과 창훈, 조 의관과 상훈의 논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 등을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헛짚기 공간적 배경의 장정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인물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인물들의 체험을 잡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인물의 성격 변화도 드러나 있지 않다.

2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작품 속 인물이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며 인물들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전달하고 있다.

오·오·이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아까부터 상훈의 말이 ~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등과 같이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등과 같이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20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소재를 둘러싼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산소를 꾸미는 것과 관련한 문제로 상훈과 조 의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부재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② 부재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④ 부재 특정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1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조 의관은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천 원을 내놓으며, 조씨 문중에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천 원을 들인 생색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대 금액이 아니라 여러 면을 계산적으로 따져 마련한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조 의관이 금전적인 판단이 어설프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은 조 의관이 계산에 밝은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 할아버지의 치산에 드는 비용의 득과 실을 따져 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은 ○○당 할아버지의 치산을 구실로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됨을 드러낸다.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 준다.
㉣은 문중 사람들 중 돈이 없으면 묘막을 짓는 일에 '흙 한 줌 떼 한 장씩이라도 떠다가' 부역으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은 창훈이 묘막을 짓는 일에 부정적인 상훈에게 조상을 모시는 일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다.

21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조 의관은 계산에 밝은 인물이다. (○, ×)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조 의관이 계산에 밝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 상반 조 의관은 문중의 과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 ×)

조 의관은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에, 자신이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으로 생각하여 문중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3) 교체 조 의관은 산소를 꾸미는 문제로 창훈(상훈)과 대립한다. (○, ×)

산소를 꾸미는 문제로 조 의관과 대립하는 상대는 창훈이 아닌 상훈이다.

정·오 지름길

(1) 조 의관은 계산에 밝은 인물이다.

'주판'은 오늘날의 계산기가 발명되어 사용되기 전까지 쓰였던 셈을 놓는 데 쓰는 기구의 하나예요. 그러니 조 의관이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득실을 따져 가며 계산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지요.

21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조 의관은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라고 하며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의 방탕한 삶을 비판하고 있다.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이 족보를 엮거나 산소를 꾸미는 일 따위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② 헛짚기 [A]에서 상훈은 자신을 무시하는 조 의관에게 저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A]에서 상훈은 조상을 섬기는 일에 돈을 과하게 쓰려는 조 의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④ 헛짚기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겸허하 수용하고 있다.

조 의관은 상훈의 비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불만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헛짚기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A]와 [B]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은 드러나 있지 않다.

21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문중: ①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② 한 종가의 문중(門中)에 속하는 사람들.

정·정·이

⑤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 의관은 치산을 자신이 문중에서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하는 기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상훈은 조 의관이 많은 돈을 들여 치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치산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산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② 교체 '조 의관'은 이 일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조 의관은 치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천 원 정도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③ 헛짚기 '조가의 떨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조가의 떨거지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 오천 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를 보면 조가의 떨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 의관이 돈을 내놓게 하기 위해 치산을 제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사건 왜곡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창훈은 치산을 하는 데 조 의관이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 치산으로 인해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214 답 (1) 상훈 (2) 덕기 (3) 창훈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창훈, 상훈)은 조 의관이 헛된 곳에 돈을 쓴다고 생각한다.

상훈은 족보를 엮거나 산소를 꾸미는 데 돈을 쓰는 조 의관에게 '그런 돈을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조 의관이 헛된 곳에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교체 조 의관은 자신이 모은 재산의 절반을 (상훈, 덕기)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조 의관은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것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창훈, 상훈)은 조 의관이 치산에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는 것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

창훈은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천 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 뒷감당은 우리 발로다 돌아다니며 긁어모아야 할 셈이라네."라며 치산에 충분한 돈을 내놓지 않는 조 의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21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치부하며**: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보거나 여기며.
- **치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

정·정·이

⑤ 사건 왜곡 조 의관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만 들인 것이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조 의관은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조 의관이 족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쓴 돈을 줄여서 '한 천 원'이라고 말했으므로 실제로 '한 천 원'만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성한 돈을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족보를 만드는 데에 그렇게 돈을 쓴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조 의관은 상훈의 근대적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 의관은 상훈이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조선어 자전의 편찬'과 같이 돈을 유리하게 쓸 만한 일이 많다는 말에, "듣기 싫다!"라고 반응한다. 또한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라고 따져 물으며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여 제사를 거부하는 상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조 의관은 상훈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상훈이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조선어 자전 편찬 등에 돈 쓸 일이 많다고 하며 치산에 돈 쓰는 일을 비판하자, 조 의관은 "잔소리 마라!"라고 하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③ 상훈은 조 의관에 의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

돈을 유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상훈의 말에 조 의관은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라고 하며 상훈의 치부를 들추어낸다. 이에 상훈은 '부친이 홧김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고 하였다.

④ 상훈은 창훈이 조 의관의 돈으로 치산을 추진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훈은 "장한 사업 하슈. ~ 호젓하다고 하십디까?"라고 하며 조 의관의 돈으로 치산을 추진하는 창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1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사건 왜곡 조 의관의 비난에 ~~창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조 의관이 "어떻게 유리하게 ~ 쓰는 방법이냐?"라고 말하며 상훈의 과거를 들어 비난하고 있으나, 상훈은 이에 대해 변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상훈은 조 의관에게 치산을 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상훈이 개화적 지식인의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조 의관이 돈을 들여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것은 양반 집안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언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상훈은 조 의관이 치산을 하는 데 돈을 들이는 일로 언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상훈이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조 의관은 아들인 상훈이 아니라 손자인 덕기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돈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돈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선적**: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교체 ~~덕기~~ 상훈는 개화기 지식인의 위선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개화기 지식인의 위선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덕기가 아닌 상훈이다. 상훈은 개화기 지식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위선적 인물이다.

오·오·이

① 조 의관과 상훈은 돈을 쓰는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조 의관과 상훈은 봉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조 의관이 족보를 엮는 일, 조상의 산소를 꾸미는 일에 돈을 쓰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③ 조 의관과 상훈의 갈등은 그 당시의 세대 갈등을 보여 준다.

조 의관은 봉건적 가치관의 구한말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상훈은 개화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두 인물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1920~30년대의 세대 갈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촌뜨기

작품 분석 본문 112~115쪽

작가 이태준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일제 강점기 삶의 터전을 잃은 민중의 고난과 부부의 애틋한 정

특징 ①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인물의 순박한 모습을 드러냄.
②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서술함.

단숨에 읽기 장군이는 안악굴 꼭대기 오막살이에서 아내와 화전을 일구고 숯을 굽고 산짐승을 잡아 생활한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의 주인이 삼정 회사로 바뀌면서 화전과 사냥 및 숯을 굽는 일 등이 금지된다. 어느 날 짐승을 잡기 위해 장군이가 파 놓은 함정에 순사 부장이 빠져 다친 일로 장군이는 경찰서에 스무 날을 갇히게 된다. 장군이는 산에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없게 되자, 빚을 얻어 방앗간을 짓기 시작했으나 마을에 발동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방앗간 짓던 일마저 포기하게 된다. 안악굴에서 살 수 없게 된 장군이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달래 친정으로 보내며 헤어진다.

한 줄 요약

1. (**삼정 회사**)가 산의 주인이 된 후로 안악굴 사람들은 허가 없이는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숯을 굽거나 (**(산)짐승**)을 잡지 못하게 됨.
2. 장군이가 짐승을 잡기 위해 파 놓은 (**함정**)에 순사 부장이 빠진 일로 장군이는 (**경찰서**)에서 스무 날을 지내고 나옴.
3. 장군이는 장풍언네가 (**발동기**)를 들여와 방아를 찧어 준다는 소문을 듣고 방앗간을 짓던 일을 포기함.
4. 장군이는 웅덩이를 내려다보다 웅덩이 속 (**송사리 떼**)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낌.

21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장군이가 짐승을 잡기 위해 파 놓은 함정에 순사 부장이 빠져 장군이가 경찰서에서 지내고 온 사건, 장군이가 방앗간을 차리려고 준비하다가 포기한 사건 등이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장군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물의 ~~과장된 반응~~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과장된 반응이나 분위기의 반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부재 인물이 떠올린 ~~장상 속 장면~~을 통해 인물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이 직접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을 뿐, 인물이 떠올린 상상 속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재 ~~습관적 행위~~를 중심으로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장군이가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의문점을 나열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독자의 비판을 유도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한 장군이의 의문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장군이는 아버지 대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일구며 살림을 꾸려 왔다. (○, ⊗)

'살림이라야 가진 논밭이 없고'라고 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일구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순사 부장은 사냥을 나왔다가 장군이가 파 놓은 함정에 빠졌다. (⊙, ×)

사냥을 나왔던 순사 부장이 장군이가 파 놓은 함정에 빠져 장군이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3) 사건 왜곡 장군이는 장풍언네와 협력하여 방앗간을 차리려고 계획 중이었다. (○, ⊗)

장군이는 물방아 형태의 방앗간을 차리려 하였으나, '발동기'와 같은 근대적 문물을 이용한 장풍언네의 방앗간 이야기를 듣고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22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인물의 내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물속에는 잠긴 자기 얼굴을 간지르는 듯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웃는 듯도 한 빤작빤작하는 송사리 떼', '몽우리돌은 거울 같은 물을 깨뜨리고 가을 산기슭의 적막을 흔들어 놓았다.' 등 비유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장군이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공간적 배경을 통해 사건의 극적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A]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서술자의 회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헛짚기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을 뿐,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A]에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나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다.

2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경찰'에 저항하기 위한 '여러 함정'이 존재하는 곳이다.

안악굴에 파인 '여러 함정'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경찰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한때는 '가진 논밭'이 없어도 '굶지는 않'았던 곳이다.

안악굴 사람들은 한때는 '가진 논밭'이 없어도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짐승을 잡아먹는 등 '굶지는 않'고 지냈다.

② '삼정 회사'의 출현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다.

삼정 회사가 산의 주인이 된 후 안악굴 사람들은 관청이나 경찰의 허가 없이는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숯을 굽거나 짐승을 잡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③ '산지기'나 '관청'의 통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다.

산지기나 관청은 안악굴 사람들이 예전처럼 마음대로 산을 이용하여 생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⑤ 생계유지를 위한 기존의 방식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관청에서는 안악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 오던 일을 허가 없이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므로, 기존의 방식이 '범죄'가 될 수 있다.

222 답 (1) 화전 (2) 범죄 (3) 함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삼정 회사가 산을 샀다고 한 이후, 안악굴 사람들은 더 이상 (화전)을/를 일구며 살 수 없게 되었다.

삼정 회사에서 산을 샀다고 한 이후로 안악굴 사람들은 부대를 파지 못하게, 즉 화전을 일구며 살지 못하게 되었다.

(2) 교체 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안악굴 사람들은 (범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화전을 일구고 덫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을 잡았던 안악굴 사람들은 관청의 눈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범죄의 생활자들이라고 하였다.

(3) 교체 안악굴 사람들은 산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을/를 놓곤 했다.

안악굴 사람들은 덫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산다고 하였다.

2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예전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물방아는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임자가 가서 거들어 줘야 되는' 기존의 방아 방식으로 장군이가 차리려던 방앗간의 방식이다. 그런데 장풍언네가 많은 양의 쌀을 편하고 싸게 방아로 찧을 수 있는 근대적 문물인 '발동기'를 들여왔다는 소문에 장군이는 방앗간 짓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따라서 물방아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장군이가 산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새롭게 선택한 생계 수단이다.

장군이는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짐승을 잡아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물방아 형태의 방앗간을 지어 '쌀되나 얻어먹어 볼까'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오.이

ㄱ. 상반 발동기에 비해 ~~작은 적지만~~ 삯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발동기를 통해 곡식을 찧는 삯이 물방아를 이용한 것보다 적다고 하였다.

ㄷ. 헛짚기 장군이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담겨 있다.

물방아는 장군이가 먹고살기 위해 선택한 수단일 뿐 삶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22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장군이가 '순사 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가는 것은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가 자극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군.

장군이가 순사 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경찰서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이 파 놓은 함정에 순사 부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와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② 장군이가 '빚을 마흔 냥 가까이 내어'서 '방앗간'을 지은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장군이가 빚을 내어 방앗간을 지은 것은 산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짐승을 잡아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장풍언네'가 '서울 가서 발동기를 사 오고 풍채를 사 오'는 것은 근대화 시기에 적응해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장풍언네가 많은 양의 쌀을 편하고 싸게 방아로 찧기 위해 서울에서 근대화 기기인 발동기와 풍채를 사 온 것은 근대화 시기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임자가 가서 거들어 줘야 되는' 방식의 '방앗간'을 차리려고 한 것은 장군이가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군.

발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까부름 새를 모두 곡식 임자가 가서 거들어 줘야 되는' 기존 방식의 방앗간을 차리려고 한 것은 장군이가 근대화 시기의 과도기적 사회에서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장군이가 '세월만 허비'한 채 '중도에 손을 떼고 내어던지'게 된 것은 근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촌뜨기'로 머물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장군이가 편하고 싼 발동기 소문에 방앗간 짓던 일을 포기하는 것은 근대화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촌뜨기로 머물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2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장군이는 근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인물이다.

장군이는 근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오·오·이

① 장풍언네가 들여온 '발동기'는 근대화된 방식의 삶을 상징한다.

장풍언네가 서울에서 사 왔다는 '발동기'는 장군이의 '물방아'와 대조를 이루며, 근대화된 방식의 삶을 보여 준다.

③ 이 작품의 제목인 '촌뜨기'는 장군이의 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장군이는 방앗간을 차리려고 시도하는 등 나름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는 '촌뜨기'이다.

22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돌땅에 맞고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져 보이는 '제 얼굴의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군이는 송사리 떼를 잡으려고 몽우리돌을 던졌으나 송사리 떼는 물 위로 뜨지 않고, 보이는 것은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져 보이는 '제 얼굴의 그림자'뿐이다. 이는 방앗간을 실패한 것처럼 송사리 떼를 잡는 일에도 실패한 사태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자태의 본질을 깨달은 이후~~의 체념의 상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장군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전이므로,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깨달은 이후의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헛짚기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는 장군이의 모습은 ~~내면을 성찰하고 난 이후의 허무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는 모습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으로, 내면을 성찰하고 난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무함의 감정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철버덩!' 하는 소리를 내며 '몽우리돌'이 떨어진 것은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버덩!' 하는 소리를 내며 '몽우리돌'이 떨어진 것은 장군이가 송사리 떼를 잡기 위해 한 행위로,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헛짚기 '한 마리도 뜨지 않'은 '송사리 떼'는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군이는 '송사리 떼'를 잡기 위해 '몽우리돌'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뜨지 않'아 실패한다. 이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사태의 본질을 실패라고 깨닫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미스터 방

작품 분석 본문 116~119쪽

작가 채만식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풍자 소설

주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와 비판

특징 ① 인물에 대한 풍자를 통해 당대의 사회 현실을 비판함.
② 해학적인 문체를 활용해 인물을 희화화함.
③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하여 서술자의 개입이 자주 나타남.

단숨에 읽기 방삼복은 십여 년을 외국에서 떠돌다가 집에 돌아와 서울에서 신기료장수를 하면서 겨우 연명한다. 귀동냥으로 배워 두었던 영어로 미군 장교인 S 소위에게 접근하여 미군의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부자가 되어 권세를 누리게 된다. 어느 날 백 주사가 찾아와 광복이 된 후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방삼복은 백 주사의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허세를 부리고 양치를 한 뒤, 양칫물을 밖으로 내뱉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방삼복을 찾아온 S 소위가 양칫물을 뒤집어쓰고는 방삼복에게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한다.

한 줄 요약

❶ 방삼복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독립(광복)**)에 대한 태도가 바뀜.
❷ 백 주사는 (**방삼복**)을 이용하여 광복 후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고자 함.
❸ 방삼복은 거들먹거리며 (**백 주사**)의 부탁을 수락함.

22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방삼복과 백 주사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지적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부재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작품은 3인칭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지적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①, ②).

④ 부재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서술자가 회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부재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지 않으며,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2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반감이 솟았다', '심히 불쾌하였고'와 같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백 주사가 방삼복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므로, 작품 안 백 주사가 방삼복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사건 왜곡 방삼복은 백 주사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방삼복이 백 주사와 대화를 나누고는 있으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22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인물의 언행을 희화화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런 옘병헐! 그눔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뒈졌어." 등과 같이 인물의 언행을 희화화하여 인물의 이기적 면모를 부각하고, 독자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부재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③ 부재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혹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이다.

④ 부재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대비시켜 작가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는 모두 부정적 인물이다.

23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치안: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

정·정·이

③ ㉢: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방삼복은 순사가 없으니 징을 박아 주는 값을 더 받으려 했지만, 재료를 파는 업자들도 함께 값을 올리는 바람에 소득은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은 광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삼복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방삼복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임을 표현한 것이다.

② 헛짚기 ㉡: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에는 치안 부재의 상황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순사가 없으므로 마음대로 장사를 해도 되겠다는 방삼복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④ 헛짚기 ㉣: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 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친일 행위로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누렸던 백 주사가 해방 이후 모든 재산을 빼앗기면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을 뿐, 전통 윤리의 회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헛짚기 ㉤: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일하며 갑자기 출세하게 된 방삼복에게 생긴 버릇을 설명하고 있을 뿐, 새로운 문화 체험으로 인한 방삼복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23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방삼복은 해방 이후 미군의 통역관이 되어 '미스터 방'으로 불린다.

(○, ×)

방삼복은 영어 실력 덕에 해방 이후 미군 통역관이 되었으며, '미스터 방'으로 불린다. 이는 〈중략 부분 줄거리〉와 백 주사가 방삼복을 찾아와 '미씨다 방'이라고 부르며 부탁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로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 ×)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함으로써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가, 해방 이후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3) 사건 왜곡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순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

(○, ×)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순사가 사라지자 돈을 더 받으며 이익을 보려고 했으나,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2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사의식: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역사적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의식.

정·정·이

③ 범위 오류 방삼복과 달리 백 주사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역사의식의 부재를 보여 준다.

방삼복과 백 주사는 모두 나라의 상황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인물로, 둘 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오·오·이

① 백 주사는 방삼복을 무시하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있다.

백 주사가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다고 표현한 것과, 방삼복을 '코삐뚤이 삼복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때, 백 주사는 방삼복을 무시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방삼복은 백 주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지위와 힘을 과시하고 있다.

방삼복은 "머, 지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과 같이 백 주사에게 자신의 지위와 힘을 과시하고 있다.

④ 백 주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코삐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⑤ 방삼복과 백 주사는 모두 공동체적 삶의 의미보다 개인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다.

방삼복과 백 주사는 나라의 광복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보다 개인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 백 주사는 방삼복을 무시하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있다.
④ 백 주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백 주사는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미스터 방(방삼복)의 태도가 불쾌하고 속마음으로는 그를 무시하고 있지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이를 감추고 방삼복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를 통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면모도 확인할 수 있으니, ①과 ④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2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백 주사는 광복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빼앗기고 몰락한 것이다. 따라서 백 주사의 몰락을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방삼복은 해방에 대한 역사의식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물이었으나,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어 출세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이들을 '그놈들', '괴수놈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 후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친일 행동에 대한 반성은

커녕 방삼복의 권세를 이용하여 다시 예전의 재산을 되찾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 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방삼복은 해방 후 자신의 손님이 줄자 해방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다. 그러다 순사가 없어져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알고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라고 한다. 그러고서는 재료비 상승으로 소득이 늘지 않자 또다시 독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역사 인식 없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방삼복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방삼복의 갑작스러운 출세를 아니꼬워하면서도,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4 답 (1) 이익 (2) 불쾌함 (3) 방삼복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방삼복은 자신의 (이익 기분)에 따라 해방의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방삼복은 자신의 이익과 연관하여 해방된 사회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

(2) 교체 백 주사는 예전과 다른 방삼복의 모습에 (불쾌함, 고마움)을 느낀다.

백 주사는 방삼복에게 비굴한 자세로 재산을 되찾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도,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다.

(3) 교체 백 주사는 (○○○ 박사, 방삼복)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백 주사는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한 방삼복을 찾아와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방삼복의 힘을 빌려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23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라는 표현에서 역사의식이 부재한 ~~일반 민중~~ 방삼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겠군.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는 해방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삼복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일반 민중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부재한 방삼복을 풍자하고 있다.

오·오·이

①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라는 표현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풍자 의도가 담겨 있군.

삼복은 신발에 징을 박아 주는 가격을 올린 후에야 해방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삼복을 풍자하기 위해 작가가 비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웬 버릇인지'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는 표현에서 권력을 얻고 유난스럽게 구는 인물을 비꼬는 작가의 시선을 읽을 수 있군.

'웬 버릇인지'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 버릇이 생'긴 미스터 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권력을 얻은 후 마치 자신이 세련된 사람이나 된 듯 유난스럽게 구는 방삼복을 비꼬는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④ 작가는 '방삼복'의 급격한 지위 변화를 통해 해방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외세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얻은 방삼복의 지위 변화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기회주의자들이 권세를 누렸던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코삐뚤이 삼복이'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를 숙이고자 하는 백 주사를 통해 권력에 아부하여 부를 되찾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을 읽을 수 있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권력을 갖춘 누구에게라도 머리를 숙이는 백 주사에 대한 서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여 부를 되찾고자 하는 백 주사의 탐욕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26 잠시 눕는 풀

작품 분석 본문 120~123쪽

작가 김원일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어두운 자화상과 비참한 삶의 현실
특징 ① 1970년대 산업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함.
②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춤.
단숨에 읽기 시우네 가족은 백암리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힘겨운 생활을 한다. 시우는 김 여사의 집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운전 기술을 배워 사모님의 운전기사가 된다. 어느 날 운전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여사가 음주 상태로 시우의 운전대를 빼앗아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업고 길을 건너는 채소 장수 아주머니를 치는 사고를 낸다. 시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김 여사의 비서인 사무장(이 선생)이 시우의 형인 종우에게 김 여사의 죄를 시우가 대신 뒤집어쓰면 그 대가로 목돈을 주겠다고 설득한다. 가족들은 갈등하지만 결국 시우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김 여사를 대신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 줄 요약
❶ 사무장(이 선생)과 부사장은 사모님과 관련한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함.
❷ 시우는 (**실형**)을 받게 되어 억울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감옥 생활을 하기로 결심함.
❸ 시우는 자신의 희생으로 얻게 될 (**가족**)들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터뜨림.

23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을 시우에게 두고 시우가 처한 상황과 내면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을 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 모자가 생각났다.'에 사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우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으로 객관적인 묘사로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사무장과 부사장의 대화 장면, 종우와 시우의 면회 장면, 시우가 교도소로 떠나게 된 날의 장면 등으로 장면의 전환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시우의 체험만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2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사무장은 ~~진중한 태도~~로 운전수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사무장(이 선생)은 부사장에게 운전수 가족에 대해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라고 말하며 일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그의 말에서 일 처리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드러나지 않으며, 운전수 가족에 대해 배려하는 면도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운전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라는 사무장의 말과 종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시우는 돈을 받고 사모님을 대신해 누명을 쓰기로 한다.
부사장과 사무장은 사모님과 관련한 사건에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면서, 시우가 돈에 팔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우가 돈을 받고 사모님을 대신해 누명을 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상**: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 **입체적**: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이 특정 대상을 보고 연상한 바를 나열하고 있다.
작품 밖 서술자가 산타클로스 모자, 크리스마스, 가족이 고기를 먹겠다는 생각, 형이 눈을 맞으며 점포를 물색하는 일, 을숙이가 교복을 입는 일 등 시우가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열매를 보고 연상한 바를 나열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서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가 역순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헛짚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시우는 형과의 대화를 통해 감옥에 가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부재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④ 부재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시점이 달라지며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에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시점 또한 달라지고 있지 않다.

23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가책**: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함.
- **하수인**: 남의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

정·정·이

⑤ 상반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종우는 동생 시우가 가족들을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시우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집안이나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 내기 위해 돈으로 시우에게 죄를 대신 받게 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 이로 볼 때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시우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받고 사모님 대신 감옥에 가기로 결심하고 있다.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죄수들은 시우에게 덜 추운 곳으로 오기를 권하고 시우에게 말을 걸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장은 시우네 가족에게 돈을 주어 사모님과 관련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4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이 선생은 시우가 누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 ×)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라는 이 선생의 말로 볼 때, 시우가 누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이 선생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시우의 실형이 확정되자 사모님은 더 많은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 ×)

시우가 실형을 확정받게 되자 사모님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원래 약속했던 일백삼십에 오십을 더해 일백팔십만 원을 주고, 시우가 출감한 후의 일자리를 약속하였다.

(3) 시우는 종우와 대화를 나눈 후 감옥 생활을 견뎌 내기로 결심한다. (○, ×)

실형을 확정받고 억울함과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시우는 자신의 실형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는 종우의 말을 듣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감옥 생활을 견디기로 결심한다.

24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 시우가 교도소의 다른 죄수들에게 동료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푯말(㉢)'은 온갖 죄를 지은 죄수들의 죄명을 시각화한 것으로, 죄수들에게 느끼는 동료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 동생에게 희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피눈물 나는 고생(㉠)'은 시우가 감옥에서 겪게 될 고생을 가리킨다. 이는 가족을 위해 사모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종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 가족을 위해 감옥 생활을 견뎌 내기로 결심한 시우의 심리를 담고 있다.

자신이 가게 될 '교도소'를 '집 안방과 다를 바 없는 안착지(㉡)'라고 표현한 것은 가족을 위해 감옥 생활을 견뎌 내기

로 결심한 시우의 심리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 시우가 힘든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점 벌일 점포(㉣)'는 출소 이후의 시우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삶과 관련된 것으로, 힘든 감옥 생활을 견뎌 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 시우의 희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가족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을숙이가 입게 될 '맞춤 중학 교복(㉤)'은 시우가 감옥에 간 대가로 받은 보상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가족의 모습에 해당한다.

24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면회소는 가족을 위해 시우가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공간이고, 신흥 주택 지대는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공간이므로 두 공간은 대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시우는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하지만, 감옥 생활을 버텨야 하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말 울음소리'는 감옥을 선택한 것에 대한 시우의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시우는 돈을 받는 대가로 사모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면서, 그 돈으로 형이 운영하게 될 식품점 점포인 '백암 상회'를 떠올린다. 따라서 '백암 상회'는 돈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굴욕적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다.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시우가 돈을 받고 권력을 지닌 사모님 대신 감옥을 가는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내므로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사모님은 시우가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가는 대가로 시우네 가족에게 큰돈을 주고 시우가 출감하면 일도 주고 월급도 올려 주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사모님의 배려는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43 답 (1) 부사장과 사모님 (2) 가진 자 (3) 생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부사장과 사모님, 시우와 종우)은/는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부사장과 사모님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시우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2) 교체 이 선생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음모를 꾸미는 인물이다.
이 선생은 부사장과 사모님을 도와 사건을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음모를 꾸미는 인물에 해당한다.

(3) 교체 시우는 가족의 (명예, 생존)을/를 위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감수한다.
시우는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견뎌 내기로 결심한다.

2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시우가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를 보며 상상한 가족의 모습은 ~~빠른 경제 성장~~을 토대로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군.
시우가 상상한 가족의 모습은 가족을 위한 시우의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이 선생은 '가진 자'들이 '뿌리 뽑힌 자'들에게 행하는 횡포에 동조하고 있는 인물이군.
이 선생은 '가진 자'인 부사장과 사모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우에게 뒤집어씌우도록 하는 것을 돕는 인물이다. 따라

서 이 선생은 '가진 자'들이 '뿌린 뽑힌 자'들에게 행하는 횡포에 동조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② 시우는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게 되며 이미 가지고 있던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시우는 '가진 자'인 부사장과 사모님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인 '자유'를 빼앗기는 '뿌리 뽑힌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을 짓는 것은 정신적 뿌리를 상실한 '뿌리 뽑힌 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가족을 위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시우의 복잡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정신적 뿌리를 상실한 '뿌리 뽑힌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작가는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부사장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시우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당시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진 자'인 부사장과 '뿌리 뽑힌 자'인 시우의 대조적 현실은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 뒤에 공존하던 당시 시대의 어두운 면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시우가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를 보며 상상한 가족의 모습은 빠른 경제 성장을 토대로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군.

이 글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조합하여 구성된 선지이기 때문에 자칫 적절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우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시우가 사모님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감옥에 가는 대가로 받은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가족의 모습이지요. 따라서 빠른 경제 성장을 토대로 가능해졌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처럼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해석의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27 복덕방

작품 분석 본문 124~127쪽

작가 이태준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주제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애처로운 삶에 대한 연민

특징 ① 당시 세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함.
②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함.
③ 물질주의와 출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딸과 실패한 아버지를 통해 무너져 가는 가족 관계를 보여 줌.

단숨에 읽기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은 소외된 노인들로, 매일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무료하게 소일이나 하면서 살아간다. 딸 안경화에게 변변한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안 초시는 박희완 영감을 통해 황해 연변의 용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딸 안경화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한다. 일 년이 지나 이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지며 안 초시의 딸 안경화는 전 재산을 잃는다. 좌절한 안 초시는 딸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안경화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린다. 이에 서 참위는 장례를 성대히 치르라는 조건으로 신고하지 않고, 안 초시의 장례식 날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안경화와 조문객들의 가식적 울음에 울분을 느낀다.

한 줄 요약

❶ (**안 초시**)는 사업에 실패하고 (**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궁핍하게 살아감.

❷ (**가옥 중개업**)을 하는 서 참위는 형편이 어렵지는 않지만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처지에 종종 서글픔을 느낌.

❸ 박희완 영감은 (**대서업**)을 준비하고, (**안 초시**)의 딸은 안 초시와 달리 사회적으로 성공함.

2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와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와 같은 직접 제시를 통해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이 작품은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오·오·이

ㄴ. 부재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이 작품은 비교적 긴 문장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ㄷ. 부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제시된 부분에서 갈등의 심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246 답 (1) 서 참위 (2) 안 초시 (3) 박희완 영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복덕방 주인 (서 참위)은/는 산천을 호령하던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삶에 종종 서글픔을 느낀다.

복덕방 주인은 서 참위로, 과거에 훈련원에서 참위로 다니다가 복덕방을 차린 뒤 '만인의 심부름꾼'으로 살며 '서글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2) 교체 복덕방에서 먹고 자며 신세를 지고 있는 (안 초시)은/는 재기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산다.

안 초시는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자며 신세를 지고 있지만,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리라는 재기의 꿈을 꾸고 있다.

(3) 교체 (박희완 영감)은/는 복덕방에 놀러 와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박희완 영감은 복덕방에 자주 놀러 오면서, 『속수국어독본』을 끼고 와 공부를 하기도 한다.

24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에서는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두 주먹을 꽉 쥐는 안 초시의 행동을 묘사하여 재물이 나가지 않길 바라는 안 초시의 간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ㄴ. [A]에서는 소재에 얽인 일화와 연결 지어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엄지손가락과 관련된 관상쟁이의 말과 안 초시의 사업 실패 사연을 연결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안 초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B]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B]에서는 『속수국어독본』의 상태를 묘사하여 박희완 영감이 대서업 허가를 오래 기다렸음을 표현하고 있다.

ㄹ. 상반 [C]에서는 다른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지방 순회를 하며 유성기를 살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함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딸에 대한 안 초시의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 있다.

24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 일본어 억양과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은 「삼국지」를 읽던 억양으로 일본어로 된 『속수국어독본』을 읽는다는 의미로, 발음이 일본어 억양과 맞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안 초시가 손을 떠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돈이기 때문이다.

② 헛짚기 ㉡: 자신의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한 자탄이 아니라 자신의 운수가 나쁨을 탓하고 있다.

③ 헛짚기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서 참위는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서 참위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헛짚기 ㉤: ~~책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책이 손때, 머리때에 절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므로 인쇄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24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안 초시는 안경다리를 고치려고 딸에게 받은 돈을 담뱃값으로 써 버렸다. (○, ×)

안 초시는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냈다고 하였다.

(2) 사건 왜곡 서 참위는 수입이 없는 달이면 밀린 쌀값을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 ×)

서 참위가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교체 ~~박희완 영감~~은 안 초시 복덕방에서 화투패를 떼어 보며 한나절을 보내곤 한다. (○, ×)

화투패를 떼어 보며 한나절을 보내는 사람은 안 초시이다.

2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삶에 대한 안 초시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안 초시는 화투패를 떼는 것은 심심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로 볼 때,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므로 삶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안 초시가 재기를 다짐하며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안 초시는 '복덕방(ⓐ)'에서 잠을 빌려 자면서 다시 내 집을 쓰고, 내 밥을 먹고, 내 힘으로 세상에 부딪치겠다고 믿는 등 재기를 꿈꾸고 있다.

② ⓑ: 서 참위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공간이다.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큰 건축 회사가 생기면서 서 참위의 복덕방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이십여 칸 집(ⓑ)'에서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며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이 졸릴 형편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는 서 참위의 생계를 보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 서 참위의 긍정적 인생관이 드러난다.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인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에는 상황을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관이 드러난다.

⑤ ⓔ: 안 초시 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

안 초시의 딸이 '평양'과 '대구'로 지방 순회를 다니는 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를 통해 '딸'은 가난한 '안 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

〈보기〉를 통해 신문화와 부를 상징하는 유성기를 산 안 초시의 딸이 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딸이 안 초시의 희생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를 보니 '드팀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안 초시'는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고 있군.

〈보기〉에서 '드팀전'은 인조 직물과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 초시는 드팀전을 하다가 실패한 일을 떠올리면서 밖으로 쥐어진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탓하고 있다.

② ㉯를 보니 '서 참위'의 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점이 그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보기〉에 제시된 '참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서 참위의 전력(과거의 경력)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위로 지냈던 과거와 달리 '만인의 심부름꾼'인 '가옥 중개업'을 하고 있는 서 참위의 처지와 심경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와 상황을 알 수 있어. 1920년대에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흥미롭군.

이 작품에서 '대정 팔구 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어서 참위는 집을 세우고 땅을 장만할 정도로 수입이 늘었다고 하였다. 〈보기〉를 통해 '대정 팔구 년'의 구체적인 연도를 알 수 있으며, 그때에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값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맥락을 몰랐다면 '국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야.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박희완 영감'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

㉱를 통해 박희완 영감이 공부하는 『속수국어독본』이 일본어 교재임을 알 수 있으며,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뚜껑이 손때에 절도록 일본어를 공부하는 박희완 영감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다.

25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안 초시는 좋은 시기에 복덕방을 차려 돈을 번 서 참위를 ~~부러워한다.~~

안 초시는 서 참위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는 형편이지만, '집 거간이나 해 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다고 하였다.

오·오·이

② 박희완 영감은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속수국어독본』을 끼고 다닌다.

박희완 영감은 『속수국어독본』을 끼고 다니며 "긴-상 도코-에 유키이마스카."와 같은 말을 외고 있다. 이때 박희완이 외는 말이 일본어인 것으로 볼 때, '국어'는 일본어이고 박희완 영감은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속수국어독본』을 끼고 다님을 알 수 있다.

③ 안 초시의 딸은 부유하지만 아버지의 궁핍한 처지에는 관심이 없다.

안 초시의 딸은 당시 신문화와 부의 상징인 유성기를 들일 정도로 부유하지만,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이지 않을 만큼 관심이 없다.

25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내 손안의 백통화 한 푼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안 초시는 서 참위의 복덕방에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서 참위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 또한 '언젠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길 것이라는 야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하는 '내 손안의 백통화 한 푼이 낫지.'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② 때를 기다리다 보면 내게도 금광이라는 수가 생기겠구나.

안 초시는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③ 나도 이참에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안 초시는 화투패를 떼어 보며 재수를 점쳐 보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금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 봐야겠군.

다시 한번 재기할 궁리만 하고 있는 안 초시로서는, 금값이 올랐을 때 금광으로 큰돈을 벌어보겠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안 초시는 재기를 하겠다는 야망이 있으나, 안경다리를 고칠 돈이 없어 딸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기 전 딸에게 돈을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28 완장

작품 분석 본문 128~131쪽

작가 윤흥길
갈래 장편 소설, 세태 소설
주제 권력의 속성과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과 풍자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해학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함.
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됨.

단숨에 읽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동네 유지가 된 최 사장은 널금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맡긴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월급에도 완장을 차게 해 준다는 말에 관리인을 맡은 종술은 완장을 두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저수지를 오가는 사람에게 기합을 주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금지하며 고집을 부리던 종술은 관리인 자리에서 해고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널금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가 가뭄 해소책으로 저수지의 물을 빼려는 수리 조합 직원, 경찰과도 부딪쳐 도망다니는 처지가 된다. 결국 종술은 자신을 좋아하던 부월의 충고를 듣고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타지로 떠난다.

한 줄 요약

❶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며 버스에 탄 종술은 사람들을 윽박질러 분위기를 위축시킴.

❷ (최 사장) 일행의 낚시를 고집스럽게 막던 종술이 (감시원직)에서 해고당함.

25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속어**: 격이 낮고 속된 말.
- **총체적**: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지역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서정적인 배경~~을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서정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배경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부재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부재 독백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인물의 독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통해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외부의 단일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을 뿐, 이질적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25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시대상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② 방언을 구사하여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지역 방언, 즉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건을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 전반과 인물들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5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에는 최 사장이 낚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술의 내면 의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반전을 통해 상황이 ~~전환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A]에는 상황이 전환될 것을 암시하는 반전의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사건의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A]에는 최 사장의 행동을 저지하는 종술의 내면이 드러나 있을 뿐, 사건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해학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A]에서 인물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A]에는 인물의 내면 심리가 제시되어 있을 뿐,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25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우회적인 표현으로 인물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은 원 양이 참다못해 매섭게 쏘아붙인 말로, 종술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 인물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버스의 사람들은 종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청년은 용기를 내어 종술의 직업을 묻고 있다. 따라서 ㉠에는 종술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 관용적 표현으로 인물이 느낀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침 먹은 지네요 댓진 먹은 배암 꼴'이라는 관용적 표현은 종술에게 겁을 먹고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장 씨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관용적 표현을 통해 종술에게 무안을 당한 이발관 장 씨의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 다른 상황에 빗대어 버스 안의 위축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목소리를 낮추고 종술을 신경 쓰는 버스 안 사람들의 위축된 모습을 '훈육 주임의 감시하에 수학여행을 나선 학생들'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 과거 행적을 들어 상대방의 언행에 나타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종술이 '농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맺히는 판국'이라며 최 사장 일행의 낚시를 막자, 익삼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종술의 행적을 언급하며 그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258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고만장**: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정·정·이

ㄱ. 최 사장의 제안으로 저수지를 관리한다.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최 사장은 익삼을 통해 종술에게 동네의 저수지 관리를 제안하고 종술은 이를 승낙하였다.

ㄴ. 완장을 찬 이후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인다.

종술은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난 이후, 저수지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윽박지르고 거만하게 구는 등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농민들의 입장~~에서 최 사장과 맞서 싸운다.

종술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겠다는 최 사장의 행동을 저지하며 '농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맺히는 판국'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술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자신이 '제 살점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저수지를 사장과 그 일행이 건드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ㄷ. 농민들의 입장에서 최 사장과 맞서 싸운다.

최 사장을 상대로 종술이 "지금이 어느 땐고 허면, ~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겄습니까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마치 종술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최 사장이 낚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종술은 완장을 차고 농민들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농민을 생각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지요.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도 잘 살펴봐야 해요.

2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상반 ㉯: 종술과 장 씨의 관계가 ~~역전~~되는 때에 해당한다.

'장 씨 쪽에서 덜덜 손이 떨리는 유일한 손님이 바로 종술'이라고 한 것은 장 씨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 이발할 때(㉯)도 종술에게 위협을 느낀다는 것으로, 이때도 종술과 장 씨의 관계는 역전되지 않고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 종술이 완장을 차게 된 것과 연관된다.

종술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거만한 눈초리(㉮)로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본 것은 저수지 감시원의 역할을 맡아 완장을 차게 됨으로써 권력에 도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 상징적 소재로 인물을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완장(㉰)의 눈치를 살폈다고 서술된 부분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소재인 완장으로 종술을 대체하고 있다.

④ ㉱: 종술과 최 사장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술이 최 사장에게 낚시질(㉱)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데에서 낚시질이 두 사람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⑤ ㉲: 종술이 강한 애착을 보이는 공간이다.

'제 살점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를 통해 종술이 저수지(㉲)에 강한 애착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6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어로**: 고기나 수산물 따위를 잡거나 거두어들이는 일.
- **부질없음**: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음.
- **위임**: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 **도취**: 어떠한 것에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정·정·이

④ 헛짚기 최 사장이 종술로 하여금 법에 따라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게 하는 모습은 ~~권력의 부질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권력의 부질없음은 종술이 최 사장의 위임에 의해 저수지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장면이 아니라, 종술이 최 사장의 낚시를 막다가 저수지 감시원직에서 해고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오·오·이

① 종술이 저수지 감시원이 된 상황은 작은 권력을 위임받은 것에 해당하겠군.

종술이 최 사장에 의해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찬 것은 작은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종술이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까지 윽박지르는 모습은 권력에 도취된 인물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겠군.

종술이 저수지와 관련 없는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까지 윽박지르는 모습은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권력에 도취되어 횡포를 부리는 인물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종술이 최 사장 일행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자신에게 권력을 준 사람인 최 사장 일행에게도 저수지 낚시를 금지하고, 이를 거부하는 최 사장 일행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 여기는 종술의 모습은 작은 권력을 가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최 사장이 자신의 낚시질은 합리화하고, 노성을 지르며 종술을 해고하는 모습은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에 해당하겠군.

종술에게 사람들의 낚시를 금지하게 한 최 사장이 자신의 낚시질을 합리화하고, 이를 막는 종술을 해고하는 모습은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를 보여 주는 것이다.

261 답 (1) 작은 권력 (2) 도취 (3) 횡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최 사장은 종술을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시키며 그에게 (작은 권력, 진짜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 사장은 종술을 저수지 감시원으로 취직시키며 작은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

(2) 교체 종술은 권력에 (도취, 몰락)되어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종술은 저수지 감시원이라는 작은 권력을 부여받고 그 권력에 도취되어,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사소한 질문에도 쏘아붙이며 대꾸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3) 교체 종술은 최 사장의 (횡포, 합리화)로 저수지 감시원직에서 해고되었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문제로 최 사장에게 맞서던 종술은 결국 그 자리에서 해고된다. 이는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횡포에 해당한다.

26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각인**: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 또는 그 기억.
- **열세**: 상대편보다 힘이나 세력이 약함. 또는 그 힘이나 세력.

정·정·이

④ 교체 원 양이 종술을 '사원'이라 쏘아붙인 것은 공적 관계에서 그가 자신(최 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원 양은 최 사장에게 훈계하는 종술을 보고 누가 사장이고 누가 사원인지 위아래도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때 '사원'이라는 말은 종술이 원 양이 아니라 최 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익삼 씨가 종술의 훈시를 훼방하며 '니깟 놈', '이놈' 하며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익삼 씨가 종술을 '니깟 놈', '이놈'이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종술이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에게 주제넘은 훈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의 부정적 감정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버스 옆자리의 청년이 종술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어를 쓴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초면이라는 점 외에도 종술이 찬 완장과 관련이 있겠군.

버스 옆자리의 청년이 처음 보는 종술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어를 쓴 이유는 완장을 찬 종술에게 뭔가 권력이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종술이 이발관 사장을 '장 씨'라고 부르면서도 그가 자신을 '임 씨'라고 부른 것을 나무라는 데서 상대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 있군.

종술이 자신을 '임 씨'라고 부르는 이발사에게 말버릇을 세탁하라며 나무라는 모습에서 그가 이발사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종술이 최 사장의 행동을 문제 삼아 따지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가 지위상의 상대적 열세에 있다는 점과 관련되겠군.

종술은 최 사장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즉 최 사장보다 지위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기에 반복적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29 인간 단지

작품 분석 본문 132~135쪽

작가 김정한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부당한 사회의 폭력에 억압당하는 인간적 삶의 의지와 좌절
특징 ① 나환자 수용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② 사회적 편견으로 좌절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잘 보여 줌.
단숨에 읽기 박성일 원장은 음성 나환자 수용소인 '자유원'을 운영하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이에 우중신 노인을 비롯한 자유원 원생들은 박 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진정서를 내고 처벌을 호소한다. 그러나 오히려 우 노인 일행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양성 나환자들이 있는 국립 나환자 수용소에 격리된다. 가까스로 풀려난 우 노인 일행은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평등한 삶의 터전인 '인간 단지'를 건설한다. 그러나 인근 부락민 청년들이 몰려와 인간 단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인간 단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인간 단지**)를 문제 삼는 순경 및 면 직원들과 (**우중신 노인**)이 갈등함.
❷ 인간 단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락민**)들이 몰려와 음성 나환자들을 폭행함.

26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우중신 노인과 파출소 순경 및 면사무소 직원의 대화와 행동, 인간 단지 사람들과 부락민들의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음성 나환자 수용소 사람들의 문제 상황을 실감 나게 보여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공간적 배경인 산속을 묘사하거나 이를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혹은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③ 부재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 전개에 인과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④ 부재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우중신 노인을 비롯한 음성 나환자들이 자유원을 나와 인간 단지라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부락민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장면이 전환되며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일관되게 작품 밖에 있으며, 장면에 따라 교체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작품 속의 인물~~이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은 물론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고 있다.

26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방문객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음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우 노인은 법률을 근거로 들어, 인간 단지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방문객들의 ~~무지함을 비난~~하려는 것이다.
방문객들의 요구가 적절하지 않음을 반박하는 것이지, 방문객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즉 방문객의 무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건 왜곡 ~~방문객들이 궁금해하는 절차~~를 알려 주려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자유원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를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것이다.
우 노인은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방문객들이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우 노인은 방문객들이 자신의 뜻에 적극 동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단지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26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예상치 못한 우 노인의 위협에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메기 아가리는 '그까짓 거러지들의 불평이나 위협 따위에 왼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우 노인의 위협에 당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 새로 정착한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유원을 나온 우중신 노인과 자유원 사람들이 산에다 밭을 일구며 삶의 터전인 인간 단지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② ㉡: 방문객들의 방문 목적이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뒤에 '빨리 본래 있던 자유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면사무소 직원과 순경이 찾아온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우 노인의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순경은 우중신 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④ ㉣: 음성 나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부락민들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간 백정'은 '인간을 가축처럼 도살하는 백정'이라는 뜻으로 대개 독재자나 살인마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이로 볼 때 음성 나환자들을 쫓아내려고 괭이며 삽, 몽둥이를 들고 온 부락민들의 얼굴을 '인간 백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락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인간 단지는 자유원을 떠난 우 노인과 사람들이 만들고자 한 삶의 터전이다. (○, ×)

우 노인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원 사람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 단지라는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였다.

(2) 사건 왜곡 자유원의 박성일 원장은 ~~우 노인을 찾아와~~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 ×)

박 원장은 자유원에 남아 있는 원생들에게 인간 단지로 떠난 이들을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을 뿐, 직접 우 노인을 찾아온 것은 아니다.

(3)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은 우 노인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 ×)

허가를 이유로 인간 단지에 찾아온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은 끝내 우 노인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26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낙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다.

우 노인은 삶의 의지를 다지며 인간 단지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그의 낙천적인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②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자유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곳에서 나와 인간 단지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모습,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찾아온 부락민들에 대응하여 맞서는 모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침착하면서도 대담한 면이 있다.

허가를 핑계로 찾아온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에게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요구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 노인은 인간 단지를 찾아온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을 보고 노여움이 들었으나, 침착하게 법률을 근거로 들어 가며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선다.

인간 단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인간 단지 사람들을 대표해서 앞에 나서며 "우릴 죽이라. 우선 나부터!"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행태**: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정·정·이

③ 헛짚기 우 노인이 산속에 인간 단지를 건설한 것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군.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 노인은 뜻을 같이하는 자유원 사람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인간 단지'라는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우 노인이 인간 단지를 건설한 것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세상에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현실과 권력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인 음성 나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박 원장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박 원장이 희망원의 부랑아들을 동원해 비리를 폭로한 자유원의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우 노인 일행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해 저항하지만 삶의 터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군.

우 노인 일행은 음성 나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 단지를 건설하였지만 결국 현실의 폭력에 의해 삶의 터전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부락민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나환자들의 고통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군.

자유원에서 나와 산속에서 인간 단지를 건설한 나환자들은 모두 음성이지만 나환자를 대하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부락민들로부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⑤ 면사무소 직원이 인간 단지 사람들을 자유원으로 되돌려보내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면사무소 직원은 나환자들을 다시 박 원장의 횡포가 존재하는 자유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나환자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0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우 노인을 비롯한 자유원 사람들의 삶의 의지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고 만다.

우 노인과 자유원 사람들이 자신만의 삶의 터전으로 인간 단지를 만들었으나, 부락민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ㄷ.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은 박 원장의 편에 서서 인간 단지 사람들의 정착을 방해한다.

우 노인을 찾아온 면사무소 직원과 파출소 순경은 이들에게 다시 자유원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 노인은 '암만해도 박성일 원장의 부추김을 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

오·오·이

ㄴ. 교체 인간 단지는 ~~부락민들~~(우 노인과 자유원을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다.

인간 단지는 우 노인과 자유원을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음성 나환자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마련한 삶의 터전이다.

27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 나환자들이 괭이, 삽, 몽둥이 등으로 주민들을 폭행하고, 단지를 떠나지 않아 강압적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괭이, 삽, 몽둥이 등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은 나환자들이 아닌 부락민들이다.

오·오·이

① ⓐ 자유원을 떠나 이곳에 '인간 단지'라는 거처를 마련했다고 한다.

인간 단지는 음성 나환자 수용소인 자유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새롭게 마련한 거처이다.

② ⓑ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극력 반발하였고, 급기야는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간 단지 근처의 부락민들은 '괭이며, 삽, 몽둥이들을 들고 몰이꾼처럼 몰려'와 떠날 것을 요구하며 우 노인 등 음성 나환자들을 폭행하였다.

④ ⓓ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나환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저지른 바 있다.

박 원장은 자유원의 원생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고 처벌을 호소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희망원의 부랑아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을 하는 등의 앙갚음을 했다.

⑤ ⓔ 우중신 노인과 일부 음성 나환자들은 마을 주민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다.

경기까투리가 일동을 대표하여 따지려 들다 구장인 듯한 사내의 발길에 채어 넘어졌다. 또한 우 노인은 메기 아가리에게 얼굴을 맞고, 또 다른 부락민이 내리친 괭이에 정수리를 맞고 쓰러진다.

30 밝고 따뜻한 날

작품 분석 본문 136~139쪽

작가 이동하
갈래 단편 소설
주제 시대의 변천에 따른 세대 간 단절과 소외 문제
특징 ① 특정 인물(나기배 씨)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
② 세대 간 단절과 소외 문제를 상징적 소재인 구슬로 형상화함.
③ 이중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단숨에 읽기 수출 종합 상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나기배 씨는 6·25 전쟁 후 궁핍한 성장기를 보냈고, 대학 졸업 후 목표한 바를 이루며 악착같이 살아왔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나기배 씨는 어느 날 정원을 손질하다가 유리구슬이 들어 있는 깡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어린 시절 딱지를 묻었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는 텔레비전에 빠져 있던 두 아이를 마당으로 불러 구슬 놀이를 가르친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아이들이 싫증을 내고 가 버리자 그는 어릴 적 소중히 여겼던 구슬이나 딱지 같은 것들이 쓸모없어진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한다. 그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라도 하듯 구슬 놀이에 열중한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내는 핀잔을 주다가 그의 모습이 갑자기 폭삭 늙어 보이자 비명을 지른다.

한 줄 요약

❶ 나기배 씨는 마당에서 우연히 (**유리구슬**)을 발견하고 가슴의 울림을 느끼며 아이들을 부름.

❷ 아이들에게 (**구슬 놀이**)를 가르치던 나기배 씨는 흥미 없어 하는 아이들의 태도에 분노하고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러 가 버림.

❸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색 구슬**)들을 보며 보물(보배)처럼 생각했던 것이 쓸모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허망해함.

2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기배 씨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술자는 '나기배 씨는 속으로 투덜댔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등과 같이 나기배 씨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며, 나기배 씨가 아이들과 구슬 놀이로 갈등하며 단절감을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객관적 태도~~로 사건을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인 나기배 씨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재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빈번한 장면 전환이나 긴박한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장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상상적 공간이나 환상적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재 한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진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다.

273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나기배 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나기배 씨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면서 그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ㄷ. 대화를 통해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나기배 씨가 아이들에게 구슬 놀이를 알려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외양 묘사~~를 통해 나기배 씨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기배 씨의 외양이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27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가 한 인물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나기배 씨에게 초점을 맞추어 구슬에 얽힌 그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느끼는 그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극적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극적 반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부재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며,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석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부재 서술자가 사건의 배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현장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인 마당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현장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부재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빈번히 교차하며 사건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과거에 지녔던 가치가 이제는 외면받기 때문에

색 구슬은 어릴 적 나기배 씨가 땅속에 숨겨 둘 만한 보배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구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 버리자, 그는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되던 가치가 아이들 세대에서는 외면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색 구슬이 더 이상 은닉해 둘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원래부터 가치가 없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기배 씨는 과거에 색 구슬을 보배라고 여겼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상반 앞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기배 씨는 예전에는 보물과 같았던 색 구슬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그러다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이제야 그 가치를 드러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기배 씨가 색 구슬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야 그 가치를 드러낼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⑤ 상반 예전의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기배 씨는 색 구슬이 예전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은닉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27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어린 시절 나기배 씨에게 색 구슬은 보물처럼 소중한 것이었다. (○, ×)

나기배 씨가 어릴 때, 색 구슬은 보통 구슬 열 개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보배였다.

(2) 나기배 씨의 아이들은 구슬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거부한다. (○, ×)

나기배 씨의 아이들은 나기배 씨가 알려 주는 구슬 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 버린다.

(3) 헛짚기 나기배 씨는 텔레비전 시청 순서를 문제로 아이들과 갈등한다. (○, ×)

나기배 씨가 텔레비전 시청 순서를 문제로 아이들과 갈등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구슬 놀이를 가르쳐 주던 나기배 씨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자 화를 내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

27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궤적: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온 과정이나 흔적.

정·정·이

③ 나기배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나기배 씨는 집 마당에서 유리구슬이 들어 있는 깡통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된다. 따라서 유리구슬은 나기배 씨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나기배 씨와 아이들에게 닥칠 비극적 상황을 암시한다.

나기배 씨와 아이들은 구슬 놀이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으나, 이를 비극적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리구슬이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갈등 상황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② 헛짚기 나기배 씨가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를 상징한다.

나기배 씨가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한 내용은 이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헛짚기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기배 씨와 아이들이 갈등하게 된 것은 구슬 놀이 때문이므로, 유리구슬은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⑤ 헛짚기 나기배 씨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유리구슬을 매개로 한 나기배 씨의 과거 회상을 통해 나기배 씨의 어린 시절의 일면을 볼 수 있을 뿐, 그의 삶의 궤적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다.

27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면**: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한 부분적인 측면.

정·정·이

③ 상반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에서 세대 단절의 ~~극복~~ 심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은 이러한 나기배 씨를 내버려 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따라서 구슬 놀이를 거부한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는 세대 단절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오·이

① 텔레비전에 대한 나기배 씨와 아이들의 반응의 차이에서 세대 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군.

텔레비전에 대해 나기배 씨는 부정적 반응을, 아이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지난 삶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군.

나기배 씨가 과거 '우리들의 손'을 기민하고 강인했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러 간 후 혼자만 남겨진 나기배 씨의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겪는 소외를 엿볼 수 있군.

'모든 것', 즉 '밝고 따뜻한 봄볕'에서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 둔 채 말이다…….'로 보아 구슬 놀이를 하지 않겠다며 텔레비전을 보러 간 아이들에게서 나기배 씨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당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나기배 씨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서 세대 단절로 인해 기성세대가 받는 상처를 엿볼 수 있군.

아이들과의 구슬 놀이에서 혼자 남겨진 나기배 씨는 아무런 의욕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삶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 단절로 인해 상처를 받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7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슬 놀이가 아이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단절감을 느끼고 있군.

나기배 씨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추억인 구슬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하려 했으나 아이들은 시시껄렁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결국 혼자 남겨진 나기배 씨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과 같은 허무감을 느끼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유리구슬로 상징되는 ~~현재의 성취~~를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유리구슬은 나기배 씨에게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일 뿐, 현재의 성취와는 관계없다. 또한 이것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③ 헛짚기 구슬을 팽개치고 텔레비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구슬 놀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군.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를 팽개치고 텔레비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구슬 놀이가 가치를 잃었음을 깨닫고 허무해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망연자실(茫然自失)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 때문에 아이들과 갈등하다가 결국 정원에 혼자 남게 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멍해져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게 된다. 이러한 나기배 씨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말은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망연자실'이다.

오·오·이

① 교체 ~~간담상조(肝膽相照)~~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을 뜻하는 말이다.

③ 교체 ~~전전긍긍(戰戰兢兢)~~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다.

④ 교체 ~~절치부심(切齒腐心)~~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하는 말이다.

⑤ 교체 새옹지마(塞翁之馬)

'새옹지마'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다.

28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나기배 씨는 구슬을 발견하고,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어 아이들과 구슬 놀이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 버리고, 나기배 씨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 멍해져 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은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구슬 놀이를 거부하고 가 버린 이후 멍해져 있는 나기배 씨의 모습을 설명하는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교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28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노발대발(怒發大發)

나기배 씨는 구슬 놀이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배신감에 가까운 마음을 느껴 분노하고 있다. 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 성어는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을 뜻하는 '노발대발'이다.

오·오·이

① 교체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무원'는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 교체 연목구어(緣木求魚)

'연목구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교체 전전반측(輾轉反側)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교체 풍수지탄(風樹之嘆)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31 잔인한 도시

작품 분석 본문 140~143쪽

작가 이청준
갈래 단편 소설
주제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추구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간의 꿈과 구원의 가능성을 그려 냄.
② 고향과 도시, 인물과 인물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단숨에 읽기 오랜 복역 후 교도소를 출감한 사내는 공원에서 새 장수가 돈을 받고 새를 방생해 주는 장면을 목격한다. 사내는 새장을 빠져나와 날아가는 새의 모습에 감동하고 다음 날부터 공원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모아 옥중 동료들을 생각하며 새의 방생을 시작한다. 사내는 자신을 찾아오기로 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다가 새 장수가 방생했던 새들을 어두운 밤 전짓불빛으로 다시 잡아 새의 날갯죽지 밑을 가위질하여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공원 숲에서 새 장수에게 쫓기던 새 한 마리가 사내의 품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새는 사내가 이전에 방생했던 새였다. 사내는 그 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믿고 죄수들을 위한 방생을 계속하던 중 새 장수에게 잡힌 그 새를 다시 발견한다. 속 털이 잘려 나간 새가 추위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내는 6개월의 노역비를 지불하고 새를 사서 남쪽 고향으로 향한다.
한 줄 요약
❶ 사내는 (**악몽**)에 시달리고 (**새**)들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옴.
❷ 사냥꾼의 (**밤새 사냥**)이 시작되고 불빛에 쫓겨 온 새 한 마리가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들어 옴.

28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내가 밤새 사냥을 겪으면서 새들이 왜 다시 잡혀 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추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건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젊은이의 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사내가 대답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볼 때 젊은이와 사내가 대화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부재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공간적 배경인 새 가게나 공원 숲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28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사내'의 혼잣말을 통해 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 새를 살 수가 있어야……."나 "빛에 쫓긴 녀석이 ~ 새 짐승이란……."과 같은 사내의 혼잣말을 통해 사내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젊은이'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새 가게와 공원 숲 등이다. 그러나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젊은이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과거 회상~~을 통해 '사내'와 '젊은이'가 갈등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인물이 겪는 상황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사내가 새 가게나 공원 숲에서 겪는 상황과 그에 대한 사내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두 인물의 ~~독립적 체험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다.
사내의 체험을 중심으로 전개될 뿐, 새 장수인 젊은이와 사내의 체험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부재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풍자적 서술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부재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어느 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시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적 배경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28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항변**: 항의.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함.

정·정·이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가엾은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로 보아, 사내가 젊은 새 장수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새 가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반드시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공원 벤치

사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새 가게가 아니라 공원 벤치이다.

② 헛짚기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가 젊은이에게 항변하기 위해 대꾸를 안 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사내가 젊은이의 비웃음을 외면하는 것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④ 헛짚기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내가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헛짚기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가 그를 모시러 올 아들을 기다린다는 말은 젊은이가 한 말로, 사내가 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과 같이 행동하는지는 알 수 없다.

287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교체 '사내'는 '젊은이'를 비웃으며 무안을 주고 있다.

젊은이는 자신의 가게 주변을 맴도는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를 하며 무안을 주고 비웃고 있다.

ㄷ. 헛짚기 '사내'는 아들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라는 말은 젊은이가 사내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말일 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ㄴ. '사내'는 '젊은이'의 새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내는 가막소 안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겠다는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나지 않고 있다.

2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사내'는 이전에 '젊은이'의 새 가게에서 새를 산 적이 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와 같은 부분에서, 사내가 젊은이의 새 가게에서 새를 산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사내'는 '젊은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로 볼 때, 사내는 젊은이의 비웃음을 외면하며 그와의 관계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내가 젊은이와 갈등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젊은이'는 ~~'자네'가 가게에 계속 머무르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젊은이는 사내가 가게를 떠나게 하려고 그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 하고 있다. 따라서 사내가 가게에 계속 머무르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사내'는 ~~'밤새 사냥'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자~~ 공원 인근에 머물고 있다.

사내는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뿐, 밤새 사냥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사내'는 잠바 깃 속으로 달려든 새를 ~~자신과 연관 지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다.

사내는 잠바 깃 속으로 달려든 새를 가엾게 여기고 있을 뿐, 자신과 연관 짓거나 스스로를 성찰하지는 않고 있다.

28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사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짓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전짓불빛'은 사냥꾼이 공원에서 새를 다시 잡기 위해 비추는 것이므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폭력성의 상징인 전짓불빛에 길들여진 새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는 것에서 억압적 세계에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둠'은 부정적 이미지로,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은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 공간이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린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전짓불빛 즉, 폭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9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사내'는 ~~밤새 사냥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였다. (○, ×)
밤새 사냥을 하는 인물은 사내가 아니라 사냥꾼이며, 사내는 밤새 사냥을 보고 졸음기가 달아나 담배 꽁초에 성냥불을 붙이려던 것이다.

(2) 헛짚기 공원 숲은 여전히 새들의 유일한 ~~휴식 공간~~이다. (○, ×)
전짓불빛이 공원 숲속을 훑어 대자 불빛을 맞은 밤새들은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린다. 이로 볼 때, 공원 숲은 더 이상 새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3) '사내'는 전짓불빛을 보고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 (○, ×)
전짓불빛을 앞세운 밤새 사냥이 시작되자, 사내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2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지인: '새'와 '빛줄기'의 이미지가 ~~유사하게~~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작품에서 '새'는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빛줄기'는 '새'를 위협하는 공포의 상징이므로, '새'와 '빛줄기'의 이미지가 유사하게 겹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선주: '새'가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야.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젊은이의 새 가게에서는 돈으로 '새'를 사고판다. 〈보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가 자유를 표상한다고 할 때, 돈으로 자유를 사고판다는 것 자체로 이미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자유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영기: '새'는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고 있어. 그런 점에서 '새'는 억압에 길들여진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새들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고 있다. 이는 '조롱'이라는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버린 새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재승: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에 휘날리게 만드는 사냥꾼의 '전짓불빛'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밤새'들은 '전짓불빛'에 쫓겨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다가 결국은 조롱 속으로 붙잡혀 들어간다. 이로 볼 때, '전짓불빛'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대현: '사내'가 가막소 안의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고자 하는 것은 교도소 동료들이 갈망하는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군.
'사내'가 '젊은이'의 비웃음과 괴롭힘에도 새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막소 안의 친구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가 '자유'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내와 동료들이 갈망하는 자유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조그만 체험기

작품 분석 ㉮ 본문 144~147쪽

작가 박완서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주제 소시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 비판
특징 ① 서술자인 '나'의 내면 심리와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함.
②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부조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줌.

단숨에 읽기 가정주부인 '나'는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며 밤을 새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이 검찰청에 잡혀갔음을 알아낸다. 검찰청에 찾아간 '나'는 대기실 앞에서 초라한 여인들이 피의자를 실은 버스만 봐도 악을 쓰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지만, 자신도 그들과 같은 피의자의 아내라는 사실에 놀란다. 남편을 빼낼 방법을 찾던 '나'는 다시 검찰청으로 찾아가고 혐오감을 느꼈던 여인들에게 점차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나'는 남편을 면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차별을 경험한다.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역시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였고, 결국 남편이 기소되자 '나'는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다. 남편은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이 있은 지 보름 만에 열린 언도 공판에서 풀려난다.

한 줄 요약

❶ (**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권 주임**)이 부당하게 돈을 요구함.
❷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남편은 (**기소**)되고 '나'는 변호사 (**위임**)을 취소함.
❸ 남편은 형편없는 (**재판**)을 받은 후 언도 공판에서 자유의 몸이 됨.

29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남편의 재판 과정을 경험하며 느낀 자신의 생각이나 심리를 서술하며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하며 '소름을 끼치게 했다.'와 같은 부정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담담한 태도나 객관적 묘사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부재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러 인물이 아닌 '나'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부재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진술할 뿐, 과거의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93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나'는 남편의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휩쓸려 수사를 받게 된 남편의 재판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ㄴ. 대화를 통해 권 주임과 강 변호사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나'와 권 주임의 대화, '나'와 강 변호사의 대화를 통해 권 주임과 강 변호사의 위선적, 탐욕적 성격이 드러난다.

오·오·이

ㄷ. 부재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나'와 남편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와 남편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2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A]에서는 상대방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자신의 법률 상식으로 보아 상대방(권 주임)이 의심되지만 수틀리면 남편을 해롭게 할까 두려워 내색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A]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권 주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사건 왜곡 [A]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법률 상식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 '나'는 자신의 소박한 법률 상식만으로도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헛짚기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나'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⑤ 헛짚기 [B]에서는 절박한 자신에게 상대방을 소개해 준 친구에 대한 ~~고마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친구의 소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린다고 하였으므로, 친구에게 고마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이후 예전의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낀다.

남편이 풀려난 후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등으로 보아, 남편이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했다거나 '나'가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에서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안위에 대한 '나'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나'는 권 주임과 만난 후 권 주임의 지속적인 은밀한 공갈로 인해 남편의 안위가 걱정되고 불안하여 강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다.

② ㉡을 주선한 친구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나'는 강 변호사를 소개해 준 친구가 강 변호사를 '믿어도 좋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③ ㉢에서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다.

'나'는 남편이 기소된 후 보석으로 꺼내 주겠다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 위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재판을 받았다.

④ ㉣에서 '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 백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라고 하며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하고 있다.

29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나'는 남편을 해롭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권 주임을 냉대하지 못한다. (○, ×)

'나'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권 주임을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담당 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고 수틀리면 남편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를 냉대하지 못하고 있다.

(2) 상반 '나'는 권 주임이 알려 준 특별 면회를 ~~이용~~하여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 ×)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을 통해 '나'가 특별 면회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교체 '나'는 남편이 기소된 후 남편을 위해 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 ×)

'나'는 남편이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남편은 기소되고 된다. 그 후 '나'는 변호사 위임을 취소하였다.

29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나'가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 볼까' 하고 생각한 것은 권 주임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돈을 요구하자,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남편의 사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 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은 아니다.

오·오·이

①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라는 말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군.

'오래 기다리는 면회'는 가난한 서민들이 하는 면회이고 '특별 면회'는 돈을 이용해 혜택을 누리는 면회이다. 여기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권 주임'의 제안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이란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돈을 내고 특별 면회를 하라는 권 주임의 말에 유혹을 느꼈다는 것은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라는 표현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돈이 없는 피의자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심문만을 받는 모습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억울하지 않을 자유'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억울하지 않을 자유'는 '간장 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에 대응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8 답 (1) 법 (2) 내적 갈등 (3) 물질 만능주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무래기 잡범들은 (양심,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 해당한다.

남편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은 조무래기 잡범들은 변호사도 없이, 제대로 된 판사의 심문조차 받지 못한 채 구형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보여 준다.

(2) 교체 '나'는 남편의 특별 면회를 핑계로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나'는 권 주임으로부터 특별 면회를 신청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남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혹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는다.

(3) 교체 돈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권 주임과 강 변호사의 태도에서 (물질 만능주의, 성과 지상주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권 주임은 남편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빌미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강 변호사 역시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훤히 통하니까요."라고 말하며, 남편의 불기소 처분 청부 비용으로 '나'에게 삼십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엿볼 수 있다.

29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병폐**: 병통(깊이 뿌리박힌 잘못이나 결점)과 폐단(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④ 헛짚기 '공통의 억울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득권과 소시민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허위를 드러내고 있군.

'공통의 억울함'은 돈을 내고 혜택을 누리는 특별 면회가 아닌, '나'가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면서 친해진 사람들과 공통으로 느끼는 억울함이다. 즉 '공통의 억울함'은 특별 면회를 하는 기득권이 아닌, 면회에서조차 차별을 당하는 소시민들만이 경험하는 억울함이다. 따라서 기득권과 소시민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허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소박한 법률 상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평소 법과는 거리가 먼 소시민임을 드러내고 있군.

'소박한 법률 상식'은 일반인들이 지녔을 법한 상식 수준의 법률 상식을 말하는 것으로, '나'가 평소 법과는 거리가 먼 소시민적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기분 나쁜 예감'에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은 소시민이 법의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의 병폐를 보여 주는군.

'기분 나쁜 예감'이란 권 주임이 수틀리면 남편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는 도움받을 곳 없는 소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이다.

③ "다 되는 방법이 있죠."라는 강 변호사의 말을 통해 법과 불법이 함께하는 모순적 실태를 엿볼 수 있군.

강 변호사가 '나'의 남편을 불기소로 처리하도록 손쓰는 것에 대해 "다 되는 방법이 있죠."라고 말하는데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불법에 의한 것으로, 법과 불법이 함께하는 모순적 실태를 드러낸다.

⑤ 변호사 위임 취소를 '백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소시민들 간에 공유되는 연민과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군.

'나'가 변호사 위임 취소를 '백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고약한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소시민들 간에 공유되는 연민과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소설_전쟁, 역사

33 나상

작품 분석 본문 150~153쪽

작가 이호철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주제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과 올바른 삶에 대한 모색
특징 ① 대비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연결된 액자식 구성을 취함.
③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순수한 인간성의 가치를 부각함.

단숨에 읽기 어느 여름 저녁 '나'는 철로부터 전쟁 때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함께 이송되었던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다. 오연한 성격의 동생은 둔감하고 솔직하며 모자란 형을 은연중에 무시한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형제는 국군으로 징집되고 각기 포로로 잡혀 이송되던 중 재회한다. 형은 동생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지만 동생은 형을 외면한다. 침울하고 살벌한 상황에서 형은 경비병에게 밥 덩이를 얻어 동생과 나눠 먹고,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연다. 형은 다리의 담증이 심해져 절름거리며 걷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 함박눈이 내리던 밤, 형이 동생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는 체하지 말라고 당부하자, 동생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튿날 형은 행군 중 걷던 자리에 주저앉고, 경비병은 총으로 형을 쏘아 죽인다. 동생은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포로 교환 때 풀려난다. 철은 이야기 속 형의 모자람과 둔감함을 긍정하면서 자신이 그의 동생 칠성임을 밝힌다.

한 줄 요약
❶ 천진한 (형)과 그의 (동생)이 포로로 잡혀 북으로 끌려감.
❷ 형은 다리의 (담증) 때문에 몸 상태가 악화되어 감.
❸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형)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함.
❹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형)이 (경비병)에 의해 죽임을 당함.

30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신빙성**: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정·정·이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형과 동생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북으로 이송되고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형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면모와 동생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밤에 우는 행위, 동생의 귀에 속삭이는 행위, 혼잣소리를 하는 행위, 우는 동생을 달래면서 자신도 울음을 터뜨리는 행위 등이 반복하여 서술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외양을 ~~장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서술한 부분은 있지만,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내적 독백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나 서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③ 부재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와 과거의 교차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④ 부재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이 글은 형과 동생의 대화가 직접 제시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인용을 통해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1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인물의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는 형의 특정한 행위들, 즉 서러움에 우는 행위, 우는 동생을 달래다 도리어 울음을 터뜨리는 행위, 동생의 귀에 속삭이는 행위, 동생을 향해 쓸쓸히 웃어 보이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몸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형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는 동생의 행위도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ㄷ.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동생도 ~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등과 같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ㄱ. 상반 ~~역순행적~~ 순행적 방식으로 사건이 구성되고 있다.

'이날 밤', '어느 날 밤', '이튿날', '그날 밤', '며칠이 지날수록' 등에서 드러나듯이 형과 동생이 전쟁 포로가 되어 북으로 이송되어 가는 중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ㄹ. 부재 인물의 의식 상태나 마음속 생각을 ~~내적 독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의식 상태나 마음속 생각을 혼잣말하듯이 제시하는 것을 내적 독백이라 하는데, 이 글에는 인물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정·정·이

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형제가 포로로 잡혀 북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이날 밤', '어느 날 밤', '이튿날', '그날 밤', '며칠이 지날수록' 등과 같은 시간의 흐름과,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등과 같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1인칭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이 글은 1인칭이 아닌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며, 회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헛짚기 빈번한 장면 변화를 통해 이야기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과 동생이 대화하는 장면, 경비병들의 감시 속에서 걷는 장면 등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이야기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사건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

형과 동생의 행위가 유사하게 반복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30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 글에서는 형제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증(㉡)'을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은 형이 가진 신체적 문제로, 형이 잘 걸을 수 없게 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형의 비극적 최후를 암시하거나 형에 대한 동생의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형은 전쟁 중에 포로로 이송되는 상황에서도 '첫눈(㉠)'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좋아한다. 따라서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은 형과 동생의 눈에 보이는 풍경으로,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황량한 이미지는 집으로 돌아갈 기약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형제의 내면 풍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형의 걸음(㉣)'은 담증 때문에 더욱 절룩거리게 되고, 형은 그 때문에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형이 죽음을 예감할 때 내리는 '함박눈(㉤)'은 비극적 분위기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304 답 (1) 담증, 형의 걸음걸이 (2) 눈물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담증), (형의 걸음걸이)은/는 인물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형은 다리에 담증이 심해져서 걸음걸이가 절름거리게 되고, 끝내 더 이상 걷지 못해 경비병에게 총을 맞고 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담증'과 '형의 걸음걸이'는 형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눈물)은/는 형제간의 애틋한 사랑을 드러낸다.

형이 자신의 다리가 이상하다는 말,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말을 하자 동생은 형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으로 눈물을 흘린다. 동생이 울자 동생을 달래던 형도 함께 울게 된다. 따라서 '눈물'은 비극적 상황에 처한 형제간의 우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는 형에 대한 동생의 마음을 드러내고, ㉯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악화를 암시한다.

동생은 형이 다리가 안 좋다는 말을 하자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는 형에 대한 동생의 안타까움과 사랑을 드러낸다. 다리의 담증이 심해진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린다. ㉯는 점점 나빠지는 형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포로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더욱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오·오·이

① 교체 ㉮는 형의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고, ㉯는 혈육에 대한 정을 보여 준다.

다리의 상태가 나빠진 형은 결국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형에 대한 동생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보여 주는 것은 ㉮, 형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이다.

② 범위 오류 ㉮는 동생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는 형의 순수한 성격을 부각한다.

㉮에서 형의 몸 상태에 대한 동생의 불안함을 엿볼 수 있다. 형이 순수한 성격을 지닌 것은 맞지만 ㉯와는 관련이 없다.

④ 범위 오류 ㉮는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되고, ㉯는 인물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드러낸다.

형과 동생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점점 나빠지는 형의 몸 상태를 보여 주므로 인물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헛짚기 ㉮는 죽음에 대한 형의 예감을 구체화하고, ㉯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형의 의지를 나타낸다.

㉮는 형의 몸 상태에 대한 동생의 반응으로, 죽음에 대한 형의 예감과는 관련이 없다. ㉯는 형의 처지를 드러낼 뿐, 이를 극복하려는 형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30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동생은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아는 체하지 말라는 형의 말에 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춘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형은 동생의 큰 소리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러한 형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상황에서 동생은 형의 귓속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형의 말을 듣고 놀라 돌아다보는 것으로 보아 잠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생이 잠든 척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② ⓑ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

동생이 놀라 돌아다본 것은 담증이 있는 다리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형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동생은 말이 없지만 형의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을 보일 것이다.

③ ⓒ에서는 춥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동생은 형의 병증을 걱정하면서 형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므로, 형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④ ⓓ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

아파하는 형을 보고 동생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는 형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을 것이다.

30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형은 첫눈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 ⊗)

형은 첫눈을 보며 기뻐할 뿐,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2) 헛짚기 형은 동생과 함께 집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

형은 동생에게 "칠성아, 너 ~ 집에 가거든……."이라고 말을 꺼낸다. 이를 통해 형이 자신은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동생은 형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다. (⊙, ×)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아는 체하지 말라는 형의 말에 동생은 형의 죽음을 예감하고 '부러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추려 한다.

30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사건 왜곡 '벌컥 성을 내며' 울음을 그치라고 다그치는 동생의 모습에서 형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

동생이 몸 상태가 나빠진 형의 처지가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자 형은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라고 동생을 다그치면서 자신도 울게 된다.

오·오·이

①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우는 동생의 모습에서 동생이 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형이 울자 동생도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우는 것은 동생이 형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②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부러워하는 형의 모습에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형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형은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선망의 표정으로 바라본다. 이는 포로로 끌려가는 삼엄한 상황에서도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는 형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가는 형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형의 상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이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가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쓰러지는 형의 모습에서 동생을 아끼고 걱정하는 형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형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는 체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이튿날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쓰러진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형이 동생의 안위를 걱정해서 지난밤의 당부를 떠올리게 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연**: 본디 생긴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
- **획일화**: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게 됨. 또는 모두가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게 함.

정·정·이

④ 사건 왜곡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형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순수함과 천진성을 잃지 않지만,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형의 울음을 통해 전쟁의 극한 상황과 불안한 처지에 대해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이 근원적인 인간성, 본연의 순수성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나상(裸像)'은 '나체를 표현한 형상, 또는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이 작품의 경비병은 형제를 구속하여 감시하는 존재로, 형이 보여 주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기〉에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포로가 되어 호송되는 형과 동생이 강제로 계속 걸어야 하는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다리의 담증이 악화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형이 경비병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감시자인 경비병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310 답 (1) 형 (2) 경비병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근원적인 인간성을 상징하면서 외부 폭력에 희생되는 인물은 (형)이다.
형은 순수하고 천진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중에 총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2) 교체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사회를 대변하고 전쟁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인물은 (경비병)이다.
경비병이 포로들을 감시하며 호송하는 모습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사회를, 몸이 아파 쓰러진 형을 총으로 쏘아 버리는 모습은 전쟁의 폭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4 광장

작품 분석 본문 154~157쪽

작가 최인훈
갈래 장편 소설, 분단 소설, 사회 소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
특징 ① 남북한의 분단과 이념 대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
②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내용이 전개됨.
③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이명준은 석방 포로를 싣고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과거를 회상한다. 평범한 대학생 이명준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의 속물성과 방종이 판을 치는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빨갱이로 몰린다. 그는 애인인 윤애와의 사랑을 통해 남한에서의 현실을 극복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상적인 삶을 찾아 월북한다. 명준이 본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부자유스럽고 경직된 공간이었다. 명준은 노동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곳에 위문 공연을 온 무용수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명준은 은혜와의 사랑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은혜가 모스크바 유학을 떠나면서 좌절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정치 보위부 간부가 되어 참전하고, 과거 자신이 고문당했던 경찰서에서 친구인 태식을 취조하게 된다. 옛 애인인 윤애는 태식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명준은 태식과 윤애를 풀어 준다. 명준은 전쟁터에서 간호 장교로 참전한 은혜와 극적으로 다시 만나지만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전사하고 만다. 전투 과정에서 포로가 된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남한과 북한 어느 곳도 아닌 중립국을 택한다. 그가 추구했던 '광장'은 남과 북 어디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립국인 인도로 향하는 배인 타고르호에서 명준은 배를 따라오는 두 마리의 갈매기를 은혜와 딸로 여기며 바다에 투신한다.

한 줄 요약
❶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달은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함.
❷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방황함.
❸ 명준이 (**부채**)를 보며 대학 시절부터 전쟁까지 과거의 일을 회상함.
❹ 명준은 두 마리의 새가 죽은 (**은혜와 딸**)이라고 여기고, 그녀들이 날아다니는 (**푸른 광장**)을 알아보게 됨.

3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자**: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정·정·이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주인공 이명준의 행위와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이명준은 부채를 보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부채 끝 넓은 테두리에서 시작한 그의 회상은 부채의 사북 자리인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명준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부재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판하는 풍자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ㄹ. 헛짚기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준의 복잡한 내면 의식과 그로 인해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12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징적**: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정·정·이

ㄱ. 독백체와 관념적·상징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자 이제는? ~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그 넉넉한 뱃길에 ~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등에서 독백하는 듯한 문체가 드러난다. 또한 '마술', '난파자', '광장', '새' 등 관념적·상징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ㄷ.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이명준은 부채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부채 끝 넓은 테두리 쪽을 바라보며 시작한 과거 회상은 이명준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다 부채의 가장 좁은 사북 자리에 이르러서야 끝맺게 된다. 따라서 부채는 이명준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회상하게 하는 상징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짚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준은 방, 복도, 선장실 등 배 안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부재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로,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즉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이명준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고뇌와 심적 변화 등을 드러내고 있다.

3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긴박**: 매우 다급하고 절박함.
- **다각적**: 여러 방면이나 부문에 걸친 것.
- **조명**: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봄.

정·정·이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명준의 의식 세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과거 삶에 대한 회상과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분위기도 긴박하지 않다.

③ 부재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배 안과 바다라는 공간이 나타나지만 공간에 대한 실감 있는 묘사는 드러나지 않으며, 공간만으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④ 부재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명준의 대학 생활, 조선인 콜호스 숙소에서의 생활, 은혜와의 만남 등 명준의 과거 회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조적 체험이라고 하기 어렵다.

⑤ 부재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배 안을 혼자 방황하는 명준의 모습과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31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정·정·이

④ 헛짚기 ㉣: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난다.

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바다에서 본 두 마리 새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려 한다. 그러나 상념 끝에 그는 새들이 죽은 애인인 은혜와 그 딸이라고 여기며 이들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한다.

오·오·이

① ㉠: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명준은 배 안의 복도, 선장실로 배회하고 있는데, 명준의 연속된 행동을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단순한 행동을 짧은 문장을 통해 제시하면 급박한 느낌을 주게 되므로 인물이 느끼는 불안정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② ㉡: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 준다.

부채를 펼친 명준은 ㉡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그런 후에 명준은 현실로 돌아와 부채 속 그림과 같은 바다와 새들을 보며 인식을 전환한다. 여기에서 ㉡의 그림이 과거와 현재, 명준의 상념과 현실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명준은 부채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상념에 빠져 있다가, 마스트를 보며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두 마리 새들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는 명준이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명준은 바다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큰 새와 작은 새를 죽은 애인인 은혜와 그 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들이 있는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명준은 사북 자리에서 뒤돌아서자 눈에 비친 바다를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에 그러한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15 답 (1) 돌아보게 (2) 이입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입**: 옮기어 들임.

정·정·이

(1) 교체 ㉡의 부채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의 그림이 있는 부채의 펼친 면을 보고 명준은 과거 학생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부채의 모양을 따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2) 교체 ㉤에서 주인공은 바다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자신의 벅찬 감정을 (이입,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명준은 바다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큰 새와 작은 새를 죽은 애인인 은혜와 그 딸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있는 바다가 '푸른 광장'임을 깨닫는다.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적 세계를 찾았다고 생각한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새들에게 이입하여 새들이 '좋아서 미칠 듯이' 날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31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 **공허감**: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

정·정·이

⑤ 사건 왜곡 ㉲: 성격을 바꾸고 고국에 돌아와 새 삶을 영위하겠다는 인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립국행을 선택한 명준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성격을 바꾸고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모호한 희망을 품고 있다. 고국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오·이

① ㉮: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이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25 전쟁으로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명준은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선택한다.

② ㉯: 공허감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 안에 있는 빈 데' 등을 통해 중립국을 택한 명준이 공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총알이 인물에게 불안감을 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명준은 총알을 제자리에 놓고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므로, 총알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④ ㉱: 아버지와 관련한 일이 정치적인 사건임을 추측할 수 있다.

명준은 정치를 경멸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버지 일이 정치적인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⑤ ㉲: 성격을 바꾸고 고국에 돌아와 새 삶을 영위하겠다는 인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호로 표시된 문장을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의 앞을 보면 명준이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고 있으므로, 고국에 돌아온다는 진술이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3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일대기**: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적은 기록.

정·정·이

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보기〉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란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반영된 현실과 작품을 창작한 작가를 고려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창작 당시의 시대상과 작가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으로, 작품 속 배경의 현재 모습을 답사하는 것은 적절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작품에 나오는 동굴의 신화성을 알아보는 것은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나 작가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③ 헛짚기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교훈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나 작가를 고려한 감상이 아니라, 독자를 고려한 작품 감상이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것은 '상황의 구체적 의미'가 아니라 '상황의 보편적 의미'와 관련 있다.

④ 헛짚기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의 일대기를 작성해 본다.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은 작품 자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31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

정·정·이

(1) 주인공이 중립국을 택한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이념 대립과 관련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

상황의 구체적 의미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하여 해석할 때 드러난다. 따라서 남북이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면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사건 왜곡 가족에 대한 주인공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상황의 보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

가족에 대한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명준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3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정·정·이

③ 헛짚기 '사북 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명준은 부채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때 펼쳐진 부채 위의 공간은 곧 명준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그의 삶의 터는 넓은 데서 점점 오므라들다가 지금은 부채의 '사북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사북 자리'는 부채꼴의 가장 좁은 지점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삶의 막다른 곳을 상징한다. 명준은 '사북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삶의 광장'이 극도로 좁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막다른 지점에서 그는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중립국으로 가서 새사람이 되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따라서 그가 '사북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② '사북 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군.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명준은 펼쳐진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가 대학 시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고 하였다(①). 지금은 부채의 '사북 자리'에 있어,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두 발바닥 정도의 넓이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사북 자리'는 현재 설 공간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②).

④ '사북 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북 자리까지 뒷걸음질 친 명준이 뒤로 돌아서자,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고 하였다. 즉 '사북 자리'까지 극도로 좁아진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⑤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짓고 있군.

명준의 애인인 은혜는 아이를 임신한 채 죽었는데, 이들을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이라고 하였다. 명준은 바다 위를 나는 두 마리의 새가 은혜와 딸이며, 그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다가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20 답 (1) 삶의 광장 (2) 푸른 광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한**: 궁극의 한계. 사물이 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이른다.
- **이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 **안식**: 편히 쉼.

정·정·이

(1) 교체 주인공이 삶의 터를 부채꼴에 비유한 것은 (삶의 광장)이/가 좁아져서 극한 상황까지 왔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명준은 부채를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에서 시작하여 점점 좁아지다가 현재에는 사북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의 '삶의 광장'이 좁아지다 못해 두 발바닥이 설 정도의 넓이가 되고 만 것, 즉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교체 (푸른 광장)은/는 '고운 각시들'과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이념 대립이 없는 자유로운 안식의 공간이다.

이명준은 바다 위를 나는 두 마리의 새를 각각 은혜와 딸로 생각하며 '고운 각시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다를 보는데, 그곳이 바로 자신이 찾던 '푸른 광장', 즉 이념 대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32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고뇌**: 괴로워하고 번뇌함.

정·정·이

① ⓐ는 삶의 공간에 대한 명준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군.

명준은 부채(ⓐ)를 보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데,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점점 좁아지는 부채꼴, 사북 자리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삶의 공간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오·이

② 헛짚기 명준이 ⓐ를 손에서 결코 놓지 않는 것은 ⓐ가 지난날의 추억을 담은 물건임을 보여 주는군.

명준은 우연히 부채를 발견했고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와 그것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 부채에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를 보면서 생각에 빠져듦으로써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군.

명준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할 뿐,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④ 헛짚기 ⓐ의 바깥에서 안으로 명준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삶의 본질에 대한 그의 고뇌가 해소됨을 드러내는군.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점점 좁아지는 부채꼴, 사북 자리로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명준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본질에 대한 고뇌가 해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에 그려진 그림은 '푸른 광장'의 이미지와 이어지며 명준이 현실의 위기 극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하는군.

ⓐ에는 바다와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명준이 생각하는 '푸른 광장'의 이미지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푸른 광장'은 명준이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이지만, ⓐ를 통해 명준이 현실의 위기 극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5 쥐잡기

작품 분석 본문 158~161쪽

작가 김소진
갈래 단편 소설
주제 개인에게 내면화된 전쟁과 분단의 상처
특징 ① 과거와 현재가 '쥐'라는 소재로 연결됨.
② 회상의 기법과 섬세한 묘사를 통해 당대의 삶과 역사의식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민홍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아버지는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일 쥐 한 마리가 나와 가게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 아버지는 이 쥐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어머니에게 무능력하다고 시달림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지 못한 민홍은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떠오른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익으로 몰려 반대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 흰쥐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구한다. 다음 날 남한과 북한 중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순간에 나타난 흰쥐를 따라 아버지는 남한을 선택한다. 그 선택으로 인해 아버지는 수십 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민홍은 아버지의 한에 연민을 느끼고, 현재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으려고 나선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쥐잡기에 실패한 민홍은 자신을 억눌러 왔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한 줄 요약

1.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남과 북을 선택하면서 갈등했던 일을 회상함.
2.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한탄하자 (**민홍**)은 아버지의 한에 공감함.
3. 민홍은 (**쥐잡기**)에 실패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됨.

32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의 앞부분은 아버지가 예전에 들려준 포로 시절 이야기를 민홍이 다시 떠올리는 장면이다. 서술자는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해야 했던 아버지의 과거 사건을 서술하며, 아버지의 내면 의식과 민홍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의 뒷부분은 민홍이 쥐를 잡으려는 장면이다. 서술자는 민홍의 쥐잡기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연결하며 민홍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일관되게 이야기 밖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부재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아버지가 포로 시절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민홍이 쥐를 잡으려다 실패한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부재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마음속의 한을 털어놓으며 눈자위가 짓물러진 아버지의 모습, 의욕적으로 쥐를 잡으려는 순간 눈이 빛난 민홍의 모습 등으로 볼 때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3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사투리를 통해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며, 그가 고향을 떠나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 사투리를 계속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ㄴ.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회상을 통해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겪었던 폭력적인 상황과 남한을 선택한 후 가슴 답답한 세월을 보낸 상황이 잘 드러난다.

오·오·이

ㄷ. 부재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었으며, 서술자는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3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인물의 내적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사고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포로로 잡혀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는 남과 북 중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내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이때 북한–남한–북한–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생각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아버지의 내적 갈등, 민홍의 행동과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부재 한 인물과 특정 대상 간의 갈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민홍이 쥐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쥐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재 소설의 주인공인 서술자가 자신과 관찰 대상의 심리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⑤ 부재 대상의 외양 변화에 따라 그를 대하는 인물의 감정이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쥐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2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합리화**: 어떤 일을 한 뒤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함. 또는 그런 방어 기제.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부모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 것이겠군.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말에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담겨 있다. 아버지가 북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한 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강요와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으므로, '부모처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감찰 완장의 '앙칼지게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했던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짧은 시간 안에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결정하라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하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 '짓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로 인해 '짓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모습은 그때의 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아버지의 회한을 드러낸다. 그런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민홍이 보게 된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민홍이 본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마르고 힘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한다. 이는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민홍은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면서, 앙상함과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로 기억되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다. 이는 아버지가 평생 전쟁의 상처를 끌어안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화석처럼 갇혀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26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흰쥐를 보고 아버지가 복도로 내려서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선택이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

아버지는 남과 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이전에 우연히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흰쥐를 따라 이남 자리로 가기 위해 복도로 내려선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선택이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헛짚기 짓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를 엿볼 수 있다. (○, ×)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짓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 회한, 슬픔 등을 엿볼 수 있으나, 분노의 감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3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사건 왜곡 민홍은 ⓐ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

ⓐ는 민홍이 잡으려는 쥐로, 민홍은 쥐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그것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민홍은 그 자리에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는데, 이때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것의 주체는 민홍이 아닌 어둠이다. 이는 쥐잡기에 실패한 민홍의 모습을 어둠이 마치 비웃는 것처럼 어둠을 의인화한 것이다. 또한 쥐에 대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린 것이지, 민홍이 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민홍은 ⓐ와 관련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민홍은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는 쥐를 보고, '에유, 어찌 된 애가 ~ 털이 홀떡 벗겨져서는…….'이라고 철원네가 쥐에 관해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②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를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쥐가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흠칫 몸이 굳어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③ 민홍은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홍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쥐를 보며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연탄집게를 들고 이거면 쥐를 잡는 데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손아귀에 힘을 주고 집중하고 있다.

⑤ 민홍은 ⓐ를 놓친 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하며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민홍은 쥐를 놓치고 나서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하며 낮은 신음을 흘렸다. 이는 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다.

32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민홍은 ⓐ를 잡기 위해서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 ×)

'기름병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민홍이 화염병을 들고 시위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홍이 쥐를 잡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다.

(2) 사건 왜곡 민홍이 손아귀에 힘을 빼고 여유를 부린 것은 ⓐ의 굼뜬 동작이 위장술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 ⊗)

민홍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쥐를 보고 서두르지 않아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일격의 시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부렸다. 민홍은 쥐를 놓친 후에야 쥐의 굼뜬 동작이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었다고 생각한다.

(3) 민홍은 ⓐ를 놓치고 나서 느꺼운 감정이 밀려오면서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

민홍은 쥐를 놓친 후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느꺼운 감정과 함께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32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사명감**: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정·정·이

⑤ ㉡은 민홍이 허탈감을 느끼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민홍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쥐를 보며 쥐잡기에 실패한 허탈감을 느꼈다가 아버지의 늘쩡한 목소리를 떠올린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아버지가 내적 사명감에 의한 고통을 겪은 공간이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외부의 강요에 의해 남과 북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지, 사명감에 의해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다.

② 사건 왜곡 ㉠은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이 확정된 공간이다.

아버지는 남과 북을 선택하는 순간에 고향을 생각하며 북한 쪽을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남한을 선택하게 되므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은 민홍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성취감을 준 공간이다.

민홍은 쥐를 놓친 후 골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④ 사건 왜곡 ㉡은 민홍이 도망가는 쥐를 뒤쫓기 위해 맨발로 이리저리 헤맨 공간이다.

민홍이 쥐를 잡으려고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쥐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므로, 골목은 민홍이 헤맨 공간이 아니다.

33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로**: ① 갈림길. 여러 갈래로 갈린 길. ②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③ 헛짚기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A]는 아버지가 포로 시절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받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등하던 아버지는 이남 쪽을 향해 퀸셋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흰쥐를 보게 된다. 따라서 '살금살금'은 흰쥐가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뒤죽박죽'은 포로들이 남과 북을 선택하기 위해 복도에서 이쪽저쪽으로 오가는 정신없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남과 북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아버지의 상황과 연결된다.

②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북한을 선택했던 아버지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으면 죽으니 넘어오라고 난리를 치자 '시적시적' 자리를 옮긴다. 이때 '시적시적'은 별 의지 없이 움직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살랑살랑'은 흰쥐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으로, 남과 북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버지는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해 준 흰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남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

⑤ '저벅저벅'은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느낀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저벅저벅'은 감찰 완장들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으로, 감찰 완장들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느낀 위기감과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331 답 (1) 뒤죽박죽 (2) 시적시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강요받은 포로들은 남한과 북한 중 한 곳을 선택하느라 (뒤죽박죽, 살금살금) 오갔다.

수용소에서 감찰 완장들은 포로들에게 십 분 안에 남한과 북한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쪽저쪽으로 정신없이 오갔으므로, '뒤죽박죽'이 적절한 표현이다.

(2) 교체 아버지는 북한을 선택했다가 사람들이 넘어오라고 난리를 쳐서 (살랑살랑,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북한 쪽 자리로 갔으나, 이남 자리로 넘어간 사람들이 아버지보고 빨리 넘어오라고 난리를 치자 자리를 옮긴다. 이때 아버지는 적극적인 의지 없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시적시적'이 적절한 표현이다.

3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사건 왜곡 민홍은 쥐잡기에 ~~의욕이 없어서~~ 쥐를 잡는 데 실패하였다.

민홍은 연탄집게를 들고 기회를 노리다가 쥐를 공격했으나, 쥐가 민첩하여 쥐잡기에 실패하였다. 민홍은 연탄집게를 쥔 손아귀에 힘을 주고 긴장으로 땀을 흘리는 등 쥐잡기에 집중하였으므로, 의욕이 없어서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철원네는 아들이 쥐를 못 잡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철원네가 아들인 민홍에게 '에유, 어찌 된 애가 ~ 못 잡는 대서야 말이 되니?'라고 넋두리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민홍은 과거를 회상하는 아버지의 회한에 공감했다.

수용소에서의 일을 회상한 아버지가 눈물지으며 한탄하자, 민홍은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며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침을 느꼈다.

④ 아버지는 긴박한 상황에 쫓겨 떠밀리듯 이남행을 선택했다.

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의 선택으로 인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다.

남과 북 중 어디로 갈지 정하라는 감찰 완장들의 강압 속에서 아버지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결국 흰쥐를 따라 이남행을 선택하였다(④). 그리고 그 선택으로 평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⑤).

36 한씨 연대기

작품 분석 본문 162~165쪽

작가 황석영

갈래 중편 소설

주제 전쟁과 분단의 상황에서 전도된 가치관 때문에 희생된 개인의 비극

특징 ① 사회의 폭력과 억압에 희생되는 인물의 삶을 일대기처럼 전개함.
②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함으로써,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함.

단숨에 읽기 평양에서 대학 병원의 의사로 있는 한영덕은 몸을 아끼지 않고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지만 당원이 아닌 탓에 갖은 박해를 받는다. 의사로서 군인보다 목숨이 위급한 아이를 먼저 치료한 일 때문에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한영덕은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는 곧 가족과 헤어져 홀로 월남하게 되고, 각종 직업을 전전하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 포로수용소 부근을 배회하기도 한다. 그는 먼저 남한에 와 살고 있던 여동생 한영숙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무자격자인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취직하여 생계를 꾸려 간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윤씨와 재혼하여 살던 한영덕은 병원에서 하는 불법 낙태 수술 등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병원을 그만둔다. 그러나 박씨가 한영덕을 간첩으로 고발하여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온갖 고문을 당한다. 한영숙이 한영덕의 무죄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결국 그는 다른 죄목으로 실형을 언도받는다. 실형을 끝내고 나온 그는 아내와 딸을 남긴 채 집을 나와 폐인처럼 지내다가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사망한다. 한영덕의 장례 후 딸 혜자는 아버지의 수첩을 들고 상갓집을 빠져나온다.

한 줄 요약

❶ 북한에서 한영덕은 군인보다 더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다가 고초를 겪음.
❷ (남한)에서 한영덕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고초를 겪음.

3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황**: 일의 사정과 상황.

정·정·이

②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영덕, 한영숙 등 인물들의 내면과, 한영덕이 북한에서 조사를 받은 일, 남한에서 재판을 받은 일 등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의 가치관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에서의 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행되

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④ 부재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해석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는 장면에 따른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부재 인물의 독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인물의 독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여 서술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3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다룬다. (○,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인물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지 않다.

(2) 부분적으로 서술자가 사건의 흐름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 ×)

한 여사가 법원에 진정서를 올리고 한영덕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부재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33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실상**: 실제의 상태나 내용.

정·정·이

②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의 태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두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영덕은 환자의 지위보다는 생명의 위급함을 따져서 경무원보다 아이를 먼저 수술한다. 특병동의 환자를 먼저 치료하라는 원장의 강압에도 한영덕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한영덕의 인간적이고 강직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실상을 후에 밝히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으나, 그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교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중심인물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강직한 성격의 한영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날 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한영덕의 부정적인 판단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④ 부재 현실의 문제로 고뇌하는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영덕은 아이를 수술하는 데 집중하거나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을 드러낼 뿐,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변동에 따라 하나의 사건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한영덕, 뒷부분에서는 한 여사(한영숙)로,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33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자신에게 닥칠 상황에 대한 한영덕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한영덕은 특병동의 환자를 치료하라는 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급한 아이를 먼저 돌보고 있다. 수술을 하기 위해 실을 바늘에 꿸 때 원장의 거친 음성과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지만, 한영덕은 침착하게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간호사와 조수를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한영덕은 특병동의 환자를 치료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자신 때문에 간호사와 조수가 위험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두 사람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③ ㉢: 한영덕을 걱정하는 한 여사의 당부가 드러나 있다.

한영덕의 여동생인 한 여사는 한영덕이 협박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간수가 일지를 적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영덕에게 거짓 자백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④ ⓔ: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에 대한 한 여사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는 한영덕에게 누명을 씌워 끝내 처벌을 받게 한 자들이다. 한 여사는 재판정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보고 울분에 차서 거친 말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

⑤ ⓜ: 한 여사에 대한 민상호의 빈정거림이 드러나 있다.

민상호는 한영덕의 판결이 만족스러운 데다가, 한 여사가 비난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한 여사를 비웃고 있다.

337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임**: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정·정·이

ㄴ. ㉡에서 한영덕은 의사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서 한영덕은 거친 음성과 구둣발 소리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영덕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오·오·이

ㄱ. 헛짚기 ㉠에서 한영덕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영덕은 특병동의 환자를 먼저 치료하라는 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급한 어린 환자를 돌보다가,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자 간호사와 조수에게 나가라고 재촉한다. 이는 간호사와 조수가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ㄷ. 헛짚기 ㉣에서 한 여사는 한영덕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한 여사는 오빠 한영덕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민상호 무리 때문에 끝내 한영덕은 석방되지 못한다. ㉣은 한영덕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지, 한영덕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ㄹ. 헛짚기 ㉤에서 민상호는 한 여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민상호는 오빠의 일 때문에 분노하는 한 여사에게 웃으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 여사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 빈정대는 태도일 뿐, 한 여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33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방면**: 붙잡아 가두어 두었던 사람을 놓아줌.

정·정·이

⑤ 헛짚기 ⓔ: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한영덕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제시되고 있다.

ⓔ는 유죄 판결이 한영덕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한영덕에 대한 판결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서술한 것이다. 판결에 정치적 인상이 짙었다는 것은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면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오·오·이

① ⓐ: 생명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통해 원장이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원장은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무원의 생명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원장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② ⓑ: 생명의 위급함을 고려하여 수술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통해 의사로서 한영덕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한영덕은 ⓑ에서 경무원의 부상은 압박 붕대 처리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치료가 더 시급한 아이의 수술을 먼저 한다. 이처럼 한영덕은 사회적 지위가 아닌 생명의 위급함을 고려하여 수술의 순서를 정하는데, 이는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③ ⓒ: 한 여사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한영덕을 면회 온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를 통해 한 여사가 한영덕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 면회를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④ ⓓ: 한영덕이 감옥에서 방면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연유가 제시되고 있다.

ⓓ에는 한영덕이 의료법 위반으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한영덕을 간첩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입게 되자, 분풀이를 하려고 한영덕이 예전에 수술한 일을 들추어내어 새로운 재판을 받게 한 것이다.

33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데올로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 **굴복**: 힘이 모자라서 복종함.
- **진위**: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정·정·이

⑤ 헛짚기 공간 B에서 인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개인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한영덕은 공간 A(북한)에서 공간 B(남한)로 이동하는데, 이때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개인(한영덕)의 갈등이 나타난다.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척출 수술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즉 한영덕은 의사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 수술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느낀 것이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공간 A에서 인물에게 '특병동'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공간 B에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보여 주고 있군.

북한에서는 한영덕에게 위급한 아이 대신 '특병동' 환자인 경무원을 먼저 치료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한영덕을 고발한다. 또한 남한의 정보대에서는 한영덕이 죄가 없는데도 그를 간첩으로 몰고 '협박'한다. 이로 인해 인물이 시련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두 행위는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보여 준다.

② 공간 A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행위와 공간 B에서 '자궁 척출' 수술을 한 행위는 모두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군.

북한에서 한영덕이 '아이'를 먼저 치료한 것은 특병동 환자보다 아이가 더 위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척출' 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의사로서 생명을 중시하는 한영덕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③ 공간 A에서 인물이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한 결과로 볼 수 있군.

북한에서 한영덕은 경무원보다 아이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다. 이는 생명을 중시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이나 위계를 우선시하는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공간 B에서 인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 주는군.

남한에서 한영덕은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40 답 (1) 생명 (2) 억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한영덕은 (생명 이데올로기)을/를 존중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지만, 사회와 충돌하여 시련을 겪게 된다.

(2) 교체 북한에서의 일과 남한에서의 일은 모두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 혜택)을 받은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준다.

한영덕은 북한에서 높은 지위의 환자보다도 위독한 아이를 먼저 돌본 일로 위기에 처한다. 월남한 뒤에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만, 간첩으로 고발되고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한영덕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지키고자 하지만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 이처럼 북한과 남한 두 공간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받은 한영덕의 삶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준다(2).

3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한영덕의 조력자를 새롭게 등장시켜 갈등하는 인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어.

[A]에서는 한영덕을 돕던 간호사와 조수가 나갔지만, 〈보기〉에서는 한영덕과 간호사가 함께 수술을 하고 있다. [A]와 달리 〈보기〉에서 한영덕의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갈등하는 원장과 한영덕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원장이 퇴장하는 모습과 표정을 추가하여 원장의 심리를 부각해야겠어.

〈보기〉에서는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와 같은 지시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한영덕에 대한 원장의 언짢은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② 조명의 변화와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야겠어.

〈보기〉에서는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와 같이 조명의 변화와 음향 효과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장치에 해당한다.

③ 원장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을 추가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해야겠어.

〈보기〉에서는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라는 지시문을 추가하여 원장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원장의 부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전쟁과 관련된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전쟁의 폭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줘야겠어.

[A]에서 한영덕은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환자의 몸에서 파편을 꺼내면서 "이 무쇳조각, 누구래 어디서 만들어 낸 거인지……."라고 말하고 있다. 파편(무쇳조각)은 전쟁을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로, 이를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원장이 퇴장하는 모습과 표정을 추가하여 원장의 심리를 부각해야겠어.
② 조명의 변화와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야겠어.
③ 원장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을 추가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해야겠어.

소설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각색한 내용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극 갈래의 특성상 지시문에서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무대 장치나 음향 효과 등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소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파악하기 쉬워요. 따라서 지시문에 관한 선지가 있으면 그걸 먼저 보고,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선지를 걸러 낼 수 있어요. 단 ①, ②, ③과 같이 단순히 지시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효과까지 진술한 경우, 앞은 맞고 뒤는 틀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세요.

37 아버지의 땅

작품 분석 본문 166~169쪽

작가 임철우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주제 전쟁(이념 대립)으로 인한 아픔과 그 상처의 극복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기억이 교차하는 이중 구조를 취함.
단숨에 읽기 군인인 '나'와 오 일병은 산에서 구덩이를 파다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나'와 오 일병은 마을에 내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노인과 함께 유골이 발견된 장소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빨치산이 되어 북으로 간 사실을 알고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유해가 발견된 장소에 이르자 노인은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라며, 뼛조각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정리하고 유골에 감긴 쇠줄을 풀어내어 허공에 던진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아침마다 소반에 하얀 물 사발을 올린 것을 떠올린다. 유해를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준 뒤, 노인이 가져온 술과 안주로 간단히 제를 지낸다. 이 과정에서 '나'는 철사 줄을 몸에 동여맨 사내가 총성이 울린 후 쓰러지는 환영을 보고, 아버지도 어느 땅에 무덤 없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을 마을까지 배웅한 '나'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던 일을 회상하며,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고 연민한다. 전쟁의 냉혹함과 그로 인한 비극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한 '나'는 아버지 역시 전쟁(이념 대립)의 희생자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증오와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유골 수습 과정에서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과 (**환영**)을 떠올림.
❷ 유골을 묻고 제를 지내면서 '나'는 (**아버지**)도 어느 땅에 홀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❸ 어머니와의 일을 회상한 '나'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도 전쟁의 희생자임을 깨달음.

34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회상하거나 환영을 보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빈번한 장면의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장면이 전환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다급하고 절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만,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재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내면이 나타날 뿐, 다른 인물들의 내면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됨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34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작품 속 서술자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고 있다. (○, ×)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이며,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등의 부분에서 '나'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고 있다.

(2)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

현재 '나'는 산에서 발견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생일상을 차리던 과거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한다. 이렇듯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교차되어 서술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보여 주고 있다.

(3) 헛짚기 인물의 대화를 통해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4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정·정·이

① [A]는 현실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로 인해 환기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현재 '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유골 수습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유골을 묶고 있던 철사 줄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에 무서움증을 느끼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B]는 두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보이는 인식의 차이를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아버지'라는 한 인물에 대해 '나(서술자)'와 어머니가 지닌 인식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게는 가족을 떠난 아버지가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일 뿐인 것이다.

③ 부재 [A]와 [B]는 서술자가 경험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회상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서술자가 겪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으며, [B]는 과거의 기억은 맞지만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교체 [A]는 서술자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서술하는 반면, [B]는 시간적 흐름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A]는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으며, [B]는 서술자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서술하고 있다.

⑤ 범위 오류 [A]는 담담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관찰하는 반면, [B]는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다.

[A]에서는 대상(철사 줄)을 통해 환기되는 주관적 정서(무서움증)를 드러내고 있다.

3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세파: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
- 귀환: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정·정·이

③ 헛짚기 ⓒ는 세파에 시달려 온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굳은 믿음이 한때 흔들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는 어머니에 대한 환영을 떠올리고 있다. ⓒ에서 허리띠를 질끈 묶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은 어머니가 살아온 삶과 관련한 것이지,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떠난 후 오래도록 완고하게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오·이

① ⓐ는 남편의 귀환을 소망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아침마다 사발에 물을 떠 놓고 남편이 무사 귀환하기를 비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기다림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는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마음에 남아 있다가 환영으로 떠오른 것이다.

④ ⓓ에서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어머니가 낡은 장 깊숙한 곳에 남편의 사진을 간직한 것을 통해,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⑤ ⓔ는 오랜 세월 어머니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가 보는 환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걸어오다가 어느 틈에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가 오랜 세월 외롭게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3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ㄹ-ㄷ-ㄴ-ㄱ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ㄹ). 그런 아버지를 오래도록 기다렸던 어머니는 내게 등을 돌리고 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ㄷ). 현재 '나'는 군인으로, 산에서 유골을 발견하고 노인의 도움을 받아 유해를 수습한다. 노인은 유골을 묶고 있던 철사 줄 묶음을 풀어 허공에 던진다(ㄴ). '나'를 포함한 군인들은 유골을 다시 땅에 묻어 봉분을 만든 뒤 음복을 한다(ㄱ).

오·오·이

① 사건 왜곡 ㄴ-ㄹ-ㄱ-ㄷ

② 사건 왜곡 ㄷ-ㄴ-ㄱ-ㄹ

346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았다(①, ②).

34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중개**: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
- **제의**: 제사의 의식.

정·정·이

①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노인은 '나'가 발견한 유골을 정성스럽게 수습하는 인물로, 죽은 이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원통한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 전쟁 중에 희생된 유골을 묶은 철사 줄을 풀어내어 멀리 내던지고 간단한 제사까지 지냄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오·오·이

② 사건 왜곡 전쟁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만남을 중개~~하고 있다.

전쟁 중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제의의 가치와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유해를 땅에 묻고 간단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전쟁 중에 희생된 이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제사 의식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전쟁의 원인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들의 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전쟁의 원인에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에 좌절~~하고 있다.

전쟁 중에 희생된 유골을 정성스럽게 수습함으로써 전쟁의 상흔을 보듬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전쟁의 상흔을 가진 인간의 나약함에 좌절하고 있지 않다.

34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습**: 흩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
- **표상**: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주인공이 유해를 수습하다가 '현기증'을 느낀 것은 불현듯 망각했던 아버지를 ~~'곱고 자상한 눈매', '나직한 음성'~~으로 기억해 냈기 때문이겠군.

주인공은 유해를 수습하다가 '현기증'을 느낀 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환영을 떠올린다. '곱고 자상한 눈매'와 '나직한 음성'은 주인공이 떠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오·오·이

①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철사 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유골을 묶은 '철사 줄'은 뼈와 살이 삭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 있어서, '나'는 그 '끈질김과 냉혹성'에 무서움증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세월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주인공에게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표상은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의 아버지의 표상과 대비되는 것이겠군.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데, 어머니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밭을 걸어오는 모습으로, 아버지는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빛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어둠으로 표상됨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아버지에 대해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라고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아버지 역시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은 것이겠군.

이름 모를 유해를 수습하며 주인공은 그동안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도 그처럼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민을 느낀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아버지가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어머니가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에 울고 있다는 주인공의 생각은 어머니를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군.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오랜 세월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는데, 이를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어머니도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9 답 (1) 아버지, 어머니 (2) 철사 줄 (3) 전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게 (아버지)은/는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반면, (어머니)은/는 기억과 빛으로 표상된다.

'나'의 환영 속에 어머니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이미지, 아버지는 깜깜한 어둠 속 이미지였으며, 〈보기〉에서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아버지는 기억과 빛으로 표상되는 어머니와 대척점에 놓인다고 하였다.

(2) 교체 유골과 함께 발견된 (철사 줄)은/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유골을 수습하던 노인은 유골에 묶인 철사 줄을 풀어냈는데, '나'는 오랜 시간 싱싱하게 살아 있는 철사 줄의 끈질김과 냉혹성에 무서움증을 느꼈다. 즉 유골을 묶은 철사 줄은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3) 교체 가족을 떠난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아온 '나'는 모두 (전쟁)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 또한 전쟁으로 어느 땅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오랫동안 기다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깊숙한 상흔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실마리**: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 **절규**: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

정·정·이

④ 사건 왜곡 진희: 〈보기〉에서 진석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듯이,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해야겠어.

〈보기〉에서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보고 유해가 자신의 형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유해의 신원을 파악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할 필요는 없다.

오·오·이

① 미나: 〈보기〉에서 유해 발견이 내용 전개의 실마리가 된 것처럼, 유해 수습 과정이 '나'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는 실마리가 되게 하면 좋겠어.

〈보기〉에서는 이진석 노인이 새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산에서 발견된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은수: 〈보기〉에서 진석의 회상을 통해 과거 사연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회상을 통해 가족의 과거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어.

〈보기〉에서는 전화를 받은 진석이 지난날을 생각함으로써 전쟁 당시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 또한 유해 수습 과정에서 '나'의 회상을 통해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얽힌 사연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정이다.

③ 홍미: 〈보기〉의 진석이 유해 앞에서 절규한 것과 달리, '나'는 유해 수습 장면에서 착잡한 표정을 보여 줘야겠어.

〈보기〉의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증거로 유해가 자신의 형임을 확인하고 절규한다. 그러나 이 글의 '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해를 수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 점은 영화 제작에 있어 〈보기〉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

⑤ 현정: 〈보기〉의 진태처럼 '나'의 아버지도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설정해야겠어.

〈보기〉의 진태는 강제 징집되어 같이 전쟁터에 내몰린 동생을 제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끝내 유해로 돌아온다. 이 글에서 '나'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아기를 가진 아내를 두고 집을 떠나 생사 불명되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전쟁에 희생된 인물이므로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설정해야겠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38 아저씨의 훈장

작품 분석 본문 170~173쪽

작가 박완서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주제 가부장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
특징 ① 1인칭 시점에서 한 인물의 삶을 관찰하고 내면 의식을 드러냄.
② 역순행적 구성으로, 한국 전쟁 당시와 이후 인물의 삶을 회고함.
단숨에 읽기 '나'는 우연히 고향 사람인 성표 형을 만나 그의 숙부인 너우네 아저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을 회상한다. 너우네 아저씨는 '나'의 친구인 은표의 아버지로, 죽은 형의 아들인 성표를 자기 아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아저씨는 고향에 가족을 남겨 둔 채, 아들 은표 대신 장조카인 성표만을 데리고 피란한다. 휴전이 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아저씨는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한다. 비슷한 연배의 동향 사람들은 집안의 장손을 지킨 그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지만, '나'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세월이 흐른 뒤 젊은 세대들은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을 두고 온 것을 비인간적 처사라며 비난하고, 자수성가하게 된 성표는 아저씨를 외면한다. 늙고 병든 아저씨는 골방에서 간병인의 간호를 받으며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린다. 아저씨를 찾아간 '나'는 사력을 다해 아들 은표의 이름을 부르는 아저씨를 보고, 그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32년 만에 '나'는 아저씨가 속으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지닌 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한 줄 요약
❶ (**너우네 아저씨**)는 한국 전쟁 때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한 것을 자랑스러워함.
❷ (**세대교체**)가 되면서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이 인정받지 못하게 됨.
❸ 아들 (**은표**)의 이름을 부르는 너우네 아저씨를 보고,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화함.

35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나'가 바라본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된 시대적 상황은 드러나지만,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상반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객관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작중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는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라는 생각을 하는 등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반감을 보이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는 공간의 이동에 관계없이 '나'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정·오 지름길
④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험의 지문 분량으로는 소설에서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는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된다'는 선지를 보면 지문에서 장면이 여러 번 바뀌었는지 떠올려 보고 가장 먼저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간혹 장면이 여러 번 교차되는 지문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선지의 뒷부분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352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서술자인 '나'가 너우네 아저씨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
서술자인 '나'는 너우네 아저씨의 아들 은표의 친구로,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 부재 '나'와 너우네 아저씨 사이의 ~~외적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나'가 너우네 아저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가 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와 너우네 아저씨가 갈등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주안점**: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는 점. 또는 중심이 되는 목표점.
- **술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말함. 또는 그런 말.

정·정·이

① 인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려 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는 아들을 두고 장조카만을 데리고 피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너우네 아저씨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저씨의 병문안을 간 '나'는 그가 사력을 다해 희미한 목소리로 피란 때 두고 온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연민을 가지게 된다.

오·오·이

② 교체 회상의 방식으로 ~~서술자 자신~~(너우네 아저씨)의 삶의 과정을 술회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의 삶이 아니라 너우네 아저씨의 삶에 대해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③ 부재 ~~구체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이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배경 묘사를 통해 이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④ 헛짚기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액자식 구성~~을 통해 동일한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액자식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35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자물쇠'가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훈장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너우네 아저씨를 보며 그의 슬픔을 알게 되고, '자물쇠'가 훈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자물쇠'가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자물쇠'는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만, '자물쇠'로 인해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나'와 너우네 아저씨의 삶의 성찰을 ~~이끌어 낸다~~.

죽음을 앞둔 너우네 아저씨가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물쇠'가 삶의 성찰을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

④ 사건 왜곡 '나'와 너우네 아저씨가 ~~갈등~~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과거에 '나'가 너우네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진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사건 왜곡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준다.

'자물쇠'를 통해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는 드러나지만, '나'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35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너우네 아저씨의 직업을 보여 준다.

너우네 아저씨는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사를 나갔는데, 이를 통해 아저씨가 자물쇠 행상임을 알 수 있다.

ㄷ. '나'가 너우네 아저씨를 판단하는 매개체이다.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자물쇠'를 통해 자신의 내력을 빛내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들 대신 조카를 데리고 피란 온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저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오·오·이

ㄴ. 사건 왜곡 너우네 아저씨가 ~~훈장으로 받은~~ 물건이다.

너우네 아저씨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는 것이나, 밤마다 '자물쇠'를 닦아 훈장처럼 빛낸다는 것은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된 서술이다. 그가 실제로 '자물쇠'를 훈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ㄹ. 헛짚기 너우네 아저씨와 ~~아들 은표의 관계를 상징~~한다.

너우네 아저씨는 한국 전쟁 때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와서 '자물쇠' 행상을 하며 장조카를 뒷바라지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내력을 자랑하듯이 '자물쇠'를 당당하게 달고 다녔다. 따라서 '자물쇠'가 너우네 아저씨와 그의 아들 은표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너우네 아저씨의 삶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배경이 되겠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너우네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 주고 칭송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세대교체가 되자 젊은 세대들은 아저씨의 행동을 비웃고 비난했다. 따라서 ㉮는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배경이 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고향에 대한 인물들의 그리움이 희미해지는 계기가 되겠군.
휴전 이후 세월이 흘러 세대가 교체되면서 고향에 대한 인물들의 그리움이 희미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사건 왜곡 너우네 아저씨가 자물쇠 행상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겠군.
너우네 아저씨는 자물쇠 행상을 하다가 점포를 운영하게 된 후에도 동향인의 모임에 나와 자신의 내력을 자랑했다. 그리고 ㉮를 계기로 자신의 내력이 칭송받지 못하자 너우네 아저씨가 풀이 죽었다고 했을 뿐, 이로 인해 자물쇠 행상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④ 사건 왜곡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면서 화합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정립되겠군.
이 글에서 전쟁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화합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⑤ 헛짚기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군.
너우네 아저씨는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을 드러내었지만, 이것이 ㉮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35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보류**: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 **전모**: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정·정·이

⑤ ⓑ를 ⓒ로 인식하면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나'는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너우네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 은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인식하면서,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품고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즉 '나'가 너우네 아저씨를 이해하게 되면서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로 인한 인물 간의 오해가 ⓑ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해소
ⓐ는 자식을 두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온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나'는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를 듣고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로 인해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상반 ⓐ를 통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로 인해 보류하고 있다.
변화시키고
ⓐ를 기억하는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가족을 버리고 왔으면서도 당당하게 군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를 통해 그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초라하게 살아왔다고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건 왜곡 ⓐ를 통해 ⓒ를 공감하게 되면서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를 통해 너우네 아저씨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를 ⓒ라고 인식하면서 너우네 아저씨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를 통해 ⓒ를 공감하게 된 것이 아니다.

④ 사건 왜곡 ⓑ를 통해 ⓐ를 회상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나'는 ⓑ를 듣기 전에 ⓐ와 관련된 과거의 일을 회상하였다. 그리고 ⓑ를 ⓒ라고 인식하고 ⓐ의 앙갚음을 완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35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 ⓑ)에는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을 떠나는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는 '나'가 기억하고 있는 은표 어머니의 목소리로, '나'는 ⓐ를 떠올리면서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온 일로 칭송받는 너우네 아저씨의 위대성이 가짜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보아 ⓐ에는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 ⓒ)를 통해 너우네 아저씨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있다.
죽음을 앞둔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 은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것을 ⓒ로 인식한다.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을 사지에 두고 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나'는 그의 진심을 깨닫고 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

35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혈육**: 부모, 자식, 형제 따위의 한 혈통으로 맺어진 육친.

정·정·이

① 상반 전통적 가치관에의 집착이 드러나 있다.

너우네 아저씨는 전통적 가치를 신봉하여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와서 장손을 뒷바라지했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북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르느라 가족과 이별하여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엿볼 수 있다.

③ 한국 전쟁이 낳은 아픔이 나타나 있다.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다시 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아픔이 드러나고 있다.

④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피란 올 때 두고 와서 다시는 만나지 못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나타나고 있다.

⑤ 내면적 고통이 드러나 있다.

겉으로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두고 온 것을 괴로워하며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나'는 풀이 죽어 가는 너우네 아저씨의 모습을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지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군.

동향인들 중 구세대는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와서 뒷바라지한 너우네 아저씨를 칭송하였지만,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를 비웃으며 비난하였다. 아저씨는 자신의 내력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풀이 죽어 가는데, 이를 통해 그가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형과 '나'가 고향을 잃은 비감을 느끼는 모습에서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슬픔을 엿볼 수 있군.

휴전이 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슬픔을 엿볼 수 있다.

② 너우네 아저씨를 비웃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기존 세대에서 인정받던 믿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노인들은 가부장적 세계관에 따른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을 칭송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너우네 아저씨가 신봉하던 도덕과 상관없는 세대인 젊은이들은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을 비웃거나 비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세대에서 인정받던 믿음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④ 너우네 아저씨를 칭송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세계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군.

노인들은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 온 너우네 아저씨의 행동을 칭송했다. 이는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세계관을 따르는 모습이다.

⑤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장조카를 통해 자신을 빛내려 하는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군.

'나'는 너우네 아저씨가 장조카를 데리고 나와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걸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빛내려 들었다고 생각했다.

361 답 (1) 분단 (2) 가부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너우네 아저씨와 '나'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다.

너우네 아저씨와 '나'는 한국 전쟁 때 피란했던 실향민으로, 휴전이 되었지만 고향의 남쪽에 쳐진 휴전선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2) 교체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보다 장조카를 우선시한 것을 통해 그가 (가부장)적 세계관과 사회적 평가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너우네 아저씨가 아들 대신 장조카를 데리고 피란하여 장조카를 공부시키기 위해 애쓴 것은,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 중요하다는 가부장적 세계관 때문이다. 너우네 아저씨는 이러한 가부장적 세계관의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혀 속박된 삶을 살게 된다.

39 속삭임, 속삭임

작품 분석 본문 174~177쪽

작가 최윤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대립을 초월하는 평화와 공존, 화해에 대한 지향
특징 ① 상징적 공간과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평화와 공존, 화해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② 현재('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와 과거(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가 교차하며 주제 의식을 형성함.

단숨에 읽기 어른이 된 '나'는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아재비에 대해 떠올린다. 그는 '나'가 태어날 무렵 집에 들어온 인물로,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가던 부모가 산 밑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돌봐 준 뒤 먼 친척이라 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그는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병치레가 많은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나'를 돌봐 주고 친구처럼 놀아 준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재비는 '나'를 위해 장마로 인해 생긴 웅덩이를 파서 호수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으며, '나'는 그 덕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북한에서 월남하여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아버지와, 남로당의 열성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재비는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었으나, 두 사람은 친형제처럼 지내며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느라 과수원을 떠나 살자, 아재비는 편지로 '나'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였다. '나'는 암호처럼 쓰인 그의 편지 심부름을 몇 번 하였는데, 그것은 만나지 못하는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재비는 오랜만에 집에 온 '나'에게 채송화 화분을 하나 주고는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성인이 된 후 '나'는 그와 아버지가 함께 있던 과수원의 풍경을 떠올리며, 공존과 화해에 대해 생각한다.

한 줄 요약

❶ '나'가 잠든 (**딸**)에게 평화에 대한 소망을 (**속삭임**).
❷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쓰여 있던 (**아재비**)의 공책과 (**편지**)에 얽힌 과거의 일을 떠올림.
❸ '나'는 (**과수원**)에서 (**아버지**)와 아재비가 이념 대립을 초월하여 공존하며 살았던 과거를 떠올림.

36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아버지와 아재비가 이념의 대립을 초월하여 함께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 생각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재비에 관한 과거에 대해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등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과수원과 그 주변 풍경에 대해 묘사하고는 있지만,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나'가 딸에게 속삭이는 장면, 아버지와 아재비가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제시되어 있으나, 인물 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부재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로 시간적 배경은 달라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⑤ 부재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초점 화자라고 하는데, 이는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작품 속 세계를 바라볼 때 나타난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나'로,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에서 본 이야기만을 서술하므로 초점 화자와는 관계없다.

36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작품 속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 ×)
1인칭 서술자인 '나'는 딸에게 자신의 소망을 속삭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와 아재비와의 기억에 대해 서술하는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2)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장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
지인의 과수원에 있는 현재의 장면,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있었던 과거의 장면 등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장면도 달라지고 있다.

(3) 부재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위와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아니라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인물들의 행위와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술하고 있다.

36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설적**: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것.
-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정·정·이

⑤ 부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와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 역설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그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들꽃'은 향기를 주는 존재로, '악취 나는 단어'와 대립한다. 이와 같은 '들꽃'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그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해 어느 시 어느 대륙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에서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고약한 냄새',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 '향기', '음악', '비릿한 냄새'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전쟁과 대립, 평화와 공존 등의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너를 위해 세상의 ~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 대신해 줄 수 있다면'과 같은 가정법을 통해 평화로운 이상적 사회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와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효과'로 구성된 선지의 경우, 표현이 본문에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그 표현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가 맞는지 판단해야 해요. 이때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먼저 제거하면, 효과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⑤도 본문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36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사**: 하나하나의 모든 일.
- **거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아재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겠군.

아버지는 아재비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아재비는 자신의 사고나 사상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재비의 신원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아재비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겠군.

아버지는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산책을 했다고 하였다. 이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아재비에게 의지했음을 보여 준다.

③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겠군.

성인이 된 후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과수원을 정리하러 갔다가, 호숫가에 앉아서 풍경들을 보며 애정 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 때문이었겠군.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판 것은 인력도 달리었거니와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진 빚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의 국민학교에서 반공 강연을 하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고 하였다.

366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아재비와 '나'의 아버지는 각자 다른 사상을 지녔음에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이였다.

'나'의 아버지는 반공 강연을 가끔 하던 반공주의자였고, 아재비는 남로당의 열성 간부 출신의 공산주의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일생의 의형제로 지냈으며,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재비와 '나'의 아버지는 이념의 대립을 초월하여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이였다.

오·오·이

ㄱ. 사건 왜곡 아재비는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을 잊고자 노력했다.

아재비의 공책에는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으며,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다고 하였다.

ㄷ. 사건 왜곡 '나'는 야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바라보며 황량하고 지난했던 과수원 생활이 떠올라 씁쓸해하고 있다.

'나'는 야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과수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고 있다. '나'는 아재비와 아버지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과수원에 남아 있는 그들의 속삭임이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한다고 하였다.

3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나'가 아버지와 아재비가 이념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었음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나'는 아재비의 '공책(ⓐ)'을 통해 아재비의 사고(이념)가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재비가 서로 다른 이념을 지녔음에도, 이를 초월하여 우정을 나눈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어른이 된 '나'가 위안을 받는 대상이다.

'나'가 ⓐ를 통해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헛짚기 '나'가 아버지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는 아재비가 쓴 공책이므로, ⓐ를 통해 아버지의 속마음을 깨닫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나'에 대한 아재비의 배려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는 아재비의 생각들이 일기처럼 담긴 것이므로, '나'에 대한 아재비의 배려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건 왜곡 '나'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대상이다.

'나'가 ⓐ를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36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기성**: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만큼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
- **조응**: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정·정·이

③ 헛짚기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어야겠다'라고 속삭인 것은 딸이 전쟁 같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혹은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반공주의자인 아버지와 공산주의자인 아재비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립해야 하지만, 그들은 속삭임을 나누며 평화롭게 공존하였다. '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는 말과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은 '전쟁'을,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평화'를 의미하므로, 서로 대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나'는 사상적 차이를 지닌 아버지와 아재비가 공존했던 '과수원'에서 '평화'를 느꼈는데, 이 '평화'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과 어울려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②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아재비의 속삭임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향기'와 '음악'은 후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전쟁의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화해와 공존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나'는 아버지와 아재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속삭임은 이념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의미하므로 '향기', '음악'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반공주의자인 아버지와 공산주의자인 아재비는 이념의 대

립을 초월하여 서로 의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갔다. 따라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아재비와 아버지가 교감을 나누며 살아갔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 사방에서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69 답 ㄷ, ㅁ, ㅂ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

ㅁ. 지상의 들꽃 이름

ㅂ.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너의 웃음

'나'는 딸을 위해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에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ㄷ)을 주고, 악취 나는 단어에 지상의 들꽃 이름(ㅁ)을 대신해 주고 싶다고 속삭인다. 또한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딸의 웃음(ㅂ)으로 비릿한 전쟁의 냄새를 지우기를 바란다. 이는 전쟁과 대립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공존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오·이

ㄱ. 상반 고약한 냄새

ㄴ. 상반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

ㄹ. 상반 악취 나는 단어

고약한 냄새(ㄱ),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ㄴ), 악취 나는 단어(ㄹ)는 모두 전쟁과 대립의 이미지로, '나'는 그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37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양**: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 **초례청**: 초례(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를 치르는 장소.

정·정·이

① 상반 ㉠은 부정적 대상을 막는 도구라는 점에서, 〈보기〉의 '쇠붙이'와 유사하군.

〈보기〉는 부정적인 세력이 물러가고 순수와 열정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1~2연에서는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의 순수한 정신만 남고 불순한 것은 가라고 외치고 있다. 3연에서는 우리 민족이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이념을 초월하여 화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4연에서는 우리 국토에서 민족의 순수한 마음만 남고 무력, 전쟁, 분단 등과 같은 불순한 것들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방패(㉠)'는 전쟁의 냄새를 막기 위해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대상을 막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쇠붙이'는 '무력, 전쟁, 불의' 등을 상징하므로, '방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은 화자가 지양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껍데기'와 유사하군.

'세상의 미운 단어들(㉡)'은 바꿔 버리고 싶은 대상이고 〈보기〉의 '껍데기'는 가 버리기를 바라는 대상이므로, 둘 다 화자가 지양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은 순수함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알맹이'와 유사하군.

'너의 웃음(㉢)'은 비릿한 냄새를 지워 줄 수 있는 향긋한 방취 살포제라고 하였다. 즉 부정적인 것들과 다른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알맹이'도 순수한 정신을 의미하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루는 장소라는 점에서, 〈보기〉의 '중립의 초례청'과 유사하군.

'과수원(㉣)'은 대립적 사상을 가진 아버지와 아재비가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던 곳이다. 〈보기〉의 '중립의 초례청'은 순수한 모습을 한 아사달 아사녀(우리 민족)가 혼례를 하는 곳이다. 따라서 둘 다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루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⑤ ㉤은 화합의 주체라는 점에서, 〈보기〉의 '아사달 아사녀'와 유사하군.

'그들(㉤)', 즉 아버지와 아재비는 서로 다른 이념을 지녔음에도 깊은 우정을 나누며 일생의 의형제가 되었다. 이처럼 ㉤은 화합을 이루는 주체라는 점에서 〈보기〉의 '아사달 아사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V 소설_예술, 전통

40 무영탑

작품 분석 본문 180~183쪽

작가 현진건
갈래 장편 소설, 역사 소설
주제 아사달의 비극적 사랑과 예술혼의 승화
특징 ① 인물의 내면 의식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됨.
② 불국사 석가탑(무영탑) 조성에 얽힌 설화를 모티프로 차용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함.

단숨에 읽기 백제 부여의 석공 아사달은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기 위해 서라벌로 뽑혀 온다. 아사달은 아내 아사녀를 그리워하며 다보탑을 2년 만에 세운다. 석가탑을 세우던 중 왕의 일행이 행차를 하는데, 이 일행 중 귀족 유종의 딸 주만이 아사달에게 마음을 빼앗겨 매일 불국사에 간다. 유종은 화랑도(국선도)를 숭상하는 경신을 사윗감으로 삼으려 하고, 경신과 정혼을 하게 된 주만이 아사달에게 도망을 가자고 청하다가 주만이 아사달을 사모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 한편 아사달을 기다리던 그의 아내 아사녀는 아버지 부석이 세상을 떠나자 무수한 고통을 겪으며 남편을 찾아 서라벌로 온다. 어렵게 불국사에 도착한 아사녀는 석가탑이 완성되면 그림자 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문지기의 말만 믿고 그림자 못가에서 석가탑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아사녀는 중과 뚜쟁이 노파의 행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자 못에 빠져 죽는다. 아내의 참변을 전해 들은 아사달은 슬피 울며 아사녀의 얼굴을 돌에 새기려 한다. 한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죄로 끌려간 주만은 아사달에게 자기 얼굴을 새겨 달라고 당부한 뒤 화형을 당하고 경신에게 구출되지만 숨을 거둔다. 아사달은 그림자 못가의 바위에 아사녀와 주만의 모습이 조화된 부처님의 얼굴을 새기고, 아사녀를 따라 그림자 못에 뛰어든다.

한 줄 요약

❶ (**당학**)이 나라에 퍼지는 것을 걱정하는 유종은 금지의 (**청혼**)을 거절하고 사위로 삼을 인물을 찾고자 함.
❷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으로 인해 고뇌함.
❸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예술적·종교적 승화를 통해 해소함.

37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낙관적**: ①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또는 그런 것. ② 앞으로의 일이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또는 그런 것.
- **물신주의**: ①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그것을 숭배하는 태도. ② 인간이 상품이나 화폐 따위의 생산물을 숭배하는 현상.
- **탈속**: ①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남. ② 속세를 벗어남.
- **도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정·정·이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고, 뒷부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며 돌에 아사녀의 얼굴을 새기는 과정에서 주만의 환영이 겹쳐 고뇌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인물들 간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③ 사건 왜곡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앞부분에서 유종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조정에서 일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분이 낮은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사달의 환영 속에서 발언하는 주만도 유종의 딸이므로 신분이 낮지 않다. 아사달은 천민 신분의 석공으로 신분이 낮지만,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아사달의 발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사건 왜곡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유종은 당학을 비판하고 있을 뿐 물신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며,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을 사윗감으로 구하고자 하므로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으로 인한 고뇌를 종교적·예술적으로 승화하고 있을 뿐, 물신주의를 비판하거나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사건 왜곡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기리며 돌에 얼굴을 새기는 작업을 하다가 주만의 환영이 떠올라 고뇌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사달은 돌부처를 완성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 권력과 사랑을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7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첨예한**: 상황이나 사태 따위가 날카롭고 격한.

정·정·이

(1) 대상의 부재로 인한 인물의 고뇌가 나타난다. (○, ×)

유종은 나라에 당학이 퍼지는 것을 걱정하며, 화랑도를 바탕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젊은 인재가 곁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며 돌에 새기는 작업을 하다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2) 헛짚기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 ⊗)

"한 나이나 젊었더면!"이라는 유종의 말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뜻을 펼치기 어려운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말이다. 이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라고 볼 수는 없다.

(3) 사건 왜곡 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 ⊗)

이 글은 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유종과 아사달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37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대**: ①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②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고립**: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 **타개**: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엶.

정·정·이

⑤ 상반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방도이다.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에게 그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 주만을 혼인시키자는 청을 받은 유종은 그 청혼을 거절하고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학파와 사돈을 맺고 싶지 않아서이며, 당학이 아닌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기의 뜻과 통하는 사윗감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은 유종이 대립하는 세력과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유종이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은 당학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학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하며,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또 예전의 늠름하고 씩씩한 신라의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에 흐른다고 하였으므로, 유종은 ㉠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뜻을 나눌 이가 없는 유종의 고립된 처지를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은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 있었지만 어느새 하나둘씩 없어지고 이제 홀로 남은 유종의 처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③ ㉢은 주류적 기풍에서 밀려나 버린 화랑도를 여전히 숭상하는 유종을 가리킨다.

㉢은 여전히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현재 유종은 주류 학파인 당학파의 세력에 밀려어 조정에서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④ ㉣은 유종이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다.

유종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재가 곁에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에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 하나 남은 희망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유종이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찾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3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A]는 자신을 돌에 새겨 달라고 간청하는 주만의 모습이며, [B]는 아사달과 함께할 때와 이별할 때 아사녀의 모습이다. [A]와 [B]에서 주만과 아사녀는 아사달의 곁에 실재하지 않으며, 아사달에게 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다. 떠나는 아사달을 대하는 모습은 [B]의 아사녀에게서 나타난다.

② 사건 왜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B]에는 아사달과 함께할 때와 이별할 때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이별의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사건 왜곡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B]에서 아사녀는 떠나는 아사달을 눈물 흘리며 배웅하고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약속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헛짚기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던 중에 [A], [B]와 같은 환영을 보게 된다. 아사달은 환영으로 나타난 주만과 아사녀의 얼굴을 돌에 새기고자 할 뿐, 그들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75 답 ㄷ,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A]에는 주만의 환영이 아사달에게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A]에서 주만의 환영이 나타나 아사달에게 "이 돌에 나를 ~ 청을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ㄹ. [B]에는 아사녀의 자태와 이별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B]에서는 아사녀가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손을 씻으며 웃는 모습, 아사달과 이별하던 날 밤 자는 척하던 모습, 아사달을 떠나보내며 버드나무 그늘에서 눈물을 숨기던 모습 등이 묘사되고 있다.

오·오·이

ㄱ. 헛짚기 [A]는 아사달이 [B]를 떠올리는 수단이 된다.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다가 [A]와 같이 주만의 환영을 보게 된다. 아사달이 고개를 흔들어 그 환영을 털어 내자, [B]와 같은 아사녀의 환영이 나타난다. 따라서 [A]가 [B]를 떠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ㄴ. 범위 오류 [A]는 아사달이 현재 겪는 사건, [B]는 아사달이 회상하는 과거의 사건이다.

[B]는 아사달이 과거에 보았던 아사녀의 모습을 환영으로 떠올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A]는 아사달이 현재 겪는 사건이 아니라 환영이다.

37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영전**: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 놓은 자리의 앞.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정·정·이

④ 사건 왜곡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중 누구의 영전에 작품을 바쳐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한다.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다가, 돌에 나타난 환영 때문에 아사녀와 주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주만과 아사녀의 환영 때문에 어떤 얼굴을 새겨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이지, 누구의 영전에 작품을 바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유종은 금지가 이끄는 학파가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한다.

유종은 금지가 이끌고 있는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이라고 하며 비판한다.

② 유종은 당학파와의 혼사를 거부하고 화랑도를 숭상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한다.

유종은 당학파인 금지의 청혼을 거절하고 다른 사윗감을 구하고자 한다.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③ 아사달은 자신을 돌에 새겨 달라고 간청하는 주만의 환영을 보고 번민에 빠진다.

아사녀의 환영을 떠올리며 돌 작업을 하던 아사달은 아사녀의 환영이 사라져 버리고 문득 나타난 주만의 환영을 보게 된다. 자신을 돌에 새겨 달라고 애원하는 주만의 모습을 보고, 아사달은 그 환영을 털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주만에 비해 초라한 아사녀의 자태가 아른거리면서, 아사달은 두 사람의 환영에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진다.

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 모양으로 변하자 아사달의 고뇌가 해소된다.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지자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로 녹아든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이 다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하자, 아사달의 가슴은 가을 물같이 맑아진다. 이를 통해 아사달의 고뇌가 종교적으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차용**: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정·정·이

⑤ 헛짚기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아사녀와 주만

이 글의 '새로운 돌부처'는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이 하나로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한 것을 석공 아사달이 새겨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는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두 여인의 얼굴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공이 자신의 환상에 떠오른 아내의 모양에서 변한 부처님의 모양을 조각으로 새긴 것은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료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이 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에서 죽었다. 이는 [자료 1]에서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고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 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이 글에서 아사달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돌에 담아 새기던 중, 문득 떠오른 주만과 아사녀의 환영으로 고뇌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 끝에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이 어우러져 변한 부처님 모양을 새겨 돌부처를 완성하게 된다. [자료 2]에서 석공은 아내의 모양이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환상을 경험하고,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부처님에게까지 천도하기 위해 조각을 완성했다. 따라서 둘 다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이 글에서는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나지 않은 유종과 주만 등의 이야기를 새로운 서사로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물에 비친 석공의 모습을 보는 곳이다. 그러나 이 글과 [자료 2]의 '못'은 아사녀가 죽은 곳이자, 아사달 또는 석공이 죽은 아내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진 곳이다. 따라서 이 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제시된 작품과 〈보기〉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찾는 문제에서는, 그중 하나만 틀린 내용이 있어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골라낼 수 있어요. ⑤와 같은 경우 글이 짧은 〈보기〉의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돌부처를 만든다는 내용은 [자료 2]에만 있고 [자료 1]에는 없으므로,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 받았다는 진술은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378 답 (1) 아사달, 주만 (2) [자료 2] (3) 아사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자료 1]의 석공은 윗글의 (아사달, 유종)이며, 윗글의 (아사녀, 주만)은/는 [자료 2]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자료 1]의 석공은 이 글에서의 아사달로, 이 글의 아사달도 석공이다. 또 이 글의 주만은 [자료 2]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 소설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

(2) 교체 윗글에서 아사달이 죽은 아내의 모습을 부처로 승화하여 돌에 새긴 것은 ([자료 1], [자료 2])에서 이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 아사달은 죽은 아사녀에 대한 그리움을 돌에 담아 새기다가, 아사녀와 주만의 얼굴이 하나로 녹아들어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환영을 본 후 그 얼굴을 새겨 돌부처를 완성했다. 이는 [자료 2]에서 당나라 석공이 아내의 모양이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환상을 본 후 부처 조각을 완성한 것과 그 내용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자료 2]를 통해 윗글에서 못 부근의 적막을 깨트린 '풍 하는 소리'는 (아사녀, 아사달)이/가 못에 몸을 던진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에서 당나라 석공은 조각이 완성된 후 자기 역시 못에 몸을 던져 죽은 아내의 뒤를 따랐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그림자 못에서 아사녀가 죽자, 아사달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돌부처를 새긴다. 돌을 다듬던 정 소리가 그치고 '풍 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깨트렸다는 것은, 돌부처를 완성한 아사달이 아내를 따라 못에 몸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칭송**: 칭찬하여 일컬음. 또는 그런 말.
- **간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 **추종**: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동의하는 학설 따위를 별 판단 없이 믿고 따름.

정·정·이

⑤ 헛짚기 아사달이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여기는 장면에서, 식민지 현실과 민족주의적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고뇌가 나타나는군.

아사달은 주만을 '구름을 헤치고 둥둥 떠오르는 햇발'처럼 강렬하고 화려하게 인식하는 반면, 아사녀는 '샐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로 초라하고 수수하게 인식한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내적으로 갈등하는 아사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 식민지 현실과 민족주의적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고뇌와는 관계없다.

오·오·이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를 닦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유종은 금지를 비롯하여 당학을 숭상하는 무리를 비판하며 신라의 기풍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화랑도를 숭상하는 사윗감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일제 강점기 현실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군.

아사달은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죽은 아내 아사녀에 대한 그리움을 돌에 담아 새기는 작업을 한다. 이는 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아사달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읽을 수 있군.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처님의 모양을 돌에 새기는 장면에서, 사랑과 예술혼이 융합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군.

이 글에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으로 내적 갈등을 겪던 아사달은 두 얼굴이 하나로 녹아든 부처님의 모양을 돌에 새긴다. 이는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에 이르는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1 가객

작품 분석

본문 184~187쪽

작가 황석영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특징 ① 1인칭 관찰자에서 전지적 작가로 시점이 변화함.
② 주인공이 죽은 후 그의 삶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단숨에 읽기 나환자이자 거지인 '나'는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나 거문고를 연주하며 신묘한 노래를 부르는 가객 수추를 본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받았지만, 그의 추한 외모를 보고는 혐오감을 느껴 그를 쫓아낸다. '나'는 수추와의 대화를 통해 음률을 완성한 순간부터 얼굴이 추해진 그의 사정을 알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 수추는 예술의 완성에만 골몰하며 모든 것을 미워하는 내적 갈등을 겪다가, 거문고가 부서져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수추가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감동과 위안을 받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이 못마땅한 마을의 최고 부자인 장자는 수추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강요하지만, 수추는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 수추가 죽은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믿지 않았고, '나' 또한 수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의 노래를 계속 부른다.

한 줄 요약

❶ 비렁뱅이 (**가객**)이 부르는 노래에 사람들이 감동받아 모여듦.
❷ 가객의 추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불쾌한 느낌을 받음.
❸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하며 노래에 집착하던 (**수추**)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평화로운 마음과 깨달음을 얻음.

38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가)는 작중 인물인 '나'가 수추와 저자 사람들 간의 사건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수추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술자의 위치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밖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저자 사람들이 수추의 노래를 듣고 모였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증오를 느낀 일이나, 강 건너편 광야에서 짐승들이 밤에는 수추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였다가 해가 뜨면 달아나는 일을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상반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수추가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을 때는 추악한 얼굴이었다가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는 환희의 얼굴이라고 하였으므로,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부재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가)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관찰을 통해 사건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며, (나)에서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81 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교체 (가)에서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다가, (나)에서는 (전지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면서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가)에서는 작품 속 인물인 '나'가 가객 수추와 저자 사람들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서술하고, (나)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수추의 행동과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3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초점이 되는 인물의 외양 및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노래하는 모습, 노래를 부르자 얼굴이 더욱 흉하게 일그러지는 모습, 시냇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 등에서 중심인물인 수추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다양한 작중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의 서술자인 '나'는 작중 인물이지만, (나)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중 인물이 아니다.

② 부재 서술자가 자신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 서술자는 자신이 아닌 수추를 둘러싼 갈등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 (나)에서 수추가 겪은 내적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전달하는 것은 작품 밖의 서술자이다.

③ 부재 이해력이 부족한 서술자를 내세워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서술자가 비렁뱅이 가객과 비슷한 처지지만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에서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대화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인물들의 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수추가 악기가 망가진 후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심리 변화가 나타나지만,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가)에서 가객 수추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만 추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후 (나)에서 수추는 시냇물에 비친 추악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노래에 집착한다. 이를 통해 수추가 예술과 외모의 괴리감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후반부에서 그는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환희와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에서 '나'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돈을 버는 수추에게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지만, 두 인물이 대립하는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② 사건 왜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나)에서 나타난 수추가 겪는 내적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문고 줄이 끊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해소되고 있다.

④ 교체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 (나)에서 수추는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서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환희를 느끼고 있다.

⑤ 상반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들고 있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수추의 노래에 매혹되어 모여들고 있다.

38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가)에는 '나'와 가객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

(가)에서 '나'는 노래를 대가로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추를 질투하고는 있지만, 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2) (나)에서 수추는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 (◎, ×)

(나)의 전반부에서 수추는 아름다운 노래와 추악한 얼굴의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더욱 노래에 집착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3) 상반 (가)의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주인공의 갈등을 해소(심화)해 주는 존재이다. (○, ⊗)

(가)에서 저자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를 듣고 감동했다가 그의 외모를 보고 언짢아한다. (나)에서 짐승들은 밤에는 수추의 노래를 들으러 모여들고 날이 밝으면 몸서리치면서 달아난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이러한 애증에 수추가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주인공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심화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8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에서 수추는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을 해소하고 있군.

(나)에서 수추는 악기가 망가져 노래를 못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한다. 이를 통해 수추는 스스로를 미워한 이유가 자만 때문임을 깨달으며 미워했던 마음을 해소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가)에서 수추의 노래가 변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군.

(가)에서 수추의 노래에 감동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역증을 낸다. 수추의 노래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기 전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③ 교체 (나)에 비해 (가)에서 노래에 대한 수추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군.

(가)에는 수추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드러날 뿐, 자신의 노래에 대한 수추의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사건 왜곡 (가)에서 드러난 수추에 대한 '나'의 원망이, (나)에서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군.

(가)에서 수추의 노래를 들은 '나'는 그에게 시샘과 선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에서는 '나'가 등장하지 않으며 '나'의 심리에 관한 내용도 찾을 수 없다.

⑤ 사건 왜곡 (가)에서 수추가 저자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나)에서 짐승들에게 위로받고 있군.

(가)에서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가 그의 얼굴을 본 이후 태도가 달라진다. (나)에서 짐승들도 밤에는 수추의 노래를 들으러 모여들었다가 날이 밝으면 모두 달아나 버린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짐승들에게 위로받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8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정·정·이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수추는 ㉠을 통해 음률을 완성한 자신의 얼굴이 추악함을 확인하였고, ㉡을 통해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신의 얼굴이 환희에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 ㉡은 모두 수추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 봄으로써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과 ㉡은 모두 수추가 얼굴을 비추어 보는 수단이지, 고난과는 관계가 없다.

③ 헛짚기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 모두 수추의 현재 얼굴을 비추고 있을 뿐, 과거 회상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이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수추가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 ㉡을 접한 것이다.

⑤ 헛짚기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에 비친 수추의 모습은 노래에 집착하는 추악한 얼굴이었지만, ㉡에 비친 수추의 모습은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난 환희의 얼굴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387 답 (1) 시냇물 (2) 거문고, 노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시냇물)은/는 수추가 얼굴을 비춰 봄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대상이다.

(나)의 전반부에서 수추는 시냇물에 비친 추악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고, 후반부에서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환희의 얼굴을 확인한다. 따라서 시냇물은 수추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거문고)이/가 망가진 사건을 계기로 수추는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수추는 거문고가 부서지자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로움을 얻게 된다.

38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절세가인**: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동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정·정·이

④ 수추가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수추는 거문고 줄이 끊어지자(㉮) 거문고를 내던져 완전히 망가뜨리고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노래로부터 놓여나 평화로움을 얻게 된 수추는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한다. 즉 ㉮는 수추가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수추가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되는 장치가 된다.

수추의 추악한 외모는 허물에 의한 것도 아니며, 수추가 허물을 벗어 외모가 아름답게 변한 것도 아니다.

② 헛짚기 수추가 지향했던 음률의 완성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수추는 거문고가 망가지기 전, 과거에 이미 음률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③ 헛짚기 수추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예측하는 암시가 된다.

수추는 ㉮ 이후 평온한 마음과 환희의 얼굴을 갖게 되므로, 불행한 운명을 예측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수추가 자연과 동화되어 본성을 회복하는 수단이 된다.

㉮를 계기로 수추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뿐, 이 글에 수추가 자연과 동화되어 본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38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형상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 특히 어떤 소재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른다.
- **연계**: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

정·정·이

④ 헛짚기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보기〉에서 언급한 예술가, 작품, 수용자를 이 글에 대응하면 각각 수추, 그의 노래, '나'를 포함한 사람들과 짐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추가 수용자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 수추의 노래 속에 사회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나'는 처음에는 수추의 허름한 모습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다리 아래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자극받아 일어서서 수추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수추의 노래에 매혹된 사람들이 돈을 던지는 것을 본 '나'

는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꼈고 그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수추의 노래가 가진 힘에 대해 깨닫고 있는 것이다.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에 감동받았지만, 그의 추한 얼굴을 본 다음부터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이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즉 저자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를 수추의 외모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숴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수추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미워했는데, 그럴수록 얼굴이 추악해졌고 노래에 집착하였다. 거문고가 망가진 후 수추가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자, 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용모와 노래 사이의 괴리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0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수추는 작품에 집착하였지만 이후 작품에 대한 신념이 바뀐 예술가이다.

(나)에서 수추는 노래에 집착하였지만, 악기가 망가진 후 노래에서 놓여나 평온을 얻게 된다.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그가 깨달음을 얻고 노래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ㄹ. 저자 사람들은 수추의 외모 때문에 그의 노래를 더 이상 아름답게 느끼지 않는 수용자이다.

저자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수용자이지만, 수추의 추한 얼굴을 본 후 노래의 신묘한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가려 사그라졌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교체 '나'는 수추의 노래에 자극받은 ~~예술가~~ 수용자이다.

'나'는 수추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몸을 휘감고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수용자이다.

ㄷ. 헛짚기 수추의 노래는 수용자인 짐승들과 예술가인 수추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짐승들이 수추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점에서 수용자로 볼 수 있으나, 짐승들과 수추가 상호 작용하여 수추의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흐르는 북

작품 분석 본문 188~191쪽

작가 최일남

갈래 단편 소설, 가족사 소설

주제 예술과 삶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극복

특징 ① '북'이라는 중심 소재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줌.
②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결말을 맞이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③ 전통 문화와 1980년대 대학 문화의 교점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의 의미를 보여 줌.

단숨에 읽기 민 노인은 평생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추구하여 북을 치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랑하였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수성가한 아들 민대찬은 민 노인을 마음속 깊이 원망하며 갈등한다. 어느 날 민 노인이 민대찬의 고향 친구들 앞에서 북을 친 일을 계기로, 민대찬은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며 민 노인이 북채를 잡는 것을 반대한다. 그 후로 민 노인은 손님이 집에 오는 날이면 매번 집을 비운다. 가족 중 유일하게 민 노인의 예술적 기질과 삶을 이해해 주는 손자 성규는 민 노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탈춤 공연에서 북을 쳐 달라고 부탁하고, 민 노인은 고민 끝에 성규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연습을 하며 성규와 친구들은 민 노인의 북소리에 대한 존경을 드러낸다. 민 노인은 대학생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예술혼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민 노인이 성규의 학교에서 공연한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송 여사는 민 노인을 나무란다. 민대찬은 민 노인을 공연에 참여하게 한 문제로 성규를 꾸짖고, 성규는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벌인다. 며칠 후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고, 이 소식을 들은 민 노인은 성규가 자신의 역마살을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북을 친다.

한 줄 요약

❶ 손자 (**성규**)의 탈춤 공연에 북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민 노인이 공연 (**연습**)에 참가함.

❷ 민 노인이 (**탈춤 공연**)에서 학생들과 함께 (**북**)을 치며 신명을 느낌.

❸ (**민 노인**)이 공연에서 북을 친 일을 알게 된 (**며느리(송 여사)**)가 그를 질책함.

39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권위적**: 권위(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를 내세우는. 또는 그런 것.
- **논평**: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여 비평함. 또는 그런 비평.

정·정·이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특히 민 노인의 시각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아이들의 칭찬에 대한 기쁨, 공연을 앞둔 설렘과 어색함, 북을 치고 난 후의 느긋함 등 민 노인의 내면 심리를 그의 입장에서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심리는 드러나 있으나,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느낌 등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서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 노인은 탈춤 공연에서 학생들과 함께 북을 치며 신명을 느끼는 한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는 자신감을 회복한다. 무대에 완전히 몰입한 채 열정적으로 북을 치는 민 노인의 행위는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인물의 성격과 행위의 괴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재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부재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대 배경을 알기 어렵다.

392 답 (1) 민 노인 (2) 송 여사, 성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민 노인)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사건 전반과 등장인물의 행동, 내면 심리까지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 노인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성규 친구들과의 만남, 탈춤 공연, 며느리와의 대화 등의 장면에서 민 노인이 느낀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 교체 전통 예술을 두고 갈등하는 민 노인과 (송 여사), 화합하는 민 노인과 (성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민 노인이 전통 예술인 북을 치는 것을 두고 며느리인 송 여사는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다는 이유로 못마땅함을 드러내며 민 노인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손자인 성규는 자신의 학교 탈춤 공연에 민 노인이 북을 쳐 줄 것을 청하고, 그의 예술 정신을 이해하며 함께 공연하는 등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9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념적: 관념(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인물의 행위와 심리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민 노인은 공연을 하기 전에 설렘, 어색함, 적막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 공연을 시작하자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신명 나게 북을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연에 몰입하게 되었다.

오·오·이

① 부재 주인공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진술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민 노인의 심리가 진술하게 드러나지만, 이는 서술자의 서술일 뿐이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작품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서술하고 있다. 민 노인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재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에 대해 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 전반과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고 있지만, 인물의 행적에 대해 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현재의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며, 과거 회상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헛짚기 인물을 둘러싼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과 상황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 노인이 북을 치는 탈춤 공연 장면이 실감 나게 묘사되고 있지만, 인물의 내면과 상황의 괴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 노인은 흥겨운 공연 분위기 속에서 북을 치면서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신명을 느끼고 있다.

39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영심: 허영(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榮華). 또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에 들뜬 마음.
- 유대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 향유: 누리어 가짐.

정·정·이

⑤ 헛짚기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집'은 민 노인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며느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북을 친 민 노인의 행위를 질책하고, 체면을 깎았냐는 민 노인의 말에 아시니 다행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통해 며느리가 평소에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위해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민 노인은 '막걸리 집'에서 손자의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며 '퍽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이라는 언급에서,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춤판'에서 구경꾼들은 탈춤 공연을 보며 내용에 따라 까르르 웃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④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춤판'에서 오차 없이 북소리가 꽂히고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가 적시에 흘러나오며 민 노인은 장단에 자신을 내맡긴다. '춤판'이 끝난 후 민 노인이 오랜만에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춤판'은 민 노인이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395 답 (1) 집 (2) 춤 (3) 춤 (4) 집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민 노인과 며느리의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 (집)

민 노인이 성규네 학교에서 북을 친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민 노인에게 이 일을 따지자, 두 사람은 언쟁을 하게 된다.

(2) 교체 민 노인이 북을 치며 신세대들과 어우러지는 공간 (춤)

민 노인은 '춤판'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져 신명 나게 북을 치고 있다.

(3) 교체 민 노인이 전통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 (춤)

'춤판'에서 북을 치며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공연에 몰입했던 민 노인은 오랜만에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춤판'에서 민 노인이 북을 치는 전통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교체 북을 치는 행위에 대해 며느리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공간 (집)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민 노인이 성규네 학교에 가서 북을 친 일을 두고 민 노인을 '죄인 다루듯' 힐문하고, 북을 치는 일이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3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민 노인이 잃었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게 됨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민 노인은 아이들과 연습을 하고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면서,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키고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낀다. 이는 민 노인이 잊고 지냈던 예술 정신을 북을 통해 회복하게 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 노인이 명예와 권위를 잃었거나 회복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민 노인이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며느리는 민 노인이 성규의 학교 아이들과 어울려서 북을 친 일을 힐난하고, 민 노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대꾸한다. 따라서 북은 민 노인이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민 노인이 예전부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아이들이 민 노인의 북소리를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리자, 민 노인은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라면서 자신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라고 말한다. 또 춤판에서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민 노인이 예전부터 북을 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역이라도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북채를 잡겠다는 부분, 공연에 설렘을 느끼는 부분, 북을 치면서 가락과 소리와 장단에 자신을 내맡겼다는 부분 등을 통해 북에 대한 민 노인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민 노인이 아이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이다.

민 노인은 학교 공연에서 북을 쳐 달라는 손자의 부탁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한다. 아이들은 민 노인의 북소리는 명인의 경지라며 존경심을 드러내며, 민 노인은 젊은이들과의 어울림이 편안하다고 느낀다.

⑤ 민 노인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갖게 하는 매개체이다.

민 노인은 공연에서 북을 치고 난 뒤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39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아지경**: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

정·정·이

⑤ 헛짚기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며느리가 북을 친 일로 죄인 다루듯 힐문하자, 민 노인은 이에 부아가 치솟아 대꾸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애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들은 함께 연습을 한 민 노인의 북소리에 대해 ㉠과 같이 말하면서, 북을 통해 예술혼을 발휘하는 민 노인에게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민 노인은 구경꾼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③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민 노인은 공연에 몰입하여 북을 치면서 가락과 소리,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 스스로를 잊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놓인다.

④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고 낭패의 그늘이 깔려 있다는 것에서 며느리가 민 노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8 답 (1) ○ (2) ○ (3) × (4) × (5) ○ (6) ○ (7) × (8)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북 치는 일에 격식을 갖추고자 한다. (○, ×)

민 노인은 단역이라도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다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연에서도 격식을 갖추어 차려입고자 한다.

(2) 학생들과 어울려 북을 친 일을 당당하게 여긴다. (○, ×)

성규 친구들과 북을 치며 어울린 것을 힐문하는 며느리에게 민 노인은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라고 대꾸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여기는 민 노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3) 사건 왜곡 자신의 북장단이 다른 악기의 소리에 묻히자 ~~절망한다.~~ (○, ×)

공연에서 민 노인은 꽹과리며 장구 소리에 묻혀 자신의 북소리가 제값을 하지 못해도 전혀 괘념하지 않았다.

(4) 사건 왜곡 청중들이 전통 예술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 ×)

탈춤 공연을 보는 구경꾼들이 원진을 이루고 공연 장면에 따라 까르르 웃기도 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청중들이 전통 예술에 관심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민 노인이 청중들이 전통 예술에 관심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5) 공연 연습 후 손자의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를 편안하게 생각한다. (○, ×)

민 노인은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퍽 편안하다고 느낀다.

(6) 오랜만의 연주를 학생들의 춤판에 끼어서 하게 된 것을 아쉬워한다. (○, ×)

아이들이 어우러진 춤판에 자신이 끼어서 공연한다는 사실에, 민 노인은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가락을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어 적막감을 느끼기도 한다.

(7) 사건 왜곡 학생들과의 공연으로 아들 내외의 체면을 깎게 된 것을 ~~미안해한다.~~ (○, ×)

민 노인이 "내가 늬들 체면 깎았냐."라고 대꾸한 것은 며느리의 힐문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반문한 것일 뿐, 아들 내외에게 미안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8) 사건 왜곡 자신을 주목하는 구경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 ×)

민 노인은 공연을 시작하면서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구경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공연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격식**: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
- **결정체**: 노력의 결과로 얻은 보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산물**: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②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에는 단역으로 북을 치더라도 모시 두루마기를 입어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민 노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에는 자신의 북가락을 아이들과의 춤판에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것, 즉 전통적 격식을 갖춘 무대에서 공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 노인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품위 있는 격식을 지키고자 하는 민 노인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예술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 있으며, 전통 예술이야말로 예술적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에서 전통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 노인의 태도를 읽을 수 있으나, 예술이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 있다는 태도는 이끌어 내기 어렵다.

③ 헛짚기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꿋꿋이 지켜야 한다.

ⓑ에서 예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지만, 예술이 시대의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 ⓑ에서 찾을 수 없다.

④ 헛짚기 예술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융합을 통해서 정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에서 학생들과 민 노인이 어울려 공연하게 된 것을 구세대와 신세대의 융합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통해 예술의 성취에 대한 민 노인의 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헛짚기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예술에 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4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책망**: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정·정·이

③ [A]와 달리 [B]에서는 민 노인이 상대방의 책망에 노여움을 느끼고 있다.

[B]에서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았다는 부분을 통해 민 노인이 자신을 책망하는 며느리에게 노여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에서는 아이들이 민 노인의 북 솜씨를 칭찬하고 있을 뿐, 책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A]와 [B] 모두에서 민 노인은 상대방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B]에서 민 노인은 북을 친 일에 대해 묻는 며느리에게 "그랬다. 잘못했니?"라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며느리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민 노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섭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A]와 달리 [B]에서는 민 노인이 상대방의 지적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다.

[B]에서 민 노인은 며느리가 아이들과 어울려 북을 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노여움을 느끼고 "하면 어때서."라며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다. 따라서 며느리의 지적을 창피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건 왜곡 [B]와 달리 [A]에서는 민 노인이 상대방의 동정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A]에서 아이들은 민 노인의 북 솜씨를 칭찬하며 존경심을 드러낼 뿐, 민 노인을 동정하지 않는다.

⑤ 사건 왜곡 [B]와 달리 [A]에서는 민 노인이 상대방의 말을 부인하며 자조하고 있다.

[A]에서 민 노인은 아이들의 칭찬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부인하거나 자조하고 있지 않다.

43 소리의 빛

작품 분석 본문 192~195쪽

작가 이청준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주제 한(恨)의 예술적 승화
특징 ①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② 연작 소설 「남도 사람」 중 한 편으로,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됨.

단숨에 읽기 전라남도 장흥의 탐진강가에 천 씨가 운영하는 궁벽한 주막이 있다. 이 주막에는 천 씨를 대신하여 손님도 맞고 주방 일을 맡아 하는 눈먼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시간이 날 때면 먼 산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늦가을 어느 저녁, 한 사내가 천 씨의 주막을 찾아와 술을 먹다가 눈먼 여인에게 소리를 청한다. 사내의 거듭되는 간청에 여인은 소리를 시작하는데, 여인의 소리를 들은 사내의 얼굴에는 차츰 고통의 빛이 어린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만큼 소리를 하고 난 여인이 사내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자, 사내는 소리에 얽힌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는다. 사내가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된다. 어머니가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된다. 이후 사내는 소리꾼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다가 도망을 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서, 소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사내와 여인은 밤새 소리를 나누며 서로 오누이임을 알게 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이튿날 사내는 말없이 주막을 떠난다. 여인도 사내와 얽힌 자신의 사연을 천 씨에게 말하고, 10년 넘게 머물던 주막을 떠날 결심을 밝힌다.

한 줄 요약
❶ '사내'가 '(**눈먼 여자**)'에게 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함.
❷ '사내'가 떠난 후 '여자'는 천 씨에게 그가 자신의 (**오라비(오라버니)**)임을 밝힘.

4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병렬적**: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의, 또는 그런 것.
- **다각적**: 여러 방면이나 부문에 걸친,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앞부분은 '사내(오라비)'와 '여자'의 대화 장면으로, '사내'는 자신의 과거 사연을 '여자'에게 전하고 있다. 뒷부분은 천 씨와 '여자'의 대화 장면으로, '여자'는 자신의 과거 사연과 지난밤의 이야기를 천 씨에게 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한 인물의 내적 독백이 아니라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 사이의 갈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내'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지난밤의 사건이며, '여자'와 천 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사내'가 떠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다. 즉 같은 장소인 주막집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④ 부재 서술자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하고 있다.
인물들이 각각 자신의 과거 기억을 풀어내고 있지만,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부재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 ×)
'사내'가 '여자'에게 하는 말과, 천 씨의 질문에 답하는 '여자'의 말을 통해 두 사람의 과거 사연이 드러나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2) 사건 왜곡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 ×)
'사내'와 '여자', 천 씨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공간은 모두 주막집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상반 작품 ~~속~~ 밖 인물인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 준다. (○, ×)
이 글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사건 전반과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변화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규명**: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정·정·이

① [A]와 [B]에서 기술된 사건 이후의 상황이, [C]에서 인물의 예술에 대한 관념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A]와 [B]에는 '소년의 어미'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후 '소리의 사내'가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난 사건이 기술되어 있고, [C]에는 그 이후의 상황이 '소리의 진짜 얼굴'에 대한 소년의 의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B]에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사건을 [C]에서 특정 인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B]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이 드러나고 있으며, [C]에서 [B]의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③ 교체 [A]와 [B]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C]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C]에서 '소리의 사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전전하게 된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을 [A]와 [B]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부재 [A], [B], [C]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A], [B], [C]의 사건은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며,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A], [B], [C]는 모두 서술자에 의해 과거의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A], [C]는 서술자, [B]는 등장인물의 말에 의해 과거의 사건이 전달된다.

40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사건 왜곡 '천 씨'는 '여자'를 찾아온 '사내(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중략〉 이후에 '천 씨'는 '여자'에게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천 씨'가 '사내(오라비)'를 보고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② '여자'와 '사내(오라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다.

'천 씨'는 '여자'와 '사내(오라비)'가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말에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내(오라비)'가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했다.

늦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주막에 찾아온 '사내(오라비)'는 주막집 눈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소리가 그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했다고 하였다.

④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사내(오라비)'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 부분에서 소년의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낳고 영영 눈을 감아 버린 후,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여기저기로 소리를 하며 밥 구걸을 다녔다고 하였다.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가 '사내'의 누이인 '여자'이므로, '여자'는 출생 직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천 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내(오라비)'가 떠난 후 '천 씨'가 '여자'에게 '어젯밤 손님(사내)'과의 일을 물어보자, '여자'는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풀어내고 있다.

40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곧이**: 바로 그대로.

정·정·이

ㄱ. '여자'는 '어젯밤 손님'이 자신의 오라비임을 확신하였다.

'여자'는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장단에 맞춰 소리를 할 때 그를 오라버니라고 부를 뻔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자'는 '손님'이 자신의 오라비임을 확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ㄴ. '손님'은 '여자'에게 소리를 청하고, 자신은 북으로 장단을 맞추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주막에 찾아온 사내가 '여자'에게 소리를 해 달라고 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채를 손님께 내어 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라는 '여자'의 말을 통해 '손님'이 북을 연주하며 '여자'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천 씨'는 '어젯밤 손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말을 곧이 믿지 않았다.

'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밝히는 '여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천 씨'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고 물어 대다 입을 다문 것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ㄹ. 사건 왜곡 '여자'와 '손님', '여자'와 '천 씨'는 주막집에 머물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였다.

'여자'와 '손님'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오누이지만, '천 씨'가 예전부터 '여자'와 인연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4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사내(오라비)'는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소리의 사내'와 같은 소리를 찾지 못하였겠군.

'사내(오라비)'는 '소리의 사내'에게서 보았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떠돌아다녔는데, '여자'에게서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소리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소리의 사내'와 같은 소리를 찾아 떠돌던 '사내'가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한 소리를 찾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여자'는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한을 품었겠군.

'여자'를 낳은 어머니는 출산 직후 사망했는데, '여자'가 그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한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상반 '사내(오라비)'는 괴로움과 고통을 잊기 위해 소리를 찾아 헤맸던 것이겠군.

'사내(오라비)'는 의붓아버지의 소리는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였으며,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소리를 찾아다녔다고 하였다. 괴로움과 고통은 햇덩이와 연결되므로, '사내'는 괴로움과 고통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건 왜곡 '사내(오라비)'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을 '여자'에게 털어놓았겠군.

'사내(오라비)'가 의붓아버지가 어머니를 죽게 한 것이라 여기고 원수를 갚기 위해 따라다녔으나 결국 도망을 쳤다는 것은 아버지가 '여자'에게 한 말이다. '사내'는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소리(예술)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⑤ 헛짚기 '여자'의 사연을 들은 '천 씨'는 비극적인 운명에 희생된 '여자'와 '사내(오라비)'의 삶에 분노했겠군.

'천 씨'는 '여자'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말을 멈추게 된다. 이는 사연을 들은 '천 씨'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천 씨'가 비극적 운명에 희생된 오누이의 삶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40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지: 몸이나 마음, 기술 따위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정·정·이

④ 헛짚기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 준 장단의 솜씨가 옛날의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햇덩이'는 이러한 '예술(가)의 길'과 관련 있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하였다. 즉 '예술(가)의 길'은 과정만 있을 뿐 끝이 없으므로, 노인이든 '사내'든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에서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오·이

① '사내'가 '여자'에게서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도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이 끝이 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보았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사내'는 '여자'의 소리에서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음에도 다시 길을 떠난다. 이는 '예술(가)의 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내'는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예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소리의 사내'이자 의붓아비인 노인이 '소리'를 할 때 눈에 '살기'를 보였지만, 그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하였다. 즉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해치는 것은 '소리'라는 예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내'는 노인을 해치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에서 '예술(가)의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며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햇덩이'를 품은 '소리'는 '괴롭고 고통스런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 없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녔다. 따라서 '소리'의 '고통스런 얼굴'은 '소리'에 닿고자 하는 '사내'의 '시련과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내'는 의붓아비이자 '소리의 사내'인 노인을 떠났지만,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그것을 '숙명'이라 여기고 있다. 이는 그가 예술가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08 답 (1) 운명적 (2) 추구 (3) 예술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의붓아비의 소리에서 햇덩이를 느꼈던 '사내'는 (충동적, 운명적)으로 그 소리를 찾아다닌다.

의붓아비의 소리에서 햇덩이를 느낀 '사내'는 그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하였다. 이후에 그는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을 '숙명의 태양', '소리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내'가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찾아다니는 '사내'의 모습은 예술이 끊임없이 (추구,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햇덩이를 찾아다닌 '사내'는 '여자'의 소리에서 햇덩이를 보았음에도 다시 길을 떠난다. 이러한 '사내'의 모습에서 예술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3) 교체 '사내'가 버리지 못하는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은 (도망자, 예술가)의 길이 시련과 고통의 연속임을 드러낸다.

'사내'는 소리의 진짜 얼굴에서 햇덩이를 느끼며,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 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소리를 찾아다닌 '사내'의 모습은 예술가의 길이 시련과 고통의 연속임을 보여 준다.

40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각**: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기약**: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주도적**: 주동이 되어 이끄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① 윗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소리에 얽힌 한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

이 글에서 '사내'는 어머니를 죽게 한 의붓아비가 소리를 할 때 살기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의붓아비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하였고, 의붓아비의 소리에서 느꼈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녔다. 이러한 내력에서 소리에 얽힌 '사내'의 한을 엿볼 수 있다. 〈보기〉에서 '송화'는 자신과 '동호'가 소리를 통해 한을 풀어 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 역시 소리에 얽힌 한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윗글에서는 〈보기〉와는 달리 '여자(송화)'가 한을 품게 된 내력을 부각한다.

'사내'

〈보기〉에서 '여자(송화)'가 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내력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사내'가 한을 품게 된 내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사건 왜곡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여자(송화)'와 '사내(동호)'가 뜨지 만날 기약을 하고 헤어진다.

이 글과 〈보기〉 모두 '여자(송화)'와 '사내(동호)'가 서로 오누이임을 알아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헤어진다.

④ 사건 왜곡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여자(송화)'가 '사내(동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의 혈육임을 알아챈다.

〈보기〉에서 '여자(송화)'는 자신의 소리가 '사내(동호)'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다고 말하였으나 처음 본 순간부터 혈육임을 알아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에서 '여자'는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오라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손님의 내력을 듣고 그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확신했다고 하였다.

⑤ 범위 오류 윗글에서 '천 씨'는 사연을 이끌어 내는 보조적 인물이지만, 〈보기〉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도적 인물이다.

이 글과 〈보기〉에서 모두 '천 씨'는 중심인물의 사연을 이끌어 내는 보조적 인물이다.

44 지상의 방 한 칸

작품 분석 ㉮ 본문 196~199쪽

작가 박영한
갈래 중편 소설
주제 예술가의 궁핍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특징 ① 주인공이 소설가인 자전적 성격의 소설임.
② '방'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③ 가난으로 인해 예술가가 겪는 정신적 위기와 방황을 고백적으로 서술함.

단숨에 읽기 '나'는 소설가로서 야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임신한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잡지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다.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도심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외양간이 딸려 있으며 아침이면 장닭이 우는 시끌벅적한 곳이다. '나'는 글을 쓸 때 행복감을 느끼며 고요와 평안함 속에서 예술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나, 집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점차 작품을 쓸 의욕과 열정을 상실하게 된다. 급기야 잡지사의 원고 마감에도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나'는 집필을 방해하는 소음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한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조용한 집을 찾기 위해 '나'는 한여름 뜨거운 볕 아래에서 만삭인 아내와 어린 딸을 이끌고 여기저기 집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드디어 조용한 집을 발견하지만, 강행군으로 인해 아내는 심장이 약한 아이를 낳아 결국 아이를 잃고 만다. 그 사실에 상심한 아내마저 건강을 잃었다가 시간이 흘러 겨우 건강을 회복한다. 그 후 '나'는 미술가인 친구와 만나, 그 친구로부터 방 한 칸을 구하는 데 괜한 힘을 썼다는 핀잔을 듣게 된다. '나'는 발끈하여 방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싶었으나 대꾸하지 못한다. 새로 구한 집도 역시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나'는 결국 소음이 가장 적은 다락을 집필실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 한 평 반 정도의 다락방을 지상의 유일한 방 한 칸으로 여기며,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다락에서 내려오지 않고 글을 쓴다.

한 줄 요약
❶ (**소설가**)인 '나'는 주변 상황의 방해와 잃어버린 열정 때문에 억지로 글을 쓰고 있음.
❷ '나'는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함.
❸ '나'는 (**방**) 한 칸을 구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유 형)**)의 예술관에 안타까움을 느낌.

4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처지와 내면을 고백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작가로서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입체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집과 그 주변 공간에서 유 형이 작품전을 하는 전시장으로 공간적 배경이 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나'가 주변 환경 때문에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조용한 집을 알아보아 이사를 한 것, 유 형의 작품전이 열리는 전시장에 찾아간 것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④ 부재 ~~집단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예술관에 있어서 '나'와 유 형의 차이가 드러날 뿐, 집단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41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드러낸다. (○, (×))
유 형의 말이 직접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2) 부재 장면에 따라 서술자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 (○, (×))
예술가의 삶에 대하여 서술자인 '나'의 고민과 관점이 드러나지만, 장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
(3) 서술자인 '나'가 작가로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과 심리를 서술한다. ((○), ×)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이자 소설가인 '나'이다. '나'는 열정을 잃고 억지로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41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었다.', '쓸모없는 비계로 가득 찬 ~ 소설적 비재 탓이었다.'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정 없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서술자인 '나'의 관점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방을 구하는 일에 대한 유 형의 생각과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인물의 내면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나'의 내면에 변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③ 부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보여 주고 있다.
유 형의 발언만 있을 뿐, '나'와의 대화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재 중심인물의 독백을 반복하여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심인물인 '나'의 독백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41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활 전선**: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갖은 애를 쓰는 사회적 활동 공간.
- **추구**: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좇아 구함.

정·정·이

④ 상반 ㉣: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유 형의 태도는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유 형이 '자가용을 굴리는 편한 상식인들'과 상대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따라서 그가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은 소설가로서 가졌던 야심과 의욕을 실현할 만한 글을 쓰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 창작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아랫마을을 출입하며 쓸데없이 술을 마시고 송아지 자랑을 떠벌리는 것은 예술적 삶과 거리가 먼 생활인데, 이는 '나'가 글쓰기와 거리가 먼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 대작을 쓰겠다는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문인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와 같은 일을 하던 동지들이 끼니에 덜미를 잡혀 출판사, 기업체, 신문 연재, 대학원 등으로 갔다는 것은, 문인들이 생계를 위해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⑤ ㉤: 추구하는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에 놓인 고통을 외면해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유 형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유 형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은 그러한 유 형의 태도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4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근황**: 요즈음의 상황.
- **궁극**: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

정·정·이

ㄴ. ㉣에서 유 형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나'의 판단이 드러난다.
㉣에서 '나'는 유 형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오·오·이

ㄱ. 헛짚기 ㉢은 '나'와 달리 꿈을 이루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다른 문인들의 근황을 나타낸다.
㉢은 대작을 쓰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다른 작가들의 상황을 보여 준다. ㉢의 문인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문인들이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먼 일임을 알 수 있다.

ㄷ. 상반 ㉤에는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를 궁극의 목표로 두지 않는 유 형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는 유 형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목표이다. '나'는 유 형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리려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41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와 ⓑ가 연결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준다.

ⓐ와 ⓑ는 연재가 파탄에 직면하고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나'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다. '나'는 그 문제를 집 주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아니라고(ⓐ) 하며 쓸모없는 생각들로 가득 찬 '나'의 무능을 탓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아니라고(ⓑ) 하며 경기 불황, 사회적 격변, 대중문화의 확산 등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이렇듯 ⓐ와 ⓑ가 연결되면서, '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라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나'의 인식이 드러난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와 달리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고 있으므로 자기 성찰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② 헛짚기 ⓑ는 ⓐ와 달리 인물이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와 ⓑ는 창작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보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들이다. '나'가 추구해 온 예술 세계가 부정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③ 헛짚기 ⓐ에서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준다.

ⓐ는 개인적 차원에서, ⓑ는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의 책임을 찾고 있으나, 개인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의 의지와는 관계없다.

④ 헛짚기 ⓐ에 이어 ⓑ를 제시하여, 인물의 현실 인식이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와 관련하여 '나'는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핀 뒤, 이를 부정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며 긍정적 관점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41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외면**: ①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림. ②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함.
- **열악한**: 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쁜.

정·정·이

⑤ 헛짚기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주인공의 모습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나'가 친구 유 형에게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은, 자신부터가 충분히 신념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소설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주인공('나')은 여성지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소설가로서, 주변 분위기, 생활비의 중압, 여성지 연재이니 괜찮을 거란 속계산으로 인해 소설의 치열성을 많이 빼앗겼다. 그리고 그렇게 연재한 작품은 원고 매수나 채우려는 군더더기로 인해 어중간한 것이 되었다고 하였다.

② 아이들 극성으로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 나기 일쑤였던 붙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주인공의 열악한 상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군.

붙들네로 집을 옮긴 '나'는 아이들의 극성으로 인해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 나는 등 창작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현실의 열악함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나'는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주변 분위기와 개인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글쓰기가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이는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는 고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다수의 대중이 전자오락실과 TV의 스포츠 화면 등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품었던 의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

소설에 기대를 잃은 다수의 독자 대중은 전자오락실로, TV의 스포츠 화면으로 달아났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상황은 '나'를 포함한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17 답 (1) 방 한 칸 (2) 치열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곤궁**: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범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마구 쏟아져 돌아다님.

정·정·이

(1) 교체 (방 한 칸, 전시장)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은 열악함 속에서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보기〉에 따르면 소설가인 '나'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 '나'는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름 내내 고군분투하는데, 이는 소설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체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대중문화의 범람 등의 상황은 예술가의 (상업성, 치열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나'는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 처음에는 주변의 분위기, '나'의 무능함을 탓하다가 이어서 사회적인 상황, 즉 물질적 곤궁, 정치적 격변, 대중문화의 범람 등을 원인으로 떠올린다. 〈보기〉에서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의 치열성을 희석시키고 그들을 상업주의에 물들게 하여 예술가로서의 의욕이 약화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4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아내에게는 말없이 이사 갈 생각을 하는 윗글의 '나'~~와,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 보는 〈보기〉의 화자의 모습에서 가족애가 짙게 드러나는군.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 보는 〈보기〉의 화자의 모습에서는 고단한 삶을 사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나'가 아내에게 말도 못 꺼내면서 창작에 집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 갈 생각을 하는 모습에서는 가족애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잡지사에서 계약금을 타 쓴 윗글의 '나'와, 원고지를 메꿔 밥을 비는 〈보기〉의 화자는 모두 창작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있군.

이 글의 '나'는 연재소설을 써 주기로 하고 잡지사에서 계약금을 받아서 썼다고 하였고, 〈보기〉의 화자는 원고지에 글을 써서 밥을 얻는다고 하였다.

② 생활비의 중압을 느끼는 윗글의 '나'와,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없다는 〈보기〉의 화자에게서 예술가가 처한 열악한 생활상이 부각되는군.

이 글의 '나'가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과, 〈보기〉의 화자가 가족이 지낼 방 한 칸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통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예술가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생활을 보여 준다.

④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윗글의 '나'와, 곧 남이 누울 방 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보기〉의 화자를 통해 삶의 공간이 지닌 중요성을 엿볼 수 있군.

이 글의 '나'는 집 주변의 상황 때문에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없어 애를 태우다가,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름 내내 고군분투한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현재 지내는 방도 곧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근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삶의 공간이 지닌 중요성이 드러난다.

⑤ 소설을 쓰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기는 윗글의 '나'와, 원고지 칸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다고 하는 〈보기〉의 화자는 모두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군.

이 글의 '나'는 자기 자신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창작의 치열성과 열정을 잃고 억지로 글을 쓰는 고통스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가 원고지의 칸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지를 글로 채워야 하는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극·복합

45 산허구리

작품 분석 본문 202~205쪽

작가 함세덕
갈래 단막극
주제 어촌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
특징 중심인물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음.
단숨에 읽기 일제 강점기 어촌, 노어부는 고기를 잡다가 상어 이빨에 왼쪽 다리를 잃는다. 노어부의 큰아들과 큰사위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노어부와 그 가족들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 복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풍랑에서 가까스로 살아온 어부들에 의해 복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어부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기고, 바위틈에 낀 복조의 시체가 건져지자 노어부의 처는 결국 실성한다. 이 모습을 본 막내아들 석이는 가난의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아침이 밝아 온다.

한 줄 요약
❶ 동리 사람들은 (복조)의 시체를 보고 슬픔에 빠짐.
❷ (처)는 복조의 죽음으로 실성함.
❸ 윤 첨지가 (복조)의 초상 준비를 하자고 함.

4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윤 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윤 첨지가 노어부의 하소연을 들어 주는 부분이나, 복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신의 일처럼 장례 준비에 나서는 모습에서 윤 첨지가 노어부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남매)이다.
석이가 복조를 작은형이라고 하고 복실을 누나라고 하는 것에서 복조와 복실은 남매임을 알 수 있다.

② 사건 왜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석이는 복조를 붙들고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이가 복조의 죽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헛짚기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분 어미의 친정이 항구에 있다는 것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또한 분 어미가 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분 어미는 처의 딸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사건 왜곡 '복실'은 ~~행복하기만~~(궁핍)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떠올리고) 있다.
복실은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라고 하며 어린 시절의 궁핍함을 떠올리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노어부'와 '처'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호칭을 살펴보면 복조, 복실, 석이, 분 어미가 남매 사이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①과 ④를 답에서 바로 제외할 수 있어요.

420 답 (1) 남매 (2) 분 어미 (3) 침착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복실'과 '석이'는 (남매 이웃)이며, '석이'와 '복조'는 형제이다.
복실과 석이가 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석이가 복실에게 '누나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복실과 석이가 남매인 것을 알 수 있다.

(2) 교체 '(분 어미 처)'는 '복조'의 죽음을 허탈하게 받아들이며 삶과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분 어미는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싼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 가듯 휙 쓸어 가면 고만이야.'라고 하며 복조의 죽음을 허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라고 하며 삶과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교체 북망산으로 가자는 '노어부'에게 초상 준비를 하라며 상엿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윤 첨지'가 (침착 냉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촛불 하나 안 켜고 관도 없이 북망산으로 가겠다는 노어부에게 윤 첨지는 초상 준비를 하라며 상엿집에 다녀오겠다고 한다. 이것은 복조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 주자는 의미로, 윤 첨지가 일의 절차를 챙겨 죽은 복조에게 예를 갖추려는 침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42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낙망**: 희망을 잃음.

정·정·이

① 상반 '처'는 자기 아들이 사망했음을 ~~부정~~(인정)하고 있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 거기서 팔다리 쭉— 뻗고 눈감었을 거야.'로 보아, 처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복조임을 부정하고 있을 뿐, 복조의 죽음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윤 첨지'는 시신의 발견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찾었으니 다행이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노어부'는 '복조'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망하고 있다.
복조가 시신이 되어 돌아오자 노어부는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라며 낙망하고 있다.

④ '석이'는 '노어부'에게 모친을 만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복실'은 자기 가족이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굴뚝에 연기 한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추후**: 일이 지나간 얼마 뒤.

정·정·이

② 사건 왜곡 ㉠과 ~~정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을 통해 복조의 시체를 물가에서 찾아 노어부의 집으로 옮겨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을 통해 복조의 시체를 범바위 틈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정보는 상반된 정보가 아니다.

오·오·이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복조의 송장을 옮겨 오는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복조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퇴장한 처가 무대 밖에서 웃고 우는 사건을 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석이가 ㉣에서 전달하는 처의 행동은 ㉢과 연관되어 관객에게 무대 밖의 사건을 환기하고 있다.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통해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음을 알 수 있다.

42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위**: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정·정·이

(1) ㉡은 동리 사람들이 '복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장소에 대한 정보이다. (○, ×)
㉡을 통해 쇠뿌리로 배를 내다가 범바위 틈에 끼어 있는 복조의 시신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2) 범위 오류 ㉢과 ~~달리~~ ㉣은 무대 밖 사건으로, ㉢과 ㉣은 ~~모두~~ '석이'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 ×)
㉢과 ㉣은 모두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은 청각적 효과를 통해 극이 진행되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에 관객에게 전달되었지만, ㉣은 처를 따라 나갔던 석이가 집에 돌아와 복실에게 한 말을 통해 전달되었다.

42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광경**: 벌어진 일의 형편과 모양.
- **지시문**: 희곡에서, 몸짓이나 무대의 장치, 분위기 따위를 나타내는 부분.

정·정·이

① 환상적인 광경을 풀어놓는 인물의 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의 비참함을 부각하고 있다.
복조가 처참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자 처는 이를 부정하고 실성한 듯 환상적인 바닷속 광경을 풀어놓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현재 상황의 비참함이 부각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지시문을 통해 ~~무대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인물들의 생활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 지시문을 통해 무대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지시문으로 나타내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첨지가 양편에서 꽉 붙들고 들어온

다.'와 같이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지시문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인물의 발언에 관용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상대 인물과의 ~~감정적인 대립을 표현~~하고 있다.
윤 첨지가 '참을 인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와 같은 말을 했지만, 이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지 감정적 대립을 표현한 말은 아니다.

⑤ 헛짚기 '간(間)'으로 장면을 분리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의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간(間)'으로 장면에 사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전후의 장면은 연계성 있게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4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
괭이는 처와 노어부의 갈등을 심화시켜 표면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처는 복조의 죽음에 대한 심경을 직접 토로하고 있다.

오·오·이

①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노어부가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하더니 괭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관객들이 괭이에 주목하게 된다.

②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
노어부가 괭이를 들고 나오자, 처는 뒤따라 달려들어 괭이를 잡아 빼앗는다.

③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
노어부가 괭이를 들고 나오자, 처는 노어부의 머리를 때려 쓰러트리고 괭이를 잡아 빼앗으며 노어부와 갈등하고 있다.

⑤ ⓔ 관객들은 괭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노어부에게서 괭이를 빼앗아 밖으로 뛰쳐나가는 처의 모습을 통해 처가 괭이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들을 잃은 처의 심정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426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노어부'가 괭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괭이는 서사에서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게 된다.
괭이는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노어부와 처가 갈등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

ㄹ. '처'가 '복조'를 기다리러 갈 때 괭이를 들고 간 데에서 괭이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다.
처는 복조가 사용하던 괭이에 집착하고 있다.

오·오·이

ㄱ. 헛짚기 '처'는 '노어부'로부터 괭이를 빼앗음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다.
처는 괭이를 빼앗고 나서도 복조의 죽음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ㄷ. 헛짚기 '노어부'가 괭이를 들고 나온 까닭은 상실감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노어부의 대사로 보아 노어부가 복조가 사용하던 괭이를 들고 나온 것은, '자식 다— 잡아먹'은 아비인 자기 자신과 비극적 현실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 노어부는 슬픔에 빠져 있으며, 가족에게 희망을 주려는 행동은 보이고 있지 않다.

42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탄: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함. 또는 그 탄식.

정·정·이

⑤ 헛짚기 '노어부'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일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에 노어부가 최후의 순간까지 고기잡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노어부'의 삶에 고난을 야기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라고 한 것에서 고기잡이가 노어부의 한쪽 다리를 잃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점에서 고기잡이가 자식들을 죽게 만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노어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온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었다는 것으로 볼 때, 고기잡이가 노어부 가족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노어부'로 하여금 비탄의 정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고기잡이 나갔던 아들 복조의 죽음으로 인해 노어부는 비탄에 잠겨 있다.

④ '노어부'의 아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는 점으로 보아, 고기잡이가 노어부의 아들인 복조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42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는 절망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공간이다.
분 어미는 '더 있는댔자 가슴만 졸이지.'라고 하며 항구(㉯)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구(㉯)는 절망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가족의 파괴된 ~~삶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북망산(㉮)은 죽은 복조를 묻기 위해 가려는 곳으로, 가족의 파괴된 삶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의 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와 ㉯는 모두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한 이상적 공간~~이다.
북망산(㉮)과 항구(㉯) 모두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한 이상적 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와 ㉯는 모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차원의 삶~~이 강조되는 공간이다.
북망산(㉮)과 항구(㉯) 모두 공동체적 차원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와 ㉯는 모두 곤궁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의지~~가 부각되는 공간이다.
북망산(㉮)과 항구(㉯) 모두 자기 성찰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46 제향날

작품 분석 본문 206~209쪽

작가 채만식
갈래 장막극
주제 부정적 세력에 대한 저항 의지
특징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함.
단숨에 읽기 1937년, 외할아버지(김성배)의 제향날에 찾아온 외손자 영오가 외할머니 최 씨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자, 최 씨는 남편(김성배)의 이야기를 해 준다. 김성배는 동학 농민 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하고, 영오의 외삼촌인 김영수는 3·1 운동을 이끌다가 쫓기는 몸이 되어 상하이로 떠난 뒤 소식이 없다. 최 씨의 이야기가 끝나 갈 무렵 영오의 외사촌 형인 상인이 영오에게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이야기해 주며 집안 대대로 간직해 온 불씨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최 씨는 대문을 나서는 상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영오는 최 씨에게 상인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최 씨는 그저 앞날의 희망만을 이야기한다.

한 줄 요약

❶ 현재 – 최 씨가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잡혀간 날의 이야기를 함.
❷ 과거 – 수령이 동학당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함.
❸ (**현재**) – 최 씨가 영오에게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의 이야기를 함.
❹ (**과거**) – 병정이 동학당원들의 처형을 준비함.

4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추정**: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정·정·이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최 씨는 영오에게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동학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처형당했던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부재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과 ㉡에서는 최 씨가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동학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처형당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최 씨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④ 상반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넋두리에 해당한다.
㉠에 대해 영오가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은 영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따라서 영오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사건 왜곡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최 씨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과 ㉡은 ~~각각 다른 날~~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다. (○, ⊗)

영오가 '그날 외할아버지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과 ㉡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2) 범위 오류 ㉠은 이 작품의 제목인 '제향날'과 관련이 깊지만, ㉡은 ~~무관하다.~~ (○, ⊗)

㉠과 ㉡은 하나의 사건으로, 영오의 외할아버지(김성배)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므로 ㉠과 ㉡은 모두 '제향날'과 관련이 깊은 사건이다.

(3) ㉠과 ㉡ 모두 영오의 외할아버지인 김성배와 동학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 ×)

㉠과 ㉡은 모두 영오의 외할아버지와 두 사람의 동학당원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43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집행**: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정·정·이

⑤ 헛짚기 영오는 최 씨로부터 뇌물을 먹은 관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였다.

영오가 최 씨로부터 외증조할아버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흠씬 먹은 관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그들에 대해 분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최 씨는 임신한 몸으로 사지에 놓인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임신한 몸으로 사정 건너편 과녁에 선 남편을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었다.

② 수령은 김성배를 비롯한 죄수들에게 최후의 발언을 할 것을 명했다.

수령은 죄수들에게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라고 하며 최후의 발언을 할 것을 명하고 있다.

③ 김성배는 다른 죄수와 달리 목숨을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살려 달라고 하는 다른 동학당원과 달리 김성배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④ 참령은 병정에게 죄수들을 사형이 집행될 장소로 데려가도록 명했다.

수령이 처형을 명하자 참령이 병정들더러 죄수들을 형장으로 데려가도록 명하였다.

43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반**: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

정·정·이

② 사건 왜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는 무대 장면을 과거의 장면에서 영오와 최 씨가 등장하는 현재의 장면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모친은 과거의 장면에 등장하며, 현재의 장면에서는 최 씨만 등장할 뿐 모친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는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는 무대의 불을 껐다가 밝히면서 장면을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의 암전을 기점으로 최 씨와 영오가 퇴장하고 죄수들과 병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직전 장면은 수령이 동학당원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고, ⓒ 직후 장면은 처형장에서 동학당원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의 장면이다. 두 장면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다.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 직전 장면은 사정에서의 일이고, ⓒ 직후 장면은 사정 건너편 과녁이 있는 곳에서의 일이므로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④와 ⑤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만 다르고 앞부분은 같으므로 함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 직전과 ⓒ 직후 장면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두 선지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43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 ⓑ, ⓒ를 전후하여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전환된다.

ⓐ 직전 장면은 현재(제향날) 최 씨의 집에서의 상황이고, ⓐ 직후 및 ⓑ 직전 장면은 과거 사정에서의 일이다. 그리고 ⓑ 직후 및 ⓒ 직전 장면은 다시 현재 최 씨의 집에서의 상황이며, ⓒ 직후 장면은 과거 처형장에서의 장면이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 ~~ⓑ~~, ⓒ를 전후하여 시간이 ~~모두~~ ⓐ, ⓒ만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된다.

ⓐ는 '현재에서 과거', ⓑ는 '과거에서 현재', ⓒ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적 배경을 전환하는 효과를 낸다.

③ 헛짚기 ⓐ, ⓑ, ⓒ 모두 직전 상황이 ~~완결된 뒤~~에 나와, 극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 ⓑ, ⓒ 모두 상황이 완결되지 않은 채, 직전 상황이 어느 정도 절정에 올라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을 때 나온다. 따라서 극적인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계적**: 위치나 지위의 품계적인 것.

정·정·이

④ 헛짚기 제2장에서 제3장으로 넘어갈 때에 지시문으로 무대의 조명이 밝아졌음을 드러냄으로써 ~~날이 밝았음~~이 표현되고 있다.

무대가 암전되었다가 다시 밝아지면서 제3장이 시작하는 것은, 날이 밝았음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과거로 바뀐 무대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오·오·이

① 제2장에서는 상위자의 발언이 하위자에 의해 반복되면서 인물 간의 위계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말을 해라.', '처형해라.'와 같은 수령의 발언이 급창에 의해 '아뢰랍신다—.', '처형하랍신다—.'와 같이 반복되면서 위계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② 제2장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드러나는 특정 인물의 거듭된 행위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사령이 김성배를 비롯한 죄수들의 상투를 잡아 제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③ 제3장에서는 특정한 소재 및 그와 관련된 발언을 통해 인물들이 맞이한 최후가 암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섬거적'이 언급되면서 '겨우 섬거적 한 닢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라는 병정의 발언을 통해 세 명의 죄수들이 맞이한 최후가 암시되고 있다.

⑤ 제2장과 제3장은 모두 지시문을 통해 인물이 등장하거나 퇴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죄수들과 호송인들이 상수(무대의 오른쪽 방향)로 퇴장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병정이 하수(무대의 왼쪽 방향)로 등장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43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기**: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
- **관부**: 정부나 관청.

정·정·이

④ 헛짚기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최 씨는 과거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처형당한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현재와 과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씨를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 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영오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최 씨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 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외할아버지의 제향날을 기해 최 씨가 영오에게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들려줌으로써, 외할아버지의 제향날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

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정기정 재판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동학 농민 운동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작가는 불의한 현실에 저항한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는 1937년의 독자가 읽게 함으로써 불의한 현실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6 답 (1) 동학 농민 운동 (2) 동일성 (3) 외할아버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동학 농민 운동, 3·1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김성배가 동학당원들과 함께 잡혀갔다는 점과, 〈보기〉에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교체 '극 중 현재'와 '회상된 과거 장면'의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 특수성)을 암시한다.

이 글은 과거 동학 농민 운동과 연관되어 김성배가 처형당한 일을 현재 김성배의 제향날에 이야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3) 교체 작품의 제목이자 '극 중 현재'의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 '제향날'은 영오의 (외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로, 과거와 현재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 글의 제목인 '제향날'은 영오의 외할아버지인 김성배의 제삿날이다. 이 날을 기해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일을 들려주고 있으므로, '제향날'은 과거와 현재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당대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짐작할 수 있겠군.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처형당하는 사건을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이 당대 현실에서 죄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영오가 외증조할아버지를 내놓아 주었는지를 묻는 것에서 당대의 관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겠군.

영오가 외증조할아버지가 풀려났는지를 묻는 것은 당대의 관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② 헛짚기 최 씨가 영오에게 해 준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의 이야기에는 현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최 씨는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에게 닥쳤던 상황을 훗날 영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 이 이야기에는 현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외증조할머니가 최 씨를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지 못하게 한 것에는 역사의 진전을 위한 신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외증조할머니가 최 씨를 나서지 못하게 한 것은 최 씨의 안전을 위해서일 뿐, 여기에 역사의 진전을 향한 신념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헛짚기 수령이 죄상에 의지하여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을 처형하겠다고 말하는 것에는 당시 관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 의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수령이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의 처형을 명한 것에는 관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47 만선

작품 분석 본문 210~213쪽

작가 천승세
갈래 장막극, 비극, 사실주의극
주제 한 어부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좌절
특징 ① 대자연과 대결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됨.
② 어민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사투리, 비속어를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킴.
단숨에 읽기 곰치가 사는 철산 바다에 부서 떼가 출현한다. 부서 떼를 잡아 빚을 갚고 자신의 배를 장만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곰치에게 임제순은 빚을 갚을 때까지 배를 묶어 버리겠다고 통보한다. 곰치는 아내의 만류에도 임제순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아들 도삼이, 딸 슬슬이의 연인 연철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바다로 나간 곰치는 풍랑에 도삼과 연철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다. 구포댁은 아들 도삼의 죽음에 실성해 버리고 슬슬이는 낙담한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곰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어부로 만들 결심을 하자, 구포댁은 아들을 빈 배에 띄워 뭍으로 보낸다.

한 줄 요약
❶ (**연철**)은 잡은 고기를 빚을 갚는 데 뺏기고, 곰치네는 이러한 사실에 절망함.
❷ (**임제순**)은 빚을 갚지 않으면 배를 묶겠다고 협박함.
❸ 곰치는 내일 (**배**)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갖지만, 곧 자신의 현실에 분노함.

43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언어유희**: ①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 ② 내용 없는 미사여구나 현학적인 말을 늘어놓는 일.

정·정·이

③ 부재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배를 묶겠다는 배 주인 임제순과 이를 말리는 곰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나, 언어유희는 쓰이지 않았다.

오·오·이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 글은 등장인물들 간의 간결한 대사를 통해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물', '부서', '배', '고기' 등의 단어를 통해 이 글의 등장인물들이 어부이고, 공간적 배경이 어촌임을 알 수 있다.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은 대사와 함께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3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소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
438번-④의 해설을 참고하여 이해한다.

(2) 부재 다양한 효과음을 사용하여 극 중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 ×)
이 글에서 효과음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서는 곰치네와 임제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극 중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투리와 비속어의 사용으로 극의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 ×)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억센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극의 사실감과 현장감이 더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44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뺏겼오!', '빚에 싹 잽혔지라우!'와 같은 연철의 대사를 통해 부서 잡은 것을 빚으로 빼앗긴 무대 밖의 사건을 알 수 있다. 또 연철이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하는 것을 통해 무대 밖에서 새로운 인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이 글에는 과거의 이야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헛짚기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관객의 극 중 참여를 유도하는 대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소품을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무대 장치의 변화 없이 조명 효과를 통해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조명 효과가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 **관망**: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 **분할**: 나누어 쪼갬.

정·정·이

⑤ 헛짚기 ⑥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태를 ~~관망~~한다.

배를 묶겠다는 임제순의 말에 연철은 성삼, 도삼과 함께 '배를 묶다니?'라고 말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오·이

①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철은 잡은 물고기를 빚으로 다 빼앗긴 무대 밖의 사건을 관객과 다른 인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연철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놀려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라고 침통하게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③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연철은 '다 뺐겼오!', '빚에 싹 잽혔지라우!', '빚은 이만 원이나 남고'라고 하며 전달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④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연철은 물고기 잡은 것을 빼앗긴 이야기를 하다가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이라고 하여 다른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44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임제순

'뭇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라는 곰치의 물음에 연철은 '빚에 싹 잽혔지라우!'라고만 할 뿐,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연철이 사립문 쪽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임제순이 등장함으로써 관객은 잡은 고기를 다 빼앗아 간 것이 임제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곰치 ② 교체 도삼 ③ 교체 성삼 ④ 교체 구포댁

곰치, 도삼, 성삼, 구포댁은 모두 연철이 부서 떼의 풍어로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물들이다.

44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횡포**: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 **너스레**: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

정·정·이

⑤ 헛짚기 구포댁은 배를 풀어 주는 시기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 사실 자체를 다행으로 여겼다.~~

구포댁은 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나 배가 풀리는 시기가 '내일'이라는 것을 알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구포댁이 배를 풀어 주는 시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성삼은 연철로부터 임제순의 횡포를 전해 듣고 그에 대해 분개했다.

성삼은 연철에게서 고기 잡은 것을 모두 뺏겼다는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일 놈!'이라고 하며 분개하고 있다.

② 곰치는 연철이 집에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

곰치는 연철이 들어오자 '을마나 올렸어?'라고 하며 기대하고 있으며, 침통하게 '놀려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라고 하는 연철의 말에 영문을 몰라 '믄 소리여?'라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다 뺏겼다고 하는 연철의 말에 '뭇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라고 하며 흥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곰치가 연철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범쇠는 임제순이 손해를 봤다며 너스레를 떠는 것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임제순은 부서 잡은 것을 다 빼앗았음에도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범쇠는 이러한 임제순의 말에 '아암!'이라고 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연철은 어찌할 수 없이 임제순의 부당한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절망했다.

연철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에 침통해하며, 고기 잡은 것을 빚에 다 잡힌 상황에 대해 절규하듯 '믄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라고 하며 절망하고 있다.

4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질책**: 꾸짖어 나무람.
- **부응**: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
- **초조**: 애가 타서 마음이 조마조마함.

정·정·이

③ 헛짚기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곰치가 연철의 팔을 붙드는 것은 연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한 행동이지,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사람이 연철에게 몰려가 연철을 에워싸는 것은 연철이 오기를 기다렸음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연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담겨 있다.

②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연철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는 것은 네 사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착잡함이 담겨 있다.

④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묶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는 임제순의 행동은 곰치를 초조하게 만들어 더욱 애걸하게 한다.

⑤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며 애걸하는 곰치를 떠미는 임제순의 행동은 배를 묶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도록 한다.

44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네 사람'에 대한 연철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

㉡은 연철이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서 나타난 행동으로, 연철이 네 사람에게 실망한 것은 아니다.

(2) ㉢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곰치의 심정이 담겨 있다. ((○), ×)

곰치는 연철의 말을 듣고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과 같이 연철의 팔을 붙들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3) ㉣과 ㉤은 곰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임제순의 태도가 행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 ×)

임제순은 배를 풀어 달라는 곰치의 말을 거절하며 몇 걸음 더 나아가 멀어지거나(㉣) 곰치를 떠미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곰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임제순의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44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E]는 부서 떼를 잡지 못하는 곰치와, 그 이유를 곰치 탓으로 돌린 구포댁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에는 부서 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포댁의 갈등이 드러나 있을 뿐, 구포댁은 이를 곰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는 고기 잡은 것을 빼앗긴 상황을 모르는 이들과 연철의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고기 잡은 것을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연철과 이를 모르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을 드러낸다.

② [B]는 연철과 성삼의 절망과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이들과 고기 잡은 것을 빼앗아 간 사람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에는 빚으로 고기 잡은 것을 빼앗긴 상황과 그것을 빼앗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 있다.

③ [C]는 빚을 갚지 않으면 배를 묶으려는 임제순과 이를 말리는 곰치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C]에는 배를 묶으려는 임제순과 애걸하며 이를 말리는 곰치와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④ [D]는 배가 없어 부서 떼를 잡을 수 없는 곰치의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D]에는 배가 묶여 부서 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곰치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44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곰치가 부서 떼를 남의 그물 속에만 처넣어 주고 있다고 불평한 것은 곰치와 다른 어부들 사이의 갈등이 곰치와 바다 간 대결의 상황적 배경임을 제시하고 있다.

곰치가 부서 떼를 남의 그물 속에다만 처넣어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다른 어부들과 달리 고기잡이를 못 나가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곰치와 다른 어부들이 갈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임제순이 강경한 태도로 배를 묶겠다고 한 것은 곰치와 임제순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제순은 강경하게 배를 묶겠다고 하고, 이로 인해 곰치의 처지는 더욱 곤궁해진다.

② 잡은 물고기를 모두 빼앗기고도 빚이 이만 원이 남은 것은 곰치와 임제순의 갈등이 빈부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곰치네는 고기 잡은 것을 모두 임제순에게 뺏기고도 빚이 이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제순이 곰치네의 배를 묶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곰치와 임제순의 갈등이 빈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준다.

③ 구포댁이 아들들만 셋이나 제사를 지냈다고 말한 것은 바다에 대한 곰치의 집념 때문에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포댁은 바다에다 목숨 붙여 먹고사는 처지라 아들을 셋이나 잃었다고 한탄하며 흐느낀다. 이를 통해 바다에 대한 곰치의 집념이 아들 셋이 바다에서 죽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곰치가 오늘 같은 날 배를 안 타고 배겨 날 것 같냐며 중선배를 못 타면 남의 똘망배라도 타겠다는 것은 바다와 대결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곰치는 '오늘 같은 날 배를 안 타고, 이 곰치가 배겨 날 것 같어?'라고 하며 바다에 대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선배를 못타면 똘망배라도 타겠다고 하며 바다와 대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8 봄날

작품 분석 본문 214~217쪽

작가 이강백
갈래 장막극
주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 및 세대교체
특징 인생사의 흐름을 자연의 흐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
단숨에 읽기 재산을 움켜쥐고 가족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 아버지의 강요로 밭일에 얽매인 차남부터 육남, 병약한 막내가 함께 살고 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장남이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않고 결국 장남과 막내를 제외한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여 돈을 훔쳐 달아난다. 이후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자식들 또한 아버지와의 화해를 원한다.

한 줄 요약

❶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젊어지는 약이라고 속이고 (**송진**)을 얼굴에 바르게 한 뒤, 재산을 빼앗아 달아남.

❷ 세월이 흐른 후, 자식들은 (**고향 집(가족)**)을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함.

❸ (**장남**), (**막내**), 동녀는 쇠약한 아버지를 돌보며 지내고 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리워함.

44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차남이 '형님에겐 미안해.'라고 한 것을 통해, 차남이 장남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차남이 장남을 원망하고 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장남이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구 다짐하세요.' 등과 같이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삼남은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라고 하며 대접을 들고 나와 아버지에게 하나는 마시고 하나는 바르도록 권하고 있다.

④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은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

라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녀'와 함께 쇠약해진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아 달아난 후에도 장남과 막내, 동녀는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다.

449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아버지'는 젊어지면 '장남'과의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

장남이 약속했던 것을 동생들에게 말하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게 뭔데?',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라고 말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버지가 장남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사건 왜곡 '삼남'은 ~~'백운사 스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젊어지는 약을 개발하였다.~~ (○, ⊗)

삼남은 아버지가 젊어지는 약이라고 믿도록 속이기 위해 백운사 스님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젊어지는 약을 만든 것은 아니다.

(3) '자식들'이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 집을 나간 것은 어느 봄날이었다. (⊙, ×)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 속 '이젠 고향에서 보낸 그 봄날이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등을 통해 자식들이 아버지의 돈을 빼앗아 집을 나간 것이 '어느 봄날'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는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후회한다. (⊙, ×)

[10장]의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이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아버지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후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정**: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정·정·이

⑤ 사건 왜곡 '차남'은 고향에서 지냈던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화해를 청했다.

차남은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아버지'는 젊음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삼남과 차남이 시키는 대로 대접에 든 것을 마시고 송진을 얼굴에 바르면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② '차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남은 아버지의 돈이 담긴 항아리를 파내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었다.

③ '아버지'는 '장남'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장남이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땅을 나눠 주신다구 다짐하세요.'와 같이 말한 것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차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며 '장남'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차남은 자신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것이 아버지가 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장남에게는 '형님에겐 미안해.'라고 하고 있다.

4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발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또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체.

정·정·이

④ 헛짚기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 있는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여 ~~ⓐ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에서 차남이 읽는 편지의 내용은 ⓐ에서 진행되는 [9장]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편지는 ⓒ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화되어 관객들이 차남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편지는 한 번도 보내지 못했으며 ⓒ의 관객은 극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편지의 내용이 ⓐ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다.

ⓐ는 고향 집을 배경으로 어느 봄과 여름에 일어난 일로, ⓑ의 등장인물들은 이와 다른 시·공간에서 ⓐ에서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② ⓑ에서의 '차남'의 발화는 ⓒ의 관객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에서 차남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었지만 마음속의 생각일 뿐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고 한 것은, ⓒ의 관객을 향해 설명하는 것이다.

③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그 봄날에 자식들은 조급했었고 아버지는 인색했었다고 한 것과 그 봄날이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 것 등에서 차남이 [9장]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⑤ ⓑ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에서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남은 ⓐ에서 아버지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여겨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452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일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

정·정·이

ㄴ. ⓐ와 ⓑ에서 '차남'은 '장남'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형님에겐 미안해.'와 '어머니 같던 큰형님' 등과 같은 말을 통해 ⓐ와 ⓑ에서 차남은 장남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고 짐작할 수 있다.

ㄹ. ⓑ에서 제시된 '편지'는 [10장]의 '아버지'에 대한 ⓒ에 있는 관객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에서 제시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편지는, [10장]에서 쇠약해진 모습으로 지난날을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연관되어 ⓒ의 관객들에게 안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9장]의 ~~모든~~ 장면은 ⓐ에서 진행된다.

[9장]에서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 장면은 '무대 전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ㄷ. 교체 ⓐ에서 진행된 '아버지'의 마지막 발화는 ~~ⓑ에 있는 자식들~~ 동녀에게 한 말이다.

ⓐ에서 진행된 아버지의 마지막 발화는 [10장]의 마지막 말로, ⓑ에 있는 자식들을 향해 한 발화가 아니라 동녀에게 한 혼잣말에 가까운 한탄이다.

45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독점**: 혼자서 모두 차지함.
- **일련**: 하나로 이어지는 것.
- **자각**: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정·정·이

③ 헛짚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 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 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고 한 것에서는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차남의 인식이 드러날 뿐, 아버지와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한 후회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오·이

①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밭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을 차지하고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으로, 이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 세대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②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어지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으로, 이러한 아버지의 욕심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일련의 갈등 과정 이후 자신이 지녔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를 표상한다.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아들 세대와의 갈등이 끝나고 기

존에 지녔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고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이라고 한 것에서 아버지가 세대교체 과정이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음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밭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①의 '도전'은 ②의 '갈등'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고,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①의 '재산 독점'과 ②의 '젊어지고자 하는 욕심'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①과 ②는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선지이므로 묶어서 한번에 적절성을 파악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요.

454 답 (1) 재산 (2) 도전 (3) 세대교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아버지'는 (젊음,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한다.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자식들을 밭에 얽매어 살게 한다.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자식들의 모습에서 재산이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재산과 젊음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순응, 도전)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재산과 젊음에 대한 아버지의 욕심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와 갈등하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게 된다.

(3) 교체 [9장]과 [10장]의 봄날에서 여름날로의 계절 변화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힘의 증명, 세대교체)을/를 의미한다.

[9장]에서 재산을 움켜쥐고 젊음을 유지하려 했던 아버지는 어느 봄날, 자식들의 도전에 무너져 재산을 잃는다. 이후 [10장]에서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 이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의 세대교체가 '봄날에서 여름날'로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았음을 의미한다.

4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9장]의 '곡괭이'는 '자식들'의 도전과 '아버지'의 후회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곡괭이'는 아버지의 돈을 담은 채 파묻힌 항아리를 파내기 위한 것으로,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자식들의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아버지의 후회와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9장]의 '송진'은 '아버지'와 '차남'의 욕망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송진'은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망과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차남의 욕망을 동시에 보여 준다.

③ [9장]의 '항아리'는 재물에 대한 '아버지'의 탐욕과 이를 지키려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항아리'는 아버지가 돈을 담아 땅속에 묻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아버지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를 지키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

④ [9장]의 '편지'는 실제로 '아버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편지'의 내용은 관객들에게만 전해질 뿐, 실제로 아버지에게 전해지지는 못하였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아버지에게 직접 전해지지 못한 것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10장]의 '부채'는 극 중 계절적 배경이 변화하였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10장]의 '부채'는 봄날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드러내 준다.

49 장마

작품 분석 본문 218~221쪽

작가 윤흥길 원작, 윤삼육 각색
갈래 시나리오
주제 전쟁 중에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그 극복
특징 ① 향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임.
② 토속적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상징적 소재를 활용함.
단숨에 읽기 6·25 전쟁 중에 장마가 계속되는 어느 날 국군인 아들(동만의 외삼촌)이 전사한 것으로 인해 외할머니가 빨치산에게 저주를 퍼붓는 바람에, 빨치산 아들(동만의 삼촌)을 둔 친할머니와 크게 싸운다. 이후 친할머니는 점쟁이가 일러 준 날에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삼촌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자 친할머니는 기절을 한다. 구렁이가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달래어 배웅하고, 이 일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화해한다.
한 줄 요약
❶ 동만 모와 (**외할머니**)는 동만의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의에 빠짐.
❷ (**동만 모**)는 동생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김.
❸ (**외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깊은 상심에 빠짐.
❹ 동만은 (**외삼촌**)의 사연을 천진하게 묻고, 이모 길자는 설명하기 곤란해함.

4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동만은 이모 길자를 통해 외삼촌의 사연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33에서 동만은 길자에게 외삼촌의 사연을 물어보며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말문을 닫고 있다.
외할머니가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들을 잃고 상심했기 때문이다.

② 상반 동만 모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동만 모는 자신을 대신해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길자의 수고를 고마워하고 있으며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진 어머니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잘 헤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헛짚기 이모 길자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일부러~~ 외출했다.
길자는 밭에 있는 형부(동만 아버지)의 점심을 챙겨 주기 위해 나간 것이다.

⑤ 상반 친할머니는 사돈댁이 겪은 참담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친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식사를 하셨는지 묻는 등 외할머니를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45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천진난만**: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꾸밈이 없이 그대로 나타날 만큼 순진하고 천진함.

정·정·이

(1) 동만은 집안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동만이 밥을 아구아구 먹는 모습이나, 넋을 놓고 있는 외할머니 눈앞에 손바닥을 대고 원을 그려 보는 모습 등에서 동만의 천진난만함이 드러난다.

(2) 사건 왜곡 이모 길자는 동만에게 길준이 전쟁통에 나가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
#33에서 동만이 외삼촌(길준)에 대해 묻지만 길자는 설명하기 곤란해한다.

(3) 헛짚기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마음에서 일부러~~ 가족들의 관심을 무시하고 있다. (○, ×)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넋을 놓고 가족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아들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외할머니는 완두콩을 다시 까기 시작하며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2에서 먼 산을 보고 있던 외할머니는 동만이 손바닥을 펴서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자, 그제야 눈길을 돌려 동만을 보고 완두콩을 다시 까기 시작한다. 이는 버릇 같은 행위로, 아들의 죽음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오·오·이

① 이모 길자는 동만의 질문에 대해 난처함을 드러내고 있다.
#33에서 길자는 외삼촌에 대한 동만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며 무어라고 설명하기 곤란해하고 있다.

②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상태를 보며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식사를 챙기며, 외할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동만 모는 비극적 상황에 슬퍼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동만 모는 길준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도 양자를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동만 아버지의 점심 식사 여부를 묻는 등 현실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⑤ 동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심상치 않은 집안의 분위기에 눈치를 살피고 있다.

동만은 집안의 비극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넋을 놓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45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근경

정·정·이

⑤ 헛짚기 ⓜ은 같은 공간에 위치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소통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군.

마당에서 동만은 상심한 외할머니와 소통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있고, 길자는 형부(동만 아버지)의 점심을 챙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마당을 소통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은 '울음소리'와 뒤섞이며,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는 동만 모의 핏빛 울음소리와 뒤섞여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은 원경으로 제시되어, 배경이 되는 공간을 확장해서 보여 주고 있군.

건지산의 자태가 멀리 있다고 했으므로 원경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만네 집에서 건지산으로 화면이 바뀌었으므로 공간이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을 소품으로 먼저 제시한 이후, 이것을 다듬는 연기를 통해 외할머니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군.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카메라의 이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가족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포착되도록 돕고 있군.

길자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동만 모와 동만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460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진한 핏빛 울음소리'는 동만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닥쳤음을 드러낸다.

동만 모는 동만의 외삼촌(길준)의 전사 소식을 듣고 진한 핏빛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ㄴ. '밥상'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이모 길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길자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동만 모, 동만, 형부의 식사를 챙기며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들길'은 동만 가족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들길'은 동만과 길자가 길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일 뿐, 가족 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46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침울한**: ① 걱정이나 근심에 잠겨서 마음이 우울한. ② 날씨나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고(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고) 음산한(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한).

정·정·이

② 헛짚기 #29의 '회색빛 웅자를 자랑하는 건지산'은 작품 속 분위기가 전환될 것을 암시하고 있군.

'회색빛' 건지산은 적막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작품 속 분위기가 전환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28에서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은 극의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장맛비에 휩싸인 집의 모습은 암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29 건지산 전경에서 #30 동만네 마당으로 배경이 되는 공간을 근경으로 이동하며 관객이 인물들의 행동과 말에 집중하게 하고 있군.

#29에서 건지산을 원경으로 보여 주었다가 #30에서 동만네 마당의 근경으로 배경을 전환하여 관객들이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30~#31에서 등장하는 '밥상'은 부엌에서 마당으로, 다시 부엌에서 마당을 지나 안채 건넌방으로의 공간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길자가 밥상을 들고 이동함으로써 부엌 → 마당 → 부엌 → 마당 → 안채 건넌방으로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⑤ #33의 '보슬비 뿌리는 들길'은 침울한 분위기를 이어 가서 이모 길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군.

'보슬비'가 내리는 들길의 배경은 침울한 분위기를 이어 가 길자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4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31에서 #32로 바뀔 때, 이모 길자의 ~~정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매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1에서 #32로 바뀔 때 길자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는 긴장을, 한고비 숨을 돌려 뿌리는 보슬비는 이완을 나타내고 있다.

② #28에서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28은 F. O.로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끝나고, #29는 F. I.로 화면이 점차 밝아지면서 시작하고 있다.

③ #30 말미에서 앉아 있는 외할머니와 #31에서 누워 있는 동만 모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할머니는 일손을 멈추고 넋을 놓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고, 동만 모는 머리를 질끈 동이고 자리에 누운 모습으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30과 #31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여, 외할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동만 모가 있는 공간으로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한다.

#30에서 길자가 외할머니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것이, #31에서는 길자가 동만 모에게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로 이어지면서 장면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46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29의 보슬비는 #33까지 이어져 장면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 ×)

#29에서 내리던 보슬비는 #33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 #30과 #31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와 가족들에게 전해 주는 이모 길자의 행동을 통해 장면이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 (○, ×)

#30에서 친할머니에게 밥상을 건네는 길자의 모습은 #31에서 동만 모에게 밥상을 건네는 모습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다.

(3) 헛짚기 #30과 #32는 ~~외할머니의 태도가 변한다~~는 특성을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 (○, ×)

#30과 #32에서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태도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46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31에서 동만의 대사는 ~~조심스러운 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연기해야겠군.

#31에서 동만은 집안의 비극적인 사건과는 관련 없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만이 조심스러운 심리를 드러내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28에서 동만 모의 울음소리는 작품의 슬픈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군.

#28의 동만 모의 울음소리는 동만네 집에 비통한 일이 생겼음을 드러내며 작품의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28에서 #29로 넘어갈 때는 장면의 현실감을 위하여 빗소리를 점점 줄여야 하겠군.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가 보슬비로 바뀌고 있으므로 현실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빗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적절하다.

③ #31에서 동만 모의 대사는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군.

#31에서 동만 모가 '느이 오라비 불쌍한 길준이…… 전쟁터에서 죽다니…….'라고 한 것을 통해 길준의 죽음으로 인해 동만네 가족들이 상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3에서 동만의 대사는 작품 속 상황을 동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군.

#33에서는 동만이 아는 만큼의 정보만 제시되어 동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50 불꽃

작품 분석 본문 222~225쪽

작가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갈래 시나리오
주제 역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삶의 추구
특징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심리를 드러냄.
② 동굴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
단숨에 읽기 현은 인민재판 중에 난동을 부린 후, 동굴로 피신해 있으며 지난 삶을 회상한다. 3·1 운동 때 아버지는 일본군의 총격으로 죽고, 할아버지는 풍수지리를 믿고 안일하게 살아가며 현에게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 태평양 전쟁에 학병으로 끌려간 현은 중국 전장으로 파병되었다가 탈영하고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가 된다. 6·25 전쟁이 터지자 어릴 적 친구 연호가 공산당원이 되어 돌아온다. 연호가 동료 조 선생의 부친을 인민재판으로 처형시키자 현은 분노하여 연호의 총을 빼앗아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한다.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고서 투항을 종용하지만 할아버지는 현에게 살아야 한다며 용기를 준다. 결국 연호가 할아버지를 사살하고, 현도 연호를 총으로 쏜다. 현은 연호의 총탄을 맞고 흐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한 줄 요약
❶ 현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던 과거를 회상하다가 현실로 돌아옴.
❷ 상처를 입고 (**동굴**)로 피신한 현은 다까라 교수의 강의를 회상하고 반문함.

46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동굴에 피신해 있는 현의 내면 의식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극이 진행되고 있다.

오·오·이

② 상반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 기차의 발차 신호, 포성 등의 효과음은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헛짚기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극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④ 헛짚기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헛짚기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동굴과 강의실 등으로 공간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날 뿐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466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독백**: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정·이

ㄱ.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S#53과 S#54, S#56, S#58은 과거이고 S#55, S#57, S#59는 현재이다.

ㄴ. 등장인물의 내면 의식을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죽는 걸까? ~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와 같이 현의 내면 의식을 독백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음향**: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

정·정·이

⑤ 부재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물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에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음향을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포성 등의 음향을 통해 현의 불안한 상황을 드러내며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교차하며 인물의 성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동굴의 장면과 과거 강의실의 장면을 교차하며 현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대사를 통해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다까라 교수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에 반문하는 현의 대사를 통해 다까라 교수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는 현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검붉은 핏자국', '예광탄'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이 처한 상황의 긴박함을 알 수 있다.

46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은 ~~자신을 구해 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광탄에 놀란 현이 주위를 경계하며 동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예광탄이 자신을 구해 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은 '현'에 대한 '고 영감'의 기대를 보여 주고 있다.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야 혀.',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야 혀. 부디 성공을 해라.'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다.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하는 현.'을 통해 알 수 있다.

46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판검사'는 '고 영감'이 '현'에게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

고 영감은 현이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2) 헛짚기 '뽀얀 물보라'는 ~~'현'의 의식을 깨워 희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

뽀얀 물보라는 동굴 입구에서 보이는 계곡의 모습일 뿐, 현의 의식을 깨워 희망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다.

(3) '포성'은 '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

예광탄을 보고 긴장한 현은 포성에 흠칫 귀를 기울이며 계속되는 소리에 더욱 집중한다. 이로 보아 포성은 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다.

47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현'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현은 부상을 입고 동굴로 피신한 상황에서 '일본 제대 강의실'에서 듣던 수업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까라 교수의 말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는 현이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청각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읍내 플랫폼'은 '기적 소리'와 '발차 신호'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현과 가족이 이별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 '고 노인'이 '현'에게 거는 기대와 '현'에 대한 '고 노인'의 애정을 드러낸다.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은 현의 유학을 위해 마련한 돈으로, 현이 판검사가 되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공간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과거 사건 속 기차는 '터널'로 들어가면서 현재 현이 있는 공간인 '동굴'로 연결되고 있다.

④ ㉣: '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메마른 입술'은 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4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반문: ①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물음. 또는 그 물음. ②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함.

정·정·이

④ 사건 왜곡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S#57에서는 현이 괴로워하는 모습만 드러날 뿐, 현의 신음 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S#54의 터널과 S#55의 동굴은 어둠이라는 공간적 상황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S#55에서 동굴 속 메아리치는 현의 목소리와 S#55~S#56에서 환청으로 메아리 되어 울리는 교수의 목소리는 소리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S#56은 강의실의 한 장면으로, 교수의 강의에 현이 '장엄한 선언?'이라며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S#57에서 현이 '그래서?'라며 강의 내용에 반문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S#58의 '그들은 ~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교수의 말에 대해 S#59에서 현이 '달게?'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472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S#53과 S#54는 ~~기적 소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속성을 벗어난~~ 두 장면을 연결하고 있다. (○, ⊗)

S#54에는 기적 소리가 나타나지 않으며, S#53과 S#54는 연속성을 벗어난 장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헛짚기 S#55와 S#56은 ~~'빗물'이라는 소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속성을 암시하고 있다. (○, ⊗)

S#56에는 빗물과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4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현'이 ~~일본 유학 시절 느낀 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의 역사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인상은 원작에 드러나 있으며, 이 글에는 현이 일본 유학 시절에 느낀 인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다카다(다까라) 교수'의 강의를 '현'의 내면 속 환청으로 제시하여 '현'의 고뇌를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원작에서의 다카다(다까라) 교수의 강의를 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의 환청으로 제시하여 현의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일본으로 떠나며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을 추가하여 '현'의 가족들의 태도와 심리를 드러낸다.

현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원작에서는 '다음 해 봄에 현은 낡은 트렁크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이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인 S#53을 추가하여 현을 보내는 고 영감과 현 모, 영순의 태도와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현'이 일본으로 떠나는 과정에 동굴이라는 공간을 연결하여 원작의 과거 사건을 현재 사건과 연결시킨다.

이 글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기차 안 장면을 동굴로 연결시킨 장면을 제시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있다.

⑤ '현'이 총상을 입고 동굴 속에 피신해 있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하여 일본에서의 사건이 현재 '현'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현이 동굴에 피신해 있는 장면을 삽입하고 다카다(다까라) 교수의 강의 내용을 연결시킴으로써 과거의 사건이 현재 현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51 가 토지 나 토지

작품 분석 본문 226~229쪽

가 토지

작가 박경리
갈래 장편(대하) 소설, 가족사 소설
주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과 강인함
특징 ① 한 집안의 몰락과 재기를 통해 민족사의 흐름을 전개함.
② 다양한 등장인물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냄.
③ 풍부한 토속어, 관용어 등을 활용함.
단숨에 읽기 구한말, 하동 평사리의 지주인 서희의 아버지 최치수가 살해되고 전염병으로 서희의 할머니인 윤씨 부인 등이 죽자 조준구는 최참판 댁을 차지하고 세력을 휘두른다. 조준구에게 집안의 재산을 빼앗긴 서희는 간도로 가서 재물을 모으는 데 성공한다. 이후 서희의 남편 길상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서희는 귀향길에 오른다. 귀향 후 서희는 조준구에게 빼앗겼던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찾지만 무력감에 시달리고 길상은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된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희의 두 아들인 환국와 윤국은 자신들의 풍족한 현실과 일제로부터 고통받는 조선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길상은 출옥하여 암자에서 머물다가 사상범으로 재투옥된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서희는 조선의 광복이 멀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을 데리고 길상이 있는 서울로 갈 결심을 한다.
한 줄 요약
❶ 현재 – 치수는 (**윤씨 부인**)을 문안하고 두 사람은 거리감을 느낌.
❷ (**과거**) – 치수의 어린 시절, 절에 다녀온 윤씨 부인은 치수를 멀리함.

나 토지

작가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갈래 시나리오
한 줄 요약
❶ 현재 – 치수는 (**병색**)이 완연한 윤 씨를 문안함.
❷ 과거 – (**어린 치수**)는 윤 씨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윤 씨는 치수를 냉랭하게 대함.

47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등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치수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 글에 인물의 과장된 행동으로 비극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7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와 (나)는 모두 인물들의 관계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삽입하고 있다. (○, ×)
어린 치수의 이야기를 제시하여 윤씨 부인과 치수가 현재 서먹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2) 부재 (가)는 작품 ~~내부~~(외부)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들을 ~~관찰~~ 하고 있다. (○, ×)
(가)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3) (나)는 원래의 화면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점차 사라지는 기법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
(나)에서는 O.L. 기법을 사용하여 S#58에서 S#59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4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는 현재 윤씨 부인과 치수의 관계가 먼저 제시되고, 어린 치수의 이야기가 나중에 제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으며,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
(가)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헛짚기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가)에 윤씨 부인과 치수의 대화는 나타나지만, 사회 현실의 문제를 비판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인물의 외양을 과거와 대조하며 인물의 성격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라는 윤씨 부인의 외양 묘사를 통해 과거에 비해 많이 늙은 모습을 표현하고는 있다. 그러나 치수는 윤씨 부인에 대해 '여전하시다'라고 했으므로 외양을 과거와 대조하여 성격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7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재회: 다시 만남. 또는 두 번째로 만남.

정·정·이

② 교체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윤씨 부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것은 치수가 아니라, 윤씨 부인이다.

오·오·이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뻗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윤씨 부인의 쇠약하고 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씨 부인과 치수의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치수가 윤씨 부인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자애스럽던 어머니가 절에서 돌아온 후 치수를 멀리하며 차갑게 대하자, 어린 치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윤씨 부인에 대한 치수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뻗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①과 ⑤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더라도 선지 서술의 인과성만으로도 적절한 설명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①에서 '검은 점'은 검버섯(주로 노인의 살갗에 생기는 거무스름한 얼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씨 부인이 나이가 들어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⑤에서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서로 굉장히 데면데면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47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건 왜곡 치수는 윤 씨의 흐트러진 모습에 걱정하고 있다. (○, ⊗)
윤씨 부인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단정한 머리 모양과 옷매무새를 하고 있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 가는 것을 느낀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치수가 윤씨 부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치수는 재산 관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
치수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속방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일에 의식적으로 무관하려 한다.

47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마에서 내린 윤씨 부인은 어린 치수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까닭 모를 행동을 하였다.
어린 치수는 오랜 시일 만에 돌아온 어머니가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았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고 불꽃이 튀는 듯 험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치수는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일을 ~~윤씨 부인의 요구~~로 그만두었다.

서울 가서 병을 얻어 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이 생략되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회피였지 어머니의 요구는 아니었다.

② 헛짚기 윤씨 부인은 치수의 안부 인사에 ~~반가워하며 친근하게 그를 맞이하였다.~~

윤씨 부인과 치수는 서로 눈길을 피하고 있으므로, 윤씨 부인이 치수를 반가워하며 친근하게 맞이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교체 어린 치수의 신경질적이고 잔인한 성격 때문에 윤씨 부인은 치수를 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린 치수를 멀리하자, 치수의 소년 시절은 어둡고 고독해졌고, 그로 인해 신경질적이고 잔인한 성격이 된 것이다.

④ 헛짚기 치수는 윤씨 부인이 늙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지와 힘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치수는 어머니가 늙었지만 여전히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고 보았다.

4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다급한**: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한.
- **어투**: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새.

정·정·이

④ 사건 왜곡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 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지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원작에서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라고 했으므로 시선은 방바닥을 향해야 한다.

오·오·이

① ⓐ: 시나리오에는 차렵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맷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원작에서 '차렵이불의 갈맷빛'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원작에서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 윤 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원작에서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원작에서 '마음이 급하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8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윤 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한발 뒤로 물러서며 이리저리 뒤돌아볼 것.

원작에서 윤씨 부인이 치수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았다고 하였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윤씨 부인이 일어나 앉는 것을 ~~도운 후~~ 윤 씨 맞은편에 앉을 것.

원작이나 시나리오 모두에 치수가 윤씨 부인이 일어나 앉는 것을 돕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헛짚기 ⓔ: 어린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에 따라 냉랭한 윤 씨의 반응에 놀라 ~~주눅이 든 듯이~~ 연기할 것.

원작에 따르면 ⓔ는 가마를 타고 돌아온 어머니를 반기는 모습이므로 냉랭한 반응에 놀라 주눅이 든 듯이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8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치수는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리부동'이 치수의 태도에 해당한다.

오·오·이

① 교체 ~~중언부언(重言復言)~~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하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교체 ~~후안무치(厚顏無恥)~~

'후안무치'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③ 교체 두문불출(杜門不出)

'두문불출'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④ 교체 부화뇌동(附和雷同)

'부화뇌동'은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의미하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48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치수는 윤씨 부인에게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가 치수의 태도를 드러내는 속담으로 적절하다.

오·오·이

② 교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③ 교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이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④ 교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교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므로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48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학수고대(鶴首苦待)

S#59에서 치수는 기다리던 어머니가 오시자 매우 반가워하며 뛰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는 한자 성어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의미하는 '학수고대'이다.

오·오·이

① 교체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무원'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S#59의 치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교체 안하무인(眼下無人)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S#59의 치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교체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S#59의 치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교체 호가호위(狐假虎威)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의미하므로 S#59의 치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52 가 갯마을 나 갯마을

작품 분석 본문 230~233쪽

가 갯마을

작가 오영수
갈래 단편 소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
특징 ① 짧고 간결한 문체로 서술됨.
② 문명과 떨어진 갯마을이라는 원시적 공간을 배경으로 함.
③ 갯마을 사람들의 건강한 생명력과 삶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음.

단숨에 읽기 조그만 갯마을에 사는 해순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갯냄새를 맡으며 성장하였다. 해순은 19세 되던 해에 성구와 결혼을 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간다. 성구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자, 해순은 바다로 나가 시어머니와 시동생 성칠을 부양하며 함께 산다. 그러던 중 해순은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온 상수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 성칠은 이런 소문을 듣고 상수에게 해순과 떠나라고 하고는 어머니에게 해순의 개가를 청한다. 해순은 상수와 산골로 가서 살지만 상수마저 죽자, 갯마을로 돌아와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한 줄 요약
❶ 폭풍우가 몰아쳐 마을이 (**난장판**)이 됨.
❷ (**아낙네들**)은 고등어 배가 돌아오리란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바다로 나감.

나 갯마을

작가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갈래 시나리오
특징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원작이 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요약
❶ 마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선원들**)은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힘겹게 싸움.
❷ (**폭풍우**)가 끝난 뒤 잔잔해진 아침 바다

48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의감**: 의심이 드는 느낌.
- **행선지**: 떠나가는 목적지.

정·정·이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다.
두 노인은 구름이 해를 덮고, 바람이 그치고, 너울이 점점 커지고, 갯냄새가 코를 찌르는 등의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에 따라 폭풍우가 올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고 하였다.

③ 부재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저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두 노인이 폭풍우가 오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사건 왜곡 '두 노인'은 예측이 ~~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두 노인이 번의 징조를 통해 예측한 대로 폭풍우로 마을이 난장판이 되었다.

⑤ 상반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등을 통해 두 노인이 고깃배의 행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윤 노인'과 '박 노인'은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 ×)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함을 느끼고 박 노인을 찾아갔고, 두 노인은 구름과 파도를 살피며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다.

(2) 사건 왜곡 '윤 노인'과 '박 노인'은 비바람이 몰아치기를 ~~기다려 왔다~~. (○, ×)
윤 노인과 박 노인은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아 마을과 고기잡이를 떠난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비바람이 몰아치기를 기다려 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 사건 왜곡 '윤 노인'과 ~~달리~~ '박 노인'은 고깃배의 행선지를 ~~알지 못한 데~~. (○, ×)
박 노인은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박 노인이 고깃배의 행선지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4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 **의무감**: 의무(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를 느끼는 마음.

정·정·이

④ S#25에서 성황당에 모인 아낙들은 '해순', '순임'과 같은 심정으로 서낭님에게 기원한다.

파도가 밀려오는 축항의 모습이나 S#24에서 비바람에 맞서는 선원들의 긴박한 모습을 통해 해순과 순임, 그리고 아낙들이 고깃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빌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S#14에서 '박 노인'은 '윤 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S#14에서 두 노인은 모두 곧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므로, 박 노인이 윤 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S#22에서 해순이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고깃배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③ 사건 왜곡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S#22에서 순임은 성황당에 올라와 해순과 같이 절을 한다.

⑤ 헛짚기 S#27에서 '윤 노인'의 행위의 결과는 S#29에서 나타난다.

S#27에서 윤 노인은 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다 파도에 휩쓸려 간다. S#29에서는 폭풍우가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 줄 뿐,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오 지름길

②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③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④ S#25에서 성황당에 모인 아낙들은 '해순', '순임'과 같은 심정으로 서낭님에게 기원한다.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했음을 알 수 있는 ③, ④와 달리, ②에서는 '해순'이 당목을 지키려 성황당에 올랐다는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동떨어진 내용을 언급한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4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어수선한**: 사물이 얽히고 뒤섞여 가지런하지 아니하고 마구 헝클어져 있는.

정·정·이

② 헛짚기 S#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S#18은 몽타주 기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상황들은 모두 폭풍우가 몰려와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오·이

①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S#18에서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폭풍우가 몰려와 어수선해진 마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비바람으로 인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폭풍우와 싸우는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선미의 키를 잡는 행위와 이를 악무는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림에 넘어지고' 등과 같이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의 성구의 절박한 상황과 ④의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은 모두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③과 ④를 통해 ⑤는 당연히 적절한 설명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489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폭풍우가 몰려오는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깜깜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등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와 '흰 이빨로 뭍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ㄷ. (나)에서는 O.L. 기법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O.L. 기법을 통해 S#28의 거센 비바람이 치는 밤 장면에서 S#29의 고요해진 아침 바다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

오·오·이

ㄴ. 상반 (가)에서는 작품 ~~안~~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의 행동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49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인물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윤 노인 며느리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비바람이 몰아쳤던 밤의 윤 노인의 행동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A]가 며느리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맞지만, 서술의 주체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이고, 서술자의 내면이 아니라 윤 노인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 헛짚기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대한 회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부재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인물의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부재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의 변화와 서술자를 달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력**: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
- **구현**: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정·정·이

④ 헛짚기 ⓓ를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S#28에서 당목 가지가 꺾이는 장면은 ⓓ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폭풍우로 인해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상황은 (가)와 (나)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를 대화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노인과 박 노인이 만나 ⓐ처럼 생각한 상황을 대사로 각색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를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 노목, 바위, 축항을 통해 갯마을과 바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가)에서 ⓑ로 묘사된 상황을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각색한 것이다.

③ ⓒ에서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는 S#22에서 해순과 순임이, S#25에서 해순, 순임, 몇몇 아낙이 모인 장면으로 나누어 구현되고 있다.

⑤ ⓔ에 나타난,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바람이 치는 밤인 S#28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인 S#29를 O.L. 기법으로 연결하고 있다.

49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S#15~S#17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모습과 거센 파도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

노목이 바람에 몹시 흔들리는 모습과 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축항을 뒤덮을 듯한 모습을 통해 비바람이 몰아치며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S#28에서 거센 비바람에 당목 가지가 꺾이는 것은 폭풍우로 인해 마을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폭풍우로 인해 난장판이 된 마을의 모습을 가지가 꺾인 당목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상반 S#28과 S#29는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해소되고 있음을 O.L.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

S#29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잔잔해진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9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바다는 시련의 공간이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얻는다는 점에서 극복의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는 고등어 배를 집어삼키고 갯마을 사람들에게 시련을 안기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얻는다는 점에서 극복의 의미도 지닌다.

오·오·이

① 헛짚기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해순은 시련이 연속되자 결국 ~~좌절~~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해순의 모습은 좌절이 아니라 시련에도 불구하고 다시 꿋꿋하게 삶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인물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헛짚기 결국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삶의 터전에 대한 인물들의 거부와 탈출~~을 의미하는 것 같아.

고등어 배는 폭풍우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지 고등어 배를 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삶을 거부하고 탈출한 것이 아니며, 이는 〈보기〉의 작품 해석과도 어긋나는 감상이다.

③ 헛짚기 후리막 주인은 신문을 가지고 오는 행위로써 삶을 지켜 나가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 버렸어.~~

신문은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있을 뿐,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 상황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

대부분이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났다는 것에서 공간적 배경이 어촌 마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다.

53 가 천변풍경 나 오발탄

작품 분석 본문 234~237쪽

가 천변풍경

작가 박태원

갈래 장편 소설, 세태 소설

주제 1930년대 서울 서민층의 삶의 모습과 애환

특징 ① 카메라 아이 기법을 활용하여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② 여러 인물의 삶을 삽화식 구성으로 보여 줌.

단숨에 읽기 아낙네들은 청계천 빨래터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발소 소년 재봉은 청계천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한다. 이발소 손님으로 온 민 주사는 이발사의 모습과 늙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늙어 가는 자신을 한탄하다 그래도 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창수는 한약국에서 심부름꾼 일을 시작하였으나, 점차 영악해지며 세속적인 인물로 변해 간다. 만돌 어멈네 식구들은 한약방에서 함께 더부살이를 하며 지낸다. 이쁜이는 천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점룡이는 짝사랑하는 이쁜이를 바라보기만 한다. 이후 고된 시집살이로 고생하던 이쁜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세타령을 한다. 몰락한 신전 집은 소문도 없이 강화도로 이사하고 만돌 어멈도 한약국에서 쫓겨난 뒤 종적을 감춘다. 민 주사는 경성 부회 의원 선거에 패배하고 우울해한다.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겪은 금순은 취직을 시켜 준다는 금광 브로커에게 속아서 서울로 올라온다. 브로커의 행방불명으로 속을 태우던 금순에게 기미코가 찾아오고 금순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하나코는 약사 남편을 만나 양반댁 맏며느리가 되지만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전처의 자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서울을 떠났던 창수는 다시 상경하여 구락부에 취직하고 이쁜이는 남편에게 쫓겨나 어머니에게 돌아온다.

한 줄 요약

❶ 이쁜이 어머니는 (**이쁜이**)를 시집보내며 슬퍼함.

❷ (**신전**) 집 가족들이 강화로 낙향함.

나 오발탄

작가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갈래 시나리오

주제 전후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비판

특징 ① 원작 소설의 느낌을 살리면서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함.
② 주인공 철호의 인간상과 허무 의식 표출에 중점을 둠.

단숨에 읽기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의 서기로 일하며 박봉으로 살아간다. 그는 해방촌 판잣집에서 어머니, 만삭의 아내, 동생 영호, 여동생 명숙, 막냇동생 민호, 딸 혜옥과 함께 살며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과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철호는 제대 이후 2년이 넘도록 방황하며 속물적인 삶을 추구하는 영호와 말다툼을 한다. 철호는 영호와 달리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아픈 이를 치료하러 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영호는 은행 강도짓을 하다 체포되고 아내는 출산 중 죽게 되자, 철호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철호는 갈 곳을 모르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치과에 들러 아픈 이를 뽑아 버리고, 과도한 출혈로 의식을 잃어 간다.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탄 철호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몽롱한 의식 상태 속에서 어머니처럼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다는 운전수의 말을 들으며 그는 스스로를 갈 곳을 잃은 '조물주의 오발탄'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 줄 요약

❶ 철호는 아내의 과거 모습을 (**회상**)함.

❷ 철호는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영호는 집으로 돌아옴.

❸ 철호와 영호가 갈등하고 이를 (**명숙**)이 엿듣고 있음.

49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다면화**: 여러 방면에 걸치는 특성을 갖게 함.

정·정·이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는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 눈물이 뺨을 흐른다.'에서 딸과의 이별을 힘들어하는 이쁜이 어머니의 심리를,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낙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신전 집 가족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행위와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던지는 행위를 통해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철호와 영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나)에는 철호와 영호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지만, (가)에는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헛짚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가)에는 과거 회상 장면이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는 #69에 회상 장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나)에는 철호와 영호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49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에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가)에는 골목에서 이별하고 있는 이쁜이 가족의 모습, 개천 건너의 신전 집이 낙향하는 모습과 그것을 포착한 이발소 소년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즉 천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ㄴ. (나)에는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인물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 철호는 가난하더라도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반면 영호는 가난을 견디며 지긋지긋하게 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오·이

ㄷ. 부재 (가)와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현학적 표현으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ㄹ. 부재 (가)와 (나) 모두 ~~반어적~~ 상황을 통해 인물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상황을 통해 인물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부각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49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재차**: 거듭하여 다시.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정·정·이

① 상반 독자의 ~~망각~~(기억)을 전제로 정보를 재차 제공하고 있다.

'독자는, ~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로 보아, 서술자는 독자가 앞서 제시된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정보가 제공되었던 장면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한 달도 전에 점룡이 어머니를 통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는 정보가 전해졌던 빨래터의 장면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③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전 집이 가는 곳이 경기 강화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④ '독자'라는 말을 언급하여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는 ~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며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다.

⑤ 독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통해 이미 예견된 일임을 알려 주고 있다.

신전 집이 낙향한다는 정보가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신전 집의 낙향이 예견된 일임을 알려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물로, 신전 집 가족들의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여 이발소 안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오·오·이

② 헛짚기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이발소 소년은 신전 집 가족들이 낙향하는 모습을 관찰했을 뿐, 그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전위를 논평한다.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이웃들에게 전할 뿐, 사실 여부를 따져 보고 있지는 않다.

④ 교체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이발소 안 사람들

이발소 소년은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들, 즉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

⑤ 헛짚기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이발소 소년은 천변 주민들의 일을 관찰할 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끼어들어 양쪽을 화해시키고 있지는 않다.

49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능하여**: 어떤 일 따위에 뛰어나.

정·정·이

(1) 헛짚기 '이발소 소년'은 정보 수집에 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 ⊗)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에 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헛짚기 '이쁜이 어머니'는 딸의 혼인이라는 경사를 치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이쁜이의 어머니는 딸을 배웅하며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서 있다가 눈물을 흘리고 극도의 피로와 마음속의 공허를 느낀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쁜이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딸의 혼인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상반 '신전 집'의 이사는 동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 ⊗)
예상한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였으므로, 신전 집의 이사를 동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9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산스럽게**: 보기에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한 데가 있게.
- **자청**: 어떤 일에 나서기를 스스로 청함.

정·정·이

④ (나)의 '철호'는 가난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하는 영호에게 철호가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단 말이다.'라고 한 것이나, 영호가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이라고 한 것 등을 통해, 철호는 가난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가)의 '신전 집 가족'은 이웃들의 이목을 끌며 부산스럽게 동리를 떠났다.
주의를 끌지 않고 조용히

신전 집의 온 가족은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② 헛짚기 (가)의 '이발소 소년'은 이웃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상담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가)에 이발소 소년이 이웃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주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가)의 '이쁜이 어머니'는 자신에게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이쁜이 어머니는 딸과의 이별에 슬퍼하고 있을 뿐, 이웃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모습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헛짚기 (나)의 '영호'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를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호는 자신의 처지에 답답함을 느끼며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철호와 갈등하고 있다.

50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는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슬픔이 드러나 있을 뿐,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명숙이 이를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는 골목이 짧게 느껴진다고 하여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 자동차가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해방촌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딤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는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아픔을 '눈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나)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견디고 있는 철호의 모습을 '어금니'로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다 낙향하는 신전 집 가족들의 모습이나, (나)의 가난 때문에 만삭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아내의 모습은 가족의 불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되어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동리에서 사라지는 신전 집 가족의 모습과, (나)에서 취직을 거부하는 영호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501 답 (1) 취직 (2) 골목 (3) 시시한 동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신전 집의 낙향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를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신전 집이 가운이 기울어 동리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에서는 영호가 잘살기 위해서는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도 할 수 있다며 취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교체 (가)에서는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아쉬움을 보여 주는 배경으로 기능하는 (골목)이/가, (나)에서는 동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 주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에서 골목은 이쁜이 어머니가 딸과 이별하고 있는 장소로, 이쁜이 어머니의 아쉬움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 골목길은 동네의 환경이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3) 교체 (가)에서 신전 집 가족들을 '도회에서의 패잔자'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이, (나)에서 영호가 가족들이 사는 동네를 (시시한 동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현실에 대한 영호의 인식이 드러난다.

(가)에서 신전 집 가족들을 '도회에서의 패잔자'라고 한 것에서는 신전 집 가족들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서 영호가 가족들이 사는 동네를 '시시한 동네'라고 한 것에서는 가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영호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50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70에서 침묵하고 있는 철호와 #71에서 운전수와 대화를 나누는 영호의 모습을 연관 지어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71의 장면으로 보아, 영호는 오히려 거침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69에서 철호가 목소리로 등장하여 피난민 수용소에서의 지난 일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여 주어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69에서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69의 장면에서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는 '철호Ⓚ'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창 시절의 아내와 결혼 피로연장의 아내의 모습을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노래를 매개로 O.L. 기법을 활용하여 전환하고 있다.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70에서는 가난한 처지의 철호와 화려한 모습의 거리가 대비되면서 암울한 상황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와 ⑤는 모두 #70의 침묵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요. 두 선지를 통해 #70의 침묵의 주체가 철호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침묵을 영호와 연관시킨 ⑤의 서술이 어색하다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50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68과 #71은 서로 ~~상반된~~ 분위기의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인물의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준다. (○, ⊗)

#68의 산비탈 길과 #71의 해방촌의 골목길은 모두 인물의 불우한 처지를 보여 준다.

(2) #69에서는 담요 바지와 여학교 교복이라는 상반된 장치를 통해 아내의 모습을 O.L.시키고 있다. (⊙, ×)

#69에서 담요 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O.L.되고 있다. 이때 담요 바지와 여학교 교복은 아내의 처지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 주는 상반된 장치에 해당한다.

(3) #69의 학창 시절 아내의 모습과 #72의 아내의 모습을 대비하여 현재 철호네 식구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69의 여학교 시절의 아내의 모습과 #72의 현재 아내의 모습을 대비하여 만삭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철호네 식구의 가난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5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도구**: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서, 무대 장치나 분장에 쓰는 작은 도구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중첩**: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

정·정·이

③ 헛짚기 철호의 ~~이중적 성격~~이 소도구를 통해 나타난다.

#69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와는 달리 고생하는 부인을 보고 철호가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철호의 이중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세 화면이 연속으로 중첩되어 상황의 변화를 보여 준다.

#69에서는 현재의 아내 모습, 학창 시절의 아내 모습, 결혼식 당시의 아내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아내가 과거와 달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철호 아내의 좌절된 꿈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가곡을 부르던 학창 시절과 결혼 당시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과 현재 널빤지 조각을 모으는 아내의 모습의 대비를 통해 아내의 좌절된 꿈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④ 담요 바지와 교복이 대조적 이미지를 만든다.

현재의 가난함을 상징하는 담요 바지와 학창 시절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교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⑤ 인물의 내적 갈등 요인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와 달리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고 생각하는 철호를 통해 그가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Memo

Memo

Memo